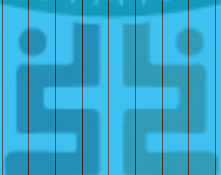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52호 2016. 6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채미하 |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의(國家祭儀) -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7

이천우 | 「집안고구려비」의 수묘인 ‘차착(差錯)’ 문제를 통해 본 건립 시기 검토 43

최진열 | 후연(後燕)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적·경제적 자멸(自滅)
-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후연 공략의 대외적 배경 75

이재성 | 아프리카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鳥羽冠使節)’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 과정 및 시기에 대한 고찰 129

정재윤 |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도왜인(渡倭人) 189

유미림 |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 231

박정민 |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
- ‘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287

황영원 |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과 교민 관리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327

황병주 |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355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13

Contents

Articles

Chai Miha ▣ Sinmo and State Religious Ceremonies in Ancient Korea:
Focused on Yuhwa and Seondosan Sinmo 7

Lee Chounwoo ▣ The Construction Date Observed through the Tombkeeper's
“Trial and Error” in the Jian Goguryeo Stele 43

Choi Jinyeoul ▣ Gwanggaeto the Great's Conquest of or Attack on Yodong
(Liaodong) and Yoseo(Liaoxi) and Its Background: The Weakness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s in the Yongseong(Longcheng) Period
in Huyeon(Hou Yan) 75

Yi Jaesung ▣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鳥羽
冠使節)” Image on the Wall Painting of the Afrasiab Palace Site in
Samarkand: The Visit to Samarkand(康國), the Cause, the Process, and
the Times 129

Chung Jaeyun ▣ Baekje Immigrants to Wa in Kawachi Province 189

Yoo Mirim ▣ A Study on the Contents and Their Genealogy of “Ulleungdo ·
Usando” in Korean Documents 231

Park Jungmin ▣ A Reexamination of Odoli Castle, the Birthplace of the Qing
Dynasty 287

Huang Yongyuan ▣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s Consulates in Joseon
and Its Affairs Related to Overseas Manchurian People 327

Hwang Byoungjoo ▣ The Inflow and Diffusion of Humanism in the Cold War
Period 355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의(國家祭儀)

-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

채미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건국신화는 초현실적·초자연적인 내용을 전함과 동시에 국가의 창업이라는 역사적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고대 건국신화 역시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있다. 이러한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다.¹⁾ 이중 신모(神母)²⁾는 건국 영웅을 낳고 그들을 기르며 새로운 국가를

※ 투고: 2016년 2월 11일, 심사 완료: 2016년 4월 20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 1) 한국 고대 건국신화, 특히 신모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강영경, 2012, 「단군신화에 나타난 웅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채미하, 2006,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채미하,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나희라, 2009, 「대가야의 신화와 의례」, 『대가야의 정신세계』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건국신화의 시조모 내지는 시조비는 地母·聖母·神母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중 지모는 천신과 대응되는 地神을 말한다. 성모는 신의 배우자 혹은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자체 신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조의 어머니와 시조의 비를 신모라고 하였다.

건설 내지는 건설하기 위해 떠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조의 조력자로 나온다. 이와 같은 신모로는 고조선의 웅녀와 고구려의 유화, 백제의 소서노, 신라의 선도산 신모³⁾와 알영, 금관가야의 허왕후, 대가야의 정견모주가 있다. 그리고 이들 신모는 죽은 후 국가제의를 대상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신모에 대한 이해는 한국 고대 건국신화를 분석하면서 다루어져 왔고⁴⁾ 국가제의를 통해서도 살펴졌다.⁵⁾ 하지만 시조와 비교해 볼 때 신모는 부수적이었다. 때문에 건국신화에 보이는 신모의 변화상에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신모는 죽은 후에 국가제의를 대상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한국 고대 신모의 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고려시대 동신성모로 전한다. 그런데 선도산 신모가 고려시대 동신성모로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또한 한국 고대 신모가 고려시대 이후 역사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모의 유형을 검토하고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신모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역사성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 신모의 추승을 국가제의와 연결하여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동신성모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變移)를 검토할 것이다.

-
- 3) 선도산 신모는 서술성모·선도성모로도 불렸으나, 이 글에서는 선도산 신모로 통일하였다.
 - 4) 고조선·고구려·백제의 건국신화를 天父地母型, 신라·가야의 건국신화를 부부중심의 天男地女形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지영, 1995,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대한 연구』, 태학사, 160쪽.
 - 5) 신모에 대한 신앙은 한국 고대사회에 天父신앙과 함께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상기, 1964, 「國史上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1,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22~23쪽; 김철준, 1990,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II. 신모의 유형: 시조모와 시조비

한국 고대 각국의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시조의 어머니와 시조의 비는 신모였다. 우선 시조의 어머니, 시조모로는 고조선 건국신화에 보이는 웅녀가 있다. 웅녀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꿈이었으나 신의 아들 환웅에게 사랑되기를 빌어 환웅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람이 되었고 또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여 인간으로 변한 환웅과의 결합을 통해 단군을 낳았다.⁶⁾ 고구려 건국신화의 유화는 하백의 딸로 해모수와 사통하여 주몽을 낳았다. 이후 주몽에게 궁시(弓矢)를 만들어 주었으며 기마하기에 좋은 말을 가려내어 키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박해를 피해 떠나는 주몽에게 오곡의 종자와 보리종자를 보내주었다.⁷⁾

이처럼 웅녀와 유화는 천신의 배우자이자 시조의 어머니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A-1) ① 최치원의 釋利貞傳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正見母主는 천신 夷毗訶之에 응감한 바 되어, 대가야왕 惱室朱日과 금관국왕 惱室靑齋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 하였다. 그러나 가락국 옛 기록의 ‘六卵의 전설’과 더불어 모두 허황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② 또 釋順應의 전기에는 대가야국의 月光太子는 正見의 10대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異腦王이며, 신라의 迎夷粲 比枝輩의 딸에게 청혼하여 태자를 낳았으니, 이 뇌왕은 뇌질주일의 8대손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참고할 것이 못된다.⁸⁾

6) 『삼국유사』 1 기이 1 고조선.

7) 고구려 건국신화와 관련된 문헌과 그 연구 성과는 재미하, 2006, 앞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 29 경상도 고령현 건치연혁, “1) ① 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

- 2) 正見天王祠는 해인사 안에 있다. 속설에는 “대가야국 왕후 정견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⁹⁾

위의 사료 A-1) ①을 보면 최치원이 쓴 석이정전(釋利貞傳)을 인용하여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천신 이비가지에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왕 뇌질청예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A-2)에서 해인사의 정견천왕사에 모셔진 정견은 본래 대가야의 왕후로 죽어서 가야산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¹⁰⁾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나온 수로가 금관가야를 건국했으며 바다를 건너온 허왕후와 결혼함으로써 건국을 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¹⁾ 그런데 사료 A-1) ①에서는 정견모주가 천신에 감응되어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시조를 낳았다는 것이다.¹²⁾ 다음은 신라의 선도산 신모에 대한 내용이다.

B-1) 따라서 이름을 혁거세왕이라고 했다(아마도 鄉言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며 光明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① 說者가 말하기를 “이는 西述聖母가 낳은 것이다. 때문에 중국 사람이 仙桃聖母를 찬미하는 글에 ‘어진 인물을 배어 나라를 창건하라’는 말이

山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金官國王惱室青齋二人 則惱室朱日爲伊珍阿歧王之別稱 青齋爲首露王之別稱 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婁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異腦王 乃惱室朱日之八世孫也”. 이와 관련해서 『삼국사기』 34 잡지3 지리1 고령군조도 참고하기 바란다.

- 9) 『신증동국여지승람』 30 경상도 합천군 사묘, “正見天王祠(在海印寺中 俗傳大伽倻國王后正見 死爲山神)”.
- 10) 천혜숙, 2002, 「‘父性 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12~13쪽에서 정견모주를 신라의 선도산 신모와 같은 유형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 11)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 12) 가야의 신화와 그 의례에 대해서는 나희라, 2009, 앞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견모주 설화는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연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데, 이것이다. ② 이에 이르러 雞龍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을 낳았으니, 또한 西述聖母가 현신한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¹³⁾

2) ① 신모는 본래 中國帝室의 딸이다. 이름은 娑蘇이다. 일찍이 神仙의 술법을 배워 海東에 와서 머물러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아버지인 황제는 서신을 발에 매어 말하기를, “鶯이 머무는 곳을 따라 집을 삼거라”고 하였다. 사소는 서신을 보고 매를 놓아 보냈는데, 매는 이 산에 날아와 멈추었다. 마침내 가서 살며 地仙이 되었다. 때문에 西鶯山이라고 이름하였다. ② 신모는 오랫동안 이 산에 據하면서 나라를 鎮祐하였는데, 靈異함이 아주 많았다.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항상 三祀의 하나였고 秩은 群望의 위에 있었다. …… ③ 그가 처음 진한에 와서 聖子를 낳아 東國의 처음 임금에 되었다. 아마도 赫거세와 알영 二聖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雞龍·雞林·白馬 등으로 일컬으니, 닭은 西쪽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¹⁴⁾

위의 사료 B-1) ①·②에서 설자(說者)는 서술성모가 赫거세를 낳았고 계룡이 상서를 나타내어 낳은 알영을 서술성모의 현신이라고 하였으며 B-2) ③에서는 신모가 성자를 낳았고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다고 하면서, 赫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선도산 신모에서 찾고 있다.¹⁵⁾

13)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赫거세왕, “(1)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言光明理世也 ① 說者云 是西述聖母之所誕也 故中華人讚仙桃聖母 有娠賢肇邦之語是也 ② 乃至雞龍現瑞 產闕英 又焉知非西述聖母之所現耶)”.

14) 『삼국유사』 5 감동 7 선도성모수희불사, “(2) ①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鶯所止 爲家 蘇得書放鶯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鶯山 ② 神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 ③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 二聖之所自也 故稱雞龍雞林白馬等 雞屬西故也”.

15) 『삼국유사』에는 선도산 신모가 赫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하여 『삼국사기』와는 달리 赫거세와 알영이 남매로 나온다. 이것은 선도산 신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이처럼 선도산 신모는 신라의 시조 혁거세와 그의 비 알영의 등장엔 일정한 역할을 한 시조모로 나타나지만, 용녀·유화·정견모주와는 달리 친신의 배우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알영과 허왕후는 시조의 조력자인 시조비로, 시조모와 마찬가지로 신모로 여겨졌다. 다음은 알영 관련 내용이다.

C-1) ① 봄 정월, 용이 關英井에서 나와 右脇에서 女兒를 낳았다. 老嫗가 보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거두어 길렀다. 우물 이름으로 이름하였다. ② 성장함에 德容이 있었다. 시조가 듣고 맞아서 妃로 삼았다. 賢行이 있고 內輔가 能하였다. ③ 이때 사람들이 二聖이라 일렀다.¹⁶⁾

2) ① 이 날, 沙梁里의 알영정(娥利英井이라고도 한다)가에 雞籠이 나타나 左脇에서 童女(용이 나타나 죽자 그 배를 갈라서 얻었다고도 한다)를 낳았다. ② 姿容이 수려하였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비슷하여 月城의 北川에서 목욕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따라서 그川 이름을 撥川이라 했다.¹⁷⁾

위의 사료 C-1) ①과 C-2) ①을 보면 알영정에서 용(계룡)이 나타나 알영을 낳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출생한 알영은 사료 C-2) ②를 보면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아 월성 북천에서 목욕시키자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알영은 C-1) ②를 보면 성장 후 혁거세와 혼인하여 시조를 잘 보필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알영은 혁거세 재위기간 동안 중요한 파트너였음을

16)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시조혁거세거서간 5년, “1) ① 春正月 龍見於關英井 右脇 誕生女兒 老嫗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②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

17)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혁거세왕, “2) ① 是日 沙梁里關英井(一作娥利英井) 邊 有雞籠現 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而剖其腹得之) ② 姿容殊麗 然而唇似雞 將浴於月城北川 其齒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알 수 있다.¹⁸⁾ 이러한 알영은 C-1) ③에서 시조와 함께 이성(二聖)으로 여겨졌는데, ‘이 때[時]’는 신라 중대 이후로 알영은 시조와 함께 여전히 추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허왕후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후한 광무제 건무 24년(48)에 배를 타고 김해 가락국에 도착하였고,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은 이를 미리 알고 그녀를 기다려 왕비로 맞이하였다.²⁰⁾ 그 후에 허왕후는 태자 저등왕을 출산하고 후한 영제(靈帝) 중평(中平) 6년(189)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공은 도산씨가 하나라를 돕고 요임금의 딸들이 순임금의 요씨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하였다.²¹⁾ 이로 볼 때 허왕후 역시 알영과 마찬가지로 시조의 조력자로 수로왕과의 혼인 이후 시조비로서 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제 건국신화에 나오는 소서노는 시조비이자 시조모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시조의 어머니 소서노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 처음에는 북부여에 가서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졸본에 와서 살았는데,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하여 졸본에 오자 소서노는 주몽의 비가 되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다. 이후 주몽이 부여에서 온 유리를 태자로 삼자 소서노는 비류·온조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웠다.²²⁾

18) 이와 관련해서 혁거세 17년(B.C. 41)에 혁거세가 육부를 巡撫할때 알영이 함께 따라갔다고 한 것도 참고가 된다.

19) 채미하, 2014, 앞의 글, 187~188쪽 참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혁거세 38년(B.C. 20) 마한에 간 호공이 두 사람을 이성이라고 한 것, 남해차차웅 원년(4)의 두 사람을 지칭한 이성(二聖),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의 이성과 선도산성모수희불사조에 보이는 이성 역시 중대 이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21)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 況與王后而居也 比如天之有地 日之有月 陽之有陰 其功也塗山翼夏 唐煖興嬌 頻年有得熊羆之兆 誕生太子居登公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壽一百五十七 ……”.

22)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즉위년.

이상에서 신모는 시조모와 시조비로 크게 대별되며, 이 중 시조모는 천신과 혼인하거나 배우자 없이 아들을 낳아 기르는 존재였다. 그리고 시조모이자 시조비이기도 한 소서노가 있었다. 시조모와 시조비의 선후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집단의 근원이 되는 시조가 여성에 있다는 시조모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부계중심 신화 이전에 모계중심으로 서술하는 신화적 전통에 있었다고 한다.²³⁾ 즉 시조모에 대한 전승은 시조와 시조비 이전 단계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서노 관련 전승은 부계출계 사회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²⁴⁾

인간이 대지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은 동서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신앙이다. 대지는 살아 있는 형태를 자신의 본질로부터 끌어내어 발생시킨다. 대지는 비옥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대지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생명이 부여되며, 대지로 돌아간 모든 것은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²⁵⁾ 동·서양의 고대 신화와 의례의 유형을 보면 대지는 우주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만물을 낳고 열매를 맺는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가치가 부여되었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²⁶⁾ 농경사회에서 대지는 어머니로 이해되었으며 점차 지모신은 경작과 수확 즉 농경의 여신으로 대체되어갔다.²⁷⁾ 이것은 한국 고대 신모 역시 마찬가지로 지모신인 어머니는 농업신, 곡모신의 성격을 띠었다.²⁸⁾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신모, 이 중 시조모는 비범한 시조를 낳고, 기르고 시조를 도와 건국에 일조했지만, 시조의 활동 시기에 시조모는 보이지 않는다.

23) 조현실,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257~258쪽. 천혜숙은 선도산 신모 신화의 '不夫而孕' 요소는 모권제 또는 모계제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천혜숙, 2002, 앞의 글, 23~24쪽.

24) 천혜숙, 2002, 위의 글, 28쪽.

25) 멀치아 엘리아데, 1993, 『종교사개론』, 55쪽.

26) 멀치아 엘리아데, 1993, 위의 책, 230, 249~250쪽.

27) 멀치아 엘리아데, 1993, 위의 책, 235쪽.

28) 장지훈, 1999,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 58·59, 81쪽; 한영화, 1999,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 58·59, 208~215쪽; 앞의 주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화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서 키워내는 역할까지 수행하였고 선도산 신모가 낳은 혁거세와 알영은 6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옹녀 역시 단군을 낳았지만,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제왕운기』에는 환웅의 손녀로 옹녀가 나오며 그녀에게 약을 먹도록 명령하고 단수신과 혼인을 시킨 주체가 환웅이라고 하였다. 권근의 『응제시』에는 환웅과 옹녀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단군이 신인으로서 직접 신단수에 내려왔다고 하였다(檀君降樹邊位臨). 권람의 『응제시주』에는 환웅이 모든 것을 주도한 주체로 되어 있는데,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만 기도하고 쑥과 마늘을 준 것도 환웅이며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단군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단웅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의 모습을 이루게 한 후 단수신과 혼인시켜 남성인 단군이 태어났다고 하였다.²⁹⁾

이에 대해 옹녀를 ‘남성중심 사회의 문화구범’,³⁰⁾ ‘주체적 존재를 상실한 타의에 의하여 존재여부를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³¹⁾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존재 …… 소외된 존재, 즉 타자화된 존재’³²⁾ 등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옹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모도 마찬가지로, 신모는 신화의 무편으로 소외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 권력이 여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으로 변해가고 집단 간 투쟁의 결과 선주집단이 이주집단에 종속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³³⁾

29) 강영경, 2012, 앞의 글, 58~62쪽 참고.

30) 신은희, 2002, 「그 신비한 춤 단군신화에 나타난 성 상징주의」, 『단군학연구』 6, 14~15쪽.

31) 최문형, 2000, 「단군신화의 여성상과 여성원리에 나타난 통일이념」, 『단군학연구』 4, 137~139쪽.

32) 조현설, 1999, 「옹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조현설, 2003,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사, 11쪽.

33) 최원오, 2003, 「한국 신화에 나타난 여신의 위계 전변과 윤리의 문제」, 『비교민속학』 24, 281, 298~299쪽; 서대석, 1998, 「일본신화에 나타난 新婦과 神誕生의 성격 - 한국의 신화 및 농경의례와의 對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4; 서대석, 200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조현설, 1999, 앞의 글, 5~10쪽; 조현설, 2006,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19~20쪽.

고구려 건국신화는 5세기에 주몽신화로 확립되는데, 이것은 부여의 동명신화를 차용한 것³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5세기 이전 고구려 건국신화는 동명신화와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논형』·『삼국지』 등에 보이는 부여의 건국신화는 고구려 초기 건국신화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동명의 어머니는 ‘시비(侍婢)·시아(侍兒)’로 나온다. 5세기 「광개토왕릉비」 등의 비문 자료와 『위서』 등의 중국 사서에는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녀’로, 수신(水神)의 딸로 나온다. 하백녀는 부여신으로 불려졌는데, 그녀가 부여족의 공동시조를 낳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이후 역사서인 『구삼국사』 등에는 ‘하백녀 유향’로 나오며, 수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농업신적 성격도 띠면서 ‘신모’로 불려졌다.³⁵⁾

B-2) ①을 보면 선도산 신모는 중국 제실(帝室)의 딸인 사소로 해동에 와서 오래 머물다 마침내 서연산에 와서 살고 지선(地仙)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우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6촌 세력이 갖 태어난 혁거세·알영을 발견하고 양육하는 데 주체적으로 등장하였다.³⁷⁾ 선도산 신모가 중국에서 진한에 도래한 시기는 대체로 6촌의 시조들이 사로국에 등장할 때와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한다.³⁸⁾ 선도산 신모가 웅거한 곳은 서연산·서술로, 모량 지역이었다. 모량은 6촌의 하나인 무산대수촌의 근거지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무산대수촌, 모

34) 이종태, 1996, 「삼국시대의 시조인식과 그 변천」,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45, 53쪽; 조현설, 2003, 「한국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44~255쪽 참고.

35) 이상과 관련해서 채미하, 2006, 앞의 글 참고.

36)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낳았다고 전해지는 선도산 신모는 본래 도교의 女仙으로 한반도에 건너와 선도산에 정착한 이른바 도래신이라고 하였다. 정재서, 2009, 「도교 설화의 정치적 專有와 민족 정체성」, 『도교문화연구』 31, 16~19쪽. 한편, 김선주, 2010, 앞의 글, 13~15쪽에서 시조모 전승에서 시조모와 관련이 있는 시조는 혁거세가 아닌 시조비로 알려진 알영으로 보았다.

37)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시조 혁거세거서간 원년;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 혁거세왕.

38) 채미하, 2011,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90~92쪽.

량부 세력과 선도산 신모가 어느 시기에 연합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³⁹⁾ 이것은 신라 중고기를 전후한 시기로 여겨지는데, 신라 중고기 모량부 박씨 왕 비족의 등장은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⁴⁰⁾ 사료 B-2) ①에서 선도산 신모는 중국 제실의 딸이라고 한다.⁴¹⁾ 이것은 중대왕실이 자신의 시조를 소호금 천씨에서 찾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⁴²⁾

이와 같이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시기에 따라 그 인식에 변화가 있었지만, 웅녀와는 달리 건국신화에서 소외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각 시기에 따라 그녀들의 고유한 역할인 시조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이로 볼 때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건국신화에서 소외되었다기 보다는 한국 고대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역사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9) 임재해는 6촌신화는 단군신화의 부계인 환웅신화를 계승하고 선도산 신모신화는 모계인 곰신화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계신화는 선도산 신모가 혁거세를 낳은 출생신화로, 부계신화는 혁거세를 발견한 난생신화로 분화되고 발전되어 전승되고 기록되었다. 임재해, 2007,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 『비교민속학』 33, 590쪽.

40) 채미하, 2011, 앞의 글, 95~96쪽.

41) 이에 대해 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211쪽에서 고유의 산신신화가 모화사상이 혹은 한국인으로 중국에 이주한 자에 의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부회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이지영, 1995, 앞의 책, 161쪽에서 중국의 색으로 윤색된 북방 무조적 이야기로 건국신화의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 조동일, 1999,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시조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41~142쪽에서 선도산 신모 전승은 시조도래계 신화로 중세 의식을 덧씌운 것이라고 하였다.

42) 채미하, 2014, 앞의 글, 186쪽.

III. 국가제의와 신묘의 추승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신묘는 죽은 이후 국가제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이 주목된다.

D-1) 가을 8월 王母 柳花가 東扶餘에서 죽었다. 그 왕 金蛙가 太后의 禮로써 그녀를 장사지냈고 마침내 神廟를 세웠다. 겨울 10월 사신을 부여에 보내 方物을 바치고 그 덕에 보답하였다.⁴³⁾

2) 겨울 10월 왕이 부여에 行幸하여 太后廟에 제사지내고 백성 중 곤궁한 자를 묻고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⁴⁴⁾

3) 古記에 말하였다. ① 동명왕 14년 가을 8월 王母 柳花가 동부여에서 죽었다. 그 왕 金蛙가 太后의 예로써 그녀를 장사지냈고 마침내 神廟를 세웠다. ② 태조왕 69년 겨울 10월 부여에 行幸하여 太后廟에 제사지냈다.⁴⁵⁾

위 사료 D는 고구려 태후묘와 관련된 것으로, 동명왕 14년(B.C. 24) 8월에 동명왕의 어머니가 동부여에서 죽자 금와왕이 ‘태후’의 예로 장례를 지내고 신묘(神廟)를 세웠다고 한다(1)과 3) ①). 이처럼 유희를 모신 태후묘는 금와왕이 세운 것으로 고구려 영역 밖에 있었다. 그렇지만 D-1)에서 동명왕은 사신을

43)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시조동명성왕 14년, “秋八月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冬十月 遣使扶餘 饋方物 以報其德”.

44) 『삼국사기』 15 고구려본기 3 태조대왕 69년, “冬十月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45)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古記云 ① 東明王十四年秋八月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② 太祖王六十九年冬十月 幸扶餘 祀太后廟”.

보내 그 덕에 보답하였고, D-2)와 D-3) ②에서 태조왕은 왕 69년(121) 10월에 부여에 순행하여 태후묘에 제사지내고 있다. 이로 볼 때 고구려에서는 유화가 죽은 후 그에 대한 추송을 태후묘에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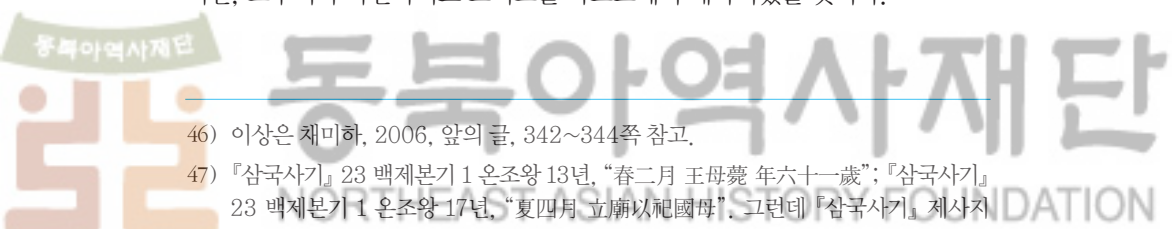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백제에서는 온조왕 13년(B.C. 6) 2월 왕모 소서노가 죽자 온조왕 17년 4월에 묘를 세워 국모를 제사하였다고 한다.⁴⁷⁾ 이로 볼 때 백제도 고구려 태후묘와 유사한 사당을 소서노가 죽고 나서 4년 뒤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온조왕은 왕모 소서노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국모가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니 국세가 안전하지 못해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겠다고 하였다.⁴⁸⁾ 아마도 이때부터 소서노는 국모로 여겨졌고 국모묘에 대한 건립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국모묘를 건립한 이후 국모묘에 대한 제사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소서노를 국모묘에서 제사지냈을 것이다.⁴⁹⁾

46)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글, 342~344쪽 참고.

47)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3년, “春二月 王母薨 年六十一歲”; 『삼국사기』 23 백제본기 1 온조왕 17년,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그런데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백제에서 국모묘를 세웠다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고구려와는 다른 점이지만, 소서노가 국모로 제사된 것은 그녀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영경, 1982, 「한국고대사회의 여성 - 삼국시대 여성의 사회활동과 그 지위를 중심으로 -」, 『숙대사론』 11·12, 158쪽.

48) 『삼국사기』 21 백제본기 1 시조 온조왕 13년, “夏五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子昨出巡 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郡於彼 以圖久安之計”.

49) 백제에서는 온조왕 20년(2), 온조왕 38년, 다루왕 2년(29), 고이왕 10년(243), 비류왕 10년(313)에 ‘祠(祀)天地’했다고 하며, 고이왕 5년, 고이왕 14년, 근초고왕 2년(347), 아신왕 2년(393), 전지왕 2년(406)에 ‘祭天地’하였다고 한다. 중국 고대 농경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제사는 社제사라는 국가의례로 발전하였고, 漢代에 郊社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신은 北郊에서의 地神과 사직에서의 토신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전자는 대지 전체를 상징하는 지모신으로, 后土·皇地祇·崑崙大地 등이, 후자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영토신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사직과 神州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박미라, 2006, 「중국 祭地儀禮에 나타난 地神의 이중적 성격」, 『도교문화연구』 25, 59~60쪽.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백제의 태후묘 제사는 천지 제사와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유화는 태후묘뿐만 아니라 수신제(隧神祭), 부여신묘(扶餘神廟)에서 ‘태후’, ‘수신’, ‘부여신’으로 고구려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다. 태후묘가 ‘동명왕의 모후’에 대한 제사였다고 한다면 태조왕대 이후 주몽을 국조로 하는 국조의식이 성립되면서 유화는 국모로 여겨졌고 그녀에 대한 제사는 수신제에서 이루어졌다.⁵⁰⁾ 수신제는 유화의 주몽 잉태와 출산신화를 압록강 가에서 재현한 의례였다. 그리고 유화는 부여족의 공동시조를 낳았기 때문에 부여신으로도 불려졌고, 부여신묘에서 그 제사가 행해졌다.⁵¹⁾ 부여신은 ‘각목(刻木)한 부인상’으로 나타나며 목수(木隧)로 나타난 수신보다는 구체적인 것으로 고구려 국모뿐만 아니라 부여족 전체의 어머니로 추송되었다.⁵²⁾

이처럼 유화는 죽은 이후 국가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고구려 말에는 주몽⁵³⁾과 마찬가지로 유화에 대한 신앙은 전국적으로 퍼져있었다.⁵⁴⁾ 이러한 추송은 금관가야의 허왕후에서도 찾아진다. 허왕후는 영제 중평 6년(189) 3월 1일에 죽었다[崩]. 이후 나라사람들이 구지(龜旨)의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고, 그녀를 잊지 못하여 왕후가 처음 배에서 내려 배를 매어둔 나룻가의 마을을 주포촌이라고 이름하고 비단바지를 벗은 산마루를 능현(綾峴)이라 하고 꼭두서니빛 깃발이 나타나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고 하였다.⁵⁵⁾ 8대 질지왕은 452년에 수로왕과 허왕후의 혼례 장소에 왕후사(王后寺)를 창건하기도 하

50) 수신제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지』·『후한서』·『구당서』·『신당서』·『한원』에 보인다.

51) 부여신묘와 관련해서는 『복사』·『주서』를 통해 알 수 있다.

52)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글, 363~364쪽 참고.

53)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 『주서』 49 열전 41 이역상 고려; 『책부원귀』 369 장수부 공취 2 이적 참고.

54) 『삼국사기』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5년, “東明王母塑像 泣血三日”; 『신당서』 220 열전 145 동이 고려조 참조. 이상은 재미하, 2006, 앞의 글, 365쪽.

55)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壽一百五十七 國人如嘆坤崩 葬於龜旨東北塢 遂欲忘子愛下民之惠 因號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 解綾袴高岡曰綾峴 茜旗行入海涯曰旗出邊 媵臣泉府卿申輔 ……”. 이와 관련된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김태식, 1998, 「가락국기 소재 허왕후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 102, 26~2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였다.⁵⁶⁾ 이로 볼 때, 허황후는 죽은 이후 금관가야인에게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녀에 대한 추송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이 중 질지왕이 수로왕과 합혼한 곳에 세웠다는 왕후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수로왕부인사(首露王夫人祠)를 절로 바꾼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⁵⁸⁾

한편, 고구려와 달리 신라에는 박·석·김 3성의 시조신화가 있었고 이들과 관련된 제사 역시 이루어졌다. 남해왕 3년(6)에 설치된 시조묘⁵⁹⁾에는 박씨집단의 족조(族祖)인 혁거세를 모셨다가 아달라왕대 신라연맹체의 제천이 사로국의 시조묘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혁거세는 국조가 되었고, 신라 상고기 내내 시조묘의 주신이 될 수 있었다. 소지왕 9년(487)에 설치된 신궁의 주신은 혁거세로,⁶⁰⁾ 혁거세는 전(全) 국가적 시조왕의 성격을 지녔다. 이와 같이 시조묘와 신궁에서 혁거세가 그 제사의 주신이었지만, 신라 중대에 오묘제⁶¹⁾가 성립되면서 국조인 혁거세를 모신 신궁제사는 김성시조를 모시는 오묘제 보다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⁶²⁾ 석씨집단의 족조인 탈해의 소상은 쥬 안에 있다가 동악에 안치되는데, 그 시기는 문무왕 20년(680)으로 나온다.⁶³⁾ 동악은 토함산으로 탈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소이며 고려시대에는 동악대왕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⁶⁴⁾ 이로 볼 때, 시조신이었던 탈해는 신라 중대 이후 산신으로 그 신격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⁵⁾

56) 『삼국유사』 2 기이 2 가락국기, “鏗知王 一云金鏗王 元嘉二十八年卽位 明年爲世祖 許黃玉王后 奉資冥福於初與世祖合御之地 創寺曰王后寺”.

57) 김태식, 1998, 위의 글, 31~32쪽.

58) 권주현, 2009,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55쪽. 한편, 사당에서 절로 전환된 것은 신라 중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권주현, 2011,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66쪽.

59)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남해차차웅 3년.

60) 『삼국사기』 3 신라본기 3 소지마립간 9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61) 『삼국사기』 8 신라본기 8 신문왕 7년;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62)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채미하, 2014, 앞의 글 참고.

63)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64) 『삼국유사』 1 기이 1 제4탈해왕; 『삼국유사』 1 왕력 1 제4탈해이질금.

65) 채미하, 2014, 앞의 글, 186~187쪽.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에는 삼산·오악 이하의 명산대천제사가 대·중·소사에 편제되어 있다.⁶⁶⁾ 산에 대한 제사는 단순한 산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그 지역을 수호하는 신에 대한 숭배였고⁶⁷⁾ 조상신이기도 하였다.⁶⁸⁾ 고대인들은 높은 산을 하늘과 인간의 교섭처로 생각하였다. 즉 천신이 높은 산에 내려와 인간과 교통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산은 천제(天祭)를 지내는 제사장소이기도 하였다.⁶⁹⁾ 신라의 대사(大祀)에 편제된 것은 삼산은 원래의 성읍국가 사료가 고대국가 신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왕경 중심의 지배집단의 제사 대상이었다가 통일을 전후하여 호국여삼신(護國女三神)⁷⁰⁾의 활약으로 최고의 신성 산악으로 대사의 대우를 받았다.⁷¹⁾

통일 이전 신라에는 경주평야를 둘러싸고 오악이 있었는데,⁷²⁾ 선도산은 오악의 하나로 서악이었다.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에 서술, 선도산은 모량(牟梁)에 있었다고 한다.⁷³⁾ 모량은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이 있었던 곳으로, 무산대수촌의 시조는 이산(개비산)에 내려왔다고 한다.⁷⁴⁾ 무산대수촌의 시조가

66)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채미하, 2007, 「신라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 『민속학연구』 20; 채미하, 2008, 앞의 책, 311~314쪽도 참고.

67) 명산대천제사의 대상은 자연적인 산악 자체이기 보다는 산악의 주재자라고 믿고 있는 산신에 대한 제사였다.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화사연구』, 일조각, 207쪽; 문경현, 1992,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제12집, 21~26쪽.

68) 산신은 대체로 각 지역의 조상신이라고 한다. 문경현, 1992, 위의 글, 26~28쪽.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채미하, 2007, 앞의 글; 채미하, 2008, 앞의 책, 303~330쪽 참고.

69) 『서경』 순전, “至于岱宗柴”.

70) 『삼국유사』 1 기이 1 김유신.

71) 이기백, 1995, 「신라 삼산의 의의」, 『한국고대사론 - 증보판 -』, 일조각, 147쪽.

72)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산천조에 토함산을 동악, 금강산을 북악, 함월산을 남악, 선도산을 서연산(서악)이라고 하고 있다. 『삼국사기』 41 열전1 김유신(상)에는 중악 단석산이 보인다.

73)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三山五岳已下 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 小祀 …… 西述(牟梁)”.

74) 『삼국유사』 1 기이 1 신라시조 혁거세왕, “辰韓之地 古有六村 …… 三曰茂山大樹村

내려온 이산(개비산)과 촌명에 보이는 무산과 대수촌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무산대수촌은 대체로 경주 서편의 모양에 비정하고 있다.⁷⁵⁾ 특히 무산대수촌의 대수(촌)는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가 연상되는데, 신단수는 고조선 건국신화를 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 신시(神市)를 펼친 장소다.⁷⁶⁾ 이러한 신단수는 천·지·지하계의 접합점에 있는 성역이고 만물이 생성되며 태의(太儀)를 재현하는 성단(聖壇)을 상징한다고 한다.⁷⁷⁾ 세계의 신화에서 나무와 여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⁷⁸⁾ 웅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 주기를 빌었고, 동맹제 때 신체로 모셔지는 나무상 즉 목수는 하백녀를 상징한다.⁷⁹⁾ 따라서 무산대수촌과 여신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산대수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선도산은 앞의 사료 B-2) ②에서 진우방국(鎭祐邦國)하는 영이(靈異)가 많아 나라가 건립된 이래 언제나 삼사(三祀)의 하나였고, 그 서열은 군망(群望)의 위에 있었다고 한다. 삼사는 대·중·소사로 파악하기도 하지만,⁸⁰⁾ 국가제사체계 즉 사전(祀典)⁸¹⁾을 말하

長曰俱禮馬 初降于伊山(一作皆比山) 是爲漸梁部 又牟梁部孫氏之祖 今云長福部 朴谷村等西村屬焉 ……”.

- 75) 『삼국유사』 1 기이 1 智哲老王조의 冬老樹는 무산대수촌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무산대수촌은 舍羅里 일대의 목관묘와 목곽묘를 연결지을 수 있다. 채미하, 2011, 앞의 글, 87쪽.
- 76) 『삼국유사』 1 기이 1 고조선, “古記云 昔有桓因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
- 77) 황패강, 1988, 「단군신화의 연구」,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78쪽.
- 78) 장지훈, 1999, 앞의 글, 83~84쪽.
- 79) 수신과 부여신이 나무에 의탁한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聖樹·聖林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였다. 채미하, 2006, 앞의 글, 361쪽. 이와 관련해서 박원길, 1998, 『북방민족의 사마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447~479쪽; 나희라, 2005, 「고대 동북아 제민족의 신화, 의례, 군주관」, 『진단학보』 99, 4쪽을 참고.
- 80)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95쪽.
- 81) 『禮記』 祭義篇을 보면, “夫聖王之制 祭祀也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菑則祀之 能捍大患則祀之 …… 非此族也 不在祀典”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國語』 魯語(상)에는 “凡禘·郊·祖·宗·報 此五者 國之典祀也

기도 한다. 군망은 ‘오악·사진·사독’을 말하며⁸²⁾ 국가의 진산(鎭山)이다. 그리고 선도산은 서연(西鶯)·서술(西述)·서형(西兄)이라고도 불렸는데,⁸³⁾ 이들 이름은 최고라는 뜻을 가진 ‘수리’에서 파생된 것이며 ‘서쪽’에 이르는 방위를 가리키는 접두어가 붙은 것이다.⁸⁴⁾ 이로 볼 때, 선도산은 신라가 나라를 세운 이래로 국가제사의 대상이었고 진평왕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최고의 신성산악이었다.⁸⁵⁾

그런데 문무왕 말년 혹은 신문왕대에 오악은 국토의 사방과 중앙에 있는 산악으로 변하였고,⁸⁶⁾ 선도산은 소사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가

…… 非是 不在祀典”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전(祀典)은 일반제사가 아니라 국가제사의 의례나 그에 대한 기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사전은 ‘제사의 의례’ 또는 ‘제사 의례를 적은 전적(典籍)’으로 풀이된다. 羅竹風 主編, 1991, 『漢語大詞典』 7, 836쪽; 채미하, 1998, 『삼국사기』 제사지신라조의 분석 - 신라 국가제사체계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 『한국고대사연구』 13, 217~230쪽; 채미하, 2008, 앞의 책, 51쪽 참고.

82) 『예기』 곡례에 따르면 천지는 천지, 사방(사방), 산천, 오사(五祀)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산천과 오사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禮記』 曲禮 下, “天子祭天地·祭四方·祭山川·祭五祀 歲徧 諸侯方祀祭山川·祭五祀 歲徧”. 사방(사방)은 『주례』 소종백(小宗伯) ‘兆五帝於四郊四望四類亦如之’의 정현(鄭玄)의 주(註)에 ‘五嶽·四鎭·四瀆’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방(사방)제도가 성립할 때 해(海)역시 종교의례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사방(사방)에는 사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池田末利, 1981, 「四望·山川考」, 『中國古代宗教史研究 - 制度と思想 -』, 東海大學出版會, 142~143쪽. 이러한 사방(사방)제사는 隋代에는 중사에, 唐代에는 악, 진, 해, 독으로 중사에 편제되어 있다. 채미하, 2008, 「신라의 사해와 사독」, 『역사민속학』 26, 22~2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83) 홍순옥, 1991,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 신라문화선양회, 46쪽;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317쪽.

84) 김선주, 2010, 앞의 글, 21~22쪽.

85) 강영경, 2012, 앞의 글, 57쪽에서 신라의 국가성장이 6촌장의 합의체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신라 왕은 박·석·김 3성의 교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선도산 신모는 국모신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거나 고구려와 백제처럼 거국적인 승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사회에서 박씨 왕계의 사회적 위치와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선도산 신모의 위치는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86) 이기백, 1974, 앞의 책, 207쪽; 『삼국사기』 32 잡지 1 제사, “三山五岳已下 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雞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已郡) 中父岳(一云公山 押督郡) ……”.

야의 정견모주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의 사료 A-1) ②에서 대가야 마지막 왕자의 세계를 정견모주로부터 기억한 것은 정견모주가 조상신으로의 권능을 대가야 멸망 직전까지도 유지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⁸⁷⁾ 하지만 대가야가 신라에 통합된 이후, 통일 이후 신라의 명산대천제사 중 소사인 가량악에 편제되었던 것이다.⁸⁸⁾ 선도산 신모는 신라 경명왕대 왕의 잃어버린 매를 찾아주어 봉작을 받기도 하였다.⁸⁹⁾ 이로 볼 때, 선도산 신모는 신라 말까지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 고대 신모는 건국신화에서 시조를 낳거나 양육하고 이후 그와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신모가 죽은 이후 국가제(祭儀)의 대상으로 추송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제(祭儀)에서의 신모에 대한 추송은 신모신앙의 흐름이 지속된 것과 상응하는 것이었다.⁹⁰⁾ 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시조모와 시조비인 신모 외에도 운제산성모, 치슬령 신모 등이 있었다. 운제산성모는 남해차차웅의 비로, 죽어서 영일현 서쪽에 있는 운제산의 성모가 되어 가뭄 때 기원하면 응험이 있다고 하였다.⁹¹⁾ 치슬령 신모는 제상의 부인으로 왜에 간 제상이 돌아오지 않자 치슬령에 올라 왜를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었는데, 치슬신모가 되었다고 한다.⁹²⁾ 앞에서 살펴본 ‘호국삼여신’ 역시 신모신앙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7) 서철원, 2008, 「대가야 건국신화와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와 관련해서 나희라, 2009, 앞의 글, 126~127쪽도 참고하기 바란다.

88)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11, 16쪽. 그리고 김태식은 16~17쪽에서 대가야군 소재 推心의 主神은 대가야시조 伊珍阿跋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89) 『삼국유사』 5 감동 7 선도성모수희불사, “第五十四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90) 천혜숙, 2002, 앞의 글, 31~33쪽.

91) 『삼국유사』 1 기이 1 제이남해왕.

92) 『삼국유사』 1 기이 1 나물왕 김제상. 제상의 부인은 제상이 죽은 이후 국대부인으로 책봉되었으며, 『삼국유사』 1 王曆 1 第十八實聖麻立干조에는 실성이 바로 치슬의 아버지라고 하였다(王即瑯述之父)고 나온다.

이처럼 한국 고대 신모에 대한 숭배의 형태는 다양하였고 이들은 국가제의를 통해 추송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옹녀를 숭배한 유적이거나 유물 등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후대의 신모 숭배 전통에서 옹녀 역시 신모로 추송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⁹³⁾

IV.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變移)

한국 고대 신모에 대한 추송은 한국 고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 사료가 관심을 끈다.

E-논하여 말한다. …… 1) 政和 연간(1111~1117)에 우리 조정은 尙書 李資諒을 宋에 보내 조공하였다. 臣 富軾이 文翰의 임무를 띠고 보좌하여 갔다. 佑神館에 이르러 한 집에 선녀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다. 館伴學士 王黼가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 나라의 신인데, 공들은 이를 아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말하기를, “옛날 帝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를 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띄워 辰韓으로 가서 아들을 낳아, 海東의 시조왕이 되었다. 황제의 딸은 地仙이 되어 오래도록 仙桃山에 있는데, 이것이 그녀의 像이다”라고 하였다.

2) 신은 또 송의 사신 王襄이 東神聖母에게 제사지내는 글을 보았는데, “賢人を 잉태해 나라를 처음 세웠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에 東神이 곧 선도산 聖母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을

93) 강영경, 2012, 앞의 글, 54~58쪽.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⁹⁴⁾

위의 사료 E-1)에서 김부식은 문한의 임무를 띠고 송에 갔다가 우신관에서 여선상(女仙像)을 보았는데, 송인(宋人) 왕보(王黼)는 여선상을 선도산 성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E-2)에서 김부식은 왕양(王襄)의 「제동신성모문(祭東神聖母文)」의 동신성모를 선도산 신모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이 주목된다.

F-동신사는 宣仁門 안에 있다. 땅이 좀 편평하고 넓은데, 정전의 집이 낮고 누추하며 행랑과 월랑 30칸은 황량하게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다. 정전에는 ‘東神聖母之堂’이란 방이 붙어 있고 장막으로 가려 사람들이 神像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것이 夫餘의 처인 河神의 딸이라고 한다. 그녀가 朱蒙을 낳아 고려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전부터 사자가 이르면 관원을 보내어 奠祭를 마련하는데 그 牲牢와 酌獻은 승산신에 대한 법식과 같다.⁹⁵⁾

사료 F에 따르면 동신사, ‘동신성모지당(東神聖母之堂)’에는 나무를 깎아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부여의 처인 하신(河神)의 딸로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낳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동신성모는 곧 주몽의 어머니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도 관심을 끈다.

94) 『삼국사기』 12 신라본기 12 경순왕 말미, “論曰 …… 1) 臣富弼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 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2)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王於何時 ……”.

95) 『신화봉사고려도경』 17 사우 동신사, “東神祠 在宣人門內 地稍平廣 殿宇卑陋 廊廡三十間 荒涼不葺 正殿榜曰東神聖母之堂 以帟幕蔽之 不令人見 神像蓋刻木作女人狀或云乃夫餘妻河神女也 以其生朱蒙 爲高麗始祖 故祀之舊例 使者至則遣官設奠 其牲牢酌獻如禮崇山神式”.

G-壓兵祭, 醮, 南海神, 城隍神祠, 川上祭, 老人星, 五溫神, 名山大川, 箕子祠, 東明聖帝祠, 藝祖廟, 祿祭, 蠶祭, 天祥祭, 東神祠, 松嶽廟, 木覓神祠, 道哲, 崑梯淵.⁹⁶⁾

위의 사료 G는 『고려사』 예지 길례에 보이는 잡사를 연대기 자료를 바탕으로 열거한 것이다. 이 중 동신사는 동신성모를 모신 사당으로 다른 신사들과 함께 고려의 국가제사체계 중 잡사에 편제되어 있다.⁹⁷⁾ 다음은 동신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 H-1) ① 禮部에서 “초여름부터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고, 또 廣州에서는 田野가 타들어가 올해 농사를 거의 포기할 지경이라는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松岳·東神堂, 모든 사당, 山川·朴淵 등 다섯 곳에서 어례마다 한 번씩 기우제를 지내고, 또 광주 등 여러 주군들도 각자 기우제를 지내게 하십시오”라고 건의하였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⁹⁸⁾
- ② 大廟·八陵 및 松嶽·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⁹⁹⁾
- ③ 松嶽·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¹⁰⁰⁾

96)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97) 『고려사』 예지 길례의 잡사는 대·중·소사와는 달리 의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연대기만 남아 있다. 연대기 자료는 제사 거행 사실, 祠廟의 건립, 祀典에 대한 언급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잡사는 『삼국사기』 제사지,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에는 없는 항목으로, 고려 국가제사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고려의 국가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김철웅, 2001, 「고려시대 잡사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쪽;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98) 『고려사』 8 세가 8 문종 11년 5월 戊寅, “禮部奏 自孟夏 雨澤愆期 又廣州報 田野乾焦 殆失歲望 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 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 制可”;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文宗 十一年 五月 戊寅 禮部奏 謹按 今自孟夏 雨澤愆期 又廣州牧報 田野乾焦 殆失歲望 請於松岳·東神堂·諸神廟·山川·朴淵等五所 每七日一祈 又令廣州等州郡 各行祈雨 制可”.

99) 『고려사』 11 세가 11 숙종 5년 6월 을묘, “禱雨于大廟八陵及松嶽東神祠”.

100) 『고려사』 12 세가 12 예종 2년 3월 갑신, “禱雨于松嶽東神祠”.

- 2) ① 숙종 4년(1099) 8월 丙子 祈晴于松岳·東神·川上·諸神廟·朴淵 등 5곳에서 祈晴祭를 지냈다.¹⁰¹⁾
- ② 숙종 5년(1100) 6월 乙卯 大廟·八陵 및 松嶽·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¹⁰²⁾
- ③ 예종 2년(1107) 4월에 가물었다. 戊辰에 朴淵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甲申에 松岳·東神祠에서 기우제를 지냈다.¹⁰³⁾
- ④ 예종 11년(1116) 4월 丁卯 사신을 上京의 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 및 西京의 木覓·東明祠·道哲岳梯淵에 보내 기우제를 지냈다.¹⁰⁴⁾
- ⑤ 인종 8년(1130) 戊子 조서를 내려 거듭 기우제를 지내 비를 빌려고 하니, 태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반드시 먼저 川上·松岳·東神廟·神廟·栗浦·朴淵에 기도하고 나서 뒤에 거듭 기우제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兩京을 비롯해 전국에서 행해지는 공·사의 모든 토목공사를 중지시켜야 마땅합니다.” 왕이 그 말을 따랐다.¹⁰⁵⁾

위 사료 H-1) ①에 따르면 고려 문종 11년(1057) 예부의 건의 중에 동신당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동신당은 고려 초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문종대의 당(堂)(H-1) ①은 숙종대부터 사(祠)로 나오며

101) 『고려사』 54 지 8 오행 2 목, “肅宗四年 八月丙子 祈晴于松岳東神川上諸神廟朴淵等五所”.

102)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肅宗五年 六月乙卯 禱雨于大廟·八陵 及松嶽·東神祠”.

103)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睿宗二年 四月 旱 戊辰 禱雨于朴淵 甲申 禱于松岳·東神祠”.

104)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잡사, “睿宗十一年 四月丁卯遣使祈雨於上京川上松岳東神諸神廟朴淵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岳梯淵”.

105) 『고려사』 54 지 8 오행 2 금, “仁宗八年 戊子 詔再雩祈雨 太史奏 必先祈川上·松岳·東神·諸神廟·栗浦·朴淵而後 再雩 可也 宜當兩京內外公私 罷土木興作之役 從之”.

(H-1) ②·③과 H-2) ②), 인종 8년(1130)(H-2 ⑤)까지 동신사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료 F의 『고려도경』을 보면 사자가 오면 관원을 보내어 전제(奠祭)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사료 E-2)에 보이는 왕양은 동신사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제문이 「제동신성모문」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보면 “현인을 잉태해 나라를 처음 세웠다”고 하였는데, 왕양은 동신성모라고만 하였고 그것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사료 E-1)에서 김부식은 사신으로 간 경험(왕보의 설명)을 통해 E-2)에 보이는 왕양의 「제동신성모문」의 동신성모를 선도산 신모로 여겼다.¹⁰⁶⁾

사료 C를 보면 『삼국유사』에는 선도산 신모와 혁거세·알영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켰다. 하지만 사료 E-2)에서 김부식은 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다.¹⁰⁷⁾ 아마도 이것은 선도산 신모에 앞서 서술된 3성 시조에 대한 전승¹⁰⁸⁾과 선도산 신모에 대한 전승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동신사는 선인문(宣人門) 안에 있는데, 선인문은 개경으로 들어오는 문 중의 하나였다.¹⁰⁹⁾ 유희와 짝하는 주몽을 모신 사당인 동명성제사는 서경에 있었다. 따라서 김부식은 동신사의 동신성모는 유희라기 보다는 선도산 신모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이 김부식은 선도산 신모 전승이 3성 시조 전승과 차이가

106) 김선주, 2010, 앞의 글, 8~9쪽에서 신라에는 공식화된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와는 다른 계통의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었고 이것을 알고 있던 김부식은 시조모로서 의미를 가진 선도선 신모 이야기를 신라본기 말미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실은 것으로 보았다.

107) 김부식은 선도산 신모가 낳은 ‘해동의 시조가 된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을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선도선 신모 전승은 신라의 건국신화로 그의 미가 부정되기도 하였다. 서대석, 2001, 앞의 책, 101~102쪽.

108) 『삼국사기』 12 신라본기 12 경순왕 말미.

109) 『고려사』 56 지 10 지리 1 왕경개성부조에 羅城에 축조된 성문에 대하여 大門 4, 中門 8, 小門 13 등 전체 25개를 기술하고 있다. 이 중 선인문은 황성 동문으로 여겨지는데(신안식, 2000, 「고려시대 개경의 나성」, 『명지사론』 11·12; 신안식, 2000,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고려도경』에서 선인문을 나성의 정동문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157~158쪽).

있었고 유화와 짝하는 주몽의 사당이 서경에 있었기 때문에, 인종 23년(1145)에 편찬된 『삼국사기』에 선도산 신모를 동신성모로 채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 E-2)에서 보듯이, 왕양이 고려에 온 것은 예종 5년(1110) 6월이고¹¹⁰⁾ 7월에 돌아갔다.¹¹¹⁾ 사료 F에서 서궁이 송도를 다녀간 것은 선화 5년(고려 인종 1, 1123)이다. 사료 H에서 동신사에 대한 제사는 문종 11년(1057)부터 인종 8년(1130)까지 기록되어 있다. 사료 E-1)의 정화 연간은 1111~1117년이며 김부식이 문한의 임무를 띠고 송에 간 것은 1116년이다. 이처럼 왕양과 서궁이 고려에 온 시기, 동신사에 대한 제사가 시행된 시기, 김부식이 송에 간 시기는 그리 멀지 않다. 이로 볼 때, 당시 동신성모에 대한 전승은 유화와 선도산 신모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¹¹²⁾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사료 E에 보이는 동신성모는 특정 나라를 떠나 예부터 전래되어 온 신모를 지칭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마도 동신성모는 한국 고대 신모가 고려시대에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¹¹³⁾ 한국 고대 신모의 통칭으로 여겨진다.¹¹⁴⁾

110) 『고려사』 13 세가 13 예종 5년 6월 辛巳(14), “宋遣王襄張邦昌來, 以叅知政事李瑋, 殿中少監左承宣韓儼如爲館伴”. 『고려사』 13 세가 13 예종 5년 6월 癸未(16); 『고려사』 65 지 19 예 7 빈례 예종 5년 辛巳·癸未 참고.

111) 『고려사』 13 세가 13 예종 5년, “秋七月 戊戌朔 王襄等還 ……”.

112) 김준기, 1995, 『한국의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67~71쪽에서 본래 독립된 산신 유래담으로 전승되던 신모계 신화가 고려 이후 민간층에서 형성되어 유포되면서 기존의 건국신화를 잠식하여 국조신화로 역변이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부여와 고구려에서 신봉되던 동신성모 유화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쳐 고려 때까지 계속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 어려워 선도성모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천혜숙은 우신관에 있는 동신성모는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이며 선도성모를 동신성모로 본 것은 김부식의 지난친 방중의옥이라고 하였다. 천혜숙, 2007,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 16, 183쪽. 한편, 김선주, 2010, 앞의 글, 9쪽에서 고려는 고구려 의식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유화가 고려시대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서 김부식이 동신성모를 선도성모로 한 것은 단지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서의 의미였다고 보았다.

113) 박상란, 2005,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주), 184~185쪽.

114) 김선주, 2010, 앞의 글, 10쪽에서 신라에는 혁거세를 비롯하여 탈해·알지 등 왕계를 형성한 3성의 시조전승이 있었지만, 시조모는 이들 3성 시조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김부식은 시조모 관련 전승을 소개하면서 특정 시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결을 피했다고 보았다.

한편, 고려 초기에 건립된 동명성제사는 고려 말까지 그 기록이 보이며¹¹⁵⁾ 조선 세종 11년(1429)에는 동명왕이 기사자 남쪽 인근의 단군사에 단군과 함께 모셔지게 된다.¹¹⁶⁾ 반면, 동신사와 관련된 기록은 고려 초기까지만 등장한다. 사료 F를 보면 동신성모당은 정전이 누추하며 행랑과 월랑은 황량하며 수리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즈음해서 동신사에 대한 관심과 그 제사가 쇠락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한국 고대 신모는 조선시대에 각 지역의 수호신으로 머물렀다.¹¹⁷⁾ 그런데 유화는 고려왕실에서 왕권을 생성하는 원리를 실현하기도 하였다.¹¹⁸⁾ 선도산 신모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주목된다.

I-1) …… 어느덧 聖子 낳고 聖智聖母(智異山の天王이다) 道誥시켜 明堂
이라 일러주며 帝王基地 분명하니, 이로써 王姓 삼다. ……¹¹⁹⁾

2) 聖母祠(사당이 둘이다. 하나는 지리산 천왕봉 위에 있고, 하나는 군
남쪽 염천리에 있다. 고려 이승휴의 帝王韻記에 “성모는 태조의 모친

- 115) 김창현, 2005,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숭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 국가제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참고.
- 116) 『세종실록』 지리지 평양부, “檀君祠在箕子祠南(今上十一年己酉始置 與高麗始祖東明王合祠 檀君在西 東明在東 皆南向 每春秋 降香祝致祭)”; 『신증동국여지승람』 51 평양부 사묘, “東明王祠(在箕子祠傍二祠 同宇 檀君在西 東明在東 俱南向 每春秋降香祝祭以中祀 本朝世宗十一年始置)”. 이와 관련해서 김태영, 1995, 「국가제사」, 『한국사』 26, 238~243쪽; 김창현, 2005, 위의 글, 126쪽; 김영관, 2005, 「고구려 동명왕릉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명왕릉 중수기」, 『고구려연구』 20, 314~318쪽; 채미하, 2009, 위의 글, 170쪽 참고.
- 117) 김지영, 2010, 「지리산 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 『역사민속학』 34, 333~334쪽.
- 118) 유화는 고려왕실에서 왕권을 생성하는 원리를 실현하면서 서궁이 『고려도경』에 기록하였듯이, 고려 초기까지 ‘신모’, ‘성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채미하, 2006, 앞의 글, 367쪽.
- 119)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 선대기, “…… 於焉誕 聖智聖母(智異山天王也) 命誥師 指此明堂 謂斯爲種稔田 因以爲王氏 ……”.



威肅王后라 한다”고 하였다).¹²⁰⁾

- 3) …… 내가 일찍이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읽어보니 聖母가 洗師에게 명하였다[聖母命洗師]는 구절의 註에 “지금의 智異天王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고려 태조의 어머니[妣] 威肅王后를 가리킨다. 고려 사람들이 仙桃聖母의 說을 익히 듣고서 그 임금의 계통을 신성시하고자 하여 지어낸 것이 이 이야기이다. 승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제왕운기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증명할 수 없다. ……¹²¹⁾

위의 사료 I-1)을 보면 『제왕운기』의 성지성모는 고려 태조의 비인 위숙왕후를 가리키는데, 성지성모는 지리산천왕(智異山天王)이라고 하였다. 김관의의 『편년통록』에 의하면 왕릉이 일찍이 꿈에 한 미인을 만나 부인으로 삼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후에 송악으로부터 영안성¹²²⁾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 드디어 혼인하였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 세상에서는 몽부인이라 부르고 혹은 그 부인이 삼한의 어머니라 하여 그 성을 한씨라 하였다고도 한다.¹²³⁾ 이처럼 『편년통록』에서는 위숙왕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제왕운기』를 보면 위숙왕후는 지리산과 연결되어 있다. 다음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지리산 관련 내용이다.

120) 『신증동국여지승람』 31 함양 사모, “聖母祠有二 一在智異山天王峰頂 一在郡南嚴川里高麗李承休帝王韻紀 太祖之母威肅王后也”.

121) 『점필재집』 2 유두류록, “…… 余嘗讀李承休帝王韻記 聖母命洗師 註云 今智異天王 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 高麗人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爲是談 承休信之 筆之韻記 此亦不可徵 ……”.

122) 황해북도 개풍군 남포리에 있는 옛 성. 예성강 입구 동쪽 강안에 위치한 평산성이다. 9세기경에 축성한 토성이다.

123) 『고려사』 序文 高麗世系, “(隆) 貌魁偉美鬚髯 器度宏大 有并吞三韓之志 嘗夢見一美人 約爲室家 後自松嶽 往永安城 道遇一女 惟肖 遂與爲婚 不知所從來 故世號夢夫人 或云 以其爲三韓之母 遂姓韓氏 是爲威肅王后”.

J-1) 본래는 백제의 古龍郡이다. …… 智異山이 있다(地理라고도 하며 頭流이라고도 하고 方丈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南嶽이었고 中祀에 올랐다. 고려에서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¹²⁴⁾

2) (현종) 11년(1020) 5월 戊辰(18) 智異山이 무너졌다.¹²⁵⁾

3) 명종 17년(1187) 4월 癸酉(2) 智異山 神像의 머리가 홀연히 없어져 왕이 中使를 보내 그것을 찾게 하였다. 수개월 후에 찾았다.¹²⁶⁾

4) (충렬왕 원년(1275) 6월) 洪子藩에게 명하여 智異山에 제사지내게 하였다.¹²⁷⁾

위의 사료 J에 따르면, 지리산은 신라 때 남악으로 중사의 하나였는데,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고(J-1) 그 곳에서 제사를 지냈음(J-4)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리산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보이며(J-2), 지리산 신상의 머리가 홀연히 사라지는 변고가 생겼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 왕이 친히 관리로 보냈다고 하였다(J-3).¹²⁸⁾

이처럼 지리산은 고려시대 중사의 하나로, 여기에서는 사료 J-3)을 보면 신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 신상은 지리산천왕으로, 지리산천왕은 당시 위숙왕후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지리산과 위숙왕후와의 결합은 고려 명종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승휴는

124) 『고려사』 57 지 11 지리 2 전라도 남원부, “本百濟古龍郡 …… 有智異山(一云地理一云頭流 一云方丈 新羅爲南嶽 躋中祀 高麗仍之)”.

125) 『고려사』 55 지 9 오행 3 토, “(顯宗) 十一年 五月戊辰 智異山頽”.

126) 『고려사』 55 지 9 오행 3, “明宗十七年 四月癸酉 智異山神像頭忽亡 王遣中使索之 數月乃得”.

127) 『고려사』 28 세가 28, “(忠烈王 元年 六月) 命洪子藩 祠智異山”.

128) 김지영, 2010, 앞의 글, 323쪽.

『제왕운기』에서 성지성모, 즉 위숙왕후를 지리산천왕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료 I-2)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성모는 태조의 모친 위숙왕후라고 하였고 I-3)에서 김종직은 일찍이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읽었더니 ‘성모명선사(聖母命誥師)’의 주에 이르기를 ‘지금의 지리산 천왕’으로, 고려 태조의 비인 위숙왕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김종직은 고려 사람들이 선도성모의 이야기를 익히 듣고 그들 임금의 계통을 신이하게 하고자 지어낸 것이라고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선도산 신모는 중국에서 이동하여 선도산에 정착해 왕조의 시조를 낳아 나라를 열었으며 나라에 큰 난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진호하고 도와주었다. 위숙왕후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동하여 지리산과 연결되어 천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볼 때, 위숙왕후를 지리산천왕으로 본 것은 선도산 신모를 모방하여 이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⁹⁾ 이와 같은 이식은 고려 왕조의 건국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 고대 신모가 지닌 왕권생성원리가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 보이는 신모를 살펴보고,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 신모의 추송을 국가제 의와 연결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동신성모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를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신모는 시조모와 시조비로 대별된다. 이 중 시조모는 천신과 혼인하

129) 천혜숙, 2002, 앞의 글, 34쪽; 송화섭, 2007, 「地異山の 老姑壇과 聖母天王」, 『한국도교문화』 27, 247~249, 263쪽; 김지영, 2010, 앞의 글, 333~334쪽.

거나(웅녀·유화·정견모주) 배우자 없이 아들을 낳은 존재(선도산 신모)였다. 시조비로는 알영과 허왕후가 있으며, 소서노는 시조모이자 시조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건국신화를 보면 신모 중 시조모는 시조를 낳고 양육하고는 건국 이후에는 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신모가 한국 고대 건국신화에서 소외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유화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시비·시아-하백녀-하백녀 유화로 나오며 그 성격도 수신적 성격뿐만 아니라 신모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선도산 신모 역시 6촌장 세력과 연합하면서 신모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신라 중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고대 건국신화가 시기에 따라 변하여도 유화와 선도산 신모가 지닌 시조모로서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고대 신모 중 유화는 태후묘, 수신제, 신묘에서 ‘태후’, ‘수신’, ‘부여신’으로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고구려 내내 추송받았다. 선도산 신모 역시 신라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다. 이와 같이 국가제의에서 신모에 대한 추송은 한국 고대 신모신앙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도산 신모는 신라 중고기까지는 신라 최고의 제사 대상이었지만, 통일 이후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 고구려가 주몽신화를 중심으로 건국신화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신라는 3성 시조신화가 있었다. 그리고 3성 시조와 관련된 국가제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였다. 게다가 통일을 전후하여 ‘호국삼여신’을 모시는 삼산이 대사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도산 신모는 국가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선도산 신모는 유화와 마찬가지로 신라 말까지 신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았다.

유화와 선도산 신모는 고려시대 동신성모로 전승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동신성모는 한국 고대 신모를 통칭한 것이 아닐까 하였다. 특히 김부식이 선도산 신모를 동신성모라 한 이유는 3성 시조 전승과 선도산 신모 전승이 차이가 있었고 유화와 짝하는 주몽의 사당이 서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고려시대 동신성모를 모신 동신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으며 조선시대에 한국 고대 신모는 각 지역의 수호신으로 물러났다. 이것은 고려와

조선에서 역대 시조를 국가제사의 하나로 중시한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고대 신모의 왕권생성원리는 여전하였으며, 이 중 선도산 신모는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와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를 알 수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강영경, 2012, 「단군신화에 나타난 용녀의 역할」, 『여성과 역사』 16.
- 권주현, 2009, 「왕후사와 가야의 불교전래문제」, 『대구사학』 95.
- 권주현, 2011, 「삼국사기에 보이는 4~5세기의 가야와 삼국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 김상기, 1964, 「國史上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1,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위상」, 『사학연구』 99.
- 김준기, 1995, 「한국의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0, 「지리산 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 『역사민속학』 34.
-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 『한국사연구』 118.
-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 김철준, 1990, 「동명왕편에 보이는 신모의 성격」,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태식, 1996, 「대가야의 세계와 道設智」, 『진단학보』 81.
- 멀치아 엘리야데, 1993, 「중교사개론」, 까치.
- 문경현, 1992,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2, 신라문화선양회.
- 박상란, 2005,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주).
- 서대석, 1998,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5.
- 서대석, 2001,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 서영대, 1994, 「민속종교」, 『한국사』 16.
- 서철원, 2008, 「대가야 건국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백제 건국신화의 인물 형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송정화, 2003, 「중국여신의 특징에 대한 소고」, 『동아시아여성신화』, 집문당.
- 송화섭, 2007, 「地異山の 老姑壇과 聖母天王」, 『한국도교문화』 27.
- 이지영, 1995, 『한국신화의 神格 유래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장지훈, 1999, 「한국 고대의 지모신 신앙」, 『사학연구』 58·59.
- 조동일, 1999,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시조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 조현설, 1999,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연구』 9.
- 조현설, 2003,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 채미하, 2006, 「고구려의 국모신앙」, 『북방사논총』 12.
-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 채미하, 2009, 「고려시대 東明에 대한 인식 - 국가제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4.
- 채미하, 2011, 「신라의 6촌과 산악제사」, 『신라사학보』 23.
- 채미하,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 천혜숙, 2002, 「父性不在'의 신화학과 聖母신앙의 문제」, 『역사민속학』 15.
- 천혜숙, 2007,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 16.
- 최문형, 2000, 「단군신화의 여성상과 여성원리에 나타난 통일이념」, 『단군학연구』 4.
- 한영화, 1999, 「고구려 지모신신앙과 母處制」, 『사학연구』 58·59.
- 황패강, 1988, 「단군신화의 연구」, 『단군신화론집』, 새문사.



[국문 초록]

한국 고대 신모(神母)와 국가제의의(國家祭儀)
- 유화와 선도산 신모를 중심으로 -

채미하

이 글은 건국신화와 국가제의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역사성과 그 추승을 살펴 보았으며 그것의 변이는 고려시대 동신성모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다. 우선 신모는 시조모와 시조비로 대별되는데, 이 중 시조모는 시조를 낳고 양육하고는 건국 이후 사라진다. 하지만 신모가 지닌 시조모로서의 역할은 한국 고대 건국신화가 시기에 따라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 고대 신모 중 유화는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고구려 내내 추승받았고 신라의 선도산 신모 역시 그러하였다. 하지만 선도산 신모는 유화와는 달리 그 격에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주몽신화를 중심으로 건국신화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신라는 3성의 시조신화가 있었고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시조제사의 격에 변화가 있었다. 선도산 신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선도산 신모는 고려시대에 유화와 함께 동신성모로 인식되었는데, 김부식은 동신성모를 선도산 신모로 파악하였다. 한편, 한국 고대 신모의 왕권생성원리는 고려시대 이후에도 여전하였는데, 선도산 신모의 경우 고려 태조의 어머니인 위숙왕후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신모의 변이를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건국신화, 국가제의, 신모, 시조모, 시조비, 지모신, 웅녀, 유화, 정견모주, 선도산 신모, 알영, 허왕후, 소서노, 동신사, 동신성모, 위숙왕후

[ABSTRACT]

Sinmo and State Religious Ceremonies in Ancient Korea
 - Focused on Yuhwa and Seondosan Sinmo -

Chai Miha

This study focuses on Sinmo as shown in Korea's ancient birth myth, and on understanding the status of ancient Sinmo focused on Yuhwa and Seondosan Sinmo as related to state religious ceremoni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s ancient Sinmo by the Dongsin Seongmo, of the Goryeo dynasty, also is treated.

First, Sinmo is largely differentiated in to Sijomo and Sijobi. Sijomo married Cheonsin, or the existence that gave birth to a son without a spouse. Sijobi was represented by Ayeong and Heo wanghu, and Soseono was both Sijomo and Sijobi. However, the earthly - mother - goddess of Sijomo was reflected in the ever changing Korean ancient birth myth. Given from above, the historical feature of Korea's ancient Sinmo was well understood.

Yuhwa of Korea's ancient Sinmo had been chosen to be worshipped as Taehu, Susin, and Buyeoshin in each of Taehumyo, Susinje, and Sinmyo as the subject of state ancestral rites during the Goguryeo period. Seondosan Sinmo also had been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state ancestral rite during the middle period of Silla and remained so until late Silla, though there was a status change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Silla. While the origin myth of Goguryeo focused on the myth of Jumong, Silla's origin myth included the myth

of the progenitors of the three surnames. And the state ancestral rites related to the progenitors of the three surnames were later chang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Further, the three goddesses protecting the country represented three mountains which were the subjects of important rites from Unified Silla,

Dongshin Seongmo in Goryeo was generally named for the ancient Sinmo, and Yuhwa and Seondosan Sinmo both were chosen in early Goryeo, while only Seondosan Sinmo was chosen after Goryeo's middle period. This was because the Seondosan Sinmo myth differed from the myth of the three progenitors. Another reason was that the shrine of Jumong, who mated with Yuhwa, was located in Seogyeong. Meanwhile, the origin of the regal power of Seondosan Sinmo was related to Queen Wisuk, who was the mother of the first king of Goryeo, and we found the meaning of ancient Shinmo in the Goryeo dynasty. These meanings may be compared with that for each progenitor, and were considered important as a state ancestral rite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Keywords

country birth myth, state religious ceremony, Sinmo, Sijomo, Sijobi, early - mother - goddess, Woongnyeo, Yuhwa, Jeonggyeonmoju, Seondosan Sinmo, Ayeong, Soseono, Dongsinsa, Donghin Seongmo, Queen Wisuk

「집안고구려비」의 수묘인 ‘차착(差錯)’ 문제를 통해 본 건립 시기 검토

이천우 |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2012년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이하 집안비)가 발견된 이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학계와 국내 학계에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¹⁾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집안비가 갖는 의의는 적지 않다. 첫째로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이하 능비)와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에 이어 세 번째 고구려비가 발견되었다는 점, 둘째로 비의 형태가 능비와 중원비와는 전혀 다른 규형비(圭形碑)라는 점, 마지막으로 고구려 수묘제(守墓制) 연구에 있어 유일한 자료였던 능비와 긴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집안비는 능비에서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구려 수묘제 연구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 투고: 2016년 2월 8일, 심사 완료: 2016년 5월 2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1) 중국학계와 국내 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강진원,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 현황 - 약간의 陋見을 덧붙여 -」, 『목간과 문자』 11, 116~120쪽 참고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비를 활용한 연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 당국에서 국내 학계의 실견(實見)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탁본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집안비의 활용도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학자들조차 서로 다른 다수의 판독문을 제시하다보니,²⁾ 차후 비문과 탁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판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수요인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글자가 양호하며, 판독상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글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초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한편, 집안비 관련 연구의 한계에 기인하여 집안비의 진위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³⁾ 이후 진위 여부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⁴⁾ 현 시점에서 한-중 사학계 내에서는 진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집안비가 위비일 경우 그 제작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집안비 정도의 석비 제작을 불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후대에 만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안비의 진위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는 새로운 금석문의 발견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초기에 제기되었던 어설픈 위작설이 제기된 이래 학계 내에서 집안비의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2) 이와 관련하여 尹龍九,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拓本과 判讀」, 『韓國古代史研究』 70, 25~26쪽 참고.

3) 집안비가 국내에 소개되자 '제2의 동북공정'을 목적으로 만든 위비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문성재, 『중앙일보』, 2013. 1. 17, 2면; 문성재, 『중앙일보』, 2013. 1. 31, 23면. 이에 대해 耿鐵華는 반박 논문을 발표하며 문성재의 논지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耿鐵華, 2013,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진위(眞僞)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70.

4) 이후 서영수에 의해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 이후(서영수, 2013, 「說林 - '지안 신 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 - 『中國文物報』의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45) 정구복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위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구체화되었다(정구복, 2014, 「집안 고구려비」의 진위론」, 『韓國古代史探究』 18).

있는 실정이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그간 학계의 관심에 소홀히 되어왔던 집안비의 진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집안비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며 집안비와 능비와의 구성 및 내용 비교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집안비와 능비는 내용적 유사성 때문에 비교 검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글에서 시도하는 연구 방법론 역시 기존의 집안비 관련 연구 성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⁶⁾ 다만,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집안비의 건립 시기와 그 성격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반면, 이 글은 능비와 비교했을 때 집안비에서 확인되는 내용적 모순점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겠다.

2장에서는 우선 집안비의 진위 논쟁의 전개 양상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능비의 수요인연호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집안비와의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3장에서는 집안비가 능비와 달리 수요인 매매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능비에서 매매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매매의

5) 이는 정구복의 논문 맺음말에 추기한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추기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추고 본 논문은 한국고대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고대사연구』에 게재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위원 두 사람이 위작이라면 어떤 동기로 누가 위작한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는 등의 요지로 다음호에 수정 후 재심사를 받으라는 판정을 받아 게재가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본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 심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구의 일부 수정을 하여 학계의 질정을 받고자 본 학회지에 제출하며 경철화 씨에게는 본 내용에 대한 학문적 논쟁을 제기하는 바다”. 정구복, 2014, 앞의 글, 201쪽.

6) 금석학적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한국학계에서는 비문의 내용과 문체 및 서체 형식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문체와 서체에 관해서는 2013년 2월 22일 고구려발해학회에서 주최한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에서 高光儀의 견해인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가 제시된 이후, 동년 5월 23일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에서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판독 및 서체검토」를 주제로 발표회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필자가 집안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문 내용의 검토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주체와 대상을 각각 구분한 뒤, 이를 집안비와 결부시켜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집안비가 담고 있는 내용이 시기적인 모순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판독문들 가운데 어느 것에 의거해야할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⁷⁾ 현재로서는 집안시박물관(集安市博物館)에서 간행된 공식보고서인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⁸⁾의 판독안을 토대로 두 차례의 판독회를 걸친 한국고대사학회의 판독 결과⁹⁾를 참조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구자 개인마다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보적인 입장 속에서 확정된 글자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광개토왕비」 수묘인연호조의 구성과 ‘차차’ 발생 원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안시박물관에서 간행된 공식보고서인 「집안고구려비」의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7) 중국학계에서 집안비에 대한 다수의 개별 논문이 발표되면서 연구자들마다 나름의 판독안을 제시하였지만, 중국학자들조차 서로 다른 다수의 판독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비문의 성격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尹龍九, 2013, 앞의 글, 25~26쪽. 한국학계에서는 한국고대사학회의 주도로 개최된 두 차례의 판독회(2013년 3월 9일, 6월 1일)를 거쳐 鄭東珉에 의해 정리되었다. 이후 윤용구, 여호규에 의해 개별 판독안이 제시되었고, 홍승우, 강진원, 선주선, 정현숙 등에 의해서도 전체 판독안이 제시된 바 있다.
- 8) 集安市博物館 編著,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 9)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2013년 3월 9일 1차 판독회, 2013년 6월 1일 2차 판독회를 거쳐 異見이 있는 字形을 제외한 공동판독문을 작성하고 이를 鄭東珉이 정리하였다. 尹龍九, 2013, 앞의 글, 24~25쪽.

集安市博物館, 2013. 1,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11쪽 156字

- I -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
- II - □□□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 III - □□□□□烟戶以此河流四時祭祀然而□備長烟.
- IV - □□□□烟戶□□□□富足□轉賣□□守墓者以銘.
- V - □□□□□□□□□□太王□□□□王神□□與東西.
- VI - □□□□□□□□追述先聖功勳弥高悠烈繼古人之慷慨.
- VII - □□□□□□□□□□自戊□定律教□發令其修復各於.
- VIII - □□□□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以示後世自今以後.
- IX -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轉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 X - 賣如有違令者後世□嗣□□看其碑文与其罪過.

집안비가 국내 학계에 소개된 이후, 위비(僞碑)일 가능성이 국내 신문에 보도되었다.¹⁰⁾ 내용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우선 능비는 전서·해서·예서 등의 서체가 혼합되어 있는 반면, 집안비는 반듯한 예서체만 확인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능비는 ‘홀본(忽本)’, ‘잔국(殘國)’, ‘노객(奴客)’, ‘매금(寐錦)’ 등 알타이어나 고구려어의 특색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어휘가 있고, 부자연스러운 한문투로 이루어졌지만, 집안비는 완벽한 순한문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세 번째로 비의 석질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능비가 자연에서 채취한 거대한 원석을 그대로 쓴 반면 집안비는 반듯하게 깎아놓은 규형비라는 점이 그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I행의 ‘천도자승(天道自乘)’이란 표현을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도교사상으로 파악한 뒤, 고구려에 도교가 수용된 시기는 6~7세기로 5세기 때 그 표현이 나온 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중국학자 경테화(耿鐵華)는 비문과 탁본에 대한 깊은 연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추측에만 의존해 근거 없는 의심만 제기한다고 반박

10) 각주 3과 동일하다.

하였다.¹¹⁾ 이후 문성재와 한상봉은 이러한 견해에 또다시 반박을 제기하였는데,¹²⁾ 내용의 전개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기존에 제시된 판독문의 문을 표하며 나름의 새로운 판독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거들이 자의적인 판독과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¹³⁾ 또한 일부 중국 학계에서 제시한 Ⅷ-4~8 글자의 판독¹⁴⁾인 ‘정묘세간석(丁卯歲刊石)’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탁본상으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견해이며,¹⁵⁾ 오히려 ‘好太王曰’로 읽는 견해¹⁶⁾가 국내 학계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11) 경태화[耿鐵華]는 장기간 집안에서 거주한 사람이 위비를 만들 목적으로 혼하지 않은 규형을 선택했을지 반문하며, 우선 고구려에는 광개토왕 이전에 墓碑가 없었으며, 이는 능비의 差錯 문제의 기록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광개토왕이 선대왕들을 위해 비석을 세울 당시 「관구검기공비」와 같은 규형 비석을 선택지로 삼았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광개토왕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 비석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耿鐵華, 2013, 앞의 글, 251~261쪽. 한편, 그는 비의 출토 상황뿐만 아니라 비문의 내용과 문제, 도교사상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반박하였는데, 이하의 내용은 이 글의 논지 전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반박 내용에 대해서는 耿鐵華, 2013, 위의 글, 263~26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2) 문성재, 2013, 「집안 마선비의 건립 연대 및 비문 단구 문제」, 『고조선단군학』 29; 한상봉, 2013, 「麻線 高句麗碑의 書體와 金石學의 問題點」, 『서예학연구』 24.

13) 가령 Ⅱ-12~14자를 「集安高句麗碑」에서는 「護假蔭」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문성재는 「乾假照」로 판독하였는데(문성재, 2013, 위의 글, 68~69쪽), 제시한 근거가 학술적 근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석 틀에 맞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의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실사 형태적으로 전자(護假蔭)와 비슷하다고 해도 문법적으로 의미가 통하게 하려면 가장 가까운 글자의 조합은 「乾假照」 밖에 없다”.

14) 張福有, 「集安麻線高句麗碑碑文補釋」, 『中國文物報』, 2013. 4. 10. 본래 중국문물국 공식사이트(<http://www.ccrnews.com.cn/plus/view.php?aid=45740>)에 올라왔지만, 현재는 그 기사가 삭제된 듯하다. 다만, 기사 원문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http://tieba.baidu.com/p/2265592437>).

15)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한국사학보』 54, 9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성재는 장부유[張福有]가 4월 10일 中國文物局에 발표하기 얼마 전인 4월 5일 홍콩의 『名家』 2월호에 같은 제목으로 기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에는 언급하지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6)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그러나 경태화의 견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우선 「관구검기공비」의 경우 집안 지역에 건립된 비석이기는 하지만, 고구려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광개토왕이 ‘묘상입비(墓上立碑)’를 함에 있어 「관구검기공비」를 모델로 선택했다는 추론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규형’이 선대왕들을 위한 적절한 형태였는지도 의문이다.¹⁷⁾ 무엇보다도 비교 군이 적기는 하지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능비와 「충주고구려비」가 갖는 시대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동시대의 비석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결국 진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비석 자체에 대한 금석학적 검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도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뒤 집안비의 내용과 형식 등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통해 진위 여부를 논한 연구¹⁸⁾가 개진되기도 하였다.¹⁹⁾

해당 연구를 잠시 살펴보면 크게 문체적 부분과 내용적 부분으로 나누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²⁰⁾ 특히 집안비에 선왕묘소의 수묘인에 대한 ‘차착(差錯)’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²¹⁾ 능비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두 번이나 언급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왕(祖先王)의 묘에 수묘인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고 기술했음에도 차착

70; 尹龍九, 2013, 앞의 글.

17) 『說文解字』에 따르면, ‘圭’는 “상서로운 玉이다. 위는 둥글고 아래는 편평하다. 이것으로 諸侯를 封하였다(瑞玉也. 上圓下方. …… 以封諸侯.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 정구복, 2014, 앞의 글.

19) 정구복은 집안비의 문체적 특징과 내용적 검토는 여호규, 2013, 앞의 글에 의해 행해졌지만, 집안비의 진위 문제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논증했다는 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구복, 2014, 위의 글, 178쪽.

20) 정구복, 2014, 위의 글, 180~194쪽 참고.

21) 정구복, 2014, 위의 글, 185쪽.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상하다는 것이다.²²⁾ 이를 통해 만일 집안비를 참고하여 능비를 작성했다면, 능비에서의 차차 문제는 새롭게 지어낸 것이며, 반대의 상황이라면 집안비의 찬자가 차차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³⁾

내용적 측면에서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능비의 차차 문제가 조선왕의 묘소 수묘인에 한정하여 생긴 문제였고, 장수왕의 매매금지령과는 그 대상과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²⁴⁾ 즉 능비에서의 매매금지령은 장수왕 2년 능비를 건립할 때 세운 칙령으로 해석하여 차차 문제와 매매 문제의 성격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²⁵⁾ 이렇게 본다면 집안비에서 수묘인의 차차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능비 건립 시기에 매매 문제만이 언급된다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묘인 매매 문제에 있어 매매 대상을 수묘인의 인신(人身)으로 파악하여, 연호두의 이름을 비석에 새겼다는 내용과 수묘하는 백성(守墓之民)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내용적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²⁶⁾ VII~VIII행의 ‘各於□□□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는 조선왕에 대해 ‘묘상입비’한 후 연호두

22)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호섭, 2014,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비교 연구」, 『한국사연구』 167, 16~17쪽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23) 정구복, 2014, 앞의 글, 185쪽. 물론 이러한 견해는 연호두의 인명 자체는 항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수묘인이 사망하거나 수묘역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수묘인의 인명은 더 이상 차차를 막기 위한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임기환, 2014, 앞의 글, 110쪽. 이와 관련하여 집안비 단계에서는 수묘인연호 이름을 새기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능비 단계에 이르러 지역명만을 새기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孔錫龜, 2013,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考察」, 『고구려발해연구』 45, 49쪽;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한국고대사연구』 72, 110~111쪽. 하지만 비석의 형태와 그 내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위를 했을지 의문이다.

24) 정구복, 2014, 위의 글, 190쪽.

25) 정구복, 2014, 위의 글, 192쪽.

26) 정구복, 2014, 위의 글, 193~194쪽.

20명의 이름을 새긴 내용으로 볼 때 매매금지의 대상은 ‘연호두의 매매’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㉔행에서는 ‘수묘지민’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집안비가 비석에 이름을 새긴 연호두와 수묘하는 백성을 같은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호두’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²⁷⁾ 대체로 신분적 혹은 경제적 혹은 직역상으로 일반 수묘인보다 우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안비는 ‘연호두’와 ‘수묘지민’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내용적 오류를 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집안비의 문체적 부분과 내용적 부분을 종합하여 후대인이 만든 조작한 비석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이 진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이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확보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²⁸⁾ 이상의 연구는 집안비의 문장 내용과 형식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진위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지만, 비문의 진위 여부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안비의 진위 논쟁에 있어 위비라 판단할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논쟁 그 자체는 더 이상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진위 논쟁의 과정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이후 집안비에 대한 학술적 성과의 개진을 위해서는 비문 내용의 정밀한 분석과 더불어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능비에서 확인되는 수묘인 연호조 관련 내용에서의 ‘차착’ 및 매매 문제가 집안비에서도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집안비의 경우 상당히 축약된 형태의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안비에서 능비와 유사한 어구가 많이 발견되며, 심지어 동일한 문장도 확인된다는 사실은 집안비와 능비를 관련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27) 이와 관련하여 정호섭,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그 주변의 高句麗 古墳」, 『한국고대사연구』 70, 125~127쪽 참고하기 바란다.

28) 정구복, 2014, 앞의 글, 201쪽.

우선 능비와 집안비의 수묘인 연호조 관련 내용을 살펴본 뒤 집안비 내에서의 차차 문제와 매매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중국문물보(中國文物報)』에 따르면 집안비가 발견되었을 당시 외형상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비석의 무게가 464.5kg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이동 역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석의 발견 상황은 대체로 집안비가 본래의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중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안비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해있는 천추총의 수묘비로 파악하고 있다.²⁹⁾ 이는 능비에서 광개토왕이 조선왕을 위해 ‘묘상입비’를 했다는 기록³⁰⁾과도 일맥상통한다. 만일 집안비의 Ⅸ-21~22자~Ⅹ-1~4자인 ‘各於△△△△’가 일부 중국학계의 판독안³¹⁾과 같이 ‘선왕묘상(先王墓上)’이 맞다면, 집안비는 능비의 ‘爲祖先王 墓上立碑’ 기록에 해당하는 성격의 비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안비를 묘상입비로 판단하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집안비가 발견된 지점은 ‘묘상입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³²⁾ 먼저 집안비의 발견 지점이 천추총의 마선하 강변 서쪽 지역이라는 사실은 집안비를 천추총의 수묘비로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³³⁾ 집안비 발견 지점은 행정구역상 마선향에 속하지만, 고구려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된 건강촌과의 경계지라고 한다.³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논리를 살펴보면, 수묘비를 무덤 근처가 아닌 마을 근처에 세운 셈이 된다.

29) 集安市博物館 編著, 2013, 앞의 책, 7쪽.

30) 「광개토왕릉비」,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 墓上立碑銘其烟戶 不令差錯”.

31) 중국학계에서는 孫仁杰, 耿鐵華, 張福有에 의해 제시되었고, 국내 학계에서는 여호규도 ‘先王墓上’으로 판독하였다. 여호규, 2013, 앞의 글, 60쪽.

32) 이에 대해서는 정호섭, 2013, 앞의 글, 122~124쪽에서 지적된 바 있다.

33) 孔錫龜, 2013, 앞의 글, 40~42쪽; 정호섭, 2013, 위의 글, 115~116쪽.

34) 강현숙, 2014, 「집안 고구려비에 대한 고고학적 추론 - 묘상입비와 관련하여」, 『高句麗渤海研究』 50, 261쪽. 나아가 천추총보다는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마선하의 흐름과도 일치되는 마선구 2100호 분과 대응시키고자 하였다. 강현숙, 2014, 위의 글, 274~276쪽.

이는 집안비의 성격이 수묘비 보다는 교령비에 가깝다는 견해의 근거가 될 수 있다.³⁵⁾

둘째로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존에 집안비가 묘상입비와 별개의 비석이었을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³⁶⁾ 그러나 대체로 집안비가 능비에서의 묘상입비는 아닐지라도, 묘상입비와의 관련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묘상입비와 집안비, 능비와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거나,³⁷⁾ 묘상입비-집안비-능비가 수묘제의 정비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³⁸⁾ 이와는 달리, 건립 시기를 ‘묘상입비-능비-집안비’의 순서로 설정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파악한 뒤 각각의 비석이 갖는 성격을 추정하는 견해도 개진되었다.³⁹⁾

이상 간단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 간에 판이하게 다른 판독안을 제쳐둔다면, 발견 지점과 내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집안비의 건립 시기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집안비가 묘상입비인가, 아니면 별개의 비석인가 하는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곧 광개토왕대 혹은 장수왕대에 건립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묘상입비’ 여부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집안비의 건립 시기와 그 성격에 대한 이해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당시 하천이 현재의 마선하와 동일한 상태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향후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발견 지점에 대한 의문점은 단순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그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묘상입비’와 집안비와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능비의 수묘인연호조 기사가 주목된다.

35) 정호섭, 2013, 앞의 글, 124~125쪽.

36) 이와 관련하여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215쪽, 각주 22 참고.

37) 기경량, 2014, 위의 글, 233~234쪽.

38) 김현숙, 2014, 「광개토왕비, 집안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수묘제 정비」, 『嶺南學』 26, 28쪽.

39) 이와 관련하여 정호섭, 2013, 앞의 글, 125~127쪽 참고.

(가) -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

(나) - 國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 教言.

① 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守墓洒掃.

②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教如此.

③ 是以如教 令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다) - ①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②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③ 又制 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 其有違令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제시된 능비의 수묘인연호조 기사를 살펴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는 수묘인 차출 지역과 수묘인 목록, (나)는 광개토왕의 교언 내용과 장수왕이 그 교언에 따라 슈을 내리는 내용, (다)는 광개토왕의 묘상입비 내용과 매매금지법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나)와 (다)는 동시기대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능비의 수묘인연호조 기사가 (가)를 제외하고는 ‘조선왕 → 광개토왕 → 장수왕’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① 조선왕이 교(敎)를 내려 원근의 구민(舊民)을 수묘(守墓) 및 쇠소(洒掃)하게 하였는데, ② 광개토왕은 구민들이 점점 이열(羸劣)해질까봐 걱정하여, 자신의 묘를 지키는 것은 자신이 약취하여 데려온 한예(韓穢)들만을 취하여 쇠소를 준비하게 하는 교를 내렸고, ③ 장수왕은 이 교에 따라 한예 220가(家)를 데려다 수묘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수묘)법을 알지

〈표 1〉 「광개토대왕비」 수묘인연호조 기사 구분

시기	내용
조선왕(祖先王)	(나) - ①, (다) - ①
광개토왕(廣開土王)	(나) - ②, (다) - ②
장수왕(長壽王)	(나) - ③, (다) - ③ ⁴⁰⁾

못할까 걱정하여 다시 구민 110가를 더하여 국연(國烟) 30, 간연(看烟) 300 도합 330가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에서 조선왕 시기 수묘제의 운영 형태를 걱정한 광개토왕이 ②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를 내린 것이다. 이에 장수왕은 광개토왕의 교를 받들어 ③을 행했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것(한예가 수묘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을 대비하여 추가로 조치를 취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는 세 개의 시점이 존재하지만, ‘① 문제 발생원인, ② 문제 해결 제시, ③ 敎에 따른 실시+장수왕의 추가 조치’라는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祖先王 이래로 묘상에 석비를 안치하지 않아 수묘인연호의 차착 문제가 발생하자, ② 오직 광개토왕이 조선왕을 위해 묘상입비를 한 후 그 연호를 새겨 차착이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나) - ③과는 달리 (다) - ③은 광개토왕의 교에 따른 장수왕의 실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③ 수묘인의 전매(轉賣)와 부족지자(富足之者)의 천매(擅買)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제정했다고 하여 장수왕의 독자적인 조치가 기술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는 (나)와는 달리 두 개의 텍스트가 합쳐진 것일까.

40) (다) - ③의 주체에 대해서는 광개토왕인지 장수왕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장수왕대일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용현, 2013, 「신발견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비교」,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발표문, 33쪽; 임기환, 2014, 앞의 글, 102쪽. 무엇보다도 (나), (다)의 내용 구성방식을 볼 때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대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 - ③의 조처는 장수왕이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문제 발생 시점과 해결 주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자. ①은 조선왕의 수요제 운영 행태를 기술하였고, ②에서는 ①에 대한 광개토왕의 걱정이 기술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②에서 구민의 ‘전당이열(轉當羸劣)’은 광개토왕대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광개토왕의 걱정을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 역시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에 행해질 교를 내려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고, 장수왕은 이에 따라 교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나)는 광개토왕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장수왕에 의해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 차착 문제는 (나)와는 달리 광개토왕대 당면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 - ②와 같이 ‘묘상입비’와 ‘명기연호(銘其烟戶)’를 통해 차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나)에서 세 부분에 걸쳐 서술된 일련의 과정이 (다)에서는 두 번의 과정으로 ‘시행 단계’까지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 - ③은 광개토왕의 (다) - ②의 조치가 있는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장수왕대에 이르러 다시 취해진 조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나)가 시기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 - ①에서 제기된 차착 문제를 (다) - ②에서 해결하였음에도 (다) - ③에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나) - ③에서 장수왕대 이르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 - ③ 역시 장수왕대 ‘차착’ 문제와 관련하여 광개토왕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이는 조선왕 묘상에 비석을 안치하지 않아 발생한 ‘차착’ 문제와 장수왕이 겪은 차착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내용이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정이 허락된다면, 장수왕 이전에 발생했던 차착 문제와 장수왕대 발생한 차착 문제를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수왕 이전에 발생했던 ‘차착’ 문제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묘상불안석비(墓上不安石碑)’라는 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차출 지역에 대한 엇갈림, 다른

하나는 국연-간연 간의 엇갈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국연과 간연이 조선왕 시기에도 존재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전자의 경우에 설득이 간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묘인 모두 국도 부근으로 사민 되어 수묘역을 담당했다는 견해⁴¹⁾를 고려한다면, 국연과 간연이 함께 편제된 지역에서 국-간연 간의 차착으로 볼 여지도 있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는 데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장수왕 이전의 ‘차착’ 문제에 대해서는 광개토왕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묘상입비와 명기연호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①, ②만으로도 완결성을 지닌 텍스트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다)-③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개토왕의 (다)-②의 조치만으로는 장수왕 대 새로 발생한 ‘차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③은 수묘인 매매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내용으로, (다)-①의 내용만으로는 장수왕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안비에는 수묘인연호조 전반에 걸쳐 수묘인 매매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집안고구려비」에서의 ‘차착’ 문제와 건립 시기

능비에서 ‘묘상입비’와 ‘명기연호’는 조선왕의 묘상에 석비를 안치하지 않아 발생한 차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개토왕의 정책이었으며, 이후 장수왕이 실시했던 수묘인 매매금지과 처벌규정의 제정은 광개토왕의 정책과는 다른 문제에

41) 孔錫龜, 2013, 앞의 글, 21쪽.

대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장수왕이 이러한 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수묘인 매매금지조항의 구체적 행위인 ‘전매’와 ‘천매’를 주목해 보자.

우선 ‘전매’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자면 샀던 물건을 다시 되파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천매’는 함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두 행위를 보면 모두 ‘매(買)’라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장수왕이 수묘인 매매금지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수묘인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천매’는 ‘부족지자’라는 대상을 지칭하여 그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과거에는 ‘부족지자’가 수묘인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장수왕이 금지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는 수묘인들의 매매가 용인되어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종합해 본다면, 수묘인 매매 문제가 장수왕대 이르러 금지와 처벌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 시기를 전후로 수묘인 매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수왕대에 수묘인 매매가 문제시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에 앞서 우선 수묘인 매매의 대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묘인에 대한 연구들로는 우선 수묘인의 사회적 위상이 일반양인(良人)보다 낮았기 때문에 수묘인 자신의 인신(人身)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고,⁴²⁾ 이는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두 번째로 국연과 간연의 수묘역 수행이 국가의 토지지급을 매개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매매금지의 대상은 이들이 사여 받은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견해다.⁴³⁾ 세 번째로는 수묘인의 소유가 전제된 병장기 등의 동산으로 보는 견해,⁴⁴⁾ 마지막

42) 김현숙,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の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32쪽.

43) 조법중,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 守墓人の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8, 220쪽.

44) 이인철, 1997, 「4~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 - 廣開土大王碑의 守墓人煙戶條를 중심으로」, 『淸溪史學』 13, 72쪽.

으로 ‘갱상(更相)’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수묘인들의 노동력으로 보는 견해⁴⁵⁾가 제시된 바 있다.⁴⁶⁾

그러나 수묘인의 매(買) 행위의 주체가 ‘부족지자’라고 명기한 부분은 그냥 넘기기 힘든 부분이다. ‘부족지자’의 표현으로 보아 이들은 경제력을 갖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들이 수묘인을 샀던 목적으로는 본인이 속했던 선조 혹은 가계 인물의 수묘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본인이 수묘역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왕실 혈통의 인물 혹은 명립답부와 같이 왕실의 승인을 받은 인물들 외에 개인적으로 수묘인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수묘인 매매의 대상은 전자를 제외한다면 ‘부족지자’를 대신하여 수묘역을 부담하는 대상, 즉 본래 수묘의 역을 부담하지 않던 인물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수묘인 매매행위는 금지 규정이 제정되는 장수왕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수묘인의 매매를 통해 새로운 수묘역이 기존의 수묘역을 대신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수묘제가 운영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에서 수묘인의 출자 지역과 편성호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집안비에서와 같이 연호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수묘인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편성호에 맞춰 수묘역을 충족시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장수왕대 수묘인 매매 문제가 표면화된 이유를 살펴 보도록 하자. 이와 관련하여 (나) - ②, ③이 주목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나) - ②에서 광개토왕은 ‘신래한예’가 수묘역을 부담하게 하는 교(敎)를 내렸다. 이때 (나) - ③과 같이 장수왕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수묘인

45) 기경량, 2010, 「高句麗 國內城 시기의 왕릉과 守墓制」, 『韓國史論』 56, 70쪽; 정호섭, 2012, 「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守墓制 改編」, 『先史와 古代』 37, 152~153쪽.

46) 이에 대한 연구사는 기경량, 2014, 앞의 글, 228~229쪽 참고.

매매가 문제가 된 시기와 광개토왕의 교가 시행되는 시기가 모두 장수왕대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두 사건이 밀접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래한예’의 수묘역 투입으로 장수왕대에 이르러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차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수묘인 매매의 주체와 대상이 과거와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장수왕 이전에는 ‘원근구민(遠近舊民)’ 사이에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매매형태가 이루어졌던 반면, 수묘역 구성호에 전쟁포로였던 ‘신래한예’가 추가로 편성되면서 매매의 주체와 대상이 ‘신분’에 기반하여 정해질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⁴⁷⁾ 문제는 전체 수묘호 구성에 있어 구민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신래한예’의 비율은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고구려의 수묘법을 잘 모르는 ‘신래한예’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③을 통해 장수왕이 추가적으로 구민(舊民)을 투입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장수왕의 노력은 처벌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수묘인을 판 자는 형벌에 처하는 반면, 수묘인을 산 자는 수묘역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때 수묘인을 거래하는 자들은 모두 구민이며, 거래 대상은 ‘신래한예’가 될 수 있다. 추론을 보태자면, 산 자는 장수왕 이전 시기의 ‘부족지자’와 같이 수묘역을 부담하는 구민으로 볼 수 있으며, 판 자는 수묘역을 부담하지 않는 구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신래한예’가 수묘호에 새로 편성됨에 따라 수묘역에서 제외된 구민이 발생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상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신래한예’의 수묘호 편성에 따라 장수왕 이전과는

47) 이와 관련하여 수묘인의 사회적 지위를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고구려의 구민과 신래한예의 신분이 과연 신라 골품제와 같이 법적으로 구별되었는지, 아니면 같은 민 신분이되 사회적 지위에서 차별을 받았던 것일지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여전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신래한예의 출자가 능비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 대체로 전쟁포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민과 신래한예 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리라 판단되며, 설령 없었음지라도 양자 간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형태의 ‘차착’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수왕이 수묘인 매매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집안비의 수묘인 연호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제시되는 사료는 집안비 Ⅲ~Ⅳ행의 내용이다.

(라) - □□□□△△烟戶 以△河流 四時祭祀 然而△備長烟 □□□

□烟戶□△△□富足□轉賣△△守墓者以銘.

(마) - 自今以後 守墓之民 不得擅買 更相轉賣 雖富足之者 亦不得其買

賣如有違令者 後世△嗣△△ 看其碑文 与其罪過.

우선 (라)의 ‘△備長’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연호가 사시제사(四時祭祀)를 지낸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능비의 (나) - ②에서 구민의 ‘전당이열’과 대응되는 표현이다. (라)에는 미판독자가 많아 전체 판독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이는 ‘연호’, ‘부족’, ‘전매’, ‘수묘자이명(守墓者以銘)’이라는 글자는 능비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 집안비와 능비와의 내용적 유사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마)의 ‘부족’은 능비에서 수묘역을 샀던 ‘부족지자’와 같은 인물로 보이는데, ‘전매’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라)와 (마)의 내용은 ‘△備長’이 원인이 되어 부유한 사람[富足]이 전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守墓者以銘’ 하고 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그러나 집안비의 (라)와 (마)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안비를 광개토왕대 건립된 것으로 파악할 경우 내용의 시기적 오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수묘인의 매매금지과 처벌에 대한 규정은 장수왕대 시행된 것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개토왕대에는 수묘인 매매 문제가 아직 문제시되던 시기가 아니었다.

두 번째로 수묘인 매매금지가 시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능비에서는 확인되는 반면 집안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앞서 수묘인 매매 문제가 촉발된 것은 광개토왕 사후 ‘신래한예’를 수묘호에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

였는데, 집안비는 ‘△備長’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備長’은 능비에서 구민의 ‘전당이열’와 같은 의미로, 광개토왕이 ‘신래한예’를 수묘호에 편성시키라는 교를 내리는 원인이 되었다. 즉 능비에서는 ‘전당이열 → 신래한예의 수묘호 편성 → 구민과 신래한예의 차착 문제 발생 → 수묘인 매매금지’라는 일련의 과정이 집안비에서는 ‘△備長 → 富足□轉賣 → 수묘인 매매금지’라는 압축적인 서술로 구성되었다. 특히 수묘인 매매를 금지시키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신래한예의 수묘호 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원인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의 불일치 문제다. 능비에서는 구민의 ‘전당이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래한예’를 수묘호에 편성시키는 조치를 취한 반면, 집안비에서는 ‘△備長’ 문제에 대해 (마)와 같은 수묘인 매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능비와 집안비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묘인 매매금지는 ‘△備長’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備長’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러나 집안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어 있다.

(바) - 各於△△△△立碑 銘其烟戶頭廿人名 以示後世.

(바)에 따르면 ‘각어(各於)’ 뒤의 네 글자는 판독되지 않았지만, ‘연호두 20인’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후세에 보이고자 한다는 표현이 보인다. 판독되지 않은 네 글자를 일부 중국학계에서는 ‘선왕묘상’이라고 판독하여 마치 집안비가 능비에서 언급하는 묘상입비 가운데 하나라는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판독의 논란이 있다. 또한 ‘묘상입비’라 판독한다 해도 뒤에 이어지는 ‘연호두입인명 이시후세(烟戶頭廿人名以示後世)’라는 표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광개토왕이 묘상입비를 하는 목적은 조선왕의 묘상에 비석을 안치하지 않아 연호의 ‘차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묘상입비와 동시에 ‘명기연호’도 이루어졌는데, ‘명기연호두입인명(銘其烟戶頭廿人名)’과 대응되는 내용이다. 그런데 집안비에서는 차착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⁴⁸⁾ ‘묘상입비’와 ‘명기연호’의 목적이 차착 문제의 해결에 있었음에도 집안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능비를 고려해볼 때 ‘명기연호’는 연호의 출자 지역과 편성호를 의미하는 듯한데, 과연 연호두의 이름을 새겨서 무엇을 후세에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⁴⁹⁾

연호두의 이름을 새겨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지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연호두의 인명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묘인이 사망하거나 수묘역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수묘인의 인명은 더 이상 차착을 막기 위한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집안비 단계에서는 수묘인연호 이름을 새기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능비 단계에 이르러서 지역명만을 새기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⁵¹⁾ 하지만 비석의 형태와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위를 했을지 의문이다.

이상 능비와 집안비와의 수묘인 연호조 비교 검토를 통해 집안비에서 확인되는 내용적 모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집안비에 명문화되어있는 내용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집안비의 진위 문제와 관련하여 위비일 가능성을 상정하면, 내용적 모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위비를 만든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학술적인 논의가 개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두어야 할 것이다.

48) 정구복 역시 능비에 두 번이나 언급된 차착 문제가 집안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구복, 2014, 앞의 글, 184~185쪽.

49) 정구복, 2014, 위의 글, 185쪽.

50) 임기환, 2014, 앞의 글, 110쪽.

51) 孔錫龜, 2013, 앞의 글, 49쪽; 홍승우, 2013, 앞의 글, 110~111쪽.

그렇다면 결국 집안비의 건립 시기를 광개토왕대로 보는 다수 견해들⁵²⁾과는 달리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광개토왕대설을 지지하는 견해의 주요 근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능비의 ‘묘상입비’ 관련 내용을 들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로 祖先왕들 이래로 능묘에 石碑를 세우지 않아 수묘인연호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조선왕들을 위해 묘상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⁵³⁾이다. 즉 능비에서 광개토왕이 조선왕을 위해 묘상입비를 한 결과 중 하나가 집안비라는 것이다. 집안비를 묘상입비 가운데 하나로 보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건립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집안비가 묘상입비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광개토왕대로 추정하는 가장 큰 근거가 힘을 잃게 된다.

두 번째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Ⅶ-10~11자를 특정 간지로 판독한 것이다.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판독으로는 ‘무자(戊子)’로 파악하여 고국양왕 5년(388)에 수묘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광개토왕 이전에는 고구려 왕릉에 비석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 시기는 조선왕을 위해 묘상입비를 실시한 광개토왕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 골자다.⁵⁴⁾ ‘무자’로 판독한 견해와는 달리 ‘무오(戊午)’로 판독하여, 고국원왕 28년(358)에 비정한 뒤⁵⁵⁾ 이 시기 종묘 관련

52) 耿鐵華, 2013, 앞의 글; 孔錫龜, 2013, 위의 글; 高光儀,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高句麗渤海學會』 45; 조법중, 2013, 「집안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비의 특성과 수묘제」,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발표문; 이용현, 2013, 앞의 글; 금경숙, 2013, 「새로 발견된 ‘지안 고구려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동북아역사문제 - 주요 현안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발표문; 여호규, 2013, 앞의 글; 정호섭, 2013, 앞의 글; 趙宇然, 2013, 「集安 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韓國古代史研究』 70; 李成制, 2013, 「〈集安高句麗碑〉로 본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0; 홍승우, 2013, 위의 글; 임기환, 2014, 앞의 글.

53) 「광개토왕릉비」,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 墓上立碑銘其烟戶 不令差錯”.

54) 孔錫龜, 2013, 앞의 글, 34쪽.

55) 李成制, 2013, 앞의 글, 202쪽.

율이 제정되었으며, 집안비는 광개토왕이 시행한 수묘제가 종묘제에 후속하는 일련의 조치를 보여준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⁵⁶⁾ 이와는 달리 ‘무신(戊申)’으로 판독한 뒤 광개토왕 18년(408)으로 파악한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삼국사기』 광개토왕 18년의 태자 책봉기사⁵⁷⁾를 토대로 ‘입비명기연호(立碑銘其烟戶)’ 시책은 태자 책봉과 연결되는 명분과 의미가 있는 국가적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⁵⁸⁾

한편 Ⅶ-1~8자를 ‘丁□□好太△王日’로 판독하여, ‘丁□□’을 간지로, ‘好太△王’을 광개토왕으로 파악한 견해도 제시되었다.⁵⁹⁾ 이에 따르면 ‘丁□□’은 광개토왕대이므로 ‘정유년(丁酉年)’(397)이나 ‘정미년(丁未年)’(407)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 시기에 왕이 교언을 하여 묘상입비를 위해 건립한 것으로 보았다.⁶⁰⁾ 그러나 여러 탁본의 존재로 많은 이견이 존재하며, 확정되지 않은 글자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한다면 언제든지 논지가 뒤집힐 수 있을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집안비와 능비에에서 확인되는 동일한 문구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양비(兩碑)관계를 상호보완적인 텍스트로 상정하여, 집안비의 내용을 기초로 능비가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⁶¹⁾ 수묘제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집안비를 기초로 하여 수묘제 정비와 개편에 대한 광개토왕의 훈적 내용이 능비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묘제 정비와 개편에 대한 장수왕대의 조치까지 추가적으로 능비에 서술한 것으로 본 것이다.⁶²⁾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집안비에서 장수왕이 실시한 수묘인 매대금지법이 확인된다는 점은 그 건립 시기의 하한선 역시 장수왕 이후로 늦춰 봐야 한다는

56) 李成制, 2013, 앞의 글, 204~207쪽.

57)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8년조, “夏四月 立王子巨連爲太子”.

58) 조법중, 2013, 앞의 글, 86쪽.

59) 여호규, 2013, 앞의 글, 80~81쪽.

60) 여호규, 2013, 위의 글, 82~83쪽.

61) 정호섭, 2013, 앞의 글.

62) 정호섭, 2013, 위의 글, 131쪽.

것을 의미한다.⁶³⁾ 그렇게 된다면 집안비가 묘상입비와는 별개의 비석일 뿐만 아니라, 집안비의 건립 목적과 성격 역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개토왕이 조선왕을 위해 건립한 ‘묘상입비’라는 기존의 다수 견해에 따른다면 집안비가 반영하고 있는 내용의 시대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⁶⁴⁾

63) 다만, 집안비의 발견 지점과 능비와의 내용적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집안비는 장수왕이 재위 15년(427) 평양 천도를 단행하기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4) 물론 건립 시기를 장수왕대로 보는 견해들 역시 중국학계와 국내 학계에서 개진된 바 있다. 먼저 중국학계의 근거를 살펴보면, 중국학계는 중국 일부 학자들의 판독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원, 2013, 앞의 글, 122쪽; 기경량, 2014, 앞의 글, 212쪽의 정리를 참고. 孫仁杰과 張福有는 Ⅶ-4~8자를 ‘丁卯歲刊石’으로 판독하여 정묘년인 장수왕 15년(427)을 건립 시기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Ⅴ-7~11자를 ‘國岡上太王’, Ⅶ-9~10자를 ‘先聖’으로 판독하여 이 돌을 광개토왕에 비정하고 그를 ‘追述’한 것은 장수왕이라고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인 412~417년 사이에 비를 세웠을 것으로 상정하기도 하였다. 장수왕대설을 주장하는 중국학계의 주장에는 판독안 외에도 문장과 서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먼저 집안비가 세련된 正格漢文을 구사하였고, 이는 중국 쑤의 시인인 陶淵明(365~327)의 「感士不遇賦」를 활용한 내용이라고 파악하였다. Ⅵ-18~22자인 ‘古人之慷慨’가 그것이라 하였다. 또한 서체는 과도기의 隸書의 필의가 있는 新隸書라는 점에서 장수왕 15년(427) 무렵 세워졌다고 보았다. 판독안 외에도 문장과 서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먼저, 집안비가 세련된 正格漢文을 구사하였고, 이는 중국 쑤의 시인인 陶淵明(365~327)의 「感士不遇賦」를 활용한 내용이라고 파악하였다. Ⅵ-18~22자인 ‘古人之慷慨’가 그것이라 하였다. 또한 서체는 과도기의 隸書의 필의가 있는 新隸書라는 점에서 장수왕 15년(427) 무렵 세워졌다고 보았다. 이상 장수왕대설을 주장하는 중국학계가 제시하는 근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丁卯歲刊石’의 판독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탁본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陶淵明의 詩句을 인용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도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핵심 논거로 삼아 집안비의 건립 시기를 논하는 일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여호규, 2013, 앞의 글, 84쪽. 또한 陶淵明의 「感士不遇賦」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논란이 있다. 尹龍九, 2013, 앞의 글, 38쪽. 서체 관련 부분 역시 실견과 원탁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 타당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학계와는 달리 국내 학계에서는 내용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에서 제시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우선, 전자에서는 집안비와 능비와의 비교를 통해 능비에서 언급되는 묘상입비와 집안비가 별개임을 밝히고(김현수, 2014, 앞의 글, 17~19쪽), X행의 ‘其碑文’이 능비를 가리키는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안비가 능비보다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김현수,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2, 20~24쪽). 후자에서는 비의 형태가 능비에 비해 잘 다듬어졌다는 점과 문제 역시 대구형을 이루고 있

집안비는 능비의 내용을 굉장히 압축된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능비에서 보이는 ‘차착’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되어 비문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능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집안비의 건립 당시의 상황이 능비의 그것과는 달랐으며, 건립목적 역시 달리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다만 집안비의 건립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V. 맺음말

이 글은 집안비의 진위 논쟁을 중심으로 집안비의 사료적 가치를 파악한 뒤, 집안비 내에서 보이는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집안비에 대한 진위 논쟁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본 뒤, 집안비에서 보이는 ‘차착’ 문제가 능비에도 있음을 고려하여 능비의 수요인연호조 기사의 전체 구성과 내용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능비에서 보이는 ‘차착’ 문제를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원인과 해결방법 역시 전혀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집안비와의 비교를 통해 집안비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 모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국 집안비에서 확인되는 ‘차착’ 문제에 대한 혼란은 능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집안비는 능비에서 언급하는 ‘묘상입비’의 비석이 아니며, 건립 시기 역시 광개토왕대가 아닌

으며, 무엇보다도 집안비에는 능비와 달리 독자적인 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능비보다 후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서영수, 2013, 앞의 글, 21~22쪽).

장수왕대 이후로 상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검토는 내용적·구성적 측면에서 그 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비의 진위여부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집안비를 공개하여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광개토왕릉비」.

「집안고구려비」.

단행본

高句麗渤海學會, 2013,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발표문』.

韓國古代史研究會, 2013,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검토 발표문』.

集安市博物館 編著,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연구 논문

강진원,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 현황-약간의 陋見을 덧붙여-」, 『목간과 문자』 11.

강진원, 2014, 「고구려 墓祭의 전통과 그 배경-「집안고구려비문」의 이해를 덧붙여-」, 『震檀學報』 122.

강현숙, 2014, 「집안 고구려비에 대한 고고학적 추론-묘상입비와 관련하여」, 『高句麗渤海研究』 50.

高光儀,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高句麗渤海學會』 45.

孔錫龜, 2013,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考察」, 『高句麗渤海研究』 45.

기경량, 2010, 「高句麗 國內城 시기의 왕릉과 守墓制」, 『韓國史論』 56.

기경량, 2014,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한국고대사연구』 76.

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 『韓國古代史研究』 72.

金昌錫, 2014, 「5세기 이전 고구려의 王命體系와 집안고구려비의 ‘敎’·‘令」, 『韓國古代史研究』 75.

김현숙,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研究』 65.

김현숙, 2013,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72.

김현숙, 2014, 「광개토왕비, 집안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의 수묘제 정비」, 『嶺南學』 26.

문성재, 2013, 「집안 마선비의 건립 연대 및 비문 단구 문제」, 『고조선단군학』 29.

서영수, 2013, 「說林-‘지안 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中國文物報』의 조사

- 보고를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45.
-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70.
- 尹龍九,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拓本과 判讀」, 『韓國古代史研究』 70.
- 李成制, 2013, 「〈集安 高句麗碑〉로 본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0.
- 이용호, 2013, 「集安 高句麗碑의 발견과 소개」, 『韓國古代史研究』 67.
- 임기환, 2014,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를 통해본 고구려 守墓制의 변천」, 『韓國史學報』 54.
- 정구복, 2014, 「‘집안 고구려비’의 진위론」, 『韓國古代史探究』 18.
- 鄭鉉淑, 2013,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書誌學研究』 56.
- 정호섭, 2012, 「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고구려의 守墓制 改編」, 『先史와 古代』 37.
- 정호섭, 2013,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그 주변의 高句麗 古墳」, 『韓國古代史研究』 70.
- 정호섭, 2014,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비교 연구」, 『韓國史研究』 167.
- 조법중, 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 守墓人의 編制와 性格을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8.
- 趙宇然, 2013, 「集安 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韓國古代史研究』 70.
- 한상봉, 2013, 「麻線 高句麗碑의 書體와 金石學의 問題點」, 『書藝學研究』 24.
-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韓國古代史研究』 72.
- 耿鐵華, 2013,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진위(眞僞)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70.
- 孫仁杰, 2013, 「집안 고구려비의 판독과 문자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70.

[국문 초록]

「집안고구려비」의 수묘인 ‘차착(差錯)’ 문제를
통해 본 건립 시기 검토

이천우

이 글은 국내 학계에서의 「집안고구려비」에 대한 사료적 검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제기한 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안고구려비」의 사료적 가치를 확보하고 그 내용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집안고구려비」는 2012년에 발견된 이후, 중국학계와 국내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고구려비」를 활용한 연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는 중국 당국에서 국내 학계의 실견(實見)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탁본에 의존하여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집안고구려비」의 활용도에 대해 일정한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대사를 연구함에 있어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집안고구려비」를 비롯한 새로운 금석문 및 사료 등의 발견에 있어 사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 내에서의 검토만 이루어진 후 국내 학계는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발견 초기 초보적인 진위여부 문제만이 제기되었을 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 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집안비가 위비일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필자 역시 위비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진위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 이유는 「집안고

구려비」가 위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진위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 후, 「광개토왕릉비」와의 비교를 통해 「집안고구려비」가 담고 있는 시기를 파악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집안고구려비」가 「광개토왕릉비」와 달리 수요인 매매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집안고구려비」가 담고 있는 ‘차착(差錯)’ 문제에 대해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집안고구려비」에서 확인되는 ‘차착’ 문제에 대한 혼란은 「광개토왕릉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집안비는 능비에서 언급하는 ‘묘상입비’의 비석이 아니며, 건립 시기 역시 광개토왕대가 아닌 장수왕대 이후로 상정할 수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제어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릉비」, 차착(差錯), 수요제(守墓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Construction Date Observed through
the Tombkeeper’s “Trial and Error”
in the Jian Goguryeo Stele

Lee Chounwoo

This article reviews historical records to secure the value of the Jian Goguryeo Stele as a historical record, and seeks reasonable understanding of problems in the stele’s contents.

Since the discovery of the Jian Goguryeo Stele in 2012, Korean and Chinese scholars have shown interest in the text. However, Korean scholars have encountered difficulties in conducting research using the Jian Goguryeo Stele becaus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id not allow actual observation and offered restricted rubbings of the stele.

The discovery of the Jian Goguryeo Stele is important for research in ancient Korean history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A discussion of discoveries of historical records such as the Jian Goguryeo Stele and inscriptions should proceed, but reviews of these historical records are performed only by Chinese scholars, and Korean scholars are not able to engage the stele text. Accordingly, that a sincere discussion has not yet occurred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In the case that the Jian Goguryeo Stele is fake, the purpose for that must be found. However, this is difficult to explain at present. Thus, I too believe that there is a low possibility that the Jian Goguryeo Stele is a fake.

Nevertheless, the reason this article primarily treats the authenticity of the Jian Goguryeo Stele is not to present the possibility that the Jian Goguryeo Stele is fake. Rather, the goal is to understand the time of the Jian Goguryeo Stele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King Gwanggaeto Stele, after examining features that may verify authenticity. This article focuses only on the tomb-keeper's trade, unlike the King Gwanggaeto Stele, and seeks to approach "a trial and error" problem in the Jian Goguryeo Stele. As a result, this article understands that the confusion of "the trial and error" problem in the Jian Goguryeo Stele occurred during a process of pithy narration. For this reason, the Jian Goguryeo Stele is not a tale of royal tombs referred to in the King Gwanggaeto Stele, and the Jian Goguryeo Stele was completed not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gaeto, but after the reign of King Jangsu.

Keywords

Jian Goguryeo Stele, King Gwanggaeto Stele, "trial and error(差錯)" approach, Sumyoje(守墓制)

후연(後燕)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적·경제적 자멸(自滅) -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후연 공략의 대외적 배경 -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미천왕(美川王) 이후 고구려는 모용씨(慕容氏)의 전연(前燕) 혹은 후연(後燕)과 요동(遼東)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었다. 고구려는 341년 국내성이 함락되는 수모를 당했지만,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시기에 요동 지방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와 전연·후연은 군사적·외교적으로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은 고구려와 전연·후연의 관계,¹⁾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²⁾

※ 투고: 2015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2016년 5월 2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 1) 姜仙, 2002, 「五胡十六國의 關係 - 後燕·北燕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 『고구려 발해연구』 14, 273-287쪽; 孔錫龜, 2003, 「고구려와 모용 '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여호규, 2006, 「高句麗와 慕容燕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한국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2)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 36; 金洪培, 2011, 「略論高句麗與慕容鮮卑의 早期關係」, 『인문과학연구』 30, 165~184쪽; 李成制, 2012,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 396년 後燕의

고구려와 전연·후연의 전쟁,³⁾ 요동 점령 시점⁴⁾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대부분 고구려와 후연의 군사적 충돌과 외교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구려의 요동·요서 공략을 서술하였다. 반면 후연의 내부사정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었고,⁵⁾ 최근에 필자가 4~5세기 요서 지역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면서 후연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사를 언급한 정도다.⁶⁾ 이는 고구려·후연관계 선행 연구 대부

廣開土王 冊封 問題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68, 35~66쪽; 李明仁, 2012,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慕容鮮卑와의 관계 및 문화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7, 247~267쪽.

- 3) 徐炳國, 2001, 「百濟와 高句麗의 遼西統治」, 『역사와실학』 19·20, 45~69쪽; 이흥두, 2004, 「高句麗의 鮮卑族戰爭과 騎兵戰術 - 특히 前燕·後燕·隋戰爭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75, 1~23쪽; 池培善, 2006,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 -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 『고구려발해연구』 24, 71~88쪽; 공석구, 2007, 「고구려와 모용연의 전쟁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15; 신정훈, 2013, 「高句麗 廣開土王代の 稗麗 征討와 後燕과의 冊封이 가진 의미」, 『중앙사론』 37, 5~39쪽; 박세이, 2015, 「광개토왕의 遼西 공략과 後燕 관계」, 『지역과 역사』 36, 37~62쪽.

- 4) 395년 이전에 고구려가 요동(遼東)을 점령했다는 견해는 徐榮洙, 1988, 「『廣開土大王陵碑文』의 정복기사 재검토(中)」, 『역사학보』 119, 94~103쪽; 武田幸男, 1989, 「長壽王의 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14쪽; 田中俊明, 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 北方領域形成史에 있어서 廣開土王時代 -」, 『高句麗研究』 2, 514~516쪽; 孔錫龜, 2012, 「廣開土王의 遼西地方 進出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67, 125~157쪽; 井上直樹, 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の 對稗麗戰」, 『韓國古代史研究』 67, 206쪽;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94~108쪽 참조. 여호규는 400~402년 사이에 점령한 요동 지역을 「廣開土大王碑」에서는 395년 이전 점령한 것처럼 기술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55, 36쪽. 반면, 395년 무렵 고구려와 後燕이 遼東을 분占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성재, 2012, 「4世紀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 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 問題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68, 35~66쪽.

- 5) 趙智濱은 高句麗의 遼東 정복 시기를 고증하기 위해 後燕의 정세를 분석하였다. 趙智濱, 2015, 「高句麗 占領遼東時間略考」, 『東北史地』 2015-2, 39인쪽~43오른쪽.

- 6) 崔珍烈, 2015, 「16국시대 요서(遼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한성백제박물관 편, 『백제와 요서지역(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7)』, 한성백제박물관, 194~250쪽.

분이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의 글이고, 후연의 내부사정 분석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당시 후연의 내부사정 파악은 광개토대왕의 요동·요서 진출을 객관적·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다.

이 글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요동·요서 공략 당시 후연의 정치적·군사적·재정적 상황을 분석하여 후연이 고구려에 질 수 밖에 없었던 후연의 대내적 배경을 검토한다. 2장에서는 황하 중하류를 지배하던 후연(後燕 '中山時代')이 북위(北魏)에게 하북(河北) 지방을 빼앗기고 요서의 후연(後燕 '龍城時代')과 황하 이남의 남연(南燕)으로 분단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후연 '용성시대(397~409)'⁷⁾ 후연의 내정과 군사적 상황을 분석한다. 먼저 1절에서는 후연과 관계있는 전쟁사를 중심으로 후연이 북위와 고구려에 영토를 상실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어 2절에서는 모용보(慕容寶)·모용성(慕容盛)·모용희(慕容熙) 시기 낮은 분란과 내분, 살육 현상을 정리한다. 3절에서는 모용희 시기 재정을 탕진했던 토목공사와 유행(遊幸)의 영향과 결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402년과 404년 광개토대왕의 요동·요서 공략과 후연의 사건을 대응시키며, 광개토대왕의 성공을 후연의 국력 약화와 관련지어 설명하려고 한다.

이 글은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의 팽창 원인을 처음으로 후연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7) 이 글에서 지칭하는 後燕 '龍城時代'는慕容寶가 397년 河北과 수도 中山城을 잃고 龍城으로 쫓겨온 후 馮跋에게 망하던 409년까지의 역사를 지칭한다. 반면, 386년慕容垂가 中山에 수도를 정하고 황제로 즉위한 후慕容寶가 河北을 상실하기 전까지 黃河 중하류를 지배하던 시기를 後燕 '中山時代'라고 지칭한다.

II. 북위의 하북 점령과 후연의 분열

383년 전진(前秦)과 동진(東晉)이 싸운 비수(淝水)의 전쟁에서 동진이 승리하고 전진이 패하였다. 모용수(慕容垂)는 비수의 전투에서 전진군(前秦軍)이 붕괴했을 때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고 지휘 부대를 거느렸다. 모용수는 전진의 군주 부견(苻堅)을 모시고 낙양(洛陽)에 이르렀다. 이때 모용수는 연대(燕岱)의 순무(巡撫)와 묘(墓) 참배를 위해 동쪽[鄴]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부견은 이를 허락하였다.⁸⁾ 모용수가 384년 낙양에서 동쪽으로 이르자 형양태수(滎陽太守) 여울(餘蔚)과 창려선비(昌黎鮮卑) 위구(衛駒)는 모용수에 항복하였다. 모용수는 형양(滎陽)에서 연왕(燕王)으로 즉위하였고,⁹⁾ 하북 일대를 정복한 후 386년 중산(中山)을 수도로 정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¹⁰⁾ 392년 곽위(霍魏)를 정복

8) 『晉書』卷114「苻堅載記」下, 2919쪽, “諸軍悉潰, 惟慕容垂一軍獨全, 堅以千餘騎赴之. 垂子靉勸垂殺堅, 垂不從, 乃以兵屬堅. 初, 慕容暉屯郿城, 姜成等守漳口, 晉隨郡太守夏侯澄攻姜成, 斬之, 暉棄其眾奔還, 堅收離集散, 比至洛陽, 眾十餘萬, 百官威儀軍容粗備, 未及關而垂有貳志, 說堅請巡撫燕岱, 并求拜墓, 堅許之, 權翼固諫以為不可, 堅不從. 尋懼垂為變, 悔之, 遣驍騎石越率卒三千戍鄴, 驃騎張蚝率羽林五千戍并州, 留兵四千配鎮軍毛當戍洛陽”.

9) 『資治通鑑』卷105「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條, 3320쪽, “垂以洛陽四面受敵, 欲取鄴而據之, 乃引兵而東. 故扶餘王餘蔚為滎陽太守, 及昌黎鮮卑衛駒各帥其眾降垂. 垂至滎陽, 群下固請上尊號, 垂乃依晉中宗故事, 稱大將軍·大都督·燕王, 承製行事, 謂之統府. 群下稱臣, 文表奏誥, 封拜官爵, 皆如王者. 以弟德為車騎大將軍, 封范陽王; 兄子楷為征西大將軍, 封太原王; 翟斌為建義大將軍, 封河南王; 餘蔚為征東將軍, 統府左司馬, 封扶餘王; 衛駒為鷹揚將軍, 慕容鳳為建策將軍. 帥眾二十餘萬, 自石門濟河, 長驅向鄴”.

10)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6~3087쪽, “垂定都中山, 羣僚勸即尊號, 典儀, 修郊燎之禮. 垂從之, 以太元十一年僭即位, 赦其境內, 改元曰建興, 置百官, 繕宗廟社稷, 立寶為太子. 以其左長史庫辱官偉·右長史段崇·龍驤張崇, 中山尹封衡為吏部尚書, 慕容德為侍中·都督中外諸軍事·領司隸校尉, 撫軍慕容麟為衛大將軍, 其餘拜授有差. 追尊母蘭氏為文昭皇后, 遷虢后段氏, 以蘭氏配饗. 博士劉詳·董謚議以堯母妃位第三, 不以貴陵姜嫄, 明聖王之道以至公為先, 垂不從”; 『十六國春秋輯補』(崔鴻撰, 湯球輯補, 王魯一·王立華點校, 1998, 濟南: 齊魯書社) 卷44「後燕錄」3, 347쪽; 『資治通鑑』卷106「晉紀」28 孝武帝太元十一年條, 3358쪽, “燕王垂即皇帝位”. 이하 『十六國春秋輯補』의 내용이 『晉書』載記와 내용이 비슷할 경우 해당 쪽수만 표기한다.

한 후 7군(郡)의 38,000호(戶)를 획득하였고¹¹⁾ 394년 서연(西燕)을 정복하고 서연의 군주 모용영(慕容永)이 전후 거느린 8군의 76,800호와 승여(乘輿) 등을 획득하였다.¹²⁾ 이때의 후연 영토가 가장 넓었다. 그러나 후연의 전성기는 1년 만에 끝나고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후연 쇠퇴의 전조는 395년 후연의 북위(北魏) 공격이었다. 후연의 공격 원인은 북위(탁발부)의 후연 배신 때문이었다. 탁발규(拓跋珪)가 후연의 부세(附塞) 제부(諸部)를 공격하자 후연의 군주 모용수는 98,000명을 보내 북위를 공격하였다.¹³⁾ 탁발규는 부락(部落)과 축산(畜産)을 향하 서쪽 1천 리 밖으로 철수

11)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9쪽, “翟遼死, 子釗代立, 攻逼郟城, 慕容農擊走之. 垂引師伐釗于滑臺, 次于黎陽津, 釗于南岸距守, 諸將惡其兵精, 咸諫不宜濟河. 垂笑曰: ‘豎子何能為, 吾今為卿等殺之.’ 遂徙營就西津, 為牛皮船百餘艘, 載疑兵列杖, 溯流而上. 釗先以大眾備黎陽, 見垂向西津, 乃棄營西距. 垂潛遣其桂林王慕容鎮·驃騎慕容國於黎陽津夜濟, 壁于河南. 釗聞而奔還, 士眾疲渴, 走歸滑臺, 釗攜妻子率數百騎北趨白鹿山. 農追擊, 盡擒其眾, 剽單騎奔長子. 釗所統七郡戶三萬八千皆安堵如故. 徙徐州流人七千餘戶于黎陽”; 『十六國春秋輯補』卷44「後燕錄」3, 351쪽.

12)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8~3089쪽, “於是議征長子. 諸將咸諫, 以慕容永未有釁, 連歲征役, 士卒疲怠, 請俟他年. 垂將從之, 及聞慕容德之策, 笑曰: ‘吾計決矣. 且吾投老, 扣囊底智, 足以克之. 不復留逆賊以累子孫也.’ 乃發步騎七萬, 遣其丹楊王慕容瓚·龍驤張崇攻永弟支于晉陽. 永遣其將刁雲·慕容鍾率眾五萬屯潞川, 垂遣慕容楷出自滏口, 慕容農入自壺關, 垂頓于鄴之西南, 月餘不進. 永謂垂詭道伐之, 乃攝諸軍還杜太行軹關, 垂進師入自天井關, 至于壺壁. 永率精卒五萬來距, 阻河曲以自固, 馳使請戰. 垂列陣于壺壁之南, 農·楷分為二翼, 慕容國伏千兵于深澗, 與永大戰. 垂引軍偽退, 永追奔數里, 國發伏兵馳斷其後, 楷·農夾擊之, 永師大敗, 斬首八千餘級. 永奔還長子. 慕容瓚攻克晉陽. 垂進圍長子, 永將賈韜等潛為內應, 垂進軍入城, 永奔北門, 為前驅所獲, 於是數而戮之, 并其所署公卿刁雲等三十餘人. 永所統新舊八郡戶七萬六千八百及乘輿·服御·伎樂·珍寶悉獲之, 於是品物具矣”; 『十六國春秋輯補』卷44「後燕錄」3, 351쪽.

13)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9쪽, “遣其太子寶及農與慕容麟等率眾八萬伐魏, 慕容德·慕容紹以步騎一萬八千為寶後繼”; 『十六國春秋輯補』卷44「後燕錄」3, 352쪽; 『資治通鑑』卷108「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年春三月條, 3421쪽, “魏王珪叛燕, 侵逼附塞諸部. 五月, 甲戌, 燕主垂遣太子寶·遼西王農·趙王麟帥眾八萬, 自五原伐魏, 范陽王德·陳留王紹別將步騎萬八千為後繼. 散騎常侍高湖諫曰: ‘魏與燕世為昏姻, 彼有內難, 燕實存之, 其施德厚矣, 結好久矣. 間以求馬不獲而留其弟, 曲在於我, 奈何遽興兵擊之! 拓跋珪沉勇有謀, 幼歷艱難, 兵精馬強, 未易輕也. 皇太子富於春秋, 志果氣銳, 今委之專征, 必小魏而易之, 萬一不如所欲, 傷威毀重, 願陛下深圖之!’ 言頗激切. 垂怒, 免湖官. 湖, 秦之子也”.

시켰다.¹⁴⁾ 이후 탁발규는 참합피(參合陂)에서 모용보의 후연군을 격파하였다.¹⁵⁾ 이에 모용수는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친정(親征)하여 북위(拓拔部)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모용수가 396년 친정을 감행하자 탁발규(道武帝)가 도망

14)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89쪽, “魏聞寶將至, 徙往河西”; 『魏書』卷24 「張袞傳」, 613쪽, “慕容寶之來寇也, 袞言於太祖曰: ‘寶乘滑臺之功, 因長子之捷, 傾資竭力, 難與爭鋒, 愚以為宜贏師卷甲, 以侈其心.’ 太祖從之, 果破之參合”.

15)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89쪽, “寶進師臨河, 懼不敢濟, 還次參合, 忽有大風黑氣, 狀若隄防, 或高或下, 臨覆軍上, 沙門支曇猛言於寶曰: ‘風氣暴迅, 魏軍將至之候, 宜遣兵禦之.’ 寶笑而不納, 曇猛固以為言, 乃遣麟率騎三萬為後殿, 以禦非常, 麟以曇猛言為虛, 縱騎遊獵, 俄而黃霧四塞, 日月晦冥, 是夜魏師大至, 三軍奔潰, 寶與德等數千騎奔免, 士眾還者十一二, 紹死之. 初, 寶至幽州, 所乘車軸無故自折, 術士靳安以為大凶, 固勸寶還, 寶怒不從, 故及於敗”; 『魏書』卷2 「太祖紀」 2 登國十年條, 26~27쪽, “冬十月辛未, 寶燒船夜遁, 十一月己卯, 帝進軍濟河, 乙酉夕, 至參合陂, 丙戌, 大破之, 語在寶傳, 生擒其陳留王紹·魯陽王倭奴·桂林王道成·濟陰公尹國·北地王世子鍾葵·安定王世子羊兒以下文武將吏數千人, 器甲輜重·軍資雜財十餘萬計, 於俘虜之中擢其才識者賈彝·賈閏·晃崇等與參謀議, 憲章故實, 班賞大臣將校各有差”; 『魏書』卷83 「徒何慕容廆傳附垂傳」, 2067~2068쪽, “十年, 垂遣其太子寶來寇, 時太祖幸河南宮, 乃進師臨河, 築臺告津, 奮揚威武, 連旌沿河, 東西千有餘里, 是時, 陳留公虔五萬騎在河東, 要山戴谷六百餘里, 以絕其左; 太原公儀十萬騎在河北, 以承其後; 略陽公遵七萬騎塞其南路, 太祖遣捕寶中山行人, 一二盡擒, 馬步無脫, 寶乃引船列兵, 亦欲南渡, 中流, 大風卒起, 漂寶船數十艘泊南岸, 擒其將士三百餘人, 太祖悉賜衣服遣還, 始寶之來, 垂已有疾, 自到五原, 太祖斷其行路, 父子問絕, 太祖乃詭其行人之辭, 令臨河告之曰: ‘汝父已死, 何不遽還!’ 兄弟聞之, 憂怖, 以為信然, 於是士卒駭動, 往往間言, 皆欲為變, 初, 寶至幽州, 其所乘車軸, 無故自折, 占工靳安以為大凶, 固勸令還, 寶怒不從, 至是問安, 安對曰: ‘今天變人事, 咎徵已集, 速去可免.’ 寶逾大恐, 安退而告人曰: ‘今皆將死於他鄉, 尸骸委於草野, 為鳥鳥螻蟻所食, 不復見家矣.’ 冬十月, 寶燒船夜遁, 是時, 河冰未成, 寶謂太祖不能渡, 故不設斥候, 十一月, 天暴風寒, 冰合, 太祖進軍濟河, 留輜重, 簡精銳二萬餘騎急追之, 晨夜兼行, 暮至參合陂西, 寶在陂東, 營於蟠羊山南水上, 靳安言於寶曰: ‘今日西北風勁, 是追軍將至之應, 宜設警備, 兼行速去, 不然必危.’ 寶乃使人防後, 先不撫循, 軍無節度, 將士莫為盡心, 行十餘里, 便皆解鞍寢臥, 不覺大軍在近, 前驅斥候, 見寶軍營, 還告, 其夜, 太祖部分眾軍相援, 諸將羅落東西, 為犄角之勢, 約勒士卒, 束馬口, 銜枚無聲, 昧爽, 眾軍齊進, 日出登山, 下臨其營, 寶眾晨將東引, 顧見軍至, 遂驚擾奔走, 太祖縱騎騰躡, 大破之, 有馬者皆蹶倒冰上, 自相鎮壓, 死傷者萬數, 寶及諸父兄弟, 單馬迸散, 僅以身免, 於是寶軍四五萬人, 一時放仗, 斂手就羈矣, 其遺迸去者不過千餘人, 生擒其王公文武將吏數千, 獲寶寵妻及宮人, 器甲·輜重·軍資雜財十餘萬計”.

16)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89~3090쪽, “寶恨參合之敗, 屢言魏有可乘之

갔다.¹⁷⁾ 모용수는 참합피에 이르러 후연 군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인 것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 모용수는 분하여 피를 토하고 병에 걸렸다. 이에 후연군은 후퇴하였다.¹⁸⁾ 이어서 상곡(上谷)의 저양(沮陽)에서 죽었다.¹⁹⁾

모용수 사후 태자 모용보가 즉위하였다. 북위의 탁발규는 396년 탁발규가 보기(步騎) 40여만 명을 거느리고 후연을 공격하였다.²⁰⁾ 북위군이 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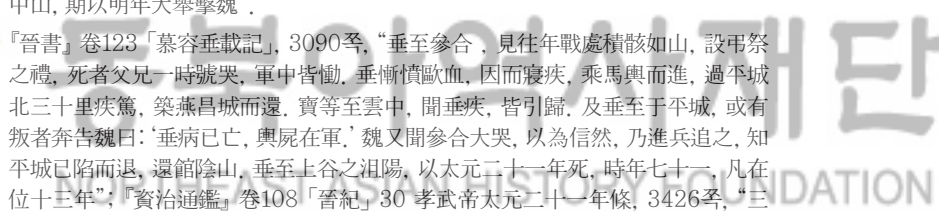
機. 慕容德亦曰: '魏人狃於參合之役, 有陵太子之心, 宜及聖略, 摧其銳志.' 垂從之, 留德守中山, 自率大眾出參合, 鑿山開道, 次于獵嶺. 遣寶與農出天門, 征北慕容隆. 征西慕容盛踰青山, 襲魏陳留公泥于平城, 陷之, 收其眾三萬餘人而還;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年十一月條, 3425쪽, “燕太子寶恥於參合之敗, 請更擊魏. 司徒德言於燕主垂曰: '虜以參合之捷, 有輕太子之心, 宜及陛下神略以服之, 不然, 將為後患.' 垂乃以清河公會錄留臺事, 領幽州刺史, 代高陽王隆鎮龍城; 以陽城王蘭汗為北中郎將, 代長樂公盛鎮薊; 命隆·盛悉引其精兵還中山, 期以明年大舉擊魏”.

17)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90쪽, “垂至參合, 見往年戰處積骸如山, 設帛祭之禮, 死者父兄一時號哭, 軍中皆慟. 垂慚憤歎血, 因而寢疾, 乘馬輿而進, 過平城北三十里疾篤, 築燕昌城而還. 寶等至雲中, 聞垂疾, 皆引歸. 及垂至于平城, 或有叛者奔告魏曰: '垂病已亡, 輿屍在軍.' 魏又聞參合大哭, 以為信然, 乃進兵追之, 知平城已陷而退, 還館陰山. 垂至上谷之沮陽, 以太元二十一年死, 時年七十一, 凡在位十三年”;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條, 3426쪽, “三月, 庚子, 燕主垂留范陽王德守中山, 引兵密發. 逾青嶺, 經天門, 鑿山通道, 出魏不意, 直指雲中. 魏陳留公虔帥部落三萬餘家鎮平城; 垂至獵嶺, 以遼西王農·高陽王隆為前鋒以襲之. 是時, 燕兵新敗, 皆畏魏, 惟龍城兵勇銳爭先. 虔素不設備, 閏月, 乙卯, 燕軍至平城, 虔乃覺之. 帥麾下出戰, 敗死, 燕軍盡收其部落. 魏王珪震怖, 欲走, 諸部聞虔死, 皆有貳心, 珪不知所適”.

18)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條, 3426쪽, “垂之過參合陂也, 見積骸如山, 為之設祭, 軍士皆慟哭, 聲震山谷. 垂慚憤嘔血, 由是發疾, 乘馬輿而進, 頓平城西北三十里. 太子寶等聞之, 皆引還. 燕軍叛者告於魏云: '垂已死, 輿屍在軍.' 魏王珪欲追之, 聞平城已沒, 乃引還阻山”.

19) 『魏書』卷83 「徒何慕容廆傳附垂傳」, 2068쪽, “垂復欲來寇, 太史曰: '太白夕沒西方, 數日後見東方, 此為蹀兵, 先舉者亡.' 垂不從, 鑿山開道. 至寶前敗所, 見積骸如丘, 設祭弔之, 死者父兄子弟遂皆嗥哭, 聲震山川, 垂慚忿嘔血, 發病而還, 死於上谷”.

20) 『魏書』卷2 「太祖紀」皇始元年秋七月己亥條, 27쪽, “己亥, 大舉討慕容寶, 帝親勒六軍四十餘萬, 南出馬邑, 踰于句注, 旌旗駱驛二千餘里, 鼓行而前, 民屋皆震”;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八月己亥條, 3430쪽, “八月, 己亥, 魏王珪大舉伐燕, 步騎四十餘萬, 南出馬邑, 逾句注, 旌旗二千餘里, 鼓行而進. 左將軍雁門李栗將五萬騎為前驅, 別遣將國封真等從東道出軍都, 襲燕幽州”.



(常山)을 점령하자 상산 동쪽의 지방관들이 달아나거나 도망가고 군현(郡縣)은 북위에 투항하였다. 탁발규는 원의(元儀)에게 업(鄴)을, 왕건(王建)과 이을(李栗)에게 신도(信都)를 공격하게 한 후 자신은 후연의 수도 중산(中山)으로 진격하였다.²¹⁾ 모용보는 탁발규가 신도로 진격한 틈을 타서 중산을 나와 보졸(步卒) 12만 명과 기병(騎兵) 37,000명을 거느리고 곡양(曲陽)으로 나갔고 심택(深澤)에 주둔하였다. 모용보는 북위군을 공격했으나 패하였다.²²⁾ 모용보는 계(薊)에서 모용회(慕容會)를 만나 모용상(慕容祥)에게 중산을 지키도록 하

21) 『魏書』卷2「太祖紀」皇始元年冬十月乙酉條, 28쪽, “冬十月乙酉, 車駕出井陘, 使冠軍將軍王建·左軍將軍李栗五萬騎先驅啟行, 十有一月庚子朔, 帝至真定. 自常山以東, 守宰或捐城奔竄, 或稽顙軍門, 唯中山·鄴·信都三城不下. 別詔征東大將軍東平公儀五萬騎南攻鄴, 冠軍將軍王建·左軍將軍李栗等攻信都, 軍之所行, 不得傷民桑棗. 戊午, 進軍中山; 己未, 引騎圍之. 帝謂諸將曰: ‘朕量實不能出戰, 必當憑城自守. 偷延日月, 急攻則傷士, 久守則費糧, 不如先平鄴·信都, 然後還取中山, 於計為便. 若移軍遠去, 實必散眾求食民間, 如此, 則人心離阻, 攻之易克.’ 諸將稱善. 丁卯, 車駕幸魯口城”.

22) 『晉書』卷124「慕容寶載記」, 3094~3095쪽, “魏攻中山不克, 進據博陵魯口, 諸將望風奔退, 郡縣悉降于魏. 寶聞魏有內難, 乃盡眾出距. 步卒十二萬, 騎三萬七千, 次于曲陽柏肆. 魏軍進至新梁. 寶憚魏師之銳, 乃遣征北隆夜襲魏軍, 敗績而還. 魏軍方軌而至, 對營相持, 上下兇懼, 三軍奪氣. 農·麟勸寶還中山, 乃引歸. 魏軍追擊之, 寶·農等棄大軍, 率騎二萬奔還. 時大風雪, 凍死者相枕于道. 寶恐為魏軍所及, 命去袍杖戎器, 寸刃無返”; 『十六國春秋輯補』卷45「前燕錄」4, 357쪽;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正月條, 3438쪽, “燕主寶聞魏王珪攻信都, 出屯深澤, 遣趙王麟攻楊城, 殺守兵三百. 寶悉出珍寶及宮人募郡縣君盜以擊魏”;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正月條, 3439~3440쪽, “二月, 己巳朔, 珪還屯楊城. 沒根兒子丑提為并州監軍, 聞其叔父降燕, 懼誅, 帥所部兵還國作亂. 珪欲北還, 遣其國相涉延求和於燕, 且請以其弟為質. 寶聞魏有內難, 不許, 使冗從僕射蘭真責珪負恩, 悉發其眾步卒十二萬·騎三萬七千屯於曲陽之柏肆, 營於滹沱水北以邀之. 丁丑, 魏軍至, 營於水南. 寶潛師夜濟, 募勇敢萬餘人襲魏營, 寶陳於營北以為之援. 募兵因風縱火, 急擊魏軍, 魏軍大亂, 珪驚起, 棄營跣走; 燕將軍乞特真帥百餘人至其帳下, 得珪衣靴. 既而募兵無故自驚, 互相斫射. 珪於營外望見之, 乃擊鼓收眾, 左右及中軍將士舟稍稍來集, 多布火炬於營外, 縱騎沖之. 募兵大敗, 還赴寶陳, 寶引兵復渡水北. 戊寅, 魏整眾而至, 與燕相持, 燕軍奪氣. 寶引還中山, 魏兵隨而擊之, 燕兵屢敗. 寶懼, 棄大軍, 帥騎二萬奔還. 時大風雪, 凍死者相枕. 寶恐為魏軍所及, 命士卒皆棄袍仗·兵器數十萬, 寸刃不返, 燕之朝臣將卒降魏及為魏所繫虜者甚眾. 先是, 張袞常為魏王珪言燕秘書監崔暹之材, 珪得之, 甚喜, 以暹為尚書, 使錄三十六曹, 任以政事”.

였다.²³⁾ 이후 모용회가 반란을 일으키자 모용보는 수백 기를 거느리고 용성(龍城)으로 도망갔다. 이때 시어랑(侍御郎) 고운(高雲)이 모용회의 반란을 평정하였다.²⁴⁾

23) 『晉書』卷124 「慕容寶載記」, 3095쪽, “初, 寶聞魏之來伐也, 使慕容會率幽并之眾赴中山. 麟既叛, 寶恐其逆奪會軍, 將遣兵迎之. 麟侍郎段平子自丁零奔還, 說麟招集丁零, 軍眾甚盛, 謀襲會軍, 東據龍城. 寶與其太子策及農·隆等萬餘騎迎會于薊, 以開封公慕容詳守中山. 會傾身誘納, 繕甲厲兵, 步騎萬, 列陣而進, 迎寶薊南. 寶分其兵給農·隆, 遣西河公庫辱官驥率眾三千助守中山”; 『十六國春秋輯補』卷45 「後燕錄」4, 358쪽.

24) 『晉書』卷124 「慕容寶載記」, 3095~3096쪽, “會以策為太子, 有恨色. 寶以告農·隆, 俱曰: ‘會一年少, 專任方事, 習驕所致, 豈有他也. 臣當以禮責之.’ 幽平之士皆懷會威德, 不樂去之, 咸請曰: ‘清河王天資神武, 權略過人, 臣等與之誓同生死, 感王恩澤, 皆勇氣自倍. 願陛下與皇太子·諸王止駕薊宮, 使王統臣等進解京師之圍, 然後奉迎車駕.’ 寶左右皆害其勇略, 譖而不許, 眾咸有怨言. 左右勸寶殺會, 侍御史仇尼歸聞而告會曰: ‘左右密謀如是, 主上將從之, 大王所恃唯父母也, 父已異圖; 所杖者兵也, 兵已去手, 進退路窮, 恐無自全之理. 盍誅二王, 廢太子, 大王自處東宮, 兼領將相, 以匡社稷.’ 會不從. 寶謂農·隆曰: ‘觀會為變, 事當必然, 宜早殺之. 不爾, 恐成大禍.’ 農曰: ‘寇賊內侮, 中州紛亂, 會鎮撫舊都, 安眾寧境, 及京師有難, 萬里星赴, 威名之重, 可以振服戎狄. 又逆跡未彰, 宜且隱忍. 今社稷之危若綴旒然, 復內相誅戮, 有損威望.’ 寶曰: ‘會逆心已成, 而王等仁慈, 不欲去之, 恐一旦釁發, 必先害諸父, 然後及吾. 事敗之後, 當思朕言.’ 農等固諫, 乃止. 會聞之彌懼, 奔于廣都黃榆谷. 會遣仇尼歸等率壯士二十餘人分襲農·隆, 隆是夜見殺, 農中重創, 既而會歸于寶, 寶意在誅會, 誘而安之, 潛使左衛慕輿騰斬會, 不能傷. 會復奔其眾, 於是勒兵攻寶. 寶率數百騎馳如龍城, 會率眾追之, 遣使請誅左右佞臣, 並求太子, 寶弗許. 會圍龍城, 侍御郎高雲夜率敢死士百餘人襲會, 敗之, 眾悉逃散, 單馬奔還中山, 乃踰圍而入, 為慕容詳所殺”; 『十六國春秋輯補』卷45 「後燕錄」4, 358~359쪽; 『資治通鑑』卷109 「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8~3449쪽, “乙亥, 會遣仇尼歸攻龍城; 寶夜遣兵襲擊, 破之. 會遣使請誅左右佞臣, 並求為太子; 寶不許. 會盡收乘輿器服, 以後宮分給將帥, 署置百官, 自稱皇太子·錄尚書事, 引兵向龍城, 以討慕輿騰為名; 丙子, 頓兵城下. 寶臨西門, 會乘馬遙與寶語, 寶責讓之. 會命軍士向寶大噪以耀威, 城中將士皆憤怒, 向暮出戰, 大破之. 會兵死傷大半, 走還營. 侍御郎高雲夜帥敢死士百餘人襲會軍, 會眾皆潰. 會將十餘騎奔中山, 開封公詳殺之. 寶殺會母及其三子”.

III. 후연 ‘용성시대’의 상황

1_ 대외 팽창 실패와 북위의 영토 잠식

북위 도무제(道武帝)가 396년 후연을 공격하였다. 북위의 군대가 후연의 수도 중산을 포위하자 모용보는 계로 물러났다가 모용회의 반란 이후 용성으로 도망갔다.²⁵⁾ 다시 하북 수복을 노리는 상황에서 모용농(慕容農)은 398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연(燕)의 계륜(啟倫)이 용성으로 돌아와서, 중산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의 군주 모용보는 파병(罷兵)을 명령하였다. 요서왕(遼西王) 농은 모용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도성을 옮겨 오히려 새로우니 아직 남정(南征)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고막해(庫莫奚)를 습격하여 고막해의 소와 말을 취하여 군사(軍資)에 충당

25) 『晉書』卷124 「慕容寶載記」, 3095~3096쪽, “會以策為太子, 有恨色. 寶以告農·隆, 俱曰: ‘會一年少, 專任方事, 習驕所致, 豈有他也. 臣當以禮責之.’ 幽平之士皆懷會威德, 不樂去之. 咸請曰: ‘清河王天資神武, 權略過人, 臣等與之誓同生死, 感王恩澤, 皆勇氣自倍. 願陛下與皇太子·諸王止駕薊宮, 使王統臣等進解京師之圍, 然後奉迎車駕.’ 寶左右皆害其勇略, 譖而不許, 眾咸有怨言. 左右勸寶殺會. 侍御史仇尼歸聞而告會曰: ‘左右密謀如是, 主上將從之. 大王所持唯父母也, 父已異圖; 所杖者兵也, 兵已去手, 進退路窮, 恐無自全之理. 盍誅二王, 廢太子, 大王自處東宮, 兼領將相, 以匡社稷.’ 會不從, 寶謂農·隆曰: ‘觀會為變, 事當必然, 宜早殺之. 不爾, 恐成大禍.’ 農曰: ‘寇賊內侮, 中州紛亂, 會鎮撫舊都, 安眾寧境, 及京師有難, 萬里星赴, 威名之重, 可以振服戎狄. 又逆跡未彰, 宜且隱忍. 今社稷之危若綴旒然, 復內相誅戮, 有損威望.’ 寶曰: ‘會逆心已成, 而王等仁慈, 不欲去之, 恐一旦驟發, 必先害諸父, 然後及吾. 事敗之後, 當思朕言.’ 農等固諫, 乃止. 會聞之彌懼, 奔于廣都黃榆谷. 會遣仇尼歸等率壯士二十餘人分襲農·隆, 隆是夜見殺, 農中重創. 既而會歸于寶, 寶意在誅會, 誘而安之, 潛使左衛慕輿騰斬會, 不能傷. 會復奔其眾, 於是勒兵攻寶. 寶率數百騎馳如龍城, 會率眾追之, 遣使請誅左右佞臣, 并求太子, 寶弗許. 會圍龍城, 侍御郎高雲夜率敢死士百餘人襲會, 敗之, 眾悉逃散, 單馬奔還中山, 乃踰圍而入, 為慕容詳所殺”; 『十六國春秋輯補』卷45 「後燕錄」4, 358~359쪽.

하고 다시 허실을 살피 내년까지 기다린 후 의논해야 합니다.' 모용보는 모용농의 말을 따랐다.²⁶⁾

모용농은 북위에게 빼앗긴 하북 지역을 다시 되찾으면 군세(軍勢)가 약하니 후연보다 약한 고막해를 공격해 가축을 확보하여 후연의 경제력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모용외(慕容廆)와 모용황(慕容皝)이 우문부(宇文部)·단부(段部)·고구려(高句麗)·부여(夫餘) 등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히고 피정복민을 천사(遷徙)하여 인구를 늘렸던 정책²⁷⁾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용보의 뒤를 이어 후연의 군주가 된 모용성과 모용희 재위 시기에는 주변의 고구려와 고막해, 거란 등을 공격하였다. 모용성은 400년에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신성(新城)과 남소(南蘇)를 점령하고 5천여 호를 요서로 옮겼다.²⁸⁾ 모용성은 401년 고막해를 공격하여 대거 노획하여 돌아왔다.²⁹⁾ 모용희는 404년 북쪽의 거란을 습격하여 대파하였다.³⁰⁾ 전년 고구려의 침입을 받자³¹⁾ 모용성은 405년

26) 『資治通鑑』卷110「晉紀」32 安帝隆安二年條, 3463쪽, “燕歆倫還至龍城, 言中山已陷; 燕主寶命罷兵, 遼西王農言於寶曰: ‘今遷都尚新, 未可南征, 宜因成師庫莫奚, 取其牛馬以充軍資, 更審虛實, 俟明年而議之.’ 寶從之”.

27) 關尾史郎, 1981, 「前燕政權(337-370年)成立の前提」, 『歷史學研究』488, 17오른쪽.

28) 『晉書』卷124「慕容盛載記」, 3103쪽, “盛率眾三萬伐高句麗, 襲其新城·南蘇, 皆克之, 散其積聚, 徙其五千餘戶于遼西”; 『十六國春秋輯補』卷46「後燕錄」5, 367쪽; 『資治通鑑』卷111「晉紀」33 安帝隆安四年條, 3507쪽, “高句麗王安事燕禮慢”; 二月, 丙申, 燕王盛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熙為前鋒, 拔新城·南蘇二城, 開境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熙勇冠諸將, 盛曰: ‘叔父雄果, 有世祖之風, 但弘略不如耳!’”;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九年春二月條, “二月, 燕王盛, 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慕容熙, 為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29) 『晉書』卷124「慕容盛載記」, 3104쪽, “盛討庫莫奚, 大虜獲而還”; 『十六國春秋輯補』卷46「後燕錄」5, 368쪽.

30) 『晉書』卷124「慕容熙載記」, 3106쪽, “熙北襲契丹, 大破之”; 『十六國春秋輯補』卷47「後燕錄」6, 370쪽; 『資治通鑑』卷114「晉紀」36 安帝義熙元年條, 3588쪽, “十二月, 燕王熙襲契丹”.

31)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九年十三年冬十一月條, “十三年, 冬十一

정월 요동성을 공격했으나 고구려 군사들의 완강한 저항과 우설(雨雪)이 많이 내려 사졸들이 많이 죽자 후퇴하였다.³²⁾ 모용희는 406년에는 거란을 습격하려고 했으나, 거란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치중(輜重)을 버리고 대신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후연군은 3천여 리를 행군하여 목저성(木底城)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³³⁾ 후연은 모용성과 모용희 시기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고막해와 거란, 고구려를 친정(親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 모용의·모용황 시기와는 달리 주변 세력을 압도하지 못하였다. 여섯 차례의 원정에서 고막해 세 차례 이기는 데 그쳤다. 심지어 모용희는 405년에는 거란을 공격하려다가 거란의 군대를 무서워하여 공격을 포기하고 대신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였다.³⁴⁾

후연은 옛 땅을 되찾고자 북위를 공격하였다. 북위의 이위(伊謂)가 398년 어양(漁陽)의 군도(群盜) 고녹관도(庫辱官韜)의 반란을 토벌했다는 『위서(魏

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에 따르면, 이때 고구려는 燕郡을 공격하여 백여 인을 죽였다(會高句驪寇燕郡, 殺略百餘人).

32) 『晉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會高句驪寇燕郡, 殺略百餘人. 熙伐高句驪, 以苻氏從, 爲衝車地道以攻遼東. 熙曰: ‘待剗平寇城, 朕當與后乘輦而入, 不聽將士先登.’ 於是城內嚴備, 攻之不能下. 會大雨雪, 士卒多死, 乃引歸”; 『十六國春秋輯補』 卷47 「後燕錄」 6, 371쪽; 『資治通鑑』 卷114 「晉紀」 36 安帝義熙元年正月條, 3579쪽, “燕王熙伐高句麗. 戊申, 攻遼東. 城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乘輦而入.’ 由是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九年十四年春正月條, “十四年,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 乘輦而入.” 由是, 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33) 『晉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熙與苻氏襲契丹, 憚其眾盛, 將還, 苻氏弗聽, 遂棄輜重, 輕襲高句驪, 周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木底城, 不克而還”; 『十六國春秋輯補』 卷47 「後燕錄」 6, 371쪽; 『資治通鑑』 卷114 「晉紀」 36 安帝義熙二年十二月條, 3588쪽, “十二月, 燕王熙襲契丹”; 『資治通鑑』 卷114 「晉紀」 36 安帝義熙二年春正月條, 3588쪽, “燕王熙至陞北, 畏契丹之眾, 欲還, 苻后不聽; 戊申, 遂棄輜重, 輕兵襲高句麗”;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九年十五年冬十二月條,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 至陞北, 畏契丹之眾, 欲還. 遂棄輜重, 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34) 崔珍烈, 2015, 앞의 글, 228~231쪽.

書』 「태조기(太祖紀)」의 기사가 있다.³⁵⁾ 같은 해 고녹관도는 다시 북위를 공격하자 이에 왕건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³⁶⁾ 고녹관씨는 모용부에 속한 집단이었고³⁷⁾ 어양은 후연과 가까운 지역이었다. 즉 친후연(親後燕) 혹은 후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고녹관씨 집단이 북위를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북위의 공격을 받아 패하여 영토확장은 실패하였다.³⁸⁾

또 후연은 어양군(漁陽郡)과 요서군(遼西郡)의 지배권을 두고 북위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였다. 후연의 요서태수(遼西太守) 이랑(李朗)이 399년 7월 북위에 항복하였다.³⁹⁾ 같은 해 12월 후연의 연군태수(燕郡太守) 고호(高湖)가 3천 호를 거느리고 북위에 내속(內屬)하였다.⁴⁰⁾ 북위는 400년 정월 무오일(2월 11일) 어양군 일대에 있었던 후연의 유주자사(幽州刺史) 노부(盧溥)를 생포하였다.⁴¹⁾ 북위의 전직 하간태수(河間太守)였던 노부는 부곡(部曲) 수

35) 『魏書』卷2「太祖紀」天興元年三月條, 32쪽, “漁陽羣盜庫偁官韜聚眾反. 詔中堅將軍伊謂討之”.

36) 『魏書』卷2「太祖紀」天興元年秋七月條, 33쪽, “漁陽烏丸庫偁官韜復聚黨為寇. 詔冠軍將軍王建討平之”.

37) 後燕에서慕容氏를 제외하고 王에 봉해진 사람은 安定王에 봉해진 庫辱官偉(『資治通鑑』卷105「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三月條, 3327쪽, “庫辱官偉帥營部數萬至鄴, 燕王垂封偉為安定王”)와 扶餘王에 봉해진 餘蔚이다(『資治通鑑』卷105「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條, 3320쪽, “餘蔚為征東將軍, 統府左司馬, 封扶餘王”). 이는 庫辱(偁)官氏가 後燕의 중추 세력이었음을 시사한다.

38) 崔珍烈, 2015, 앞의 글, 231쪽.

39) 『魏書』卷2「太祖紀」天興二年秋七月辛亥條, 32쪽, “慕容盛遼西太守李朗, 舉郡內屬”.

40) 『魏書』卷2「太祖紀」天興二年十二月甲午條, 36쪽, “十有二月甲午, 慕容盛征虜將軍·燕郡太守高湖, 率戶三千內屬”. 여기서 ‘燕郡’이 廣開土大王이 공격한 燕郡 때문에 주목되지만, 『魏書』卷32「高湖傳」에서 北魏 항복 후 高湖가 代 동쪽의 諸部를 관할하였던 것을 보면 『魏書』卷32「高湖傳」, 751쪽, “寶立, 乃起湖為征虜將軍·燕郡太守. 寶走和龍, 兄弟交爭, 湖見其衰亂, 遂率戶三千歸國. 太祖賜爵東阿侯, 加右將軍, 總代東諸部”) 高湖는 항복 후 北魏의 영토 안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高湖가 太守로 있었던 燕郡은 北魏의 동쪽 경계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 5개월 전 後燕의 遼西太守 李朗이 北魏에 항복했음을 고려하면, 이때의 燕郡은 遼西郡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41) 『晉書』卷124「慕容盛載記」, 3103쪽, “魏襲幽州, 執刺史盧溥而去. 遣孟廣平援之, 無及”; 『魏書』卷2「太祖紀」天興三年春正月戊午條, 36쪽, “和突破盧溥於遼西, 生獲溥及其子煥, 傳送京師, 轆之”; 『資治通鑑』卷111「晉紀」33 安帝隆安四

천 가(家)를 거느리고 어양군으로 취식(就食)하러 갔다. 그리고 어양군을 비롯한 여러 군을 점령하였다. 후연의 모용성은 노부를 유주자사에 임명하였다.⁴²⁾ 노부가 어양군 일대에서 북위와 대치하고 후연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후연 서쪽 변경의 영토가 넓어졌음과 동시에 북위와 후연 사이에 완충지대도 생겼다. 노부는 북위의 유주 군현을 공격하였고 북위의 유주자사 봉답간(封沓干)을 살해하였다.⁴³⁾ 북위는 노부를 토벌하여 어양군 일대를 점령하였다. 401년에는 북위의 숙답간(宿沓干)이 후연을 공격하여 영지(令支)를 점령하였다.⁴⁴⁾ 후연은 다음해인 402년 반격하였다. 후연의 모용발(慕容拔)이 북위 영지수(令支戍)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모용발은 유주자사가 되어 영지에 주둔하였고 요서 양호(陽豪)가 본군태수(요서태수)에 임명되었다.⁴⁵⁾ 이는 북위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수복한 것에 불과하였다. 고구려는 402년에 후연의 숙군(宿軍)을,⁴⁶⁾ 404년에는 후연의 연군(燕郡)을 공격하였다.⁴⁷⁾ 고구려의 후연 공격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年條, 3506쪽, “魏材官將軍和跋漢置材官將軍, 領郡國材官士以出征, 師還則省, 襲盧溥於遼西, 戊午, 克之, 禽溥及其子煥送平城, 車裂之, 燕主盛遣廣威將軍孟廣平救溥不及, 斬魏遼西守宰而還”.

- 42) 『資治通鑑』卷111「晉紀」33 安帝隆安三年六月條, 3492쪽, “魏前河間太守范陽盧溥帥其部曲數千家, 就食漁陽, 遂據有數郡. 秋, 七月, 己未, 燕主盛遣使拜溥幽州刺史”.
- 43) 『魏書』卷2 太祖紀 天興二年八月辛亥條, 36쪽, “范陽人盧溥, 聚衆海濱, 稱使持節·征北大將軍·幽州刺史, 攻掠郡縣, 殺幽州刺史封沓干”.
- 44) 『資治通鑑』卷112「晉紀」34 安帝隆安五年十二月條, 3530쪽, “乙卯, 魏虎威將軍宿沓干伐燕, 攻令支; 乙丑, 燕中領軍宇文拔救之. 壬午, 宿沓干拔令支而戍之”.
- 45) 『魏書』卷2「太祖紀」天興五年春正月丁丑條, 32쪽, “五年春正月丁丑慕容熙遣將寇遼西, 虎威將軍宿沓干等拒戰不利, 棄令支而還”; 『資治通鑑』卷112「晉紀」34 安帝元興元年丁丑條, 3533쪽, “丁丑, 燕慕容拔攻魏令支戍, 克之, 宿沓干走, 執魏遼西太守那頡. 燕以拔為幽州刺史, 鎮令支, 以中堅將軍遼西陽豪為本郡太守”.
- 46) 『資治通鑑』卷112「晉紀」34 安帝元興元年五月條, 3543쪽, “高句麗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一年條, “十一年,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 棄城走”.
- 47) 『資治通鑑』卷113「晉紀」35 安帝元興三年十一月條, 3577쪽, “高句麗侵燕”;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三年冬十一月條, “十三年, 冬十一月, 出師侵燕”. 『晉書』卷124「慕容熙載記」, 3106쪽에는 이때 燕郡을 공격했다고 기록하였다(會高句麗寇燕郡, 殺略百餘人).

2_후연 지배층의 내분

397~398년 후연이 수도 중산성과 하북 지역을 빼앗기는 과정을 보면 모용보의 무능과 모용린(慕容麟), 모용상, 모용희 등의 반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연이 용성으로 쫓겨난 소위 후연 '용성시대'에도 후연 지배층의 반란과 내분, 살육은 끊이지 않았다. <표 1>은 용성시대에 있었던 각종 정변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후연 '용성시대', 즉 모용보가 용성으로 쫓겨온 후 후연에서는 모용보 시기에 3회, 모용성 시기에 9회(401년 중복), 모용희 시기에 4회, 고운 시기에 2회 등 최소 18회 이상의 반란과 후연 군주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는 후연의 군주 혈통이 가지지 못한 정통성 때문이다.

전연은 모용외와 모용황 즉위 시에 동생들과의 계승분쟁이 발생하기를 했었다. 『진서』 「모용외재기」에 따르면 모용산(慕容刪)이 조카 모용외를 죽이려고 하여 모용외가 도망갔다가 후에 국인(國人)들이 모용산을 살해한 후 모용외를 옹립했다고 간단히 기록하였다.⁴⁸⁾ 『자치통감』에 따르면, 모용섭귀(慕容涉歸)의 죽음과 모용산의 찬탈은 태강 4년(283)에 발생하였고,⁴⁹⁾ 태강 6년(285) 모용산이 죽고 모용외가 즉위하였다.⁵⁰⁾ 여기에서 계승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모용외는 부인(部人)들의 다툼 때문에 서형(庶兄) 토욕혼(吐谷渾)의 무리와 결별하게 되고, 토욕혼은 서쪽으로 이주하여 음산(陰山)을 거쳐 상농(上隴)에 정착하였다.⁵¹⁾ 모용황이 즉위한 후 334년 동생 모용인(慕容仁)이 반란을 일으켰다.

48) 『晉書』 卷108 「慕容廆載記」, 2804쪽, “涉歸死, 其弟耐篡位, 將謀殺廆, 廆亡潛以避禍, 後國人殺耐, 迎廆立之”.

49) 『資治通鑑』 卷81 「晉紀」 3 武帝太康四年條, 2586쪽, “是歲, 鮮卑慕容涉歸卒, 弟刪篡立, 將殺涉歸子廆, 廆亡匿於遼東徐郁家”.

50) 『資治通鑑』 卷81 「晉紀」 3 武帝太康六年條, 2590쪽, “是歲, 慕容刪為其下所殺, 部眾復迎涉歸子廆而立之”.

51) 『宋書』 卷96 「鮮卑吐谷渾傳」, 2369쪽, “阿柴虜吐谷渾, 遼東鮮卑也, 父弈洛韓, 有二子, 長曰吐谷渾, 少曰若洛廆, 若洛廆別為慕容氏, 渾庶長, 廆正嫡, 父在時, 分七百戶與渾, 渾與廆二部俱牧馬, 馬鬪相傷, 廆怒, 遣信謂渾曰: ‘先公處分, 與兄異部, 牧馬何不相遠, 而致鬪爭相傷?’ 渾曰: ‘馬是畜生, 食草飲水, 春氣發動, 所以致鬪, 鬪在於馬, 而怒及人邪, 乖別甚易, 今當去汝萬里.’ 於是擁馬西行, 日移一

〈표 1〉 후연 ‘용성시대’ 반란과 내분 일람표 52)

군주	연도	주모자	경과 및 결과
慕容寶	397	慕容會	侍御郎 高雲이慕容會 격파
	398	段速骨, 蘭汗	段速骨이 南伐 중인慕容寶 습격 蘭汗이慕容寶와 太子慕容策, 王公卿士 100餘人 살해
	398	慕容盛	慕容盛이慕容寶를 살해한 蘭汗과 그 일파 살해
慕容盛	398	慕容奇 慕容豪, 張通, 張順	慕容盛이慕容奇를 제거한 후 백여 인을 죽임 慕容豪, 張通, 張順이 모반하자慕容盛은 이들을 죽임
	398	馬勒	慕容盛이馬勒의 모반 진압. 주살
	399	留忠	昌黎尹 留忠이 모반으로 주살됨 慕容根과 段成도 살해됨
	399	張眞, 和翰	張眞과 和翰이 모반하다 주살됨
	399	餘超, 高和	餘超와 高和가 모반 시도 주살됨
	399	李朗	慕容盛은 遼西太守 李朗을 공격하여 참함
慕容熙	401	慕容國 段璣	慕容盛은慕容國 등 반란 평정, 주살 段璣 등이慕容盛 살해
	402	高和	慕容熙가 北原에서 사냥하는 도중 石城守 高和가 司隸校尉 張顯을 죽이고 문을 닫고 반란을 일으킴 慕容熙가 반란 진압
	405	邵頻	遼西太守 邵頻이 망명, 도적이 됨 中常侍 郭仲이 참함
	406	慕容熙	慕容熙가慕容虔과慕容昭 등慕容寶의 아들들 모두 주살
	407	馮跋	慕容熙 살해 高雲 즉위
高雲	408	慕容輿	高雲이慕容輿 반란 격파
	409	離班, 桃仁	慕容雲(高雲)이離班, 桃仁 등에게 살해됨

頓, 頓八十里. 經數頓, 魔悔悟, 深自咎責, 遣舊父老及長史乙那樓追渾丹還. 渾曰: ‘我乃祖以來, 樹德遼右, 又卜筮之言, 先公有二子, 福祚並流子孫. 我是卑庶, 理無並大, 今以馬致別, 殆天所啟. 諸君試擁馬令東, 馬若還東, 我當相隨去.’ 樓喜拜曰: ‘處可寒,’ 虜言‘處可寒’, 宋言爾官家也, 即使所從二千騎共遮馬令回, 不盈三百步, 欻然悲鳴突走, 聲若頽山, 如是者十餘輩, 一向一速, 樓力屈, 又跪曰: ‘可寒, 此非復人事.’ 渾謂其部落曰: ‘我兄弟子孫, 並應昌盛, 魔當傳子及曾孫玄孫, 其間可百餘年, 我乃玄孫間始當顯耳.’ 於是逢西附陰山, 遭晉亂, 遂得上隴, 後魔追思渾, 作阿干之歌. 鮮卑呼兄為‘阿干’, 魔子孫竊號, 以此歌為輦後大曲’.

52) 崔珍烈, 2015, 앞의 글, 239~244쪽, 〈표 5〉 後燕 ‘龍城時代’ 반란과 내분 일람표.

모용황은 모용인의 반란을 평정하고 요동 대성(大姓)을 극성(棘城)으로 옮겨 화양(和陽)·무차(武次)·서락(西樂) 3현(縣)으로 편제하였다.⁵³⁾ 이후 모용외-모용황-모용준(慕容儁)-모용위(慕容暉)로 이어지는 부자상속이 지속되었다.⁵⁴⁾

전연의 부자상속은 전연이 전진에 망하고 비수의 난 이후 각 세력이 전진으로부터 독립한 후 상황이 바뀌었다. 모용수와 동시에 전진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 모용위의 동생 모용홍(慕容泓, 前燕의 濟北王)이었다. 모용홍은 전진의 북지장사(北地長史)로 있다가 모용수가 관동(關東)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목(馬牧) 선비(鮮卑)를 거느리고 화음(華陰)에 주둔하였다. 이때 전진의 수도 장안(長安)에 있던 모용위는 몰래 사신을 보내 아우들과 종인(宗人, 慕容氏)에게 전진에 반기를 들도록 하였다. 전진의 군대를 격파한 모용충(慕容冲)은 사지절(使持節) 대도독섬서제군사(大都督陝西諸軍事) 대장군(大將軍) 옹주목(雍州牧) 제북왕(濟北王)을 칭하였고, 숙부 모용수를 승상(丞相) 도독섬동제군사(都督陝東諸軍事) 영대사마(領大司馬) 기주목(冀州牧) 오왕(吳王)으로 추대하였다.⁵⁵⁾ 이 당시는 1자왕(一字王)과 2자왕(二字王)의 등급이 구별되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왕호(王號) 등급은 동일하였다. 두 사람의 왕호인 제북왕과 오왕은 전연시대의 왕호였다. 따라서 이러한 왕호는 망국의 군주(亡主) 모용위를 황제로 한 전연시대의 질서 회복을 상징한다. 모용홍이 10만 명을 이끌고 전진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할 때 옛 전연의 군주 모용위는 사신을 보내 모용수를 상국

53)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2816쪽, “[慕容]皝自征遼東, 克襄平. [慕容]仁所署居就令劉程以城降, 新昌人張衡執縣宰以降. 於是斬仁所置守宰, 分徙遼東大姓於棘城, 置和陽·武次·西樂三縣而歸”; 『十六國春秋輯補』 卷24 「前燕錄」 2, 185쪽; 『資治通鑑』 卷95 「晉紀」 17 成帝咸和九年十一月條, 2999쪽.

54) 谷川道雄, 1971, 「慕容國家における君權と部族制」,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原載, 1963, 「慕容燕の權力構造 - とくに前燕を中心として -」,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29), 81~83쪽.

55) 『晉書』 卷114 「苻堅載記」下, 2919~2920쪽, “慕容暉弟燕故濟北王泓先為北地長史, 聞垂攻鄴, 亡命奔關東, 收諸馬牧鮮卑, 眾至數千, 還屯華陰. 慕容暉乃潛使諸弟及宗人起兵於外. 堅遣將軍強永率騎擊之, 為泓所敗, 泓眾遂盛, 自稱使持節·大都督陝西諸軍事·大將軍·雍州牧·濟北王, 推叔父垂為丞相·都督陝東諸軍事·領大司馬·冀州牧·吳王”.

(相國), 중산왕을 태재(太宰) 영대사마, 모용홍을 대장군(大將軍) 영사도(領司徒)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 모용홍에게 즉위하도록 명령하였다.⁵⁶⁾ 전연의 망주 모용위는 자기 아우인 모용홍을 후계자로 삼았고, 숙부 모용수는 경시하였다.⁵⁷⁾ 이후 모용홍 피살 후 옹립된 모용충⁵⁸⁾과 관동 정복을 꾀한 모용수가 전연 부흥운동의 양대 축이 되었다. 후에 전자는 병주(并州, 현재의 山西省 중·북부)를 지배하는 서연을 세우고, 후자는 관동(현재의 河北省·山東省 전부와 河南省·江蘇省 북부, 遼寧省 서부 등) 대부분을 지배한 후연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용씨의 부흥운동을 전진의 수도 장안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던 모용위가 선비인(鮮卑人)의 반란에 연좌되어 살해되었다.⁵⁹⁾ 서연을 지지하던 전연의 망주 모용위가 죽자 서연은 정통성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모용수는

56) 『晉書』卷114「苻堅載記」下, 2920~2921쪽, “泓眾至十餘萬, 遣使謂堅曰: ‘秦為無道, 滅我社稷, 今天誘其衷, 使秦師傾敗, 將欲興復大燕, 吳王已定關東, 可速資備大駕, 奉送家兒皇帝並宗室功臣之家, 泓當率關中燕人, 翼衛皇帝, 還返鄴都, 與秦以武牢為界, 分王天下, 永為鄰好, 不復為秦之患也. 鉅鹿公輕翹銳進, 為亂兵所害, 非泓之意.’ 堅大怒, 召慕容暉責之曰: ‘卿父子干紀 僭亂, 乖逆人神, 朕應天行罰, 盡兵勢而得卿, 卿非改迷歸善, 而合宗蒙宥, 兄弟布列上將·納言, 雖曰破滅, 其實若歸, 奈何因王師小敗, 便猖悖若此! 垂為長蛇於關東, 泓·沖稱兵內侮, 泓書如此, 卿欲去者, 朕當相資, 卿之宗族, 可謂人面獸心, 殆不可以國土期也.’ 暉叩頭流血, 泣涕陳謝, 堅久之曰: ‘書云: 父子兄弟無相及也, 卿之忠誠, 實簡朕心, 此自三 賢之罪, 非卿之過.’ 復其位而待之如初. 命暉以書招喻垂及泓·沖, 使息兵還長安, 恕其反 叛之咎, 而暉遣使者謂泓曰: ‘今秦數已終, 長安怪異特甚, 當不復能久立. 吾既籠中之人, 必無還理. 昔不能保守宗廟, 致令傾喪若斯, 吾罪人也, 不足復顧吾之存亡, 社稷不輕, 勉建大業, 以興復為務, 可以吳王為相國, 中山王為太宰·領大司馬, 汝可為大將軍·領司徒, 承制封拜. 聽吾死間, 汝便即尊位.’ 泓於是進向長安, 改年曰燕興, 是時鬼夜哭, 三旬而止”.

57) 劉玉山·劉偉航, 2007, 「十六國時期慕容西燕·後燕幾個問題的再探討」, 『東南文化』2007-1(總第195期), 66오른쪽.

58) 『晉書』卷114「苻堅載記」下, 2921~2922쪽, “泓謀臣高蓋·宿勤崇等以泓德望後沖, 且持法苛峻, 乃殺泓, 立沖為皇太弟, 承制行事, 自相署置”.

59) 『晉書』卷114「苻堅載記」下, 2924~2925쪽, “時鮮卑在城者猶有千餘人, 暉乃密結鮮卑之眾, 謀伏兵請堅, 因而殺之, 令其豪帥悉羅騰·屈突鐵侯等潛告之曰: ‘官今使侯外鎮, 聽舊人悉隨, 可於某日會集某處.’ 鮮卑信之. 北部人突賢與其妹別, 妹為左將軍 竇衝小妻, 聞以告衝, 請留其兄, 衝馳入白堅, 堅大驚, 召騰問之, 騰具首服. 堅乃誅暉父子及其宗族, 城內鮮卑無少長及婦女皆殺之”.

394년 서연을 정복하고 모용영이 전후 거느린 8군의 76,800호와 승여 등을 획득하였다.⁶⁰⁾ 그러나 이때는 모용수가 전진에 반기를 들었던 383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였다. 후연은 서연을 정복하기 전까지 모용씨 가운데 정통성을 자처하기 어려웠다.⁶¹⁾ 서연을 정복하고 모용씨 세력 전체를 병합한 후에야 모용수는 비로소 방계 혈통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모용씨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모용수는 후계자를 잘못 정하였다. 『자치통감』 권108 「진기(晉紀)」 30 효무제태원이십일년오월조에서는 모용수의 아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전에 연주(燕主) 수(垂)는 선단후(先段后)에게서 아들 령(令)과 보(寶)를 낳았고, 후단후(後段后)에게서 랑(朗)과 감(鑾)을 낳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첩들에게서는 린(麟)·농(農)·용(隆)·유(柔)·희(熙)를 낳았다.⁶²⁾

모용수의 맏아들 모용령(慕容令)은 전연 말기에 피살되었다. 모용수는 370년 전진으로 망명한 후 전진군의 향도가 되었다. 이때 모용령은 전진의 군

60) 『晉書』 卷123 「慕容垂載記」, 3088~3089쪽, “於是議征長子。諸將咸諫, 以慕容永未有釁, 連歲征役, 士卒疲怠, 請俟他年。垂將從之, 及聞慕容德之策, 笑曰: ‘吾計決矣。且吾投老, 扣囊底智, 足以克之, 不復留逆賊以累子孫也。’乃發步騎七萬, 遣其丹楊王慕容瓚·龍驤張崇攻永弟支于晉陽。永遣其將刁雲·慕容鍾率眾五萬屯潞川, 垂遣慕容楷出自滏口, 慕容農入自壺關, 垂頓于鄴之西南, 月餘不進。永謂垂詭道伐之, 乃攝諸軍還杜太行軹關。垂進師入自天井關, 至于壺壁。永率精卒五萬來距, 阻河曲以自固, 馳使請戰。垂列陣于壺壁之南, 農·楷分為二翼, 慕容國伏千兵于深澗, 與永大戰。垂引軍偽退, 永追奔數里, 國發伏兵馳斷其後, 楷·農夾擊之, 永師大敗, 斬首八千餘級, 永奔還長子。慕容瓚攻克晉陽, 垂進圍長子, 永將賈韜等潛為內應, 垂進軍入城, 永奔北門, 為前驅所獲, 於是數而戮之, 并其所署公卿刁雲等三十餘人。永所統新舊八郡戶七萬六千八百及乘輿·服御·伎樂·珍寶悉獲之, 於是品物具矣”; 『十六國春秋輯補』 卷44 「後燕錄」 3, 351쪽.

61) 西燕과 後燕의 정통성 문제 및 양자의 각축은 劉玉山·劉偉航, 2007, 앞의 글, 65원쪽~70오른쪽 참조.

62) 『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五月條, 3427~3428쪽, “初, 燕主垂先段后生子令·寶, 後段后生子朗·鑾, 愛諸姬子麟·農·隆·柔·熙”.

중을 이탈하여 전연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전연에서는 모용령이 간첩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용도(龍都, 龍城) 동북쪽 600리 떨어진 사성(沙城)으로 옮겼다.⁶³⁾ 모용령은 사성의 적수사(謫戍士) 수천인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살해되었다.⁶⁴⁾ 이에 둘째 아들 모용보가 386년 황태자가 되었다.⁶⁵⁾ 모용수는 모용보에게 승화관(承華觀)을 지어 주었고 녹상서정사(錄尚書政事)에 임명하여 정사를 위임하였다. 이어서 모용수는 393년 모용보에게 시중(侍中) 대신 우(大單于)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유주목(幽州牧)의 관직을 내렸다.⁶⁶⁾ 태자에게 정사를 위임하거나 병권의 일부를 넘기는 것은 후계자 계승분쟁에서 이기

63) 『資治通鑑』卷102「晉紀」24 海西公太和五年條, 3228~3229쪽, “王猛之發長安也, 請慕容令參其軍事, 以為鄉導. 將行, 造慕容垂飲酒, 從容謂垂曰: ‘今當遠別, 卿何以贈我, 使我睹物思人?’ 垂脫佩刀贈之. 猛至洛陽, 賂垂所親金熙, 使詐為垂使者, 謂令曰: ‘吾父子來此, 以逃死也. 今王猛疾人如仇, 讒毀日深; 秦王雖外相厚善, 其心難知. 丈夫逃死而卒不免, 將為天下笑. 吾聞東朝比來始更悔悟, 主·後相尤. 吾今還東, 故遣告汝: 吾已行矣, 便可速發.’ 令疑之, 躊躇終日, 又不可覆覆. 乃將舊騎, 詐為出獵, 遂奔樂安王臧於石門. 猛表令叛狀, 垂懼而出走. 及藍田, 為追騎所獲. 秦王堅引見東堂, 勢之曰: ‘卿家國失和, 委身投朕, 賢子心不忘本, 猶懷首丘, 亦各其志, 不足深咎. 然燕之將亡, 非令所能存, 惜其徒入虎口耳. 且父子兄弟, 罪不相及, 卿何為過懼而狼狽如是乎!’ 待之如舊. 燕人以令叛而復還, 其父為秦所厚, 疑令為反間, 徙之沙城, 在龍都東北六百里”.

64) 『資治通鑑』卷102「晉紀」24 海西公太和五年條, 3230~3231쪽, “慕容令自度終不得免, 密謀起兵, 沙城中謫戍士數千人, 令皆厚撫之. 五月, 庚午, 令殺牙門孟鳩. 城大涉圭懼, 請自效. 令信之, 引置左右. 遂帥謫戍士東襲威德城, 殺城郎慕容倉. 據城部署, 遣人招東西諸戍, 翕然皆應之. 鎮東將軍勃海王亮鎮龍城, 令將襲之; 其弟麟以告亮, 亮閉城拒守. 癸酉, 涉圭因侍直擊令, 令單馬走, 其黨皆潰. 涉圭追令至薛黎澤, 擒而殺之, 詣龍城白亮, 亮為之誅涉圭, 收令屍而葬之”.

65)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6~3087쪽, “垂定都中山, 羣僚勸即尊號, 具典儀, 修郊燎之禮. 垂從之, 以太元十一年僭即位, 赦其境內, 改元曰建興, 置百官, 繕宗廟社稷, 立寶為太子”.

66)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7쪽, “為其太子寶起承華觀, 以寶錄尚書政事, 巨細皆委之, 垂總大綱而已. 立其夫人段氏為皇后. 又以寶領侍中·大單于·驃騎大將軍·幽州牧”; 『資治通鑑』卷108「晉紀」30 孝武帝太元十八年夏四月條, 3410쪽, “夏, 四月, 庚子, 燕主垂加太子寶大單于; 以安定王庫辱官偉為太尉, 范陽王德為司徒, 太原王楷為司空, 陳留王紹為尚書右僕射. 五月, 立子熙為河間王, 朗為渤海王, 鑾為博陵王”.

거나 분쟁없이 계승하도록 배려한 조치였다.⁶⁷⁾ 그러나 모용보는 군주의 자격이 되지 못하였다. 모용보의 자질은 『진서』 권124 「모용보재기(慕容寶載記)」에 기록되어 있다.

모용보의 자는 도우(道祐)이며, 모용수의 넷째 아들이다. 젊어서 날렵하였지만 지조가 없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였다. 전진 부견 때에 태자세마(太子洗馬), 만년령(萬年令)에 임명되었다. 부견의 회비지역(淮肥之役, 淝水의 전투) 당시 모용보를 능강장군(陵江將軍)에 임명하였다. 태자가 된 후, 스스로 연마하고, 유학(儒學)을 중시하였으며, 담론에 공들였을 뿐만 아니라 속문(屬文)에 능하였다. 또 자신의 뜻을 급히 모용수의 좌우(左右) 소신(小臣)을 섬겨서 아름다운 명성을 구하였다. 모용수의 조사(朝士)는 입을 맞추어 모용보를 칭찬하니 모용수도 그가 가업을 능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 그를 어질게 여겼다.⁶⁸⁾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모용보는 태자가 되기 전에는 자질이 부족하였으나, 태자가 된 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모용수의 측근들에게 잘보여 자신을 훌륭한 인물로 포장하였다. 이에 모용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용보의 능력을 믿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모용수는 아들 모용보를 태자로 책봉했을 때, 원비(元妃)는 모용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자의 자질은 화려하지만 부드럽지만 과단하지

67) 崔珍烈, 2009, 「五胡諸國·北朝 후계자의 國政 참여와 그 배경」,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85~325쪽.

68) 『晉書』 卷124 「慕容寶載記」, 3093쪽, “慕容寶字道祐, 垂之第四子也. 少輕果無志操, 好人佞己. 苻堅時為太子洗馬·萬年令. 堅淮肥之役, 以寶為陵江將軍. 及為太子, 砥礪自修. 敦崇儒學, 工談論, 善屬文, 曲事垂左右小臣, 以求美譽. 垂之朝士翕然稱之, 垂亦以為克保家業, 甚賢之”.

못하니,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할 때에는 인명지주(仁明之主)가 되지만 난세에 처하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폐하는 그에게 대업을 맡기지만, 자손이 창대할 조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요서(遼西)·고양(高陽) 2왕(王)은 폐하의 아들 가운데 어지니, 마땅히 한 명을 택해 태자로 세워야 합니다. 조왕(趙王) 린(麟)은 간사하고 화를 잘 내며 늘 태자를 가버어 여기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폐하가 하루 아침에 싫어하지 않으시니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는 폐하의 가정일이나 마땅히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용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⁶⁹⁾

위의 인용문은 『진서』 권96 「열녀(列女)·모용수처단씨전(慕容垂妻段氏傳)」에 실렸다. 인용문을 보면 단씨(段氏)가 추천한 요서왕 모용농과 고양왕 모용룡은 자신이 낳은 이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단씨는 친소의 관계와 상관없이 모용수의 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을 후계자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용수는 이를 듣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단씨는 후연의 건국에 기여한 ‘열인집단(列人集團)’의 영수(領袖)인 모용농과 모용룡을 추천하였고, 모용수는 모용보에 대한 견제 의도를 간파하고 거부하였다.⁷⁰⁾ 게다가 모용보의 후계자도 문제가 되었다. 『진서』 「모용보재기」에서는 모용보의 아들 모용희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전에 모용수는 모용보가 총사(冢嗣)를 아직 세우지 않자 매번 이를 근심하였다. 모용보의 서자(庶子) 청하공(清河公) 모용희는 재예(材藝)가

69) 『晉書』卷96 「列女·慕容垂妻段氏傳」, 2524쪽, “垂立其子寶為太子也, 元妃謂垂曰: ‘太子姿質雍容, 柔而不斷, 承平則為仁明之主, 處難則非濟世之雄, 陛下託之以大業, 妾未見克昌之美, 遼西·高陽二王, 陛下兒之賢者, 宜擇一以樹之. 趙王麟, 姦詐負氣, 常有輕太子之心, 陛下一旦不諱, 必有難作. 此陛下之家事, 宜深圖之.’ 垂不納”; 『十六國春秋輯補』卷45 「前燕錄」4, 354~355쪽.

70) 廖基添, 2013, 「慕容農與後燕興衰 - 以“列人集團”為中心的考察 -」, 『中華文史論叢』112, 270쪽.

많고 용략(雄略)이 있었기 때문에 모용수는 모용회를 매우 뛰어난게 생각했다. 모용보가 북벌할 때, 모용회에게 대신 궁의 사무를 맡도록 하였고, 총록(總錄)과 예우는 태자와 동일하게 하였으니, 정해진 뜻을 보인 바였다. 모용수가 위(魏)를 정벌하러 갈 때, 용성은 옛 수도였고 종묘(宗廟)의 소재지였으므로, 다시 모용회에게 유주(幽州)에 주둔하도록 하여 동북의 중임을 맡겼으며, 요속(僚屬)을 잘 뽑아 위망(威望)을 높이도록 하였다.⁷¹⁾

위의 인용문에서는 모용수가 모용보의 서자 청하공 모용회를 차기 후계자로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정사를 맡겼다. 그러나 아버지 모용수가 모용회를 모용보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유언을 무시하고 즉위 후에 모용책(慕容策)을 태자로 삼았다.⁷²⁾ 이에 모용성과 모용회 등의 불만을 샀다.

모용보는 아우 모용농·모용룡보다 무능하였다. 북위의 탁발규는 396년 보병과 기병 40여만 명을 거느리고 후연을 공격하였다.⁷³⁾ 북위군이 상산을 점령

71) 『晉書』卷124「慕容寶載記」, 3093쪽, “初, 垂以寶冢嗣未建, 每憂之. 寶庶子清河公會多材藝, 有雄略, 垂深奇之. 及寶之北伐, 使會代攝宮事, 總錄·禮遇一同太子, 所以見定旨也. 垂之伐魏, 以龍城舊都, 宗廟所在, 復使會鎮幽州, 委以東北之重, 高選僚屬以崇威望”; 『十六國春秋輯補』(崔鴻撰, 湯球輯補, 王魯一·王立華點校, 1998, 濟南: 齊魯書社) 卷45「後燕錄」4, 356쪽.

72) 『晉書』卷124「慕容寶載記」, 3095~3096쪽, “初, 垂以寶冢嗣未建, 每憂之. 寶庶子清河公會多材藝, 有雄略, 垂深奇之. 及寶之北伐, 使會代攝宮事, 總錄·禮遇一同太子, 所以見定旨也. 垂之伐魏, 以龍城舊都, 宗廟所在, 復使會鎮幽州, 委以東北之重, 高選僚屬以崇威望. 臨死顧命, 以會為寶嗣, 而寶寵愛少子濮陽公策, 意不在會. 寶庶長子長樂公盛自以同生年長, 恥會先之, 乃盛稱策宜為儲貳, 而非毀會焉. 寶大悅, 乃訪其趙王麟·高陽王隆, 麟等咸希旨贊成之. 寶遂與麟等定計, 立策母段氏為皇后, 策為皇太子, 盛·會進爵為王”.

73) 『魏書』卷2「太祖紀」皇始元年秋七月己亥條, 27쪽, “己亥, 大舉討慕容寶, 帝親勒六軍四十餘萬, 南出馬邑, 踰于句注, 旌旗駱驛二千餘里, 鼓行而前, 民屋皆震”; 『資治通鑑』卷108「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八月己亥條, 3430쪽, “八月, 己亥, 魏王珪大舉伐燕, 步騎四十餘萬, 南出馬邑, 逾句注, 旌旗二千餘里, 鼓行而進. 左將軍雁門李栗將五萬騎為前驅, 別遣將國封真等從東道出軍都, 襲燕幽州”.

하자 상산 동쪽의 지방관들이 달아나거나 도망가고 군현은 북위에 투항하였다. 탁발규는 원의에게 업을, 왕건과 이올에게 신도를 공격하게 한 후 자신은 후연의 수도 중산으로 진격하였다.⁷⁴⁾ 모용보는 탁발규가 신도로 진격한 틈을 타서 중산을 나와 보졸 12만 명과 기병 37,000명을 거느리고 곡양으로 나갔고 심택에 주둔하였다. 모용보는 북위군을 공격했으나 패하였다.⁷⁵⁾ 이때 모용린(모용보의 아우)이 397년 모용정(慕容精)을 동원해 모용보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모용정이 이를 저절하자 모용린이 모용정을 살해하였다.⁷⁶⁾ 반란을 일으킨 모용린

74) 『資治通鑑』卷108「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冬條, 3434쪽, “魏王珪進攻常山, 拔之, 獲太守苟延, 自常山以東, 守宰或走或降, 諸郡縣皆附於魏, 惟中山·鄴·信都三城為燕守. 十一月, 珪命東平公儀將五萬騎攻鄴, 冠軍將軍王建·左將軍李粟攻信都. 戊午, 珪進軍中山; 己未, 攻之, 燕高陽王隆守南郭, 帥眾力戰, 自旦至晡, 殺傷數千人, 魏兵乃退. 珪謂諸將曰: ‘中山城固, 寶必不肯出戰, 急攻則傷士, 久圍則費糧, 不如先取鄴·信都, 然後圖之.’ 丁卯, 珪引兵而南”.

75) 『晉書』卷124「慕容寶載記」, 3094~3095쪽, “魏攻中山不克, 進據博陵魯口, 諸將望風奔退, 郡縣悉降于魏. 寶聞魏有內難, 乃盡眾出距, 步卒十二萬, 騎三萬七千, 次于曲陽柏肆. 魏軍進至新梁. 寶憚魏師之銳, 乃遣征北隆夜襲魏軍, 敗績而還. 魏軍方軌而至, 對營相持, 上下兇懼, 三軍奪氣. 農·麟勸寶還中山, 乃引歸. 魏軍追擊之, 寶·農等棄大軍, 率騎二萬奔還. 時大風雪, 凍死者相枕于道. 寶恐為魏軍所及, 命去袍杖戎器, 寸刃無返”; 『十六國春秋輯補』卷45「前燕錄」4, 357쪽;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正月條, 3438쪽, “燕主寶聞魏王珪攻信都, 出屯深澤. 遣趙王麟攻楊城, 殺守兵三百. 寶悉出珍寶及宮人募郡縣君盜以擊魏”;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正月條, 3439~3440쪽, “二月, 己巳朔, 珪還屯楊城. 沒根兄子丑提為并州監軍, 聞其叔父降燕, 懼誅, 帥所部兵還國作亂. 珪欲北還, 遣其國相涉延求和於燕, 且請以其弟為質, 寶聞魏有內難, 不許, 使冗從僕射蘭真責珪負恩, 悉發其眾步卒十二萬·騎三萬七千屯於曲陽之柏肆, 營於滹沱水北以邀之. 丁丑, 魏軍至, 營於水南. 寶潛師夜濟, 募勇敢萬餘人襲魏營, 寶陳於營北以為之援. 募兵因風縱火, 急擊魏軍, 魏軍大亂, 珪驚起, 棄營跣走; 燕將軍乞特真帥百餘人至其帳下, 得珪衣靴. 既而募兵無故自驚, 互相斫射. 珪於營外望見之, 乃擊鼓收眾, 左右及中軍將士舟稍稍來集, 多布火炬於營外, 縱騎沖之. 募兵大敗, 還赴寶陳, 寶引兵復渡水北. 戊寅, 魏整眾而至, 與燕相持, 燕軍奪氣. 寶引還中山, 魏兵隨而擊之, 燕兵屢敗. 寶懼, 棄大軍, 帥騎二萬奔還. 時大風雪, 凍死者相枕. 寶恐為魏軍所及, 命士卒皆棄袍仗·兵器數十萬, 寸刃不返, 燕之朝臣將卒降魏及為魏所繫虜者甚眾. 先是, 張袞常為魏王珪言燕秘書監崔逞之材, 珪得之, 甚喜, 以逞為尚書, 使錄三十六曹, 任以政事”.

76)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3쪽, “是夜, 麟以兵劫左衛將軍北地王精, 使帥禁兵弑寶. 精以義拒之, 麟怒, 殺精, 出奔西山, 依丁零餘眾. 於是城中人情震駭”.

은 단평자(段平子)의 말을 듣고 모용회의 군대를 습격한 후 동쪽으로 용성을 점거하려고 하였다. 모용보는 계에서 모용회(모용보의 아들)를 만나 모용상에게 중산을 지키도록 하였다.⁷⁷⁾ 모용보는 모용린이 모용회의 군대를 빼앗아 먼저 용성을 점거할 것을 두려워하여 모용농(모용보의 아우)을 불러 중산을 떠나 용성으로 갈 것을 모의하였다.⁷⁸⁾ 모용보와 태자 모용책, 모용농, 모용룡, 모용성 등은 1만여 기를 거느리고 모용회의 진영으로 갔다.⁷⁹⁾ 모용보는 중산을 나간 후 모용린과 승성(陞城)에서 만났고,⁸⁰⁾ 3월 계에 이르렀다.⁸¹⁾ 도중에 태자에 봉해지지 않아 실망한 모용회가 반란을 일으키자 모용보는 수백 기를 거느리고

77) 『晉書』卷124 「慕容寶載記」, 3095쪽, “初, 寶聞魏之來伐也, 使慕容會率幽并之眾赴中山. 麟既叛, 寶恐其逆奪會軍, 將遣兵迎之. 麟侍郎段平子自丁零奔還, 說麟招集丁零, 軍眾甚盛, 謀襲會軍, 東據龍城. 寶與其太子策及農·隆等萬餘騎迎會于薊, 以開封公慕容詳守中山. 會傾身誘納, 繕甲厲兵, 步騎萬, 列陣而進, 迎寶薊南. 寶分其兵給農·隆, 遣西河公庫辱官驥率眾三千助守中山”; 『十六國春秋輯補』卷45 「後燕錄」4, 358쪽.

78) 『資治通鑑』卷109 「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3~3444쪽, “寶不知麟所之, 以清河王會軍在近, 恐麟奪會軍, 先據龍城. 乃召隆及驍騎大將軍農, 謀去中山, 走保龍城. 隆曰「先帝櫛風沐雨以成中興之業, 崩末期年而天下大壞, 豈得不謂之孤負邪! 今外寇方盛而內難復起, 骨肉乘離, 百姓疑懼, 誠不可以拒敵; 北遷舊都, 亦事之宜. 然龍川地狹民貧, 若以中國之意取足其中, 復朝夕望有大功, 此必不可. 若節用愛民, 務農訓兵, 數年之中, 公私充實, 而趙·魏之間, 厭苦寇暴, 民思燕德, 庶幾返旆, 克復故業, 如其未能, 則憑險自固, 猶足以優遊養銳耳.’ 寶曰: ‘卿言盡理, 騰一從卿意耳’.”

79) 『資治通鑑』卷109 「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5쪽, “壬子, 夜, 寶與太子策·遼西王農·高陽王隆·長樂王盛等萬餘騎出赴會軍, 河間王熙·勃海王朗·博陵王鑿皆幼, 不能出城, 隆還入迎之, 自為鞍乘, 俱得免, 燕將王沈等降魏. 樂浪王惠·中書侍郎韓范·員外郎段宏·太史令劉起等帥工伎三百奔鄴”.

80) 『資治通鑑』卷109 「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6쪽, “燕主寶出中山, 與趙王麟遇於陞城, 麟不意寶至, 驚駭, 帥其眾奔蒲陰, 復出屯望都, 土人頗供給之. 慕容詳遣兵掩擊麟, 獲其妻子, 麟脫走入山”.

81) 『資治通鑑』卷109 「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6쪽, “甲寅, 寶至薊, 殿中親近散亡略盡, 惟高陽王隆所領數百騎為宿衛. 清河王會帥驍騎二萬迎於薊南, 寶怪會容止怏怏有恨色, 密告隆及遼西王農. 農·隆俱曰: ‘會年少, 專任方面, 習驕所致, 豈有它也! 臣等當以禮責之.’ 寶雖從之, 然猶詔解會兵以屬隆, 隆固辭; 乃減會兵分給農·隆. 又遣西河公庫辱官驥帥兵三千助守中山”.

용성으로 도망갔다. 이때 시어랑 고운이 모용회의 반란을 평정하였다.⁸²⁾

모용보가 아들 모용회가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을 때, 중산에 있던 모용상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때 모용린(모용보의 형제)이 정령(丁零)을 이끌고 중산에 들어가 모용상과 친당 300여 명을 살해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이후 모용린은 중산을 빠져나와 신시(新市)를 거쳐 의대(義臺)에서 북위군에 패한 후 업으로 도망갔다.⁸³⁾ 북위가 중산을 점령한 후 후연의 항복자가 2만여 명에 달

82) 『晉書』卷124 「慕容寶載記」, 3095~3096쪽, “會以策為太子, 有恨色. 寶以告農·隆, 俱曰: ‘會一年少, 專任方事, 習驕所致, 豈有他也. 臣當以禮責之.’ 幽平之士皆懷會威德, 不樂去之, 咸請曰: ‘清河王天資神武, 權略過人, 臣等與之誓同生死, 感王恩澤, 皆勇氣自倍. 願陛下與皇太子·諸王止駕薊宮, 使王統臣等進解京師之圍, 然後奉迎車駕.’ 寶左右皆害其勇略, 譖而不許, 眾咸有怨言. 左右勸寶殺會, 侍御史仇尼歸聞而告會曰: ‘左右密謀如是, 主上將從之. 大王所持唯父母也, 父已異圖; 所杖者兵也, 兵已去手, 進退路窮, 恐無自全之理. 盍誅二王, 廢太子, 大王自處東宮, 兼領將相, 以匡社稷.’ 會不從. 寶謂農·隆曰: ‘觀會為變, 事當必然, 宜早殺之. 不爾, 恐成大禍.’ 農曰: ‘寇賊內侮, 中州紛亂, 會鎮撫舊都, 安眾寧境, 及京師有難, 萬里星赴, 威名之重, 可以振服戎狄, 又迹跡未彰, 宜且隱忍. 今社稷之危若綴旒然, 復內相誅戮, 有損威望.’ 寶曰: ‘會逆心已成, 而王等仁慈, 不欲去之, 恐一旦發, 必先害諸父, 然後及吾. 事敗之後, 當思朕言.’ 農等固諫, 乃止. 會聞之彌懼, 奔于廣都黃榆谷. 會遣仇尼歸等率壯士二十餘人分襲農·隆, 隆是夜見殺, 農中重創. 既而會歸于寶, 寶意在誅會, 誘而安之, 潛使左衛慕輿騰斬會, 不能傷. 會復奔其眾, 於是勒兵攻寶. 寶率數百騎馳如龍城, 會率眾追之, 遣使請誅左右佞臣, 並求為太子, 寶弗許. 會圍龍城, 侍御郎高雲夜率敢死士百餘人襲會, 敗之, 眾悉逃散, 單馬奔還中山, 乃踰圍而入, 為慕容詳所殺”; 『十六國春秋輯補』卷45 「後燕錄」4, 358~359; 『資治通鑑』卷109 「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8~3449쪽, “乙亥, 會遣仇尼歸攻龍城; 寶夜遣兵襲擊, 破之. 會遣使請誅左右佞臣, 並求為太子; 寶不許. 會盡收乘輿器服, 以後宮分給將帥, 署置百官, 自稱皇太子·錄尚書事, 引兵向龍城, 以討慕輿騰為名; 丙子, 頓兵城下. 寶臨西門, 會乘馬遙與寶語, 寶實讓之. 會命軍士向寶大噪以耀威, 城中將士皆憤怒, 向暮出戰, 大破之, 會兵死傷太半, 走還營. 侍御郎高雲夜帥敢死士百餘人襲會軍, 會眾皆潰. 會將十餘騎奔中山, 開封公詳殺之, 寶殺會母及其三子”.

83) 『晉書』卷124 「慕容寶載記」, 3096쪽, “詳僭稱尊號, 置百官, 改年號. 荒酒奢淫, 殺戮無度, 誅其王公以下五百餘人, 內外震局, 莫敢忤視. 城中大飢, 公卿餓死者數十人. 麟率丁零之眾入中山, 斬詳及其親黨三百餘人, 復僭稱尊號. 中山飢甚, 麟出據新市, 與魏師戰於義臺, 麟軍敗績. 魏師遂入中山, 麟乃奔鄴”; 『十六國春秋輯補』卷45 「後燕錄」4, 359~360쪽; 『資治通鑑』卷109 「晉紀」31 安帝隆安元年條, 3459쪽, “中山饑甚, 慕容麟帥二萬餘人出據新市. 甲子晦, 魏王珪進軍攻之,

하였다.⁸⁴⁾

모용보는 중산에서 용성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모용린(형제), 모용희(아들), 모용상 등의 반란이나 황제의 참칭 등 각종 정변을 경험하였다. 이는 모용보의 정치적·군사적 무능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군주위 계승분쟁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 가운데 단속골(段速骨)·난한(蘭汗)·모용기(慕容奇) 등이 일으킨 일부 정변이 모용보와 '열인집단(列人集團)'의 견제와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⁸⁵⁾ 또 후연 '용성시대' 네 명의 군주(고구려인 고운 포함)는 모두 신하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는 후연 '용성시대' 군주권이 불안했음을 보여준다. 모용희가 406년 모용건(慕容虔)과 모용소(慕容昭) 등 모용보의 아들들, 즉 모용희의 조카들을 모두 주살한 것⁸⁶⁾도 모용희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조카들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용희도 모용수의 아들이었지만 적통은 형인 모용보였기 때문에 모용보의 자손이 후연의 군주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분과 반란이 거듭되면서 지배층이 분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변과 반란으로 살해되었다. 이는 인구감소 효과와 함께 후연의 국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살해된 사람들 가운데 무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력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용농이다. 모용수가 군대를 일으킬 때 모용수의 아들 모용농과 조카인 모용주(慕容宙)가

太史令晁崇曰：‘不吉。昔紂以甲子亡，謂之疾日，兵家忌之。’珪曰：‘紂以甲子亡，周武不以甲子興乎？’崇無以對。冬，十月，丙寅，麟退阻泅水。甲戌，珪與麟戰於義臺，大破之，斬首九千餘級。麟與數十騎馳取妻子入西山，遂奔鄴”。

84)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條, 3459쪽, “甲申, 魏克中山, 燕公卿·尚書·將吏·士卒降者二萬餘人。張驤·李沈等先嘗降魏, 覆亡去; 珪入城, 皆赦之。得燕璽綬, 圖書·府庫珍寶以萬數, 班賞群臣將士有差。追諡弟觚為秦愍王。發慕容詳塚, 斬其屍; 收殺觚者高霸·程同, 皆夷五族, 以大刃剗之。丁亥, 遣三萬騎就衛王儀, 將攻鄴”。

85) 廖基添, 2013, 앞의 글, 280~281쪽.

86) 『晉書』卷124「慕容熙載記」, 3106쪽, “盡殺寶諸子”; 『十六國春秋輯補』卷47「後燕錄」6, 371쪽; 『資治通鑑』卷114「晉紀」36 安帝義熙二年春五月條, 3589쪽, “五月, 燕主寶之子博陵公虔·上黨公昭, 皆以嫌疑賜死”。

각각 수만 명을 거느리고 모용수에 합류하였다. 이전에 모용농은 고육관위(庫辱官偉)와 걸특귀(乞特歸)를 초무하는 등 10여만 명의 무리를 얻었다.⁸⁷⁾ 『자치통감』에 따르면, 모용농이 384년 열인현(列人縣)에서 군대를 일으켰을 때, 도각(屠各) 필충(畢聰), 도각 복승(卜勝), 장연(張延), 이백(李白), 곽초(郭超), 동이(東夷, 부여) 여화(餘和), 칙륵(敕勒), 역양(易陽)의 오환(烏桓) 유대(劉大)가 각각 수천 명을 거느리고 모용농에 합류하였다. 또 모용농은 난한, 단찬(段贊), 조추(趙秋), 모여희(慕輿恹)를 보내 강대(康臺)의 목마(牧馬) 수천 필을 확보하였다.⁸⁸⁾ 모용수가 385년 업을 포위하고 있을 당시의 상황을 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연왕 모용수가 업을 공격했으나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았다. 이에 북쪽의 기주(冀州)를 방문하려고 하였고,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 모용린(慕容麟)에게 신도(信都)에, 낙랑왕(樂浪王) 모용온(慕容溫)에게 증신에

87)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2쪽, “初, 垂之發鄴中, 子農及兄子楷·紹, 弟子宙, 為苻丕所留. 及謀飛龍, 遣田生密告農等, 使起兵趙魏以相應. 於是農·宙奔列人, 楷·紹奔辟陽, 眾咸應之. 農西招庫辱官偉于上黨, 東引乞特歸于東阿, 各率眾數萬赴之, 眾至十餘萬. 丕遣石越討農, 為農所敗, 斬越于陳”; 『十六國春秋輯補』卷42「後燕錄」1, 339쪽.

88) 『資治通鑑』卷105「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正月條, 3321~3322쪽, “慕容農之奔列人也, 止於烏桓魯利家, 利為之置饌, 農笑而不食. 利謂其妻曰: ‘惡奴, 郎貴人, 家貧無以饑之, 奈何?’ 妻曰: ‘郎有雄才大志, 今無故而至, 必將有異, 非為飲食來也. 君亟出, 遠望以備非常.’ 利從之. 農謂利曰: ‘吾欲集兵列人以圖興復, 卿能從我乎?’ 利曰: ‘死生唯郎是從.’ 農乃詣烏桓張驥, 說之曰: ‘家王已舉大事, 翟斌等鹹相推奉, 遠近響應, 故來相告耳.’ 驥再拜曰: ‘得舊主而奉之, 敢不盡死!’ 於是農驅列人居民為士卒, 斬桑榆為兵, 裂襜裳為旗, 使趙秋說屠各畢聰, 聰與屠各卜勝·張延·李白·郭超及東夷餘和·敕勒·易陽烏桓劉大各帥部眾數千赴之. 農假張驥輔國將軍, 劉大安遠將軍, 魯利建威將軍. 農自將攻破館陶, 收其軍資器械, 遣蘭汗·段贊·趙秋·慕輿恹略取康臺牧馬數千匹. 汗, 燕王垂之從舅; 贊, 聰之子也. 於是步騎雲集, 眾至數萬, 驥等共推農為使持節·都督河北諸軍事·驃騎大將軍, 監統諸將, 隨才部署, 上下肅然. 農以燕王垂未至, 不敢封賞將士. 趙秋曰: ‘軍無賞, 士不往. 今之來者, 皆欲建一時之功, 規萬世之利, 宜承製封拜, 以廣中興之基.’ 農從之, 於是赴者相繼; 垂聞而善之. 農西招庫辱官偉於上黨, 東引乞特歸於東阿, 北召光烈將軍平睿及睿兄汝陽太守幼於燕國; 偉等皆應之. 又遣蘭汗等攻頓丘, 克之. 農號令整肅, 軍無私掠, 士女喜悅’.

주둔하게 하고,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모용농을 불러 업으로 돌아오게 하였다.⁸⁹⁾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모용수는 포위하던 업 대신 기주 일대를 점령하기 위해 업을 떠났다. 이때 모용수가 자신 대신 업 포위를 지휘할 인물로 자신의 아들 모용농을 뽑았다. 이는 모용농이 뛰어난 무용(武勇)과 지휘력을 지녔음을 뜻한다. 모용농은 업에서 나와 후연의 군영을 공격했던 전진의 부비(苻丕)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에 동진의 장군 유뢰지(劉牢之)는 모용수의 군대에 패하여 여양(黎陽)으로 물러났다.⁹⁰⁾ 또 모용농은 385년 중산에서 적진(翟眞)을 격파하였으며,⁹¹⁾ 같은 해 영지를 공격하여 서암(徐巖, 『자치통감』에서는 餘巖로 표기) 형제를 살해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요동과 현도(玄菟) 2군을 회복하였다.⁹²⁾ 『자치통감』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연왕 수는 모용농을 사지절 도독유·평2주·북적제군사(都督幽·平2州·北狄諸軍事) 유주목(幽州牧)에 임명하여 용성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평주자사(平州刺史) 대방왕(帶方王) 모용좌(慕容佐)는 평곽(平郭)에

89) 『資治通鑑』卷106「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三月條, 3342쪽, “燕王垂攻鄴, 久不下, 將北詣冀州, 乃命撫軍大將軍麟屯信都, 樂浪王溫屯中山, 召驃騎大將軍農還鄴”.

90) 『資治通鑑』卷106「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三月條, 3343쪽, “劉牢之攻燕黎陽太守劉撫於孫就柵, 燕王垂留慕容農守鄴圍, 自引兵救之. 秦長樂公丕聞之, 出兵乘虛夜襲燕營, 農擊敗之. 劉牢之與垂戰, 不勝, 退屯黎陽, 垂復還鄴”.

91) 『資治通鑑』卷106「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條, 3340쪽, “慕容農引兵會慕容麟於中山, 與共攻翟眞. 麟·農先帥數千騎至承營, 觀察形勢. 翟眞望見, 陳兵而出. 諸將欲退, 農曰: ‘丁零非不勁勇, 而翟眞懦弱, 今簡精銳, 望眞所在而沖之, 眞走, 眾必散矣, 乃邀門而蹙之, 可盡殺也.’ 使驃騎將軍慕容國帥百餘騎沖之, 眞走, 其眾爭門, 自相蹈藉, 死者大半; 遂拔承營外郭”.

92) 『晉書』卷123「慕容垂載記」, 3086쪽, “慕容農攻克令支, 斬徐巖兄弟. 進伐高句驪, 復遼東·玄菟二郡, 還屯龍城”; 『十六國春秋輯補』(崔鴻撰, 湯球輯補, 王魯一·王立華點校, 1998, 濟南: 齊魯書社) 卷43「後燕錄」2, 346쪽.

주둔하도록 하였다. 모용농은 이때에 법제(法制)를 창립하고, 일은 관대하고 간단하게 하였다. 또 형옥(刑獄)을 맑게 하며 부역(賦役)을 없애고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니, 거민(居民)이 부유해졌다. 이에 전후 모용농의 휘하에 이른 사방의 백성이 수만 구(口)에 달했다. 먼저 유주와 기주의 유민 대부분은 고구려로 들어갔다. 모용농이 표기사마(驃騎司馬) 범양(范陽) 출신의 방연(龐淵)을 요동태수로 임명하여 고구려로 유입된 유주와 기주의 유민을 초무(招撫)하였다.

『십육국춘추집보(十六國春秋輯補)』에도 위의 인용문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⁹³⁾ 용성에 주둔한 모용농은 고구려로 유입된 유주와 기주의 유민을 초무하게 하였다. 389년 용성에서 5년 동안 주둔하며 유주를 다스리던 모용농이 다른 곳으로 가기 원하자 모용수는 모용룡을 유주목으로 임명하고 용성에 유대(留臺)를 설치한 후 모용룡을 녹유대상서사(錄留臺尙書事)에 임명하였다.⁹⁴⁾ 이상의 예를 종합하면, 모용농은 용장(勇將)과 순리(循吏)의 자질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다. 모용농은 직쇠(翟劄)가 391년 업성(鄴城)을 공격했을 때 이를 격파하기도 하였다.⁹⁵⁾ 또 394년 청주(靑州)·연주(兗州)·서주(徐州) 3주를 점령하였다.⁹⁶⁾

93) 『十六國春秋輯補』卷43「後燕錄」2, 346쪽, “垂以農爲幽州牧, 留鎮之. 農法制寬簡, 清刑獄, 省賦役, 勸農桑, 居民富贍, 四方流民, 至者數萬”.

94) 『十六國春秋輯補』卷44「後燕錄」3, 350쪽, “遼西王農在龍城五年, 庶務脩舉, 表請代還, 垂乃召農還, 爲侍中司隸校尉, 而以高陽王隆代之. 農建留臺龍城, 使隆錄留臺尙書事. 隆因農舊規, 修而廣之, 遼碣遂安”; 『資治通鑑』卷107「晉紀」29 孝武帝太元十四年春正月條, 3386쪽, “遼西王農在龍城五年, 庶務脩舉, 乃上表曰: ‘臣頃因征即鎮, 所統將士安逸積年, 青·徐·荆·雍遺寇尚繁, 願時代還, 展竭微效, 生無餘力, 沒無遺恨, 臣之志也!’ 庚申, 燕主垂召農爲侍中·司隸校尉; 以高陽王隆爲都督幽·平二州諸軍事·征北大將軍·幽州牧; 建留臺於龍城, 以隆錄留臺尙書事. 又以護軍將軍平幼爲征北長史, 散騎常侍封孚爲司馬, 並兼留臺尙書. 隆因農舊規, 脩而廣之, 遼·碣遂安”.

95) 『資治通鑑』卷107「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冬十月條, 3402쪽, “翟遼卒, 子劄代立, 改元定鼎, 攻燕鄴城, 燕遼西王農擊卻之”.

96) 『資治通鑑』卷108「晉紀」30 孝武帝太元十九年十月條, 3418쪽, “燕主垂東巡陽平·平原, 命遼西王農濟河, 與安南將軍尹國略地青·兗. 農攻廩丘, 國攻陽城, 皆拔

이처럼 모용농은 후연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모용농의 활동에 주목하여 모용농이 후연을 세운 양대 세력의 하나인 '열인집단'의 영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⁹⁷⁾ 후연의 건국과 팽창 과정에서 활약한 모용농은 형 모용보가 즉위한 후 도독병·용·익·양·진·량6주제군사(都督并·雍·益·梁·秦·涼六州諸軍事) 병주목(并州牧)에 임명되었다. 이때 지방관으로 임명된 이는 독기·연·청·서·형·예6주제군사(督冀·兗·青·徐·荊·豫六州諸軍事) 기기대장군(車騎大將軍) 기주목(冀州牧)에 임명된 숙부 모용덕(慕容德)이었다.⁹⁸⁾ 즉 모용보 시기에 모용농은 모용덕과 함께 후연을 떠받치는 2대 기둥이 되었다. 모용농은 형 모용보가 397년 수도 중산을 나와 모용린(모용보의 아우)이 모용회의의 군대를 빼앗아 먼저 용성을 점거할 것을 두려워하였을 때 모용농과 함께 중산을 떠나 용성으로 갈 것을 모의하였다.⁹⁹⁾ 이후 모용보가 계에 도착한 후 맞이하러 나온 모용회의의 군사를 나누어 모용농과 모용릉에게 주었다.¹⁰⁰⁾ 이는 모용보가 형제인 모용농과 모용릉을 신뢰했음을 뜻한다. 다음해인 398년 모용덕이 모용보의 남벌을 권하자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을련(乙連)에

之。東平太守韋簡戰死，高平·太山·琅邪諸郡皆委城奔潰，農進軍臨海，遍置守宰”。

97) ‘列人集團’의 정의와 활동은 廖基添, 2013, 앞의 글, 261~285쪽 참조.

98) 『資治通鑑』卷108「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五月條, 3427쪽, “五月, 辛亥, 以范陽王德為都督冀·兗·青·徐·荊·豫六州諸軍事·車騎大將軍·冀州牧, 鎮鄴; 遼西王農為都督并·雍·益·梁·秦·涼六州諸軍事·并州牧, 鎮晉陽”。

99)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3~3444쪽, “寶不知麟所之, 以清河王會軍在近, 恐麟奪會軍, 先據龍城, 乃召隆及驃騎大將軍農, 謀去中山, 走保龍城, 隆曰「先帝櫛風沐雨以成中興之業, 崩末期年而天下大壞, 豈得不謂之孤負邪! 今外寇方盛而內難復起, 骨肉乘離, 百姓疑懼, 誠不可以拒敵; 北遷舊都, 亦事之宜. 然龍川地狹民貧, 若以中國之意取足其中, 復朝夕望有大功, 此必不可. 若節用愛民, 務農訓兵, 數年之中, 公私充實, 而趙·魏之間, 厭苦寇暴, 民思燕德, 庶幾返旆, 克復故業, 如其未能, 則憑險自固, 猶足以優遊養銳耳.’ 寶曰: ‘卿言盡理, 騰一從卿意耳’”。

100) 『資治通鑑』卷109「晉紀」31 安帝隆安元年三月條, 3446쪽, “甲寅, 寶至薊, 殿中親近散亡略盡, 惟高陽王隆所領數百騎為宿衛. 清河王會帥騎卒二萬迎於薊南, 寶怪會容止怏怏有恨色, 密告隆及遼西王農. 農·隆俱曰: ‘會年少, 專任方面, 習驕所致, 豈有它也! 臣等當以禮責之.’ 寶雖從之, 然猶詔解會兵以屬隆, 隆固辭; 乃減會兵分給農·隆. 又遣西司庫辱官驃帥兵三千助守中山”。

주둔하였다. 이때 모용농은 중군(中軍)을 지휘하였다. 이때 단속골(段速骨) 등이 군인들이 출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군사들을 선동하여 모용주(慕容宙)를 죽이고 모용승을 옹립하려고 하였다. 모용보는 단기(單騎)로 모용농에게 달려갔다. 모용보는 계에서 여양으로 갔으나 모용덕이 칭제(稱制)했다는 것을 알고 용성으로 돌아갔다. 이때 난한(蘭汗)이 모용보를 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용농도 살해되었다.¹⁰¹⁾ 후연 ‘중산시대’ 최고의 무공을 세운 모용농은 후연 ‘용성시대’ 군주위 계승분쟁에서 살해되었다. 모용농은 모용보가 용성으로 쫓겨왔을 때 다시 권토중래의 계책을 제시할 정도로¹⁰²⁾ 용맹과 지략을 지닌 인물이었다. 모용농의 살해는 후연이 최고의 무장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특히 모용농이 385년 고구려에서 요동·현토 2군을 빼앗을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그의 피살은 고구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모용농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장들이 정변 가운데 살해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후연 ‘중산시대’ 이후 군사력의 근간이었던 ‘열인집단’의 일원이었다.¹⁰³⁾ 따라서 정변의 피살자들이 후연의 군사력 약화에 영향을 주었음은 당연하다.

101) 『晉書』卷124 「慕容寶載記」, 3096~3097쪽, “慕容德遣侍郎李延勸寶南伐, 寶大悅. 慕容盛切諫, 以為兵疲師老, 魏新平中原, 宜養兵觀釁, 更俟他年. 寶將從之. 撫軍慕容騰進曰: ‘今眾旅已集, 宜乘新定之機以成進取之功, 人可使由之, 而難與圖始, 惟當獨決聖慮, 不足廣採異同, 以沮亂軍議也.’ 寶曰: ‘吾計決矣, 敢諫者斬!’ 寶發龍城, 以慕容騰為前軍大司馬, 慕容農為中軍, 寶為後軍, 步騎三萬, 次于乙連. 長上段速骨·宋赤眉因眾軍之憚役也, 殺司空·樂浪王宙, 逼立高陽王崇. 寶單騎奔農, 仍引軍討速骨. 眾咸憚征幸亂, 投杖奔之. 騰眾亦潰, 寶·農馳還龍城. 蘭汗潛與速骨通謀, 速骨進師攻城, 農為蘭汗所誦, 潛出赴賊, 為速骨所殺. 眾皆奔散, 寶與慕容盛·慕容騰等南奔. 蘭汗奉太子策承制, 遣使迎寶, 及于薊城. 寶欲還北, 盛等咸以汗之忠款虛實未明, 今單馬而還, 汗有貳志者, 悔之無及. 寶從之, 乃自薊而南. 至黎陽, 聞慕容德稱制, 懼而退. 遣慕容騰招集散兵于鹿鹿, 慕容盛結豪桀于冀州, 段儀·段溫收部曲于內黃, 眾皆響會, 剋期將集. 會蘭汗遣左將軍蘇超迎寶, 寶以汗垂之季舅, 盛又汗之壻也, 必謂忠款無貳, 乃還至龍城. 汗引寶入于外邸, 弑之. 時年四十四, 在位三年, 即隆安三年也. 汗又殺其太子策及王公卿士百餘人. 汗自稱大都督·大將軍·大單于·昌黎王. 盛僭位, 偽諡寶惠愍皇帝, 廟號烈宗”; 『十六國春秋輯補』卷45 「後燕錄」 4, 360~361쪽.

102) 『資治通鑑』卷110 「晉紀」 32 安帝隆安二年條, 3463쪽, “燕啟倫還至龍城, 言中山已陷; 燕主寶命罷兵. 遼西王農言於寶曰: ‘今遷都尚新, 未可南征, 宜因成師饗庫莫奚, 取其牛馬以充軍資, 更審虛實, 俟明年而議之.’ 寶從之”.

103) 廖基添, 2013, 앞의 글, 281쪽.

3_ 모용희의 토목공사와 유행(遊幸)

모용희 재위 시기에 각종 토목공사가 많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검토해 보자.

이 해 봄에 궁실을 대거 수리하였다. 사월에 이르러 부(苻) 귀인(貴人)을 소의(昭儀)로 삼았다. 오월 용등원(龍騰苑)을 크게 축조하니, 넓이가 10여 리에 달았으며, 동원된 역도(役徒)가 2만 인이었다. 또 경운산(景雲山)을 원내(苑內)에 만들었는데, 터는 너비 500보(步)였고, 봉(峰)의 높이는 17장(丈)이었다. 또 소요궁(逍遙宮)과 감로전(甘露殿)을 만들었는데, 대문 좌우로 죽 벌여 있는 행랑이 수백 칸이었고, 관각(觀閣)이 서로 만났다. 천하거(天河渠)를 파서 물을 궁 안에 끌어들었다. 또 소의 부씨(苻氏)를 위해 곡광해(曲光海)와 청량지(淸涼池)를 만들었다. 늦여름에 더위가 심한데다가 사졸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 더위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2/3)이었다.¹⁰⁴⁾

『십육국춘추집보』에 따르면, 위의 기사는 403년의 일이다.¹⁰⁵⁾ 인용문에서 모용희는 궁실을 대거 수리하고 용등원과 경운산, 소요궁, 감로전, 천하거, 곡광해, 청량지 등을 만들었다. 이는 소의 부씨를 위한 토목공사였다. 이때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한 인부가 2만 명에 달했고, 더운 여름에 휴식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가 인부의 3분의 2가 더위를 먹고 죽었다. 모용희는 부소의(苻昭儀)

104) 『十六國春秋輯補』卷47「後燕錄」6, 370쪽, “是春, 大治宮室. 至四月, 立苻貴人爲昭儀. 五月, 大築龍騰苑, 廣袤十餘里, 役徒二萬人. 又起景雲山于苑內, 基廣五百步, 峰高十七丈. 又起逍遙宮·甘露殿, 連房數百, 觀閣相交. 鑿天河渠, 引水入宮. 又爲其昭儀苻氏鑿曲光海·淸涼池. 季夏盛暑, 士卒不得休息, 暍死者太半”.

105) 『資治通鑑』에서는 龍騰苑 축조를 403년, 逍遙宮 축조를 404년의 일로 보았다. 『資治通鑑』卷113「晉紀」35 安帝元興二年五月條, 3550쪽, “五月, 燕王熙作龍騰苑, 方十餘里, 役徒二萬人; 築景雲山於苑內, 基廣五百步, 峰高十七丈”; 『資治通鑑』卷113「晉紀」35 安帝元興三年夏四月條, 3570쪽, “燕王熙於龍騰苑起逍遙宮, 連房數百, 鑿曲光海, 盛夏, 士卒不得休息, 暍死者太半”.

한 사람을 위한 사치스러운 토목공사로 물자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동원된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국력의 약화를 초래했다.¹⁰⁶⁾

모용희와 황후 부씨의 사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모용희의 황후가 사냥을 좋아하니 모용희가 황후와 함께 사냥하러 나갔다. 북쪽으로 백록산(白鹿山)을 올랐으며 동쪽으로 청령(靑嶺)을 지났고, 남쪽으로 창해(滄海)에 임하니,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였고 시랑(豺狼)에게 해(害)를 당하거나 동사한 사졸이 5천여 인이었다.¹⁰⁷⁾

이 기사는 404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¹⁰⁸⁾ 인용문 앞부분은 모용희와 황후 부씨의 사냥과 두 사람이 지나간 경로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모용희 부부의 출행을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시랑(豺狼)에게 죽거나 동사한 사졸이 5천여 명에 달했다는 인용문의 후반부를 보면, 모용희 부부의 사냥에 많은 수의 백성들과 사졸들이 징발되거나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모용희가 황후 부씨의 취미를 위해 최소 5천여 명의 사졸들을 죽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⁹⁾

405년 업의 봉양문(鳳陽門)을 본떠 3층의 홍광문(弘光門)을 만들었다.¹¹⁰⁾ 또 407년 승화전(承華殿)을 만들었다. 이때 두정(杜靜)이 관을 가지고 궁궐을 방문하여 극간(極諫)했지만 모용희가 간언을 듣지 않고 두정을 죽였다.¹¹¹⁾ 이

106) 崔珍烈, 2015, 앞의 글, 245~247쪽.

107) 『晉書』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其后好游田, 熙從之, 北登白鹿山, 東過靑嶺, 南臨滄海, 百姓苦之, 士卒為豺狼所害及凍死者五千餘人矣”.

108) 『十六國春秋輯補』卷47 「後燕錄」 6, 370쪽; 『資治通鑑』卷113 「晉紀」 35 安帝元興三年十二月條, 3576~3577쪽, “燕王熙與苻後游畝, 北登白鹿山, 東逾靑嶺, 南臨滄海而還, 士卒為虎狼所殺及凍死者五千餘人”.

109) 崔珍烈, 2015, 앞의 글, 247쪽.

110) 『晉書』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擬鄴之鳳陽門, 作弘光門, 累級三層”; 『十六國春秋輯補』卷47 「後燕錄」 6, 371쪽.

111) 『資治通鑑』卷114 「晉紀」 36 安帝義熙三年二月條, 3595쪽, “燕王熙為其苻

처럼 모용희는 황후 부씨와 소의 부씨 자매를 위해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였다. 게다가 두 여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용희는 기행을 저질렀다. 예컨대, 404년 부소외가 죽었을 때 치료를 잘못된 왕영(王榮)을 처형하였다.¹¹²⁾ 또 모용희는 407년 황후 부씨가 여름에 동어회(凍魚膾), 겨울에 생지황(生地黃)을 먹고 싶다고 하자 모용희는 제철에 구할 수 없는 음식을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독촉하였고, 구하지 못하면 신하들을 죽였다.¹¹³⁾ 같은 해에 황후 부씨가 죽자 모용희는 몹시 슬퍼하며 자신의 신하들을 순장시키는 등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다.¹¹⁴⁾ 『자치통감』에서는 이 대목에서 “공경(公卿) 이하 병민(兵民)에 이르기까지 능(陵)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고, 그 비용은 정부에서 저축한 재물을 다 써버렸다”¹¹⁵⁾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모용희는 황후 부씨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이를 이용해 반란을 일으킨 풍발(馮跋)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살해되었다.¹¹⁶⁾

氏起承華殿，負土於北門，土與穀同價。宿軍典軍杜靜載棺詣闕極諫，熙斬之”。

112) 『資治通鑑』卷113「晉紀」35 安帝元興三年七月條，3574쪽，“燕王昭儀有疾，龍城人王榮自言能療之，昭儀卒，燕王熙立榮於公車門，支解而焚之”。

113) 『晉書』卷124「慕容熙載記」，3106쪽，“苻氏嘗季夏思凍魚膾，仲冬須生地黃，皆下有司切責，不得，加大辟，其虐也如此”；『十六國春秋輯補』卷47「後燕錄」6，371쪽；『資治通鑑』卷114「晉紀」36 安帝義熙三年二月條，3595쪽，“苻氏嘗季夏思凍魚，仲冬須生地黃，熙下有司切責不得而斬之”。

114) 『晉書』卷124「慕容熙載記」，3106~3107쪽，“苻氏死，熙悲號躑躅，若喪考妣，擁其尸而撫之曰：‘體已就冷，命遂斷矣！’於是僵仆氣絕，久而乃蘇。大斂既訖，復啟其棺而與交接，服斬紵，食粥，制百僚於宮內哭臨，令沙門素服，使有司案檢喪者，有淚以為忠孝，無則罪之，於是羣臣震懼，莫不含辛以為淚焉。慕容隆妻張氏，熙之嫂也，美姿容，有巧思，熙將以為苻氏之殉，欲以罪殺之，乃毀其襪鞞，中有弊氈，遂賜死。三女叩頭求哀，熙不許。制公卿已下至于百姓，率戶營墓，費殯府藏，下錮三泉，周輪數里，內則圖畫尚書八坐之象。熙曰：‘善為之，朕將隨后入此陵。’識者以為不祥。其右僕射韋璆等並懼為殉，沐浴而待死焉。號苻氏墓曰徽平陵。熙被髮徒跣，步從苻氏喪。輜車高大，毀北門而出”；『十六國春秋輯補』卷47「後燕錄」6，371쪽。

115) 『資治通鑑』卷114「晉紀」36 安帝義熙三年夏四月癸丑條，3596쪽，“公卿以下至兵民，戶率營陵，費殯府藏”。

116) 『資治通鑑』卷114「晉紀」36 安帝義熙三年秋七月條，3598쪽，“初，中衛將軍馮跋及弟侍御郎素弗皆得罪於熙，熙欲殺之，跋亡命山澤。熙賦役繁數，民不堪命；跋·素弗與其從弟萬泥謀曰：‘吾輩還首無路，不若因民之怨，共舉大事，可苾建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연의 모용희는 황후 부씨와 부소의 자매를 위해 무리한 토목공사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이는 후연의 경제력과 인력 소모를 초래하였다. 후연의 뒤를 이은 북연(北燕)의 군주 풍발은 부역이 번고(繁苦)하여 백성들이 곤궁하자 전조(前朝, 후연)의 가정(苛政)을 모두 없앴다.¹¹⁷⁾ 이는 후연 ‘용성시대’ 특히 모용희 시기에 있었던 잦은 토목공사와 출행 등으로 백성들의 부역 동원이 심하였음을 시사한다.¹¹⁸⁾

IV. 광개토대왕의 서진(西進)

고구려가 요동 지방을 언제 점령했는지는 사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광개토대왕비」에는 395년 무렵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보인다.

公侯之業；事之不捷，死未晚也。’遂相與乘車，使婦人御，潛入龍城，匿於北部司馬孫護之家。及熙出送葬，跋等與左衛將軍張興及苻進餘黨作亂。跋素與慕容雲善，乃推雲為主。雲以疾辭，跋曰：‘河間淫虐，人神共怒，此天亡之時也。公，高氏名家，何能為人養子，而棄難得之運乎?’扶之而出。跋弟乳陳等帥眾攻弘光門，鼓噪而進，禁衛皆散走；遂入宮授甲，閉門拒守。中黃門趙洛生走告于熙，熙曰：‘鼠盜何能為！朕當還誅之。’乃置后柩於南苑，收髮貫甲，馳還赴難。夜，至龍城，攻北門，不克，宿於門外。乙丑，雲即天王位，大赦，改元正始。……熙退入龍騰苑，尚方兵褚頭逾城從熙，稱營兵同心效順，唯俟軍至。熙聞之，驚走而出，左右莫敢迫。熙從溝下潛遁，良久，左右怪其不還，相與尋之，唯得衣冠，不知所適。中領軍慕容拔謂中常侍郭仲曰：‘大事垂捷，而帝無故自驚，深可怪也。然城內企遲，至必成功，不可稽留。吾當先往趣城，卿留待帝，得帝，速來；若帝未還，吾得如意安撫城中，徐迎未晚。’乃分將壯士二千餘人登北城，將士謂熙至，皆投仗請降。既而熙久不至，拔兵無後繼，眾心懼懼，復下城赴苑，遂皆潰去。拔為城中人所殺。丙寅，熙微服匿於林中，為人所執，送於雲，雲數而殺之，並其諸子。雲復姓高氏”。

117) 『晉書』卷125 「馮跋載記」, 3129쪽, “跋下書曰：「自頃多故，事難相尋，賦役繁苦，百姓困窮。宜加寬宥，務從簡易，前朝苛政，皆悉除之。守宰當垂仁惠，無得侵害百姓。蘭臺都官明加澄察”。

118) 崔珍烈, 2015, 앞의 글, 247~250쪽.

영락(永樂) 5년(395), 세차(歲次)로는 을미년(乙未年)에 왕은 패려(裨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몸소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 가에 이르러 그 3개 부락 600~700영(營)을 격파하였다. [노획한] 소·말·양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쪽으로 □성(□城), 역성(力城), 북풍(北豐), 오비□(五備□)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사냥한 후 돌아왔다.¹¹⁹⁾

위의 인용문에서 양평도(襄平道)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대(漢代) 이래 요동군(遼東郡)의 치소(治所)였던 양평현(襄平縣) 일대에 있던 길로 추정된다. 따라서 패려를 격파하고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으로 돌아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¹²⁰⁾ 그러나 400~402년 사이에 점령한 요동 지역을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에서는 395년 이전 점령한 것처럼 기술하였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¹²¹⁾ 그리고 양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395년 무렵까지 고구려와 후연이 요동을 분점(分占)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¹²²⁾ 또 398년에 요동을 점령했다는 중국 학자의 견해도 있다.¹²³⁾

위의 인용문에서 역성(力城)은 『진서』 「지리지」에 요동군의 속현(屬縣)으로 기록되어 있었다.¹²⁴⁾ 북풍은 3세기 삼국 위 요동군 속현의 하나였으며,

119) 「廣開土大王碑」,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裨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豐, 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120) 徐榮洙, 1988, 앞의 글, 94~103쪽; 武田幸男, 1989, 앞의 글, 214쪽; 田中俊明, 1996, 앞의 글, 514~516쪽; 孔錫龜, 2012, 앞의 글, 125~157쪽; 井上直樹, 2012, 앞의 글, 206쪽; 임기환, 2013, 앞의 글, 94~108쪽.

121) 여호규, 2005, 앞의 글, 36쪽.

122) 이성제, 2012, 앞의 글, 35~66쪽.

123) 趙智濱, 2015, 앞의 글, 39왼쪽~43오른쪽.

124) 『晉書』 卷14 「地理志」 上 平州·遼東國條, 427쪽, “襄平(東夷校尉所居)·汶·居就·樂就·安市·西安平·新昌·力城”.

240년 문현(汶縣)과 북풍현(北豐縣)의 유민이 산둥반도로 이주하여 그곳에 신 문현(新汶縣)과 남풍현(南豐縣)을 설치한 적이 있다.¹²⁵⁾ 앞의 인용문에 보이는 북풍 등의 경로를 요하선을 따라 요동 반도 남단에 이르는 길로 설정하는 견해도 있다.¹²⁶⁾ 반면, 북연의 풍홍(馮弘)을 북풍으로 옮겼고 유송(劉宋)의 군대와 충돌했던 『삼국사기』 장수왕 26년조 기록¹²⁷⁾을 보면, 북풍을 지금의 요녕성(遼寧省) 수암(岫巖)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또 □성은 후성(候城)으로 판독된다는 견해도 있다.¹²⁸⁾ 후성은 심양(瀋陽)의 구시가지¹²⁹⁾ 혹은 심양과 무순(撫順) 경계에 위치한 상백관둔(上伯官屯) 고성(古城) 유지¹³⁰⁾로 보는 견해가 양립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영락 5년(395)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이 □성(候城)과 역성(力城), 북풍(北豐) 세 지역을 시찰한 것은 요동 반도의 일부 지역이 고구려의 점령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조지빈(趙智濱)은 고구려가 아마도 후연이 요동군을 수복할 때 이 지역을 점령하였고, 북풍 등 세 지역은 비교적 남쪽과 가까웠기 때문에 후연이 수복하지 못했다고 추정하였다.¹³¹⁾

필자는 양평도(襄平道)의 ‘도(道)’가 길(도로)의 뜻이 아니라 진한시대(秦漢時代)와 삼국시대(三國時代)까지 남아 있었던 현급(縣級) 행정구역인 도(道)라고 생각한다. 이를 방증하는 기록이 『수경주(水經注)』에 보인다.

-
- 125) 『三國志』卷4「魏書」4 齊王紀 正始元年春二月丙戌條, 119쪽, “丙戌, 以遼東汶·北豐縣民流徙渡海, 規齊郡之西安·臨菑·昌國縣界為新汶·南豐縣, 以居流民”.
- 126) 武田幸男, 1989, 앞의 글, 213쪽; 盧泰敦, 1992, 「廣開土大王碑」,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3쪽 註21.
- 127)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長壽王二十六年條.
- 128) 임기환, 2013, 앞의 글, 87~89쪽.
- 129) 孫進己·王綿厚·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1, 黑龍江人民出版社, 276~281쪽.
- 130) 王綿厚·李建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39쪽; 권오중, 2005,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2쪽 주31; 배진영, 2008,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 - 군현체제로의 지향과 한계 -」, 서영수·배진영·윤용구·김용성·방향숙,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81쪽.
- 131) 趙智濱, 2015, 앞의 글, 40왼쪽~40오른쪽.

백랑수(白狼水)는 또 북쪽으로 황룡성(黃龍城) 동쪽을 지난다. 『십삼주지(十三州志)』에서는 요동속국도위(遼東屬國都尉)의 치소는 창려도(昌黎道)이며, 황룡정(黃龍亭)이 있다.¹³²⁾

『속한서(續漢書)』 지제(志第) 23 「군국지(郡國志)」 5 유주(幽州)·요동속국조(遼東屬國條)에는 창료(昌遼)·빈도(賓徒)·도하(徒河)·무려(無慮)·험독(險瀆)·방(房) 6현(縣)이 있었다.¹³³⁾ 교감기(校勘記)에 따르면 창료(昌遼)는 ‘昌黎(창려)’의 오기다.¹³⁴⁾ 『속한서』 「군국지」의 군(郡)·국(國)·속국도위(屬國都尉) 속현 가운데 첫 번째로 나열되는 현(縣)·도(道)는 해당 군·국·속국도위의 치소현(治所縣)이다.¹³⁵⁾ 따라서 후한시대 요동속국의 치소는 창려(昌黎)이며, 이는 위의 인용문과 일치한다. 인용문에서 창려(昌黎)를 창려‘현’(昌黎‘縣’)이 아닌 창려‘도’(昌黎‘道’)로 표기된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도(道)는 현(縣)·후국(侯國)·읍(邑)과 함께 현급(縣級) 행정구역이었다.¹³⁶⁾ 전한 초(前漢初)의 문서인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에는 현도관(縣道官)이라는 표현이

132) 『水經注』(酈道元 注, 楊守敬 纂疏, 段熙仲 點校, 陳橋驛 復校, 1989, 『水經注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卷14 大遼水·又東南過房縣西條, 1273쪽, “白狼水又北徑黃龍城東, 十三州志曰: 遼東屬國都尉治, 昌黎道, 有黃龍亭者也”.

133) 『續漢書』 志第23 「郡國志」 5 幽州·遼東屬國條, 3530쪽.

134) 『續漢書』 志第23 「郡國志」 5 校勘記 三五三〇頁五行, 3551쪽, “昌遼故天遼 集解引惠棟說, 謂案闕駟十三州志云遼東屬國都尉治昌黎 道, 又前志遼西郡交黎縣, 應劭云今昌黎, 然則昌遼當作昌黎, 天遼當作交黎. 又通鑑注云昌黎, 漢交黎縣, 屬遼西, 後漢屬遼東屬國都尉, 則知胡氏所見本尚未舛謬也. 又引錢大昕說, 謂黎遼聲相近, 故昌黎亦作昌遼, 猶烏氏為烏枝, 庠奚為僂奚也”.

135) 『續漢書』 志第18 「郡國志」 1, 3385쪽, “凡縣名先書者 郡所治也”.

136)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前漢未인 平帝시기 “郡國一百三, 縣邑千三百一十四, 道三十二, 侯國二百四十一”이라 하여(『漢書』 卷28下 「地理志」 下, 1639~1640쪽) 縣·道·侯國이 並列되었다. 실제로 平帝 元始 2년(A.D. 2) 學官을 설치하면서 郡國의 것을 ‘學’, 縣·道·邑·侯國의 것을 ‘校’라 명명한 기사를 보면(『漢書』 卷12 平帝紀 元始二年條, 355쪽, “夏……立官校及學官, 郡國曰學, 縣·道·邑·侯國曰校”), 이는 平帝시기 侯國이 縣級 행정단위로 간주되었음을 뜻한다.

자주 등장한다.¹³⁷⁾ 이 가운데 이민족의 행정구역을 ‘도(道)’라고 한다.¹³⁸⁾ 현(縣)과 도(道)가 병렬되는 것으로 보아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에 보이는 도(道)는 농서(隴西)·안정(安定)·북지(北地)·상군(上郡) 등 장안의 서북 지역(현재의 陝西省·甘肅省 일대)과 파촉(巴蜀) 지역(현재의 四川省 일대)에 분포하였다. 특히 음평도(陰平道)·전저도(甸氏道)·면체도(縣遞道)·전저도(湍氏道)는 광한군(廣漢郡)과 촉군(蜀郡)의 서쪽에 위치하며 광한북부도위(廣漢北部都尉), 촉군북부도위(蜀郡北部都尉)에 속했다는 공통점이 보이므로¹³⁹⁾ 이들 도(道)는 파촉의 이민족 통치와 관련이 있다.¹⁴⁰⁾ 부도위(部都尉), 즉 후한의 속국도위(屬國都尉)에 속한 것은 부도위와 속국도위가 이민족 거주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점과도 부합한다. 창려도(昌黎道)가 요동속국도위(遼東屬國都尉)의 치소인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서에는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이 현(縣)인지 도(道)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요동군과 양평의 성격을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전한 요동군에는 동부·중부·서부의 세 부도위가 설치되었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동부도위(東部都尉)의 치소는 무차(武次),¹⁴¹⁾ 중부도위(中部都尉)의 치소는 후성(候城),¹⁴²⁾ 서부도위(西部都尉)의 치소는 무려¹⁴³⁾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치소 뿐만 아니라 부도위 주변도 부도위 소속으로 추정된다. 동부도위는 무차 이외에

137) 崔珍烈, 2004b, 「漢初 內史의 기능과 성격 -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의 분석을 중심으로 -」, 『中國古代史研究』(이후 『中國古中世史研究』로 변경) 11집, 79~83쪽.

138) 『續漢書』 志第28 「百官志」 5 縣鄉條, 3623쪽, “凡縣主蠻夷曰道. 公主所食湯沐曰(國)[邑]. 縣萬戶以上為令, 不滿為長. 侯國為相. 皆秦制也”.

139)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 秦·西漢·東漢時期, 中國地圖出版社, 29~30쪽의 「西漢 益州刺史部北部」 참조.

140) 崔珍烈, 2004a, 「漢初 郡國制와 지방통치책 -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을 중심으로 -」, 『東洋史學研究』 89, 84~85쪽.

141)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武次條 細注, 1626쪽, “東部都尉治. 莽曰桓次”.

142)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候城條 細注, 1626쪽, “中部都尉治”.

143)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無慮條 細注, 1626쪽, “西部都尉治”.

서안평(西安平)과 번한(番汗), 중부도위(中部都尉)에는 후성 이외에 망평(望平), 고현(高顯), 요양(遼陽)이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⁴⁾ 서부도위(西部都尉)에는 무려 이외에 험독(險瀆)과 방현(房縣)이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⁵⁾ 이 연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전한시대 요동군에는 18현이 있었으므로¹⁴⁶⁾ 10개의 현급 행정구역이 3개의 부도위에 속했다. 반수가 넘는 현이 이민족 통치기관인 3개의 부도위에 설치된 것은 정상적인 군(郡) 편제가 아니다. 후한시대에 요서군 동부 지역(昌遼·賓徒·徒河)과 요동군 요수(遼水) 서쪽 지역(無慮·險瀆·房)이 요동속국(遼東屬國)으로 편제되었던 사실¹⁴⁷⁾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요컨대, 요동군의 10현¹⁴⁸⁾은 현 혹은 현급 행정조직이 설치되었지만 이민족 통치기구인 부도위가 설치된 것을 보면 해당 지역민의 편호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요동군 양평에 목사관(牧師官)이 존재하였다.¹⁴⁹⁾ 『주례(周禮)』에 따르면, 목사(牧師)는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속한 관명(官名)이며 목마(牧馬)의 땅을 관리하고 말의 교배와 목지의 분급(分給) 등을 맡았다. 전한의 목사관이 『주례』의 목사와 동일한 역할을 맡았다면, 요동군의 치소 양평에는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동군의 치소에 목장이 설치되었다면 말을 기르는 사람은 한족(漢族) 편호제민(編戶齊民)이라기보다 목축에 능한 이민족이었을 것이다. 즉 양평에도 이민족도 많았을 것이며, 이 경우 현(縣)보다 도(道)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현보다 한족(중국인)이 적게 사는 이민족 행정구역인 도(道)가 군(郡)의 치소가 되었

144) 권오중, 2005, 앞의 글, 16~17쪽.

145) 배진영, 2008, 앞의 글, 86쪽.

146)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條, 1625~1626쪽, “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 縣十八”.

147) 『續漢書』 志第23 「郡國志」 5 幽州·遼東屬國條, 3530쪽.

148) 이 글에서 사용하는 ‘縣’은 현급 행정구역이다. 『漢書』 「地理志」와 『續漢書』 「郡國志」에서 郡 아래에 속한 縣·道·邑·侯國 등 현급 행정구역을 관행적으로 縣으로 지칭하므로 관행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149)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襄平縣條細注, 1626쪽, “有牧師官”.

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한 농서군(隴西郡)의 치소인 적도(狄道)¹⁵⁰⁾ 역시 이민족 행정구역인 도(道)였다. 이는 농서군과 북지(北地)·상군(上郡)이 본래 의거용(義渠戎)의 땅이었으며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이 의거왕(義渠王)을 죽이고 의거용의 지역을 병합한 후 설치한 군(郡)임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¹⁵¹⁾ 요동군이 본래 동호(東胡)의 땅을 전국시대 연(燕)이 점령하여 설치한 상곡(上谷)·어양(漁陽)·우북평(右北平)·요서(遼西)·요동(遼東) 5군의 하나였음을 상기하면¹⁵²⁾ 요동군과 농서군이 옛 이민족의 땅이었다는 점이 똑같다. 따라서 요동군의 치소 양평도, 목사관(牧師官)이 관리하는 목축에 종사하는 이민족이 많았기 때문에, 현보다 한족이 적게 살고 편호화가 덜 진행되었던 도(道)라는 현급 행정구역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광개토대왕비」의 양평도(襄平道)는 그 증거다. 필자의 주장에 대과가 없다면 「광개토대왕비」 영락 5년(395) 기사에 양평도(襄平道), 역성(力城), 북풍(北豐) 등 한진(漢晉)시대 요동군의 현(縣)·도(道) 명칭이 보이고 □성이 요동군의 속현인 후성(候城)으로 비정되므로, 영락 5년(395) 당시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했다는 주장¹⁵³⁾은 설득력이 있다.

영락 5년(395) 당시 양평도(襄平道), 역성(力城), 북풍(北豐), 후성(候城) 등 한진시대 현(縣)·도(道) 명칭이 발견되기 때문에 한진시대 요동군이 고구려의 영토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연이 일시적으로 요동의 일부를 점령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후연의 모용성은 400년에 3만 명

150) 『漢書』卷28下「地理志」8下隴西郡條, 1610쪽.

151) 『後漢書』卷87「西羌傳」, 2869쪽, “及昭王立, 義渠王朝秦, 遂與昭王母宣太后通, 生二子. 至王赧四十三年, 宣太后誘殺義渠王於甘泉宮, 因起兵滅之, 始置隴西·北地·上郡焉”.

152) 『史記』卷110「匈奴列傳」, 2885~2886쪽, “其後燕有賢將秦開, 為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 與荊軻刺秦王秦舞陽者, 開之孫也,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153) 徐榮洙, 1988, 앞의 글, 94~103쪽; 武田幸男, 1989, 앞의 글, 214쪽; 田中俊明, 1996, 앞의 글, 514~516쪽; 孔錫龜, 2012, 앞의 글, 125~157쪽; 井上直樹, 2012, 앞의 글, 206쪽; 임기환, 2013, 앞의 글, 94~108쪽.

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신성(新城)과 남소(南蘇)를 점령하였다.¹⁵⁴⁾ 남소성(南蘇城)은 현재의 요녕성 철령시(鐵嶺市) 동남 최진보산성(催陣堡山城), 혹은 요녕성 무순시 철배산산성(鐵背山山城)으로 비정된다.¹⁵⁵⁾ 또 오룡산성(五龍山城)으로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⁵⁶⁾ 『한원(翰苑)』에 따르면, 신성은 남소성에서 7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¹⁵⁷⁾ 혹은 신성을 현재의 요녕성 무순 고이산성(高爾山城)으로 비정하기도 한다.¹⁵⁸⁾ 어떤 비정이건 간에 신성과 남소성은 현재의 요녕성 무순시 혹은 철령시에 해당한다. 두 성이 요녕성, 즉 당시의 요동 지방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400년에 2성이 함락되기 전에 요동의 일부 혹은 전부가 이미 고구려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모용성은 405년 정월 요동성을 공격했으나 다량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¹⁵⁹⁾ 모용희는 406년에는 목저성

154) 『晉書』卷124「慕容盛載記」, 3103쪽, “盛率眾三萬伐高句驪, 襲其新城·南蘇, 皆克之, 散其積聚, 徙其五千餘戶于遼西”; 『十六國春秋輯補』卷46「後燕錄」5, 367쪽; 『資治通鑑』卷111「晉紀」33 安帝隆安四年條, 3507쪽, “高句麗王安事燕禮慢; 二月, 丙申, 燕王盛自將兵三萬襲之, 以驍騎大將軍熙為前鋒, 拔新城·南蘇二城, 開境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熙勇冠諸將, 盛曰:「叔父雄果, 有世祖之風, 但弘略不如耳!」”;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九年春二月條, “二月, 燕王盛, 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驍騎大將軍慕容熙, 為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

155) 史為樂, 2005,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799쪽; 孫進己·馮永謙 主編, 1989, 『東北歷史地理』第二卷,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95~97쪽. 고증이 없기 때문에 두 설이 공존하였다. 高然, 2014, 「十六國前燕疆域·政區考」, 『中國歷史地理論叢』29-3, 72오른쪽 주6.

156) 임기환, 2013, 앞의 글, 95쪽.

157) 『翰苑』卷30「高麗條」引高麗記, “[南蘇]城, 雜[新]城北七十里山上也”.

158) 趙智濱, 2015, 앞의 글, 42왼쪽.

159) 『晉書』卷124「慕容熙載記」, 3106쪽, “會高句驪寇燕郡, 殺略百餘人. 熙伐高句驪, 以苻氏從, 為衝車地道以攻遼東. 熙曰:‘待剗平寇城, 朕當與后乘輦而入, 不聽將士先登.’於是城內嚴備, 攻之不能下. 會大雨雪, 士卒多死, 乃引歸”; 『十六國春秋輯補』卷47「後燕錄」6, 371쪽; 『資治通鑑』卷114「晉紀」36 安帝義熙元年正月條, 3579쪽, “燕王熙伐高句麗. 戊申, 攻遼東. 城且陷, 熙命將士:‘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乘輦而入.’由是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九年十四年春正月條, “十四年,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 乘輦而入.’由是, 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木底城)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¹⁶⁰⁾ 적어도 400년 당시에는 요동의 신성과 남소 2성은 잠깐이나마 후연에 점령되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시각에서는 고구려가 신성과 남소 2성을 수복한 시점이 요동 전체를 고구려가 정복했던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조계 사서인 『송서(宋書)』,¹⁶¹⁾ 『양서(梁書)』,¹⁶²⁾ 『통전(通典)』¹⁶³⁾ 에서 고구려의 요동 점령 시점을 기록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기록하였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402년 후연의 숙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후연 평주자사(平州刺史) 모용귀(慕容歸)가 도망갔다.¹⁶⁴⁾ 앞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401년까지 12회의 반란과 지배층 살육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장들이 피살되었다. 따라서 후연 지휘관의 상실은 후연군의 전력 상실로 이어졌다. 그래서 모용귀는 제대도 저항도 못하고 도망갔을 것이다. 광개토대왕은 404년에도 후연을 공격하였다.¹⁶⁵⁾ 『진서』 「모용희재기」에는 이때 연군(燕郡)을 공격

160) 『晉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熙與苻氏襲契丹, 憚其眾盛, 將還, 苻氏弗聽, 遂棄輜重, 輕襲高句麗, 周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木底城, 不克而還”; 『十六國春秋輯補』 卷47 「後燕錄」 6, 371쪽; 『資治通鑑』 卷114 「晉紀」 36 安帝義熙二年十二月條, 3588쪽, “十二月, 燕王熙襲契丹”; 『資治通鑑』 卷114 「晉紀」 36 安帝義熙二年春正月條, 3588쪽, “燕王熙至陁北, 畏契丹之眾, 欲還, 苻后不聽; 戊申, 遂棄輜重, 輕兵襲高句麗”;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九年十五年冬十二月條, “冬十二月, 燕王熙襲契丹, 至陁北, 畏契丹之眾, 欲還, 遂棄輜重, 輕兵襲我. 燕軍行三千餘里, 士馬疲凍, 死者屬路, 攻我木底城, 不克而還”.

161) 『宋書』 卷97 「夷蠻·東夷·百濟國傳」, 2393쪽, “百濟國, 本與高麗俱在遼東之東千餘里, 其後高麗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晉平郡晉平縣”.

162) 『梁書』 卷54 「諸夷·東夷·高句麗傳」, 803쪽, “垂死, 子寶立, 以句麗王安為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163) 『通典·邊防典』 卷186 「邊防」 2 東夷下 高句麗傳, 5013쪽, “其後慕容寶以句麗王安為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164) 『資治通鑑』 卷112 「晉紀」 34 安帝元興元年五月條, 3543쪽, “高句麗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十一年條, “十一年,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 棄城走”.

165) 『資治通鑑』 卷113 「晉紀」 35 安帝元興三年十一月條, 3577쪽, “高句麗侵燕”;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十三年冬十一月條, “十三年, 冬十一月, 出師侵燕”.

했다고 기록하였다.¹⁶⁶⁾

광개토대왕이 402년과 404년에 요서를 공격하긴 했지만, 이 지역을 계속 지배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진서』에 따르면, 후연은 406년 비여(肥如)와 숙군(宿軍) 2성을 크게 쌓고 구니예(仇尼倪)를 영주자사(營州刺史)로 임명하여 숙군성(宿軍城)에, 모용의(慕容懿)를 유주자사로 삼아 영지(令支)에, 유목(劉木)을 기주자사(冀州刺史)로 삼아 비여에 주둔하게 하였다.¹⁶⁷⁾ 『자치통감』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숙군성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옮긴 지명이 아니라면, 고구려는 402년 숙군성 점령과 406년 사이에 숙군성을 방기했거나 영토를 빼앗겼을 것이다. 그러나 사서에는 고구려가 숙군성을 빼앗겼다는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서』에 보이는 숙군성이 광개토대왕이 점령한 숙군성과 동일하다는 단정도 불가능하다.

반면, 광개토대왕 이후 고구려가 요서의 일부를 점령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위서』 「고구려전」에 따르면 고구려왕 련(璉, 長壽王)¹⁶⁸⁾과 련(璉)의 손자 운(雲, 文咨王)¹⁶⁹⁾이 도독요해제군사(都督遼海諸軍事)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위서』에서 요해(遼海)는 요서 혹은 북연의 옛 땅을 지칭하였다.¹⁷⁰⁾ 다음 두 기록을 살펴보자.

(가) 통만(統萬)을 제거하고 진릉(秦隴)을 평정하였으며, 요해를 자르고, 하원(河源)을 씻었으며, 남이(南夷)는 짊어지고, 북연(北蠕)은

166) 『晉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會高句驪寇燕郡, 殺略百餘人”.

167) 『晉書』 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大城肥如及宿軍, 以仇尼倪為鎮東大將軍·營州刺史, 鎮宿軍, 上庸公懿為鎮西將軍·幽州刺史, 鎮令支; 尚書劉木為鎮南大將軍·冀州刺史, 鎮肥如”; 『十六國春秋輯補』 卷47 「後燕錄」 6, 37쪽 주1.

168) 『魏書』 卷100 「高句麗傳」, 2214~2215쪽, “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方物, 并請國諱. 世祖嘉其誠款, 詔下帝系名諱於其國, 遣員外散騎侍郎李敖拜璉為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169) 『魏書』 卷100 「高句麗傳」, 2216쪽, “又遣大鴻臚拜璉孫雲使持節·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賜衣冠服物車旗之飾, 又詔雲遣世子入朝, 令及郊丘之禮”.

170) 史爲樂, 2005, 앞의 책, 880쪽.

흔적이 없어지고, 사표(四表)를 평정하고 영토를 넓혔으며, 융화(戎華)를 통일하였으니, 태무황제(太武皇帝)의 공(功)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⁷¹⁾

(나) 옆드려 생각건대, 세조(世祖) 태무황제께서는 영예(英猷)는 하늘에서 나왔고 일역(日域)에 뒤덮였으며, 동쪽으로 요해를 깨끗이 하였고 서쪽으로 옥문(玉門)을 평정하였으며, 막북(漠北)을 능멸하고, 강수(江水)에서 말에게 물을 먹였다.¹⁷²⁾

(가)는 『위서』 권4하 「세조기」 4하의 기록이다. 통만은 하(夏)의 수도였고, 진릉(秦隴)은 혁련정(赫連定)이 서진(西秦)을 멸망시키며 북위에 저항했던 하의 잔여 세력이었다. 요해는 북위에 망한 북연을 지칭하고 하원(河源)은 토욕혼(吐谷渾)의 땅이다. 또 남이(南夷)는 유송(劉宋), 북연(北蠕)은 유연(柔然)을 지칭한다. (나)는 『위서』 권53 「이효백전부표자전(李孝伯傳附豹子傳)」에 실린 이안민(李安民)의 아들 이표자(李豹子)가 정광(正光) 3년에 올린 상서(上書)의 일부다. 요해는 북연, 옥문은 북량(北涼)을 각각 지칭하며 모두 북위에 망했다. 또 막북(漠北)은 유연(柔然)이 거주하는 땅이며, 강수(江水)는 유송의 강역에 있는 장강(長江)이다. 이처럼 요해는 북연의 영토를 지칭하며 북위시대 영주(營州)와 평주(平州) 일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장수왕과 문자왕에게 주어 진 도독요해제군사는 고구려가 요해, 즉 구북연(舊北燕) 지역인 영주 일대를 지배했음을 시사한다. 도독요해제군사가 지배하지 않는 지역의 지방관을 임명하는 요령(遙領)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요해, 즉 요서의 영주 지역이 고구려와 인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해를 초래할 접경 지역의 지명을 딴 도독제군사

171) 『魏書』 卷4下 「世祖紀」 4下, 109쪽, “掃統萬, 平秦隴, 翦遼海, 盪河源, 南夷荷擔, 北蠕削跡, 廓定四表, 混一戎華, 其為功也大矣”.

172) 『魏書』 卷53 「李孝伯傳附豹子傳」, 1173쪽, “安民弟豹子. 正光三年上書曰: 「…… 伏惟世祖太武皇帝, 英猷自天, 籠罩日域, 東清遼海, 西定玉門, 凌滅漠北, 飲馬江水, ……」”.

(都督諸軍事)의 칭호를 준 것은 이상하다. 따라서 『위서』의 논리 구조와 고구려 서술 태도를 보면 도독요해제군사는 고구려가 요서의 일부 지역을 지배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벼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요컨대,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의 요서 지배 여부는 중국 사서의 기록 누락 혹은 의도적인 은폐와 『삼국사기』의 기록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가부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다.

V. 맺음말

북위에게 수도 중산을 빼앗기고 용성으로 쫓겨온 모용보와 그 후계 군주들은 지배층의 분열과 반란, 살해로 인력을 축냈을 뿐만 아니라 모용희는 잦은 토목공사와 무리한 유행(遊幸)으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고 국고의 물자를 탕진하였다. 이는 후연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후연은 이러한 인구 감소와 물자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고막해, 거란, 고구려를 공격하였지만, 모용외·모용황 시기와는 달리 주변 국가를 정복하지 못하였고, 대외원정은 성공보다 실패에 가까웠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연처럼 해외(塞外)에서 중원(中原)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요서를 지배하는 소국으로 전락하고 결국 풍발에게 망하였다.

3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용희는 403년 궁실을 대거 수리 혹은 수축하였다. 모용희와 황후 부씨의 404년 사냥과 유행(遊幸) 때 동원된 사졸(士卒) 가운데 5천여 명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토목공사와 사냥, 유행에 동원된 인력과 물자의 소모로 후연의 국력은 더욱 약해졌다. 광개토대왕의 요동·요서 공략은 후연의 자멸과 붕괴와 맞물렸다. 광개토대왕의 뛰어난 전략과 함께 후연의 경제적 피해와 군사력 약화 때문에 후연은 고구려군에게 패하고 영토를 잃어

버렸다. 후연의 모용희는 405년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돌아갔다.¹⁷³⁾ 406년 또 거란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거란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대신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또 패했다.¹⁷⁴⁾ 후연군이 무력하게된 배후에는 유능한 무장들의 피살과 모용희 시기 인력과 재력 소모로 인한 국력과 군사력 약화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요동·요서 공략 성공의 원인으로 후연 ‘용성시대’ 지배층의 내분과 토목공사 및 유행으로 인한 인력·경제력 소모, 북위의 영토 잠식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수림왕·고국양왕 시기의 내정 개혁, 광개토대왕의 뛰어난 전략과 고구려군의 우수성 등도 물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국내 선행 연구가 있으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양자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을 객관적으로 조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선행 연구가 없는 전자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3) 『晉書』卷124「慕容熙載記」, 3106쪽;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九年十四年春正月條.

174) 『晉書』卷124「慕容熙載記」, 3106쪽; 『十六國春秋輯補』卷47「後燕錄」6, 371쪽; 『資治通鑑』卷114「晉紀」36 安帝義熙二年十二月條, 3588쪽; 『三國史記』卷18「高句麗本紀」6 廣開土王九年十五年冬十二月條.

참고문헌

사서

- 盧泰敦, 1992, 「廣開土大王碑」,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梁書』(姚思廉 撰, 1973, 北京: 中華書局).
- 『史記』(司馬遷 撰, 1959, 北京: 中華書局).
- 『三國史記』.
- 『三國志』(陳壽 撰, 裴松之 注, 1959, 北京: 中華書局).
- 『宋書』(沈約 撰, 1974, 北京: 中華書局).
- 『水經注』(酈道元 注, 楊守敬 纂疏, 段熙仲 點校, 陳橋驛 復校, 1989, 『水經注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 『十六國春秋輯補』(崔鴻 撰, 湯球 輯補, 王魯一·王立華 點校, 1998, 濟南: 齊魯書社).
- 『魏書』(魏收 撰, 1974, 北京: 中華書局).
-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1956, 北京: 中華書局).
- 『晉書』(房玄齡 等撰, 1974, 北京: 中華書局).
- 『通典』(杜佑 撰, 王文錦 等 點校, 1988, 中華書局).
- 『漢書』(班固 撰, 顏師古 注, 1962, 北京: 中華書局).
- 『後漢書』(范曄 撰, 李賢 等注, 1965, 北京: 中華書局).

저서

- 譚其驥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 秦·西漢·東漢時期, 中國地圖出版社.
- 史爲樂 主編, 2005, 『中國歷代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孫進己·馮永謙 主編, 1989, 『東北歷史地理』 第二卷,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王綿厚·李建才, 1990, 『東北古代交通』, 瀋陽出版社.

연구논문

- 姜仙, 2002, 「五胡十六國의 關係 - 後燕·北燕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 『고구려발해 연구』 14.
- 孔錫龜, 2007,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15.
- 孔錫龜, 2012, 「廣開土王의 遼西地方 進出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67.

- 孔錫龜, 2003, 「고구려와 모용 '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가락국사
적개발연구원.
- 권오중, 2005, 「요동군 중부도위와 고구려의 신성», 『고구려의 국제관계』, 고구려연구
재단.
- 金洪培, 2011, 「略論高句麗與慕容鮮卑의早期關係」, 『인문과학연구』 30.
- 박세이, 2015, 「광개토왕의 遼西 공략과 後燕 관계」, 『지역과 역사』 36.
- 배진영, 2008, 「한대 요동군의 군현 지배 - 군현체제로의 지향과 한계 -」, 서영수·배진
영·윤용구·김용성·방향숙,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徐炳國, 2001, 「百濟와 高句麗의 遼西統治」, 『역사와실학』 19·20.
- 徐榮洙, 1988, 「『廣開土大王陵碑文』의 정복기사 재검토(中)」, 『역사학보』 119.
- 신정훈, 2013, 「高句麗 廣開土王代의 稗麗 征討와 後燕과의 冊封이 가진 의미」, 『중앙
사론』 37.
-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
36.
- 여호규, 2006, 「高句麗와 慕容燕의 조공·책봉관계 연구」, 『한국고대국기와 중국왕조
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55.
- 李明仁, 2012,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 慕容鮮卑와의 관계 및 문화교류」, 『한국고대사
연구』 67.
- 李成制, 2012,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 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 問題
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68.
- 이홍두, 2004, 「高句麗의 鮮卑族戰爭과 騎兵戰術 - 특히 前燕·後燕·隋戰爭을 중심으
로 -」, 『사학연구』 75.
-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 田中俊明, 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 北方領域形成史에 있어서
廣開土王時代 -」, 『高句麗研究』 2.
- 井上直樹, 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の 對稗麗戰」, 『韓國古代史研究』
67.
- 池培善, 2006, 「高句麗와 鮮卑의 전쟁 - 慕容廆와 慕容皝을 중심으로 -」, 『고구려발
해연구』 24.

- 崔珍烈, 2015, 「16국시대 요서(遼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한성백제박물관 편, 『백제와 요서지역(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7)』, 한성백제박물관.
- 崔珍烈, 2009, 「五胡諸國·北朝 후계자의 國政 참여와 그 배경」, 『中國古中世史研究』 21.
- 崔珍烈, 2004a, 「漢初 郡國制와 지방통치책 -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을 중심으로 -」, 『東洋史學研究』 89.
- 崔珍烈, 2004b, 「漢初 內史의 기능과 성격 -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의 분석을 중심으로 -」, 『中國古代史研究』(『中國古中世史研究』로 변경) 11집.
- 高然, 2014, 「十六國前燕疆域·政區考」, 『中國歷史地理論叢』 29-3.
- 廖基添, 2013, 「慕容農與後燕興衰 - 以“列人集團”爲中心的考察 -」, 『中華文史論叢』 112.
- 孫進己·王綿厚·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 1, 黑龍江人民出版社.
- 劉玉山·劉偉航, 2007, 「十六國時期慕容西燕·後燕幾個問題的再探討」, 『東南文化』 2007-1(總第195期).
- 田立坤, 1996, 「棘城新考」, 『遼海文物學刊』 1996-2.
- 谷川道雄, 1971, 「慕容國家における君權と部族制」,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原載, 1963, 「慕容燕の權力構造 - とくに前燕を中心として -」,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29).
- 關尾史郎, 1981, 「前燕政權(337-370年)成立の前提」, 『歷史學研究』 488.
- 武田幸男, 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국문 초록]

후연(後燕)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적·경제적 자멸(自滅)
-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후연 공략의 대외적 배경 -

최진열

고구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대외 팽창은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의 대외팽창 가운데 고구려·후연관계는 고구려 내부의 상황이나 전쟁에만 치중하였고, 후연의 내부사정 분석에 소홀하였다. 당시 후연의 내부사정 파악은 광개토대왕의 요동(遼東)·요서(遼西) 진출을 객관적·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다.

이 글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요동·요서 공략 성공의 원인으로 후연 ‘용성시대(龍城時代)’ 지배층의 내분과 토목공사 및 유행(遊幸)으로 인한 인력·경제력 소모, 북위(北魏)의 영토 잠식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수림왕·고국양왕 시기의 내정 개혁, 광개토대왕의 뛰어난 전략과 고구려군의 우수성 등도 물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국내 선행 연구가 있으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양자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광개토대왕의 영토확장을 객관적으로 조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선행 연구가 없는 전자를 부각했다는 점과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의 팽창 원인을 처음으로 후연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사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요동(遼東), 요동 점령, 요서(遼西) 공략, 후연(後燕), 후연 ‘용성시대(龍城時代)’, 모용보(慕容寶), 모용희(慕容熙), 북위(北魏), 후연의 내우외환, 지배층의 내분, 토목공사, 후연의 국력 약화

[ABSTRACT]

Gwanggaeto the Great's Conquest of or Attack on Yodong(Liaodong) and Yoseo(Liaoxi) and Its Background - The Weakness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s in the Yongseong(Longcheng) Period in Huyeon(Hou Yan) -

Choi Jinyeoul

Moyong Bo(Murong Bao), the second monarch of the Huyeon (Hou Yan) state, was thrown out of the capital Zhongshan and Northern China, and his successors suffered from the split, and from the coups of the royal family and the ruling class. To make matters worse, Moyong Hi(Murong Xi) exhausted state finances and caused the deaths of his subjects because of the moving of earth for palace and garden projects, and for the imperial tours, which gave rise to a large decline in the population. Although Huyeon monarchs tried to resolv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by attacking neighbors such as Kumoxi, Qidan, and Goguryeo, they failed to conquer these states in comparison with their ancestors in the period of Jeonyeon(Qian Yan) state, became weak, and later were ruined by Feng Ba.

In contrast, Gwanggaeto the Great of Goguryeo and his predecessors, who included his uncle and father, had tried to enhance the wealth and military strength of the country from the defeat of Jeonyeon. Gwanggaeto the Great marched to Sukgun, the local political center of Pingzhou in Huyeon state in 402 and Yeongun(Yanjun) in 404, and succeeded in conquering Yodong (Liaodong) and Yoseo(Liaoxi) by virtue of his bravery, excellent

strategy, powerful military forces, and self – destruction of Huyeon.

In earlier research, many researchers ascribed this to Gwanggaeto the Great's bravery, excellent strategy, and governing skills, and referred to the diplomatic environment, but they failed to analyze the politics and economic conditions of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the Huyeon state. In this article, I researched and analyzed an external factor, that is, the self – destruction of Huyeon state, in other words, the split and the coups of the royal family and the ruling class, the exhausted state finance, and deaths of his subjects due to earth – moving for palace and garden, and the imperial tour, which weakened state power and brought a large decline in population, which is mentioned in research for the first time. I raise the idea of the importance of not only Gwanggaeto the Great's bravery, his excellent strategy, and the powerful military forces of Goguryeo, but also the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the weakness of military forces, and the self – destruction of Huyeon state.

Keywords

Gwanggaeto the Great, Yodong(Liaodong), conquest of Yodong (Liaodong), attack on Yoseo(Liaoxi), Huyeon(Hou Yan), the Longcheng era in Huyeon(Hou Yan) state, Moyong Bo(Murong Bao), Moyong Hi(Murong Xi), Beiwei, the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of Huyeon(Hou Yan), the internal trouble of the ruling class, the earth removal for palace and gardens, the weakness of state forces in Huyeon(Hou Yan)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鳥羽冠使節)’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 과정 및 시기에 대한 고찰

이재성 |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7세기 4분의 3분기 무렵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에 그려진 ‘조우관사절(鳥羽冠使節)’이 바로 고구려 사절이라는 것을 논증함과 함께 이들이 고구려에서 실위(室韋), 말갈(靺鞨), 거란(契丹)의 영역 중 한 지역을 통과하고, 이어 몽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초원로’를 통해서 오르콘강과 셀렝강 유역에 도착한 후, 다시 서쪽으로 나아가서 알타이산맥을 넘어서 준가리아와 지금의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이의 제티수(Zetysu, Semyrechie, 七河地方)를 거쳐서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Samarkand)까지 간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¹⁾ 이 글은 그 후속 연구로서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로 사행(使行)한 원인, 과정 및 시기에 대하여 밝혀 보려고 한다.

※ 투고: 2016년 2월 12일, 심사 완료: 2016년 5월 2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1) 이재성, 2013,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鳥羽冠使節’에 관한 고찰- 高句麗에서 사마르칸트(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8-2, 1~34쪽.

제2장에서는 먼저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여러 성방(城邦)²⁾들이 7세기 초반에 서돌궐가한국(西突厥可汗國, 583~657)의 세력권에 들어갈 때까지의 역사적 연혁과 함께 7세기 중반까지 사마르칸트와 서돌궐 및 중국의 수당왕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마르칸트가 당의 기미지배(羈縻支配)에 들어간 시기를 밝히고 그 실상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제3장에서는 ‘조우관사절’이 고구려를 출발한 원인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660년 이후의 당의 고구려 정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661년부터 663년까지 진행된 당의 고구려 정벌 시 동원한 군사력의 규모, 정벌 과정 및 그 결과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신라의 태도와 지원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우관사절’이 먼저 몽골의 철륵(鐵勒)³⁾으로 간 원인과 시기에 대해서 밝혀 보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먼저 660년 8월부터 당의 기미지배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철륵의 반란 상황과 함께 당군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반란의 전개 및 진압 과정을 통해서 철륵으로 간 ‘조우관사절’이 철륵을 떠나서 사마르칸트로 떠난 원인, 시기 및 사마르칸트에 도착한 시기를 비정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프리카아프 궁전지 벽화가 그려진 대략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2) ‘城邦’이란 단어는 蔡鴻生, 1998, 『唐代九姓胡与突厥文化』, 北京: 中華書局에서 차용하였다.

3) ‘鐵勒’은 한문 사서에서는 ‘九姓鐵勒’ 혹은 ‘鐵勒九姓’으로도 기재되어 있다. 九姓은 首部인 回紇部를 비롯한 僕固部(僕骨部), 渾部, 拔曳固部(拔野古部), 同羅部, 思結部, 契苾部, 阿布思部, 骨崙屋骨部, 9부를 가리킨다. 또 다른 주장은 위의 9부에서 阿布思部和 骨崙屋骨部를 빼고 葛邏祿部和 拔悉密部를 넣기도 한다. 정재훈, 2005,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학과지성사, 97쪽 참조.

II. 7세기 중반까지 사마르칸트의 정황

1_사마르칸트와 서돌궐 및 수·당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갈 수 있는 국제 정세가 조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사마르칸트와 고구려의 중간에 있는 서돌궐 및 중국의 수당왕조와 사마르칸트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소그디아나는 기원전 6세기에 키루스 2세(Cyrus II, r. 기원전 559~530)의 정복을 받은 이후 아케메네스조페르시아(Achaemenid Empire, 기원전 559~330)의 속주(屬州)가 되었고, 이후 기원전 334~323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Alexander the Great, 기원전 356~323)의 동방 원정으로 그 지배를 받게 되었다. 대왕이 죽은 후에는 박트리아(Bactria, Tokharistan)에서 성립한 그리스 계통의 여러 정권들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다.⁴⁾ 이어 약 기원전 2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월지(大月氏, 大夏月氏)의 세력 아래에 들어갔다가,⁵⁾ 370년대 초반 무렵⁶⁾부터는 몽골에서 발흥하여 알타이산맥을 넘어온 에프탈(Ephthal, 嚙噠)⁷⁾의 지배를 받게

4) 羽田明, 1971, 「ソグド人の東方活動」, 『岩波講座 世界歴史6(古代6-東洋篇III)』, 東京: 岩波書店, 412~415쪽.

5) 『漢書』 권96(上), 「大月氏國傳」, 3890~3891쪽에 “大月氏國, 治監氏城. …… 至冒頓單于攻破月氏, 而老上單于殺月氏[王], 以其頭爲飲器, 乃遠去, 過大宛, 西擊大夏而臣之, 都嬀水北爲王庭”이라는 기사로 볼 때, 대략 기원전 2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월지가 대夏(박트리아)를 격파하고 소그디아나를 정복했다고 파악된다.

6) 内藤みどり, 1975, 「エフタル民族とその發展」, 松田壽男博士古稀記念出版委員會編, 『東西文化交流史』, 東京: 雄山閣, 136쪽은 『通典』 권93, 「邊防9-嚙噠條」의 기사에 의거하여 에프탈 세력의 기원이 366~376년 무렵으로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이 종족에 관해서는 비잔틴 제국, 아르메니아, 고대 인도,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중국의 한문 사서에 각각 Nephthalitai, Hep't'al, Heftal(Hetal), Haital(Hayatila),

되었다.⁸⁾ 그리고 약 550~560년 사산조페르시아(Sasanian Empire, 224~651)와 돌궐제일가한국(突厥第一可汗國, 동돌궐, 552~630)이 협공하여 에프탈을 멸망시킨 후 소그디아나는 서돌궐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⁹⁾

서돌궐의 카간(Qayan, 可汗) 중에서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소그디아나의 여러 성방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카간은 통엽호가한(統葉護可汗, r. 617~628년),¹⁰⁾ 즉 톤 야브구 카간(Ton Yabqu Qayan)이다. 그것은 『구당서(舊唐書)』 「강국전(康國傳)」과 『구당서』 「돌궐전」을 통해서 증명된다.

- [1] - 康國은 漢代의 康居란 나라이다. …… 隋 煬帝의 치세에 그 왕인 屈朮가 서돌궐의 葉護可汗(야브구 카간)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마침내 서돌궐에게 臣屬하게 되었다.¹¹⁾

HeBtalit, Hebdel, Abdelai, Abdel 및 엽대이속타(嚙帶夷粟陁), 엽달(嚙嗟, 嚙達, 嚙但), 잘달(嚙嗟), 혈달(歎嗟), 음달(怛達, 搃但, 搃撻), 음전(搃闐)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어원(族源)에 관해서는 알타이산맥 지방에서 나타난 튀르크 계통이라는 설과 토하리스탄(Tokharistan) 지방에서 나타난 이란 계통이라는 설, 두 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5세기 중엽부터 눈부신 활약을 시작하여 대체로 중앙아시아 전역을 포함해 북으로는 준가리아에서 남쪽으로는 북인도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다가 6세기 후반에 돌궐과 사산조페르시아(Sasanian Persia, 221~651)의 협격으로 멸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內田吟風, 1975, 「西突厥初世史の研究」, 『北アジア史研究(鮮卑柔然突厥編)』, 京都: 同朋舎, 434쪽; 內藤みどり, 1977, 「エフタルの種族問題」, 『史觀』 第97冊, 24~38쪽; 余太山, 1986, 『嚙嗟史研究』, 濟南: 齊魯書社를 참조하기 바란다.

- 8) 余太山, 1986, 위의 책, 1쪽.
 9) 르네 그루쎬(René Grousset)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42~143쪽; 內田吟風, 1975, 앞의 글, 435쪽.
 10) 톤 야브구 카간의 치세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필자는 吳玉貴, 1998, 「西突厥汗國的強盛與衰落」, 『突厥汗國與隋唐關係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77~281쪽의 주장에 따른다.
 11) 『舊唐書』 권198, 「康國傳」, 5310쪽, “康國, 卽漢康居之國也. …… 隋煬帝時, 其王屈朮支娶西突厥葉護可汗女, 遂臣於西突厥”(이하 이 글의 인용문에 있는 ()와 [] 안의 글자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두 필자가 삽입하였음).

[2] - 統葉護可汗(톤 야브구 카간)은 용감하고 지모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북쪽으로는 鐵勒를 병합하고, 서쪽으로는 波斯를 물리쳤으며, 남쪽으로는 [그 영역이] 罽賓과 접하였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세력은 그에게 歸附하였다. [그는] 騎馬弓士 수십만 명으로써 霸權을 쥐고 西域을 지배하여 옛 烏孫의 지역에 웅거하였다. [그는 후에] 다시 石國(타슈켄트)의 북쪽의 千泉으로 [可汗]庭을 옮겼다. [그는] 西域諸國의 왕들 모두에게 일태배르(頡利發)를 除授하였고, 그와 아울러 [서역 제국에는] 투둔(吐屯) 한 명을 파견하여 서역 각국을 監統하고 그 나라의 征賦를 독려하였다. 西戎의 강성이 [톤 야브구 카간 이전에는] 일찍이 없었다.¹²⁾

서돌궐의 야브구 카간(Yabyu Qaghan, 葉護可汗), 즉 톤 야브구 카간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는 북쪽으로 진격하여 철륵을 병합하였고,¹³⁾ 서쪽에서 침입하는 파사(波斯) 즉 사산조페르시아의 공격을 물리쳤으며,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한 결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Kabul) 북쪽에 있는 바그람(Bagram) 지역¹⁴⁾에 있던 계빈국(罽賓國)과 경역을 접하면서 그 사이의 지역을 서돌궐의 세력권으로 집어넣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톤 야브구 카간은 그 지배하에 있는 서역 각국의 왕에게 힐리발(頡利發), 즉 일태배르

12) 『舊唐書』 권194, 「突厥傳」, 5181쪽, “統葉護可汗, 勇而有謀, 遂北并鐵勒, 西拒波斯, 南接罽賓, 悉歸之. 控弦數十萬, 霸有西域, 據舊烏孫之地. 又移庭於石國北之千泉. 其西域諸國王悉授頡利發, 并遣吐屯一人 監統之, 督其征賦. 西戎之盛, 未之有也”.

13) 吳玉貴, 1996, 「突厥汗國及其對西域的統治」, 余太山 主編, 『西域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40쪽; 吳玉貴, 1998, 앞의 글, 277쪽은 서돌궐이 철륵 제부를 병합한 것은 射貴可汗(射匱可汗)의 치세(610~618)로서 그의 아우인 톤 야브구 카간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內田吟風, 1975, 앞의 글, 471쪽; 馮承鈞 原編, 陸峻嶺 增訂, 1982, 『西域地名(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42쪽('kapisa') 참조.

(iltäbär, eltäbär)¹⁵⁾란 돌궐의 관직을 제수함과 함께 돌궐인 감독관인 투둔(tudun, 吐屯) 한 명을 파견하여 그들을 통감하고 징세를 독려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톤 야브구 카간이 투둔을 서역 각국에 파견했다는 것은 그가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소그디아나 제국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¹⁶⁾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서(隋書)』 「강국전」에 의하면, 사마르칸트의 왕인 대실필(代失畢)이 서돌궐의 타르두 카간(Tardu Qayan) 즉 달도가한(達度可汗, 達頭可汗)¹⁷⁾의 딸에게 항가(降嫁)하였고,¹⁸⁾ 그 이후에는 [1]에서 보듯이, 서돌궐의 야브구 카간(톤 야브구 카간)의 딸이 사마르칸트의 왕인 굴출지(屈朮支)에게 항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만으로 서돌궐카간국의 왕실과 사마르칸트 왕실이 지속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서돌궐카간국의 타르두 카간은 비록 잠시였지만 한때 동돌궐과 서돌궐을 아우르는 대가한의 위치에 있었고,¹⁹⁾ [2]에서 보듯이, 톤 야브구 카간이 서돌궐카간국이 성립한 이후 다시 전성시대를 현출한 카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돌궐에서 카간의 권력이 강성했던 시기에는 사마르칸트의 왕과 혼인관계를

15) 頡利發은 한문 사료에서는 俟利發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엘태베르(eltäbär), 엘태비르(eltäbir), 일태베르(iltäbär), 일태비르(iltäbir)라는 음을 한자로 쓴 것이다. 이 관직은 돌궐 및 철륵 제부에서 카간을 배출한 부족 이외의 여러 부족의 수장의 칭호다. 이에 관해서는 護雅夫, 1964, 「東突厥官稱號考－鐵勒諸部の俟利發と俟斤－」, 『東洋學報』 第46卷 3號; 護雅夫, 1967, 「鐵勒諸部におけるeltäbär, irkin號の研究」,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I』, 東京: 山川出版社, 398~427쪽 참조.

16) 蔡鴻生, 1998, 「唐代九姓胡」, 『唐代九姓胡与突厥文化』, 北京: 中華書局, 5쪽은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여러 성방의 九姓胡가 서돌궐의 속국이 된 시기는 톤 야브구 카간이 그 牙庭을 千泉(sui-ab, 碎葉 부근)으로 옮긴 61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 達頭可汗=達度可汗의 원음(原音)은 타르두 카간(Tardu Qayan) 혹은 타르두쉬 카간(Tardush Qayan)이며, 치세는 576~603년이다.

18) 『隋書』 권83, 「康國傳」, 1848쪽, “康國者, 康居之後也. …… 王字代失畢, 爲人寬厚, 甚得衆心. 其妻突厥達度可汗女也”.

19) 內田吟風, 1975, 앞의 글, 458쪽; 護雅夫, 1981, 「遊牧國家の文明化」, 護雅夫·神田信夫 編, 『北アジア史(新版)』, 東京: 山川出版社, 91쪽.

맺어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하고 돈독하게 되었음을 물론 지배력도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중국 북부에서 북제와 북주로 분열되어 상호 대립하면서 돌궐이 중국보다 우위를 차지하므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돌궐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돌궐제일카간국 내부에서 대카간과 소카간 사이에 내홍이 일어난 기회를 이용하여 수가 이간책을 써서 돌궐제일카간국을 583년에 동서로 분리시킨²⁰⁾ 후에 황실 공주를 돌궐제일카간국의 카간에게 항가시켜서 '구서관계(舅婿關係)', 즉 장인과 사위관계를 맺어 돌궐을 신하로서 복종시키는 것²¹⁾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마르칸트와 수와의 관계는 그 중간에 서돌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여 양국 관계에 관한 기록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수서』 「강국전」에 보이는 “강국이란 나라는 강거(康居)의 후예다. …… [수 양제] 대업년간(大業年間, 605~617)에 처음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쳤지만 마침내 사절이 끊어졌다”²²⁾라는 기사가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사마르칸트와 당 초기의 관계 역시 사마르칸트와 수와의 관계처럼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수대와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사마르칸트의 종주국인 서돌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사마르칸트와 당대 초기의 당과의 관계는 『신당서(新唐書)』 「강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20) 護雅夫, 1981, 「遊牧國家の文明化」, 앞의 책, 90쪽.

21) 護雅夫, 1980, 「突厥と隋·唐兩王朝」,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I』, 東京: 山川出版社, 164~165쪽.

22) 『隋書』 권83, 「康國傳」, 1849쪽, “康國者, 康居之後也. …… 大業中, 始遣使貢方物, 後遂絕焉”.

23) 『隋書』 권4, 「煬帝紀(下)」, 88쪽; 『冊府元龜』 권970, 「外臣部-朝貢門3」, 1849쪽에 “[大業]十一年春正月甲午朔, 大宴百僚. 突厥, 新羅, 靺鞨, …… 龜茲, 疎勒, 于闐, 安國, 曹國, 何國, 穆國, …… 契丹等國並遣使朝貢”이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 비록 앞의 두 기사에서 康國, 즉 사마르칸트는 보이지 않지만, 강국과 같은 소그디아나에 위치한 安國, 曹國, 何國, 穆國이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위의 기사에서 ‘강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강국이 양제 大業 연간에 수에 사절을 파견했다면 大業 11년, 즉 615년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3] - (가) [高祖] 武德 10년에 [강국이] 처음으로 使節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쳤다. (나) [太宗] 貞觀 5년에 마침내 [강국이 당의] 신하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태종이 말하였다. ‘짐은 쓸데없는 명성을 얻거나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강국이 나에게 신하가 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마땅히 그들과 근심을 같이 해야 하므로, [우리] 군대에게 1만 리나 가게 해야 하는데, 어찌 짐이 그런 것을 하겠는가?’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갑자기 [강국이] 또 사절을 보내서 獅子란 짐승을 바치자, 황제는 그 짐승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진귀하게 여겨서 秘書監인 虞世南에게 [사자에 관한] 賦를 짓도록 명령하였다. (라) 이후 [강국은] 해마다 [당에 사절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²⁴⁾

먼저, [3]-(가)는 강국이 고조 무덕(武德) 10년, 즉 태종 정관(貞觀) 원년(627)에 처음으로 당에 사절을 파견하여 조공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책부원귀(冊府元龜)』에는 무덕 7년(624) 7월에 강국, 즉 사마르칸트가 조국(曹國, Kebud)²⁵⁾과 함께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했다는 기사와 함께 무덕 8년(625) 11월에 사마르칸트의 왕인 굴목우(屈木友, 屈朮支)가 사신을 파견하여 명마를 바쳤다는 기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²⁶⁾ 『당회요』에서도 ‘무덕 7년에 사마르칸트 왕인 굴출지가 사신을 파견하여 명마를 바쳤다’는 기사²⁷⁾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가)의 ‘무덕

24) 『新唐書』 권221, 「康傳」, 6244쪽, “武德十年, 始遣使來獻. 貞觀五年, 遂請臣. 太宗曰, 朕惡取虛名害百姓, 且康臣我, 緩急當同其憂. 師行萬里, 寧朕志邪.’ 卻不受. 俄又遣使獻 師子獸, 帝珍其遠, 命秘書監虞世南作賦. 自是歲入貢”.

25) 일명 케슈부드(Keshbud)라고도 한다. 『위서』에는 ‘伽不單國’으로, 『수서』에는 ‘曹’로, 『신당서』에는 ‘西曹’로, 『大唐西域記』에는 ‘劫布坦那(Kebudhana)’로 기재되어 있다. 사마르칸트의 서북쪽에 있는 성방이다. 馮承鈞 原編, 陸峻嶺 增訂, 1982, 앞의 책, 47쪽.

26) 『冊府元龜』 권970, 「外臣部-朝貢門3」, 11397쪽.

27) 『唐會要』 권199, 「康國-武德 7년조」, 1774쪽.

십년'은 '무덕칠년'의 오기로, 『구당서』를 판각할 때의 실수가 『신당서』를 판각할 때에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이용되어 인쇄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마르칸트가 처음으로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한 연도는 고조 무덕 7년(624)이라고 할 수 있다.

[3]-(나)는 정관 5년(631)에 사마르칸트가 당에게 귀부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태종이 귀부에 따른 책임감과 그에 따른 중국인들의 고통 때문에 거부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마르칸트는 631년에 당에게 귀부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을까? 그것은 627년에 지금의 중국 신강유오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하미(Hami, 哈密)와 카라샤홀(Karashahr, 焉耆)의 북방인 천산산맥(天山山脈)의 북쪽에서 유목하고 있던 카르룩(Qarluq, 葛邏祿)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톤 야브구 카간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628~630년 무렵에 그가 백부인 바하투르(Bayatur, 莫賀咄)²⁸⁾에게 피살되면서 서돌궐이 혼란 상태에 빠진 것²⁹⁾과 630년에 돌궐제일카간국이 당에게 멸망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물론 북아시아 유목사회가 모두 당에 의해 일통(一統)되었다는 사실을 사마르칸트에서도 소그드상인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그드상인들은 이전부터 중국 및 몽골 유목세계에 진출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며 정치적 영향력까지 발휘했기 때문이다.³⁰⁾

[3]-(다)는 정관 9년인 635년에 사마르칸트가 당에 사절을 파견하여 사자를 바치자, 태종이 먼 곳에서 온 진귀한 동물이라고 소중하게 여겨서 비서감인

28) 莫賀咄은 莫弗紇, 莫弗, 莫賀弗, 莫何弗 등과 같은 것으로, 북위에서 당대 초기까지의 몽골족과 투르크족의 씨족 혹은 부족의 수령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중국 사서에 자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몽골어와 투르크어의 바하투르(bayatur) 및 바투르(batur)라는 음을 한자로 기록한 것으로, '英雄', '勇者'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로 이들 유목 종족의 씨족장과 부족장의 칭호로 사용되고 있다. 白鳥庫吉, 1912, 「東胡民族考(第9回)」, 『史學雜誌』 23-3, 255~259쪽; 愛宕松男, 1959, 「莫賀弗と辱紇主」, 『契丹古代史の研究』, 189~195쪽; 護雅夫, 1967, 「突厥第一帝國におけるšad號の研究」, 앞의 책, 285쪽, 주47 참조.

29) 吳玉貴, 1998, 앞의 글, 281~293쪽.

30) 護雅夫, 1967, 「東突厥國家内部におけるソグド人」, 앞의 책, 62~89쪽.

우세남에게 사자에 관한 부(賦)를 짓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³¹⁾ 이 사건을 『구당서』 「태종기(太宗紀)」에서는 이 해 ‘4월 임인일’³²⁾에, 『당회요』에서는 7월³³⁾에 발생한 사건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하고 있다.

[3] - (라)에 대해서 『구당서』 「강국전」에서는 정관 9년(635)에 사마르칸트가 당에 사자를 바친 이후 해마다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했다고 기재하고 있다.³⁴⁾ 이를 검증하기 위해 635년부터 사마르칸트의 왕인 바르후만(Varkhumān, 拂呼纒)이 강거도독에 책봉됨으로써 사마르칸트가 당의 기미 지배에 들어가는 658년까지 24년 동안 사마르칸트가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는 상황을 『책부원귀』 「외신부(外臣部) - 조공문(朝貢門)」을 비롯한 여러 사서를 상호 대조하여 검색해보면 총 10회로 나타나 있다.³⁵⁾ 따라서 [3] - (라)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마르칸트의 조공 사절이 해마다 당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략 2~3년에 1회 정도 사신을 파견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이 언제든지 누락³⁶⁾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대 초기에 사마르칸트와 당과의 사이에는 기록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31) 이 기사도 『册府元龜』 권970, 「外臣部 - 朝貢門3 - 貞觀 9년조」, 11398쪽에 기재되어 있다. 단, 여기에서도 月日은 보이지 않는다.

32) 『舊唐書』 권3, 「太宗紀(下)」, 45쪽.

33) 『唐會要』 권99, 「康國 - 貞觀 9년조」, 1774쪽.

34) 『舊唐書』 권198, 「康國傳」, 5310~5311쪽, “貞觀九年, 又遣使貢獅子, 太宗嘉其遠至, 命秘書監虞世南爲之賦, 自此朝貢歲至”.

35) 『册府元龜』 권970, 「外臣部 - 朝貢門3」, 11398~11403쪽에 의하면, 강국이 635년, 637년, 639년, 642년, 643년, 644년, 645년, 647년, 648년, 654년, 10차례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6) 『唐會要』 권99, 「康國條」, 1774쪽, “永徽中, 其國頻遣使告爲大食所攻, 兼徵賦稅”라는 기사를 통해 볼 때, 고종 永徽年間인 650~655년 사이에 사마르칸트는 빈번하게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의 위급 상황, 즉 아랍세력인 大食의 침입 및 징세를 당에 알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册府元龜』, 「外臣部 - 朝貢門」에는 이 기간에 사마르칸트가 당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_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에 대한 강거도독 책봉

『신당서』 「강진」의 기록을 살펴보자.

[4] - 고종 永徽年間に [당은] 그 지역에 康居都督府를 설치하였다. 즉 그 왕인 바르후만(拂呼縵)을 [康居]都督으로 삼았다.³⁷⁾

강국, 즉 사마르칸트가 당의 기미지배체제³⁸⁾에 편입된 시기가 고종 영희 연간인 650~655년 무렵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 기사가 알려진 이후 연구자들은 (1)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를 조성한 사마르칸트의 왕인 바르후만의 치세, (2) 바르후만이 벽화를 조성한 시기, (3)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한 시기, 세 시기를 비정하는데 650~655년을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4]와 동일한 내용이 『당회요』 「강국조」와 『책부원귀』 「외신부-계습문(繼襲門)」에서도 보인다.

[5] - 顯慶 3년에 고종이 果毅인 董寄生을 파견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성에 康居都督府를 [다른 성과 함께] 열치하고 그에 따라 그 왕인 拂呼縵 (바르후만)을 도독으로 삼았다.³⁹⁾

[6] - 康國은 본래 康居의 苗裔다. …… 顯慶 3년에 그 왕은 拂呼髮(바르후만)이라 불리었는데, 이 해에 고종은 그 지역에 [羈縻府를] 列置하여

37) 『新唐書』 권221(下), 「康傳」, 6244쪽, “高宗永徽時, 以其地爲康居都督府, 卽授其王拂呼縵爲都督”.

38) 당의 기미지배체제는 몽골의 패자였던 薛延陀可汗國(630~646)이 646년에 당군과 연합한 回紇軍을 비롯한 철륵 제부의 기병의 공격을 받고 멸망한 이듬해인 647년에 당이 외몽골의 철륵 제부에 羈縻府·州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9) 『唐會要』 권99, 「康國條」, 1774쪽, “顯慶三年, 高宗遣果毅董寄生, 列其所居城爲康居都督府, 仍以其王拂呼縵爲都督”.

강저도독부로 하고, 불호발을 도독으로 삼았다.⁴⁰⁾

그런데 [5]와 [6]에서는 [4]와 다르게 당이 사마르칸트에 강저도독부를 설치하고 그 왕인 바르후만⁴¹⁾을 도독에 임명한 시기가 [4]의 고종 영희 연간인 650~655년이 아니라, 현경 3년(658)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혼동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신당서』 「서역전」의 미국(米國),⁴²⁾ 석국(石國),⁴³⁾ 영원국(寧遠國),⁴⁴⁾ 『구당서』 「서역전」의 계빈국,⁴⁵⁾ 『당회요』의 사국(史國)⁴⁶⁾이 모두 고종 현경 3년에 당의 기미부주로 편입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경 3년에 당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남방에 있던 미국(Maymurg)과 사국(Kesh, Kash, Kish), 동부 타슈켄트(Tashkent)에 있던 석국(Shash, Chach), 타슈켄트 동부의 페르가나(Fergana) 계곡에 있던 영원국 그리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남방, 즉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동북부, 힌두쿠시산맥과

40) 『冊府元龜』 권966, 「外臣部 - 繼襲門1」, 11365쪽, “康國本康居之苗裔, …… 顯慶三年, 其王曰拂呼髮. 是年, 高宗列其地爲康居府, 以拂呼髮爲都督”.

41) 『冊府元龜』 권966, 「外臣部 - 繼襲門」의 ‘拂呼髮’은 ‘拂呼縵’의 관각 실수다.

42) 『新唐書』 권221(下), 「米傳」, 6247쪽, “米, 或曰彌末, 曰弭秣賀. 北百里距康. 其君治鉢息德城, 永徽時大食所破. 顯慶三年, 以其地爲南謚州, 授其君昭武開拙爲刺史. 自是朝貢不絕”.

43) 『新唐書』 권221(下), 「石傳」, 6246쪽, “石, 或曰柘支, 曰柘折, 曰柘時, 漢大宛北鄙也. …… 顯慶三年, 以噉羯城爲大宛都督府, 授其王職士屯攝舍提于屈昭穆爲都督”. 그리고 『唐會要』 권99, 「石國條」, 1771쪽에서도 “顯慶三年, 以其地噉羯城爲大宛都督府, 仍以其王職士屯攝舍提于屈昭穆爲都督”와 같이 거의 똑같은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44) 『新唐書』 권221(下), 「寧遠傳」, 6250쪽, “寧遠者, 本拔汗那, 或曰鑿汗, 元魏時謂破洛羅. …… [顯慶]三年, 以渴塞城爲休循州都督, 授阿了參刺史, 自是歲朝貢”. 『史記』, 『漢書』 그리고 『晉書』에는 ‘大宛’으로 기재되어 있다.

45) 『舊唐書』 권198, 「鬪賓國傳」, 5309쪽, “顯慶三年 …… 其年, 改其城爲修鮮都督府. 龍朔初, 授其王修鮮等十一州諸軍事兼修鮮都督”. 三年, 其王曰拂呼髮. 是年, 高宗列其地爲康居府, 以拂呼髮爲都督”.

46) 『唐會要』 권99, 「史國條」, 1777쪽, “顯慶三年, 遣果毅董寄生, 列其所治爲陟沙州, 以其王昭武失阿曷爲刺史”.

아무-다리야 사이의 지역⁴⁷⁾에 있던 계빈국(Kapica)⁴⁸⁾에 기미부주를 설치하여 당의 기미지배체제에 편입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사마르칸트 역시 소그디아나의 다른 성방들과 함께 현경 3년(658)에 당의 기미지배체제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⁰⁾

이와 같이 658년에 당이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그 주변 성방을 기미지배체제에 편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소그디아나를 비롯한 이들 지역에서 중주권을 행사하던 서돌궐가간국이 현경 2년(657) 11월에 당군과 회흘군·다람갈군(多覽葛軍)을 비롯한 철륵 제부 연합군의 공격⁵¹⁾을 받고 멸망했기 때문

47) 고대에 서양에서는 이 지역을 ‘박트리아(Bactria)’ 또는 ‘토흐리스탄(Tokharistan)’이라고 불렀다.

48) 중국의 漢魏時代의 ‘屬賓國’은 지금의 파미르고원 이남의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캐쉬미르(Kashmir) 지역을 가리켰다.

49) 이들 지역에 실제로 당의 羈縻府·州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 顯慶 4년(659)이고, 顯慶 3년(658)은 당 조정이 이들 지역에 羈縻府州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연도라는 주장도 있다. 內藤みどり, 1988, 『滅亡後の西突厥』, 『西突厥史の研究』, 東京: 早稲田大學出版部, 269쪽, 주5 참조.

50) [4]의 ‘永徽年間’은 ‘顯慶年間’의 오기일 것이다. 『新唐書』와 『舊唐書』에는 사건의 발생 연대가 잘못 기재된 기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舊唐書』 권195, 『迴紇傳』, 5197쪽, “永徽六年, 迴紇遣兵隨蕭嗣業討高麗”에서 ‘永徽六年’은 ‘顯慶六年’의 오기다. 왜냐하면 ‘顯慶 6년’은 ‘龍朔 원년’으로 서력으로는 661년이 되는데, 다른 기사에 의거하면, 661년에 철륵 回紇部の 부족장인 瀚海都督인 婆閏이 회흘군을 이끌고 이전에 燕然都護府의 副都護였던 장군 蕭嗣業의 휘하에서 당군의 일원으로서 고구려 토벌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劉統, 1998, 『羈縻府州與唐朝疆域的關係』,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127쪽. 역시 당이 顯慶 3년(658)에 사마르칸트[康國]에 康居都督府를 설치하고 그 왕인 바르후만[拂呼縵]을 康居都督에 임명했다고 기재한 『唐會要』의 기사를 정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薛宗正, 2005, 『論河中·烏澹水諸國並入唐朝版圖』, 『中亞內陸大唐帝國』,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6쪽도 당이 사마르칸트에 康居都督府를 설치하고 그 왕인 바르후만을 康居都督에 임명한 연도는 顯慶 3년(658)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1) 『冊府元龜』 권964, 『外臣部 - 冊封門2』, 11340쪽의 “顯慶三年(658), 十二月, 以左驍衛大將軍瀚海都督迴紇婆潤爲左衛大將軍, 右驍衛大將軍燕然都督多覽葛塞匄爲右衛大將軍”는 당 고종이 서돌궐을 멸망시키는 데 큰 전공을 세운 鐵勒 回紇部の 부족장인 婆潤과 多覽葛部の 부족장인 塞匄에게 관품을 승급하여 책봉하고 포상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다.⁵²⁾ 즉 당은 657년 11월에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한 달 후인 12월에 먼저 서돌궐 본토에 곤릉도호부(崑陵都護府)와 몽지도호부(濛池都護府), 두 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지배를 실시하고,⁵³⁾ 이듬해인 현경 3년(658)에 그 서쪽의 강국, 영원국 그리고 계민국 등이 위치한 소그디아나, 페르가나, 토하라(Tokhara, Tokharistan) 지역도 당의 기미지배체제에 편입하였던 것이다.⁵⁴⁾ 그리고 이들 지역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658년 5월에 서주[高昌]에서 그 서쪽에 있는 쿠차(Kucha, 龜茲)로 옮긴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에 소속되었다.⁵⁵⁾ 그에 따라 658년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종주권이 서돌궐에서 당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비록 소그디아나, 페르가나, 토하라 지역이 658년부터 당의 기미지배체제하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었다. 즉 당은 이 지역의 각 성방에 자치를 인정하고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았으므로 당이 이 지역의 성방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 성방의 왕을

52) 서돌궐의 멸망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서돌궐카간의 자손으로 642년 서돌궐을 통일한 乙毗咄陸可汗(원래 欲谷設 또는 乙毗設)의 葉護였던 阿史那賀魯(r. 651~657)은 당 태종 貞觀 20년(646)부터 당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서돌궐을 평정하고 貞觀 22년(648)에는 당에 항부하였다. 그러나 고종 永徽 2년(651) 그는 당에 반기를 들고 雙河 및 千泉에 牙帳을 세우고 스스로 沙鉢羅可汗이라 칭하고, 서돌궐의 10姓(5咄陸과 5弩失畢)을 통할시킴과 함께 소그디아나와 토하리스탄 지역까지 宗主權을 행사하였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당은 마침내 顯慶 2년(657) 정월에 蘇定方을 伊麗道行軍總管으로 삼아서 서돌궐의 阿史那賀魯에 대하여 대규모 정벌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당군의 주력이자 선봉대로서 서돌궐 정벌에 나선 것이 燕然都護의 휘하에 있던 回紇部의 부족장이자 瀚海都督이었던 婆閏이 거느리는 回紇軍을 위시한 鐵勒諸部의 군대였다. 그 결과 阿史那賀魯가 패전 끝에 고종 顯慶 2년(657) 11월에 石國에서 포로로 잡혀서 長安으로 압송됨으로써 서돌궐은 멸망하고 말았다. 서돌궐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舊唐書』와 『新唐書』를 비롯한 기타 한문 사서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 연대 등에 차이가 있어 사실 확인에 다소의 혼동과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서돌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內藤みとり씨의 주장을 따랐다. 內藤みとり, 1975, 「濛池都護府とその都督府」, 앞의 책, 30~32쪽 참조.

53) 內藤みとり, 1975, 위의 글, 32쪽.

54) 당이 이 지역을 비롯한 파미르고원[葱嶺] 이서 지역에 董寄生과 王名遠을 파견하여 羈縻府州를 설치한 기간은 658년(顯慶 3년)부터 661년(龍朔 원년)까지 4년 동안이었다. 吳玉貴, 1996, 「唐朝在西域設立的羈縻府州」, 앞의 책, 164쪽.

55) 內藤みとり, 1988, 앞의 글, 261쪽.

비슷한 주장들에게 당의 지방관 관직 명칭만 수여하고 성방의 사절로서 대상(除商)을 당으로 보내는 특권을 인정하는 정도였다. 다시 말해 당은 이들 지역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조공무역을 미끼로 한 기미정책(羈縻政策)을 취했을 뿐이었다.⁵⁶⁾

따라서 당은 고구려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들어가 정치적 활동을 비롯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사마르칸트의 왕에게 압력을 넣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간섭할 수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구당서』 「강국전」에서도 알 수 있다.

[7] - 康國은 漢代의 康居란 나라이다. …… 아들을 낳으면 石蜜(꿀)을 입 안에 넣어 주고, 明膠(투명아교)를 손바닥 안에 놓아 주는데, [그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면 입으로 항상 甘言을 하고, 손바닥에는 아교로 물건을 붙이는 것처럼 돈을 지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그 풍속으로 胡書(소그드문자)를 익힌다. [이들은] 장사를 잘하고, 극히 적은 이익을 가지고도 [서로] 다투었다. 남자가 나이 20세가 되면, 멀리 이웃 나라로 가는데, [마침내] 中夏에까지 이르렀다. 이득이 있는 곳이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⁵⁷⁾

사마르칸트인들은 타고난 상업민족⁵⁸⁾으로서 당대에 들어와서도⁵⁹⁾ 중국에

56) 羽田明 等, 1991, 「唐とサラセン」, 『西域(世界の歴史10)』, 東京: 河出書房新社, 210~211쪽.

57) 『舊唐書』 권198, 「康國傳」, 5310쪽, “康國, 卽漢康居之國也. …… 生子必以石蜜納口中, 明膠置掌內, 欲其成長口常甘言, 掌持錢如膠之黏物. 俗習胡書. 善商賈, 爭分銖之利, 男子年二十, 卽遠之旁國, 來適中夏. 利之所在, 無所不到”.

58) 『通典』 권193, 「邊防9 - 康居條」, 5256쪽의 “韋節西蕃記云, ‘康國人並善賈, 南年五歲則令學書, 少解則遣學賈, 以得利多爲善. ……’”; 『唐會要』 권99, 「康國條」, 1774쪽의 “生子必以蜜食口中, 以膠置手內, 欲其成長口嘗甘言, 持錢如膠之粘物. 習善商賈, 爭分銖之利”라는 구절도 사마르칸트인이 타고난 상업 종족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59) 『後漢書』를 비롯한 중국 사서에서 서역 상인의 활동이 확실하게 보이는 시대는 後漢

진출하여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⁶⁰⁾ 따라서 사마르칸트는 멀리 동방의 고구려가 그들에게 ‘조우관사절’을 파견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새로운 지역에 상업망을 개척하거나 확대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환영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III. 당의 고구려 정벌과 ‘조우관사절’의 철륵행

여기에서는 고구려 ‘조우관사절’이 언제, 무슨 까닭으로 몽골의 철륵(鐵勒)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이 현경 3년(658)부터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여러 성방들을 비록 형식적이지만 기미지배체제에 편입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종주권이 서돌궐가간국에서 당왕조로 바뀌는 정세 변동이 있었다. 그 무렵 동방의 고구려는 어떤 형세에 있었을까?

644년 7월부터 개시되어 668년 9월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무려 24년 동안이나 지속된 여당전쟁은 645년 거행된 당 태종의 친정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시대(25~220)이고, 소그드[粟特, 粟弋] 상인들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西晉시대(265~316)부터로, 하북에서는 洛陽에서 鄴 부근까지는 소그드상인의 교역권이었던 것을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森部豊, 2010, 「北中國東部におけるソグド人の活動と聚落の形成」, 『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歴史的展開』, 吹田: 關西大學出版部, 27~31쪽.

60) 역대 중국에 진출한 소그드인[粟特人]의 활동과 그 취락에 관해서는 榮新江, 2001, 「胡人遷徙与聚落」, 『中古中國与外來文明』, 北京: 三聯書店, 17~179쪽 참조. 원래 상업 활동을 위하여 국외로 진출한 소그드인 중에는 돌궐을 비롯한 북아시아 유목국가 및 중국 역대 왕조의 카간이나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護雅夫, 1967, 「東突厥國家内部におけるソグド人」, 앞의 책, 61~89쪽; 森安孝夫, 2007, 「ソグド人の登場」,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興亡の世界史05)』, 東京: 講談社, 113~136쪽 참조.

660년(문무왕 원년, 현경 5년) 7월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⁶¹⁾ 소강상태에 있었다. 즉 645~660년까지의 여당전쟁은 주로 당의 요서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영주도독(營州都督)⁶²⁾의 지휘 아래 영주의 진군과 함께 영주도독의 기미지배를 받는 동몽골의 거란과 해(奚)⁶³⁾ 부족군, 즉 양변(兩蕃)⁶⁴⁾의 번군이 선봉대로 세워져 고구려의 요동을 공격하고 고구려도 그에 대응하여 거란의 영역인 라오하허(老哈河, Laoha - Muren) 유역까지 들어가서 거란을 공격하는 등 국지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⁶⁵⁾

그런데 660년 7월 백제를 멸망시킨 당은 그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고구려로 진격하여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였다. 이번에는 이전의 영주도독이 사령관이 되어 거란군과 해군(奚軍) 및 요서에 주둔하고 있던 말갈군을 선봉대로 삼아 요동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당 조정이 직접 나서서 변한(蕃漢)의 대군을 동원하여 진격하는 전면적인 정벌로써, 이 해 11월에 백제 정벌군 사령관인 소정방이 의자왕(義慈王)을 비롯한 백제 왕족 등을 포로로 잡아 귀환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660년(현경 5년, 보장왕 19년) 12월⁶⁶⁾부터 야심찬 계획이

61) 『新唐書』 권3, 「高宗紀」, 60쪽, “顯慶五年, 三月辛亥, 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神兵道行軍大總管, 新羅王金春秋爲嶠夷道行軍總管, 率三將軍及新羅兵以伐百濟. 八月庚辰, 蘇定方及百濟戰, 敗之. 十一月戊戌, 蘇定方俘百濟王以獻”.

62) 營州都督의 치소는 지금의 遼寧省 朝陽市다.

63) 奚 부족은 원래 庫莫奚라 불리어 졌다. 庫莫奚라는 명칭은 『魏書』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4세기 말기부터 이 부족(중족)의 활동이 사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중국 사서에서는 계속 고막해로 기재되다가, 해라는 명칭은 『北齊書』 권2, 「神武帝紀(下) - 武定 3년(545년)조」, 22쪽의 “十月, 神武上言幽安定三州北接奚蠕蠕”에 처음 보인다. 이후에도 『周書』 등에서는 여전히 庫莫奚로 기재되다가(『周書』 권49, 「異域(上) - 庫莫奚傳」, 899쪽) 수대부터 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隋書』 권84, 「奚傳」, 1880~1881쪽). 이러한 사실은 『新唐書』 권219, 「奚傳」, 6173쪽에서도 “至隋始去庫眞[莫], 但曰奚”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隋書』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64) 『舊唐書』 권199(下), 「奚國傳」, 5354쪽, “萬歲通天年, 契丹叛後, 奚衆管屬突厥, 兩國常遞爲表裏, 號曰‘兩蕃’”.

65)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제26집, 181~197쪽.

66)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10 - 寶藏王 19년조」, 331쪽에서는 “冬十一月”의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당이 고구려 정벌에 동원한 병력의 규모는 당 태종의 친정(645) 때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16 - 현경 5년조 및 용삭(龍朔) 원년조」의 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8] - [顯慶] 5년 12월 壬午日에 [황제는] 左驍衛大將軍 契苾何力을 淇江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았고, 左武衛大將軍 蘇定方을 遼東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았으며, 左驍衛將軍 劉伯英을 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삼았고, 蒲州刺史 程名振을 鏐方道總管으로 삼았다. [황제는 이들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서 고려를 공격하라고 하였다.⁶⁷⁾

[9] - [龍朔] 원년 봄 정월 乙卯日에 河南, 河北, 淮南, 67州의 병사를 모집하여 44,000여 명을 얻었다. [황제는 이들에게] 平壤과 鏐方의 行營으로 가도록 하였다. 戊午日에 [황제는] 鴻臚卿 蕭嗣業을 夫餘道行軍總管으로 삼고 回紇部 등 여러 부족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가도록 하였다.⁶⁸⁾

[8]과 [9]는 현경 5년(660) 12월과 용삭 원년(661) 정월에 당이 고구려 정벌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新唐書』 권3, 「高宗紀」, 61쪽에서도 『資治通鑑』과 같이 “十二月 壬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12월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67)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高宗 顯慶 5년조」, 6322쪽, “十二月, 壬午, 以左驍衛大將軍契苾何力爲淇江道行軍大總管, 左武衛大將軍蘇定方爲遼東道行軍大總管, 左驍衛將軍劉伯英爲平壤道行軍大總管, 蒲州刺史程名振爲鏐方道總管, 將兵分道擊高麗”.

68)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高宗 龍朔 원년조」, 6323쪽, “春正月, 乙卯, 募河南北·淮南六十七州兵, 得四萬四千餘人, 詣平壤·鏐方行營. 戊午, 以鴻臚卿蕭嗣業爲夫餘道行軍總管, 帥回紇等諸部兵詣平壤”.

첫째, 계필하력⁶⁹⁾과 소정방,⁷⁰⁾ 두 명의 역전의 맹장들을 정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둘째, 고구려 정복을 위해서 새롭게 하남, 하북, 회남, 즉 즉 황하의 남방과 북방 지역 그리고 회하의 남방 지역⁷¹⁾에서 한족 병사 44,000명을 모집했으며, 셋째, 당군뿐만 아니라 기미지배를 받고 있는 몽골의 철륵 회홀부⁷²⁾의 기병을 비롯한 번군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교 업무의 최고 담당자인 홍려경 소사업을 부여도행군총관에 임명한 것은, 그가 지휘하는 회홀 기병을 오르콘강 유역에서 몽골 동쪽 만주 지역까지 이동시켜서 고구려 부여성 즉 지금의 길림성(吉林省) 농안현(農安縣)을 통과하여 평양으로 남진하겠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⁷³⁾

69) 契苾何力은 철륵 契苾部 출신으로 태종의 치세 초반에 唐將이 된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는 645년에 태종의 고구려 친정에 참전하였고, 그 전후의 吐谷渾, 高昌 그리고 龜茲 토벌 및 651년의 서돌궐 阿史那賀魯의 반란을 진압하는 등 동으로는 요동에서 서로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디아나까지 동서의 전장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에 관해서는 『舊唐書』 권109, 「契苾何力傳」, 3291~3293쪽; 『新舊書』 권110, 「契苾何力傳」, 4117~4119쪽 참조.

70) 蘇定方 역시 630년의 동돌궐, 655년과 657년의 서돌궐, 660년의 백제 討滅戰, 그리고 659년의 서역의 疎勒, 朱俱波 및 謁般陀(葱嶺), 3국의 반란 진압 등 동으로는 한반도 남부에서 서로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디아나까지 동서의 전장에서 수많은 전공을 올렸다. 이에 관해서는 『舊唐書』 권83, 「蘇定方傳」, 2777~2779쪽; 『新舊書』 권111, 「蘇定方傳」, 4136~4138쪽 참조.

71) 이 지역의 동부 지방은 고대부터 운하가 발달한 지역이어서 운하에서 배를 타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를 짓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수로 군으로 징발되었을 것이다.

72) 이때 당이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전까지의 여당전쟁에서 營州都督의 지휘 아래 항상 그 선봉대의 역할을 수행했던 동몽골의 契丹과 奚의 부족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몽골고원의 철륵 回紇部の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대략 659년 11월부터 거란과 해가 反唐抗爭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재성, 2011, 앞의 글, 197~204쪽 참조.

73) 鴻臚卿 蕭嗣業이 이때 夫餘道行軍總管에 임명되어 회홀군을 지휘하여 당의 고구려 정벌에 참전한 것은 『舊唐書』 권194(下), 「突厥傳(下) - 西突厥 阿史那賀魯條」, 5187쪽에 “顯慶二年, 遣右屯衛將軍蘇定方, 燕然都護任雅相, 副都護蕭嗣業, 左驍衛大將軍·瀚海都督迴紇婆閏等率帥討擊, 仍使右武衛大將軍阿史那彌射, 左屯衛大將軍阿史那步真爲按撫大使, …… [阿史那]彌射·[阿史那]步真攻之, 大潰. 又與蘇定方攻[阿史那]賀魯於碎葉水, 大破之”에 보이듯이, 당이 顯慶 2년(657)에서

그러나 이때 당의 고구려 정벌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고구려 정벌을 계획한 660년 12월보다 5개월이 늦은 661년 4월에 가서야 비로소 장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1) 백제 정벌을 완수한 총사령관 소정방이 당으로 귀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⁷⁴⁾ (2) 고구려 정벌이 동아시아를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질서를 확립하려는 수당제국의 마지막 남은 과제⁷⁵⁾이기 때문에, 다음의 [10] - (나)에 기재되어 있듯이, 황제 고종이 친정에 나서려고 했지만 많은 반대 의견으로 말미암아⁷⁶⁾ 친정이 계속 미결 상태로 지속된 점, (3) 고구려의 동태와 형세를 관찰할 시간이 필요했던 점,⁷⁷⁾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결국 661년 4월에야 당은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데, 『자치통감』 「당기16 - 용상 원년조」는 당시 고구려 정벌에 나선 당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10] - (가) 여름 4월 庚辰日에 任雅相을 溟江道行軍總管으로 삼았고, 契苾何力을 遼東道行軍總管으로 삼았으며, 蘇定方을 平壤道行軍總管으로 삼았다. 蕭嗣業을 비롯한 여러 胡兵으로 이루어진 무릇 35軍과 함께 길을 나누어 바다와 육지에서 일제히 전진하였다. (나) 皇上이 스스로 대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뒤를 이으려고 하였다. 癸巳日에

돌궐을 토멸할 때 蕭嗣業이 회흘을 비롯한 철록 제부를 羈縻하는 燕然都護府의 副都護로서 부족장 婆閏이 거느리는 回紇軍을 동원한 것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4) 『舊唐書』 권4, 「高宗紀(上)」, 81쪽에 의하면, 백제 정벌군 사령관 蘇定方이 義慈王과 태자 夫餘隆을 비롯한 백제의 포로들과 함께 당으로 귀환한 것은 이 해 11월이다.

75) 이에 대해서는 이재성, 2011, 앞의 글, 161~162쪽 참조.

76) 당시 고종의 친정에 반대한 蔚州刺史 李君球의 상소문이 『舊唐書』 권185(上), 「良吏(上) - 李君球傳」, 4789~4790쪽; 『唐會要』 권95, 「高麗條」, 1708쪽에 기재되어 있다.

77) 『唐會要』 권95, 「高麗條」, 1708쪽, “龍朔元年, 四月, 十六日, 兵部尚書任雅相爲 溟江道行軍大總管, 三十五軍水陸分途, 先觀高麗之勢”에서의 ‘先觀高麗之勢’은 당시 당이 고구려에 사람을 보내어 고구려의 동태와 형세를 관찰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문구라고 할 것이다.

皇后가 抗表를 올려서 [황상이] 고려를 친정하는 것을 간언하여 [말리므로], 그것을 따르겠다는 조서를 내렸다.⁷⁸⁾

당의 고구려 정벌군은 크게 육로군과 수로군으로 편성되었고, 『신당서』 「계필하력전」의 그가 ‘제번 35만군을 거느렸다’⁷⁹⁾는 구절을 볼 때, 육로군은 주로 철록 계필부 별부의 부족장인 설필하력이 거느리는 부족군과 철록 회흘부 부족장 파운(婆閏)⁸⁰⁾이 거느리는 회흘부(回紇部) 부족군⁸¹⁾ 등 당시 당의 기미지배를 받고 있던 몽골 유목 부족의 기병이 주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662년(용삭 2년, 보장왕 21년) 2월에 백주자사(白州刺史)인 옥저도행군총관(沃沮道行軍總管)인 방효태(龐孝泰)와 그 아들 13명이 사수(蛇水)에서 고구려군과 싸우다가 모두 전사했다’⁸²⁾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영남⁸³⁾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병사들도 고구려 정벌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⁴⁾ 이를

78)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高宗 龍朔 원년조」, 6322~6324쪽, “夏四月, 庚辰, 以任雅相爲淇江道行軍總管, 契苾何力爲遼東道行軍總管, 蘇定方爲平壤道行軍總管, 與蕭嗣業及諸胡兵凡三十五軍, 水陸分道並進, 上欲自將大軍繼之. 癸巳, 皇后抗表諫親征高麗, 詔從之”.

79) 『新唐書』 권110, 「契苾何力傳」, 4119쪽, “龍朔初, 復拜遼東道行軍大總管, 率諸蕃三十五萬軍”.

80) 婆閏이 철록 회흘부의 부족장으로서 재위 기간은 648~661년이다.

81) 『新唐書』 권217(上), 「回鶻傳(上)」, 6113쪽, “阿史那賀魯之盜北庭, 婆閏以其五萬助契苾何力等破[阿史那]賀魯, 收北庭. 又從伊麗道行軍總管任雅相等再破[阿史那]賀魯, 遷右衛大將軍, 從討高麗有功”에서 볼 때, 661년에 당의 고구려 정벌에 참전한 회鶻軍의 사령관이자 부족장은 婆閏이었음을 알 수 있다.

82) 『新唐書』 권3, 「高宗紀 - 龍朔 원년조」, 61쪽, “四月庚辰, 任雅相爲淇江道行軍總管, 契苾何力爲遼東道行軍總管, 蘇定方爲平壤道行軍總管, 左驍衛將軍龐孝泰爲沃沮道行軍總管, 率三十五軍以伐高麗”; 『新唐書』 권220, 「高麗傳」, 6196쪽, “明年(662), 龐孝泰以嶺南兵壁蛇水, [淵]蓋蘇文攻之, 舉軍沒, [蘇]定方解而歸”;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龍朔 2년조」, 6327쪽, “二月, 戊寅, 左驍衛將軍白州刺史沃沮道總管龐孝泰與高麗戰於蛇水之上, 軍敗, 與其子十三人皆戰死”.

83) 嶺南은 지금의 중국 廣東省과 廣西壯族自治區를 가리킨다.

84) 『唐書』 권82, 「許敬宗傳」, 2764쪽의 “白州人龐孝泰, 蠻酋凡品, 率兵從征高麗, 賊知其懦, 襲破止. 敬宗又納其寶貨, 稱孝泰頻破賊徒, 斬獲數萬, 漢將驍健者,

통해서 당이 대외정벌에서 기미지배를 받고 있는 이민족의 군대를 동원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⁸⁵⁾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고구려 정벌에 황제 고종이 직접 친정에 나서려고 했다는 점이다. 비록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황제가 친정에 나서려고 한 것은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친정한 이후 처음이었다. 그 대신 당시 병부상서로서 659년부터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어 재상의 지위에 오른 임아상⁸⁶⁾을 정벌군 총사령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당이 고구려 정벌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이 고구려 정벌에 국력을 기울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고구려 역시 당의 정벌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660년(보장왕 19년, 문무왕 원년) 7월 백제가 멸망하자 고립무원의 위기를 느낀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이 남쪽에서 북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해 10월에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의 칠증성⁸⁷⁾을 20여 일이나 포위하여 그 군주⁸⁸⁾인 필부(匹

唯蘇定方與龐孝泰耳”에 의하면, 唐將 龐孝泰는 白州(당의 嶺南道에 소속된 州로서 지금의 廣西壯族自治區 서남부 博白縣 일대)의 소수민족의 부족 추장으로서 그 부족 군대를 거느리고 여당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음을 알 수 있다.

85) 당의 ‘以夷制夷’의 방책 혹은 전술에 관해서는 이재성, 2011, 앞의 글 참조.

86) 『舊唐書』 권4, 「高宗紀(上) - 顯慶 4년조」, 79쪽, “九月丙申, 兵部尚書任雅相·度支尚書盧承慶 竝參知政事”라는 기사로 볼 때, 兵部尚書 任雅相이 顯慶 4년(659) 9월에 參知政事가 됨으로써 宰相의 반열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舊唐書』 권194(下), 「西突厥 - 阿史那賀魯傳」, 5187쪽, “顯慶二年, 遣右屯衛將軍蘇定方, 燕然都護任雅相, 副都護蕭嗣業, 左驍衛大將軍·瀚海都督迴紇婆閏等奉帥討擊, 仍使右武衛大將軍阿史那彌射, 左屯衛大將軍阿史那步真爲按撫大使. …… [阿史那]彌射·[阿史那]步真攻之, 大潰. 又與蘇定方攻[阿史那]賀魯於碎葉水, 大破之”에서 보이듯이, 任雅相은 고종 顯慶 2년(657) 무렵에 철록 제부에 대한 羈縻 통치를 監統하는 燕然都護府의 都護였고 蕭嗣業은 그 副都護였다. 이 점도 任雅相이 당의 고구려 정벌군 총사령관에 임명되는 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87) 七重城은 지금의 임진강 남쪽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紺岳山 주변의 산성으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편, 2011,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 -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151쪽.

88) 군대의 總管(總管)에 해당된다.

夫)를 전사시켰다.⁸⁹⁾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5 - 무열왕 8년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11] - 5월 9일(어떤 기록에서는 11일이라고 한다)에 고구려 장군 惱音信이 말갈 장군 生偕와 군대를 합친 후에 述川城으로 와서 공격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자 北漢山城으로 이동하여 공격하였다.⁹⁰⁾

고구려군은 신라 무열왕 8년이자 문무왕 원년⁹¹⁾인 661년 5월 9일(혹은 11일)에는 신라의 술천성(述川城)⁹²⁾과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해 왔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660년 10월과 같은 방식의 고구려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661년 4월에 당이 대군을 편성하여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한 것에 교훈을 얻어 당이 고구려를 공격해오면 신라도 당에 호응하여 남쪽에서 북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사전에 막아보려는 방책으로 신라를 선제공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⁹³⁾

89)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 武烈王 7년조」, 156쪽, “十一月一日, 高句麗侵攻七重城, 軍主匹夫死之”; 『三國史記』 권47, 「列傳7 - 匹夫傳」, 611쪽, “太宗大王以百濟·高句麗·靺鞨轉相親比爲唇齒, 同謀侵奪, 求忠勇材, 堪綏禦者,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其明年庚申秋七月, 王與唐師滅百濟, 於是高句麗疾我, 以冬十月, 發兵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賊將見我士卒, 盡誠鬪不內顧, 謂不可猝拔, 便欲引還”.

90)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 武烈王 8년조」, 157쪽, “五月九日(一云 十一日), 高句麗將軍惱音信與靺鞨將軍生偕合軍, 來攻述川城, 不克, 移攻北漢山城”.

91) 신라太宗 武烈王은 661년 2월에 사망하였다.

92)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으로 지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편, 2011, 앞의 책, 197쪽.

93) 이러한 필자의 견해와는 달리, 노중국은 고구려가 660년 10월에 거행한 七重城 공격과 661년 5월에 거행한 述川城 및 北漢山城 공격을 百濟復國軍의 동향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2004년 발간된 『백제 부흥운동사』(일조각, 138쪽)에서 그는 고구려가 신라의 술천성과 북한산성을 공격하기 이전인 661년 4월에 당군이 淇江(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일시적

과연 고구려가 예상한대로 이번 고구려 정벌에서도 당은 신라에게 참전하여 호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라는 일단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의 상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6 - 문무왕 원년조」에 실려있다.

[12] - 6월에 당에 들어가서 宿衛하던 仁間과 儒敦 등이 귀국하여 왕에게 고하였다. ‘황제가 이미 소정방을 시켜서 수군과 육군 35道兵에게 고구려를 정벌하도록 명령하였고, 마침내 왕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상응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왕은] 비록 상중에 있었지만 황제의 칙령을 거둬서 거스를 수가 없었다. 가을 7월 17일에 [왕은] 金庾信을 大將軍으로 삼았고, 仁間, 珍珠, 欽突을 大幢將軍으로 삼았으며, 天存, 竹旨, 天品을 貴幢總管으로 삼았고, 品日, 忠常, 義服을 上州總管으로 삼았으며, 眞欽, 衆臣, 自簡을 下州總管으로 삼았고, 軍官, 藪世, 高純을 南川州總管으로 삼았으며, 述實, 達官, 文穎을 首若州總管으로 삼았고, 文訓, 眞純을 河西州總管으로 삼았으며, 眞福을 誓幢總管으로 삼았고, 義光을 郎幢總管으로 삼았으며, 慰知를 闕衿大監으로 삼았다.⁹⁴⁾

으로 평양성을 포위하였고 그와 함께 당군이 압록강에서 정병 수만 명을 거느리는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을 격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소정방이 이끄는 당의 수로군이 溟江에서 신라군을 격파하고 평양성을 포위한 시기는 661년 8월이고, 설필하력이 이끄는 당의 육로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男生이 거느리는 고구려 정병을 대파한 것은 그해 9월이기 때문이다.

- 94)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 文武王 원년조」, 160쪽, “六月, 入唐宿衛仁間·儒敦等至, 告王, ‘皇帝已遣蘇定方, 領水陸三十五道兵, 伐高句麗, 遂命王舉兵相應’ 雖在服, 重違皇帝勅令. 秋七月十七日, 以金庾信爲大將軍, 仁間·珍珠·欽突爲大幢將軍, 天存·竹旨·天品爲貴幢總管, 品日·忠常·義服爲上州總管, 眞欽·衆臣·自簡爲下州總管, 軍官·藪世·高純爲南川州總管, 述實·達官·文穎爲首若州總管, 文訓·眞純爲河西州總管, 眞福爲誓幢總管, 義光爲郎幢總管, 慰知爲闕衿大監”. 그런데 『三國史記』 권42, 「列傳2 - 金庾信(中)」, 563쪽에는 “六月, 唐高宗皇帝遣將軍蘇定方等征高句麗, 入唐宿衛金仁間, 受命來告兵期, 兼諭出兵會伐. 於是文武大王率庾信·仁間·文訓等, 發大兵向高句麗”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라로서는 고구려 정벌에 호응하라는 당의 명령이 달가울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록 백제가 멸망했지만, 곧바로 옛 백제 지역 곳곳에서 백제복국군⁹⁵⁾이 일어나서 당군과 신라군을 공격해왔으므로,⁹⁶⁾ 만약 신라의 주력 군대가 북쪽인 고구려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그들은 더욱 치열하게 신라군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문무왕은 북진을 중단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백제복국군 진압에 나섰다. 그때의 상황이 [13]이다.

[13] - 8월에 대왕이 여러 장군들을 거느리고 始飴谷停에 도착하여 머무르고 있었다. △△ 사자가 와서 보고하면서 말하였다. '백제의 殘賊이 甕山城에 웅거하고 있으면서 길을 차단하고 있어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대왕이 우선 사신을 보내 그들을 깨우쳤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9월 19일에 대왕은 熊峴亭으로 나아가서 여러 摠管과 大監을 모아놓고 친히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훈계하였다. 25일에 군대를 진군하여 瓮山성을 포위하였다. 27일에 와서 먼저 大柵을 불사르고 수천 명을 斬殺하여 마침내 그들을 항복시켰다. …… 겨울 10월 29일에 대왕은 당 황제의 사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수도로 돌아갔다.⁹⁷⁾

즉 문무왕 원년인 661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고구려 정벌군을 편성하여 북상하지만, 8월에 시이곡정(始飴谷停)⁹⁸⁾에 도착하자 북진하지

95) '百濟復國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백제사를 전공하는 李道學 교수의 교시에 의한 것이다.

96) 노중국, 2004, 앞의 책, 204~229쪽.

97)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 文武王 원년조」, 160~161쪽, “八月, 大王領諸將, 至始飴谷停留, △△使來告曰, ‘百濟殘賊據甕山城, 遮路不可前’. 大王先遣使諭之, 不服. 九月十九日, 大王進次熊峴亭, 集諸摠管大監, 親臨誓之. 二十五日, 進軍圍甕山城, 至二十七日, 先燒大柵, 斬殺數千人, 遂降之. …… 冬十月二十九日, 大王聞唐皇帝使者至, 遂還京”.

98) 始飴谷停은 지금의 경기도 이천시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의 경북 구미시 인의

않고 백제복국군을 진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무왕이 처음부터 당 고종의 파병 명령을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무왕이 직접 지휘한 신라군은 7월 수도를 출발한 이후 곳곳에서 백제복국군을 진압하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3개월 정도 지난 10월 29일에 당의 사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로 귀환했던 것이다.⁹⁹⁾

한편, 당의 고구려 정벌군은 661년 8월부터 승전을 계속하는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10 - 보장왕 20년조」가 바로 그것이다.

- [14] - (가) 가을 8월에 蘇定方이 溟江에서 아군을 격파하고 馬邑山을 빼앗고 마침내 平壤城을 포위하였다. (나) 9월에 淵蓋蘇文이 그 아들 男生을 파견하여 정병 수만 명으로 鴨綠江을 지켜서 제군이 건널 수가 없었다. 契苾何力이 [압록강에] 도착하자 마침 얼음이 얼어서 [강이] 크게 합쳐졌다. 설필하력은 무리를 이끌고 얼음이 언 기회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서 [병사들에게] 북을 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전진하도록 하니 아군이 붕괴되어 달아났다. 설필하력이 [아군을] 수십 리 추격하여 3만 명을 죽이니 나머지 무리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남생은 겨우 몸만 [사로잡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다) 때마침 [당 고종으로부터] 철군하라는 조서가 내려와서 마침내 돌아갔다.¹⁰⁰⁾

동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편, 2011, 앞의 책, 204~205쪽.

- 99) 『三國史記』 권42, 「列傳2 - 金庾信(中)」, 563~564쪽에 의하면, 이때 신라에 온 당의 사자는 이전에 文武王이 蘇定方에게 보낸 신라의 大監 文泉으로서 그는 소정방의 답장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소정방의 답장의 내용은 신라가 군대를 파견하여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는 소정방의 수로군에게 군량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 100)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10 - 寶藏王 20년조」, 331~332쪽, “秋八月, 蘇定方破我軍於溟江 奪馬邑山, 遂圍平壤城. 九月, [淵蓋蘇文遣其子男生, 以精兵數萬守鴨綠, 諸軍不得渡. [遼東道行軍總管]契苾何力至, 值冰大合, [契苾]何力引衆乘冰度水, 鼓噪而進, 我軍潰奔. [契苾]何力追數十里, 殺三萬人, 餘衆悉降, 男生僅以身免. 會有詔班師, 乃還”.

[14]-(가)는 보장왕 20년(661) 7월 혹은 8월에 소정방이 이끄는 당의 수로군이 바다를 건너와서 패강(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이어 여러 차례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여¹⁰¹⁾ 마읍산¹⁰²⁾ 을 빼앗은 후에 평양성을 포위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¹⁰³⁾ 소정방의 평양성 포위는 다음해 3월까지 지속된다. [14]-(나)는 9월에 설필하력이 이끄는 당의 육로군이 압록강에 도달했지만 건너지 못하다가 압록강이 얼자 이곳을 건너서 고구려의 실권자인 연개소문 아들인 남생이 지휘하는 정예 부대를 대파하고 고구려군 수만 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¹⁰⁴⁾ 따라서 661년 8~9월은 645년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친정한 이후 고구려로서는 국가 존망이 걸려 있는 최대 위기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4]-(다)에서 볼 수 있듯이, 설필하력이 지휘하는 당의 육로군이 남생이 거느리는 고구려 정예 부대와와의 전투에서 대첩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고구려 전선에서 철군하게 된다. 그것은 660년 8월부터 개시된 철륵 제부의 반란이 이 무렵 그 수부인 회홀까지 확대되고, 그것이 고구려 원정에 참전하고 있는 회홀부 부족장인 파운 휘하의 회홀군을 비롯한 철륵 제부의 군대에까지 전해짐으로써 설필하력의 육로군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 육로군이 계속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¹⁰⁵⁾

그리고 한 달 후인 661년 10월 당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평양성을 포위

101)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龍朔 원년 7월조」, 6325쪽, “秋, 七月, 甲戌, 蘇定方破高麗於溟江, 屢戰皆捷, 遂圍平壤城”.

102) 馬邑山은 평양 서쪽 근교에 있는 산으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편, 2011, 앞의 책, 585쪽.

103) 『新唐書』 권220, 「高麗傳」, 6196쪽, “龍朔元年八月, [蘇]定方破虜兵於溟江, 奪馬邑山, 遂圍平壤”.

104) 『新唐書』 권110, 「契苾何力傳」, 4119쪽에서는 “龍朔初, 復拜遼東道行軍大總管, 率諸蕃三十五萬軍, 帝欲自率師繼之, 次鴨綠水, [淵]蓋蘇文遣 男生以精兵數萬拒險, 衆莫敢濟, 會氷合, [契苾]何力引兵謀而濟, 賊驚, 遂潰, 追奔, 斬首三萬級, 餘衆降, 男生脫身走, 有詔班師”라고 기재되어 있다.

105)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하고 있는 소정방에게 군량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하여 문무왕 2년(662) 2월에 대장군 김유신을 사령관으로 한 신라군이 파견되어 평양성 부근까지 북상하여 군량을 전달했지만 소정방은 곧바로 평양성 포위를 풀고 회군하였고,¹⁰⁶⁾ 그로부터 한 달 후인 3월에는 소정방이 다시 평양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하자 귀환하고 말았다.¹⁰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력을 기울여 단행한 고구려 정벌이 661년 4월에서 662년 3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전개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는 (1) 661년 8월에 신라가 고구려로 북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백제복국군을 토벌하기 위해 방향을 바꾼 점, (2) 이 해 9월에 설필하력이 거느리는 당의 육로군이 압록강을 건너 남생이 거느리는 고구려 정예 부대에게 대첩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회흘부를 위시한 철륵 제부의 반란으로 회군한 점, (3)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의 수로군이 폐강, 즉 대동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이 해 8월부터 평양성을 무려 7개월 동안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함락하지 못한 점,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이 35도군(道軍)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단행한 고구려 정벌은 실패로 끝났지만 고구려는 이 당시가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 이후 국가

106)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6 - 文武王 원년조」, 161쪽, “冬十月二十九日, 大王聞唐皇帝使者至, 遂還京. 唐使甲慰, 兼勅祭前王, 贈雜彩五百段, 庾信等休兵. 待後命, 含資道摠管劉德敏至, 傳勅旨, 輸平壤軍糧. 二年春正月, …… 王命[金]庾信與仁間·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十八日, 宿風樹村, 冰滑道險, 車不得行, 並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至赫陽, 貴幢弟監聖川·軍師述川等, 遇賊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金]庾信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是日, 風雪寒冽, 人馬多凍死. 六日, 至楊喚, [金]庾信遣阿浪良圖·大監仁仙等, 致軍糧, 贈[蘇]定方以銀五千七百分·細布三十匹·頭髮三十兩·牛黃十九兩. [蘇]定方得軍糧便罷還”. 그리고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군이 평양성 부근까지 올라가서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하고 귀환하는 내용은 『三國史記』 권42, 「列傳2 - 金庾信(中)」, 564~565쪽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107) 『舊唐書』 권4, 「高宗紀(上) - 龍朔 2년 3월조」, 83쪽, “三月, 蘇定方破高麗于葦島, 又進攻平壤城, 不克而還”.

존망이 걸린 최대의 위기였다. 실권자였던 연개소문은 661년 7월 혹은 8월부터 평양성이 무려 7~8개월 동안 당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을 때와 9월에 당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구려 정예 부대에게 대첩을 거두었을 때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644년 7월부터 개시되어 661년 당시까지 지속된 여당전쟁에서 당 태종의 친정을 비롯한 당의 고구려 공격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당의 대규모 정벌처럼 수도 평양성이 무려 7개월여 동안 포위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는 이전처럼 신라를 공동의 적으로 삼아 연합할 수 있는 백제도 멸망하고 없었다.

이때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은 당시 국제형세를 둘러보면서 당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을 찾았을 것이다. 그는 만약 고구려가 몽골의 철책을 끌어들이어서 그들이 북방에서 당을 공격한다면,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는 당군이 철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전한 무제가 흉노의 계속된 침입과 위협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방의 월지가 흉노와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과 월지의 동맹'을 성사시켜 흉노의 위협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원전 139년에 장건(張騫)을 월지에 파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⁸⁾

연개소문은 고구려를 도울 수 있는 세력으로 먼저 바다 건너 왜국(倭國, 日本)¹⁰⁹⁾을 지목한 것 같다. 그것은 『일본서기』 「천지천황기(天智天皇紀)」로 증명된다.¹¹⁰⁾

108) 나가사와 가즈도시 지음, 이재성 옮김, 1990, 「아시아의 콜롬버스」,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民族社, 51쪽.

109) 당시 일본을 『舊唐書』 권199(上), 「倭國傳」에서는 '倭國'이라 기재하였고, 『新唐書』 권220, 「日本傳」에서는 '日本'으로 기재하였다.

110) 『日本書紀』가 그 편찬 목적으로 말미암아 왜국된 부분이 대단히 많고 그와 함께 고구려가 일본에 구원을 요청했다는 기사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기사, 즉 일본이 백제복국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병했다는 기사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일본에 구원을 요청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조정은 백제복국군을 돕는 것이 고구려를 돕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 백제복국군이 일본과 함께 고구려에도 파병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5] - [원년 3월] 이 달 唐人과 新羅人이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가 조정에 구원을 청하였다. 그래서 장군을 보내 疏留城에 웅거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당인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가 없었고, 신라는 그 서쪽의 堡壘를 함락할 수가 없었다.¹¹¹⁾

연개소문이 왜(일본)에 이어 연합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세력은 몽골리아의 유목 세력인 철륵¹¹²⁾이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661년 9월 설필하력이 이끄는 당의 육로군이 압록강을 건너 남생이 거느리는 고구려 정예군 3만 명을 전몰시키는 대첩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륵에서 반란이 일어나 설필하력의 육로군이 고구려에서 철수했기 때문이다.

철륵 제부가 당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연개소문은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 시 고구려군이 주필산(駐蹕山)에서 당군에게 대패하는 위급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해 8월에 말갈을 중매로 삼아 설연타가한국(薛延陀可汗國, Syr-Tardouch¹¹³⁾ Khanate, 630~646년)과 연합하여 당의 침공에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경험¹¹⁴⁾이 생각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번에는 철륵

111) 연민수 외 6인, 2013, 『역주 일본서기3』, 동북아역사재단, 335~336쪽. 단, 구원 요청의 시기는 『日本書紀』의 기록대로 661년 3월이 아니라 9월 이후라고 판단한다.

112) 당은 646년(貞觀 20)에 薛延陀可汗國을 멸망시킨 후, 그 이듬해인 647년(貞觀 21)에 몽골의 回紇部를 위시한 철륵 제부에 6都督府와 7刺史州의 羈縻府·州를 설치하여 기미지배를 시행하고 그 통감 기관으로 燕然都護府를 故單于臺, 즉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烏拉特後旗 烏加河 北岸에 설치하였다.

113) 독일 학자 Hirth는 ‘薛延陀’는 ‘Syr-Tardouch’를 한자로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段連勤, 1988, 「隋時的薛延陀」, 『隋唐時期的薛延陀』, 西安: 三秦出版社, 1쪽.

114) 『新唐書』 권217(下), 「回鶻(下) - 薛延陀傳」, 6138쪽, “高麗莫離支令靺鞨以厚利啗夷男, 辱與連和, 夷男氣素索, 不發”; 『資治通鑑』 권198, 「唐紀14 - 太宗 貞觀 19년 6월조」, 6223~6227쪽, “六月, 丁未, 車駕發遼東, 丙辰, 至安市城, 進兵攻之. 丁巳, 高麗北部褥薩[高]延壽·[高]惠真帥高麗·靺鞨兵十五萬救安市. …… 己未, [高]延壽·[高]惠真帥其衆三萬六千八百人請降, …… 高麗舉國大駭, …… 秋七月, …… 及高麗敗於駐蹕山, 莫離支使靺鞨說真珠[毗伽可汗], 啗以厚利, 真珠[毗伽可汗]懼服不敢動”.

에 사자를 파견하여 그들과의 연합을 성사시켜서 당을 배후에서 강력하게 공격한다면, 당의 수로군 사령관 소정방의 평양성 포위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군을 고구려에서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연계소문은 당시 철록 제부가 그들을 기미지배하고 있는 당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말갈을 중매로 삼지 않고 고구려에서 직접 철록에 사자를 파견한다면 '고구려와 철록의 연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파견된 사절이 바로 '조우관사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우관사절'은 언제 고구려를 출발하여 몽골 철록으로 갔을까? 연계소문이 가장 위기를 느꼈을 때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시기는 설필하력이 철수하여 고구려에서도 철록 제부의 반란이 인지되는 661년 9월 이후로 생각된다. 특히, 소정방의 수로군이 신라 김유신에게 군량을 전달받은 후 잠시 평양성의 포위를 푸는 662년 2월 무렵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따라서 '조우관사절'이 고구려를 출발하여 몽골의 철록으로 간 시기는 662년(보장왕 21) 2월 무렵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IV. 철록의 반란과 '조우관사절'의 사마르칸트행

철록에 도착한 '조우관사절'은 어떤 이유로 몽골의 철록을 떠나 서쪽의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걸까? 여기에서는 그 이유, 과정 그리고 시기를 비정하려고 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조우관사절'이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에 그려진 시기도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 태종 정관 21년(647)부터 몽골의 철록 제부에 이어 그 다음해인 648년에 동몽골의 거란과 해, 두 부족에 시행한 기미지배는 13년만인 고종 현경 5년(660)

부터 균열이 발생하였다. 먼저 동몽골에서 거란과 해가 반란을 일으켰고,¹¹⁵⁾ 곧 이어 이에 자극을 받은 몽골에서 회흘부를 위시한 철륵 제부(회흘연맹)¹¹⁶⁾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거란과 해가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644년 7월부터 시작된 여당전쟁에서 이 두 부족의 부족들이 당군의 선봉대로서 앞장세워져 많은 희생을 당했던 것에 있었다. 참전할 때마다 부족장은 당으로부터 이전에 비해서 더욱 높은 품계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공에 따른 회사품(回賜品)이 사여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부족의 성원들에게는 목축, 수렵과 함께 그들의 중요한 경제활동 중의 하나인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의 획득, 즉 약탈경제도 전쟁에서 패하면 성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결국 부족장에 대한 반항과 동시에 '친당'에서 '반당'으로 태도를 바꾸어 결국 당에 대한 반란으로 폭발했던 것이다. 회흘군을 위시한 철륵 제부의 군대도 먼저 651~657년에 이르러 서돌궐이 멸망할 때까지 당의 서돌궐 토벌전쟁에 동원되었고, 661년에는 여당전쟁에 동원되어 그 선봉대로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¹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란과 해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인솔하는 부족장에게

115) 이에 관해서는 이재성, 2011, 앞의 글, 197~204쪽 참조.

116) 楊聖敏, 1991, 「回紇의團聚與成長」, 『回紇史』,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72~76쪽은 외몽골의 회紇부를 위시한 철륵 제부가 당의 기미지배를 받는 647년부터 이들이 당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는 663년까지의 회흘부를 위시한 철륵 제부를 '回紇聯盟'이라 칭하고 있다.

117) 특히 철륵 제부 중에서 회紇부가 당이 서돌궐과 고구려를 정벌할 때 당군의 선봉대로서 크게 활약한 것은 그 부족장이자 회흘군의 사령관인 婆閏이 대단히 친당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646년(貞觀 20)에 薛延陀可汗國이 당군과 회흘군을 비롯한 철륵군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였고, 그 이듬해인 647년(貞觀 21)부터 당은 회흘부 등에 대하여 기미지배를 시행하였다. 당시 비록 기미지배는 받고 있었지만, 회흘부는 부족장인 吐迷度가 可汗을 자칭할 정도로 대단히 독자성이 강하였다. 그 런데 648년(貞觀 22)에 토미도가 그 조카인 烏紇에게 피살되면서 회흘부가 대단히 동요하였다. 이때 당이 개입하여 오흘을 죽이고 토미도의 아들인 婆閏에게 당의 관직을 제수한 것이 파운이 회흘부에서 부족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따라서 당의 도움을 받아 회흘부 부족장이 된 파운은 자연스럽게 친당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舊唐書』 권195, 「回紇傳」, 5196~5197쪽 참조.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¹¹⁸⁾ ‘반당’으로 태도를 바꾸어 당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몽골과 몽골의 당의 기미부주에서 거란과 해에 이어 철록 제부가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661년 4월에 당군과 번군을 합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 정벌에 나선 것은 백제 정복의 기세를 이어가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란과 해 그리고 철록 제부의 반란은 당이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북방 유목세력의 ‘반당’물결은 661년 7월 혹은 8월부터 오랫동안 평양성이 포위되어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한 고구려에게는 희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고구려 ‘조우관사절’이 사행한 몽골에서의 철록 제부의 반란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몽골의 철록 지역에 도착한 ‘조우관사절’은 언제, 어떤 이유로 몽골을 떠나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로 갔을까?

『자치통감』 「당기16 - 현경 5년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16] - 8월 壬午日에 左武衛大將軍 鄭仁泰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思結部, 拔也固部, 僕骨部, 同羅部, 4부를 토벌하였는데, 세 번 싸워서 모두 이겼다. 패주하는 적을 1백여 리 추격하여 그 추장들을 참수하고 귀환하였다.¹¹⁹⁾

몽골에서의 철록 제부의 반란은 현경 5년인 660년 8월에 일어났고 철록

118) 이것은 [21] 『新唐書』, 「契苾何力傳」의 “죄는 흉악한 마음을 가진 渠帥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을 잡을 뿐이다”. [契苾何力은] 철록 제부의 부종들이 크게 기뻐하자, 그들과 함께 가짜 葉護 및 特勤 등 200명을 사로잡아서 귀환하였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증명된다.

119)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高宗 顯慶5년조」, 6322쪽, “八月壬午, 左武衛大將軍鄭仁泰將兵討思結·拔也固·僕骨·同羅四部, 三戰皆捷, 追奔百餘里, 斬其酋而還”.

제부 중에서 사결부, 발야고부, 복골부, 동라부, 4부가 당의 영주(靈州) 즉 지금의 중국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영무현(靈武縣) 지역¹²⁰⁾을 계속 침범하자 그 도독인 좌무위대장군 정인태¹²¹⁾가 격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철륵 제부의 수부인 회흘부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철륵 제부 전체가 ‘반당’의 동향은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후 철륵 제부가 당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치통감』 「당기16 - 용삭 원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17] - 10월에 回紇部の 주장인 婆閏이 죽고 조카인 比粟毒이 [파운을] 대신하여 그 부중을 다스렸는데, [그는] 同羅部 및 僕固部和 함께 [당]의 변경을 습격하였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左武衛大將軍 鄭仁泰를 鐵勒道行軍大總管으로 삼고, 燕然都護 劉審禮와 左武衛將軍 薛仁貴를 副將으로 삼았으며, 鴻臚卿 蕭嗣業을 仙愕道行軍總管으로 삼고, 右屯衛將軍 孫仁師를 부장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군대를 거느리도록 하여 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¹²²⁾

용삭 원년인 661년 10월부터 ‘반당’의 반란이 철륵 제부 전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 661년 10월에 발생한 반란은 그

120) 당 靈州의 치소는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靈武縣 서남쪽이었다.

121) 이때 이 4부가 막남의 靈州 이북 일대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때 左武威大將軍 鄭仁泰는 靈州都督이었다고 한다. 楊聖敏, 1991, 앞의 글, 73쪽. 1972년 陝西省 醴泉縣에서 정인태의 墓葬이 출토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그의 墓誌銘에 의하면 정인태는 고종 永徽 4년(653)부터 靈州都督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白述禮, 2006, 『大唐靈州鎮將』,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58~62쪽.

122)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龍朔 원년조」, 6326쪽, “十月, 回紇酋長婆閏卒, 姪比粟毒代領其衆, 與同羅·僕固犯邊, 詔左武衛大將軍鄭仁泰爲鐵勒道行軍大總管, 燕然都護劉審禮·左武衛將軍薛仁貴爲副, 鴻臚卿蕭嗣業爲仙愕道行軍總管, 右屯衛將軍孫仁師爲副, 將兵討之”.

규모가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점이다. 이전 660년 8월에 철륵의 사절부를 비롯한 4부가 당의 영주를 침범했을 때에는 영주도독인 정인태가 홀로 이들을 격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총사령관인 철륵도행군대총관 정인태를 비롯하여 연연도호 유심례,¹²³⁾ 좌무위장군 설인귀, 홍려경 소사업, 좌둔위장군 손인사, 5명의 장군이 반란 진압에 나섰다.¹²⁴⁾ (2) 661년 9월에

123) 『舊唐書』 권77, 「劉德威傳 附 劉審禮傳」, 2677쪽에 “永徽中, 累遷將作大監, 兼檢校燕然都護, 襲封彭城郡公”이라는 기사가 있어 劉審禮는 永徽年間, 즉 650~655년부터 ‘檢校燕然都護’로서 燕然都護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4) 『新唐書』 권3, 「高宗紀 - 龍朔 원년조」, 61쪽에는 “十月癸酉, 如東都. 鄭仁泰爲鐵勒道行軍大總管, 蕭嗣業爲仙峒道行軍大總管, 左驍衛大將軍阿史那忠爲長岑道行軍大總管, 以伐鐵勒”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左驍衛大將軍阿史那忠爲長岑道行軍大總管, 以伐鐵勒”은 잘못된 기사다. 왜냐하면,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阿史那忠 1」(156쪽)에서 “屬興師遼碣, 以公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元戎長驅, 天威遐暢. 三山因之而波瀾, 九種以之而震驚. 契丹在白狼之東, 居黃龍之右, 近侵世服, 外結烏夷, 公迴師誅翦, 應機殄滅, 虜獲萬計, 三軍無私, 蒙賞兼帛, 仍於羽林軍檢校”로 기재되어 있고, 「阿史那忠 2」(162쪽)에서는 “顯慶五年(660), 詔爲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 辰韓倭擾, 從旆除殘. 契丹縱毒, 迴戈拯亂. 劉玄兎之遊魂, 覆黃龍之巨, 孽亦旣至止. 恩賞兼隆”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阿史那忠(611~675)이 長岑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된 시기는 顯慶 5년(660)이고, ‘長岑道’가 가리키는 원정 방향은 북쪽의 鐵勒이 아니라, 동방의 고구려이기 때문이다. 즉 660년 10월에 阿史那忠은 [使持節]長岑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되어 고구려 정벌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거란이 당에 반란을 일으켜서 660년 5월에 당이 定襄都督 阿史德樞賓을 沙磧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여 당에 반란을 일으킨 契丹을 토벌하러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당은 고구려 원정에 나선 長岑道行軍大總管 阿史那忠에게 거란을 토벌하고 있던 阿史德樞賓을 지원하도록 명령함으로써, 阿史那忠은 거란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新唐書』 권3, 「高宗紀 - 顯慶 5년조」, 60~61쪽의 “五月戊辰, 定襄都督阿史德樞賓爲沙磧道行軍總管, 以伐契丹. 十二月, 阿史德樞賓及奚·契丹戰, 敗之”에서 볼 수 있듯이, 顯慶 5년(660) 5월에 거란의 반란을 진압하러 나선 진압군이 12월에 가서야 비로소 격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迴戈拯亂”은 長岑道行軍大總管 阿史那忠이 거란 진압을 도우러 나섰다는 것을 가리키는 기사다. 그 시기는 그가 長岑道行軍大總管에 임명되는 660년 10월 → 당의 고구려 정벌이 개시되는 같은 해 11월 → 阿史德樞賓이 거란을 토벌하여 격파하는 같은 해 12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長岑道는 『後漢書』 권52, 「崔駰傳」의 李賢注(1722쪽)에 “長岑, 縣, 屬樂浪郡, 其地在遼東”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 정벌에 참전한 회흘부 부족장 파운이 전선을 떠나서 몽골로 귀환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에 파운이 사망하고, 그를 계승한 회흘부 부족장 비속독¹²⁵⁾이 동라부와 복고부와 함께 당의 칙사를 죽이고¹²⁶⁾ 변경을 습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회흘부 내부에서의 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661년 4월에 당은 대규모 병력(35도군)을 동원하여 수륙으로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 수로군은 평양도행군대총관 소정방이 거느렸고, 육로군은 요동도행군대총관 설필하력이 거느렸다. 육로군의 주력은 설필하력이 거느리는 철록 설필부 별부의 부족군과 회흘부 부족장 파운이 거느리는 회흘부 부족군 등 당의 기미지배를 받는 유목 부족의 군대였다. 육로군은 이 해 9월에 압록강을 건너서 남생이 거느리는 고구려 정예 부대에게 대첩을 거두었지만 당 고종의 조서가 와서 갑자기 고구려 전선에서 철수하였고,¹²⁷⁾ 한 달 후인 10월에 파운이 사망하고 그를 계승한 비속독이 당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정리하자면, (1) 설필하력이 거느리는 육로군이 고구려 전선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철수하였고, (2) 한 달 후에 회흘부 부족장 파운이 사망하였으며, (3) 파운을 계승한 비속독이 당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용한 자료들에 의거하면 위의 세 사건들이 매우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세 사건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중심의 일원적 세계질서를 확립하려는 원대한 이상

125) 比粟毒이 철록 回紇部の 부족장으로 있던 기간은 661~680년이다.

126) 『册府元龜』 권986, 「外臣部 - 征討門5」, 11578쪽에 “龍朔 원년 10월에 철록이 칙사를 죽이고 反叛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7)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의 전개』,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64쪽은 『資治通鑑』, 「唐紀16 - 高宗 龍朔 원년 9월조」를 근거로 契苾何力이 고구려에서 철군한 이유로 당시 철록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설필하력을 그곳으로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근거로 삼은 『資治通鑑』에는 설필하력이 철록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철군했다는 기사는 물론 반란진압군의 장군 명단에 설필하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철군 기사와 철록 제부의 반란에 관한 기사가 잇달아 있기 때문에, 당 육로군의 철군이 철록 제부의 반란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시사는 해주고 있다.

을 가지고 고구려 원정에 나선 군대가 대첩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철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¹²⁸⁾ 그것은 전쟁을 수행중인 군대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속적인 세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660년 8월부터 시작된 철륵 제부의 반란은 마침내 그 수부인 회흘부에도 영향을 미쳐 회흘부 역시 반란에 가담하게 된다. 그 시기는 회흘부의 부족장인 파운이 회흘군을 거느리고 고구려 정벌에 나선 661년 4월 이후라는 것은 분명하다. 즉 부족장 파운이 몽골을 떠나서 고구려 전선으로 출정한 이후에 그 본거인 몽골에 남아 있던 회흘부의 일부 반당파들이 다른 철륵 제부의 반란에 동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곧바로 고구려 원정 중에 있던 부족장 파운을 비롯한 회흘군에게 알려지면서 당연히 회흘군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회흘군은 설필하력이 거느리는 육로군의 주력 중의 하나다. 따라서 회흘군의 동요는 자연히 육로군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육로군 내부에서 회흘군이 전선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공포도 생겼을 것이다. 이에 당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육로군을 고구려 전선에서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661년 9월 고구려 전선에서 철수하여 몽골로 귀환한 친당파인 회흘부 부족장 파운은 회흘부 내의 반당파를 제압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당파 제압에 실패하면서 도리어 그들에 의해 부족장의 지위를 잃고, 귀환한 지 한 달 만에 결국 사망했을 것이다. 그를 계승하여 회흘부 부족장이 된 파운의 조카 비속독은 다른 철륵 제부의 반당 반란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아가

128) 그로 말미암아 李基白, 1982, 「新羅의 半島 統一과 渤海의 建國」, 李基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I [古代篇]』, 一潮閣, 295쪽은 “契苾何力이 거느린 육로군은 男生의 군대에 막혀 압록강을 넘지 못하였고”라고 기술할 정도로 해당 사료를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기백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철릭 제부 수부인 회흘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반란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661년 10월 철릭의 수부인 회흘부를 위시한 철릭 제부가 당의 기미 지배에 저항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자, 당은 정인태를 토벌군 사령관인 철릭도행군대총관에 임명하고 그 휘하에 5명의 장군을 배속시킨 토벌군을 편성한다. 토벌군은 편성된 지 5개월 후인 662년 3월에 큰 전과를 올린다. 『책부원귀』 「외신부 - 정토문(征討門)5」와 『구당서』 「회흘전」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18] - [龍朔] 2년 3월에 鄭仁泰와 薛仁貴 등이 天山에서 鐵勒 부중을 격파하였다. 당시 철릭에는 思結部和 多臘葛部 등의 부락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전부터 천산에서 부락을 지키고 있었다. 정인태 등이 장차 [그들 지역으로] 도착한다고 하자, [이들] 역시 사람을 보내어 항복하였다. [그러나] 정인태 등이 병사들을 모아서 이들을 격파하고 그 가구를 포로로 잡아서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이에] 이들이 마침내 서로를 이끌어서 멀리 달아났다.¹²⁹⁾

[19] - 龍朔年間에 婆閏이 죽자 조카인 比粟毒이 부족장이 되어 迴鶻 부중을 다스렸다. [그는] 同羅部 및 僕固部和 함께 [당의] 변경을 침범하였다. 고종이 鄭仁泰에게 복고부 등을 토벌하여 평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비속독이 패하여 달아났다. 이것을 계기로 鐵勒의 本部를 天山縣으로 이름을 바꾸었다.¹³⁰⁾

129) 『冊府元龜』 권986, 「外臣部 - 征討門5」, 11578쪽, “[龍朔]二年, 三月, 鄭仁泰·薛仁貴等破鐵勒之衆於天山, 時鐵勒有思結·多臘葛等部落, 先保天山, 及[鄭]仁泰等將至, 亦送降款, [鄭]仁泰等結兵擊之, 虜其家口, 以賞軍士, 賊乃相率遠遁”.

130) 『舊唐書』 권195, 「迴紇傳」, 5197~5198쪽, “龍朔中, 婆閏死, 姪比粟毒主領迴鶻, 與同羅·僕固犯邊, 高宗命鄭仁泰討平僕固等, 比粟毒敗走, 因以鐵勒本部爲天山縣”.

즉 용삭 2년(662) 3월¹³¹⁾에 정인태와 설인귀가 이끄는 당의 토벌군이 天山 즉 몽골의 향가이산맥¹³²⁾까지 북진하자 철륵의 사결부¹³³⁾와 다랍갈부¹³⁴⁾ 등이 사람을 보내어 항복했지만, 정인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그 부중을 포로로 잡아서 휘하의 병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에 회흘부 부족장 비속독은 그 부중과 함께 북쪽으로 달아났고, 당은 철륵 제부의 본부인 회흘부의 유목 지역을 천산현¹³⁵⁾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의 군현으로 편입하였다. 이에 철륵 부중이 토벌군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나자 토벌군도 그들을 추격하여 북진한다. 『신당서(新唐書)』 「설인귀전(薛仁貴傳)」에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20] - 철륵은 思結部와 多濫葛部 등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전부

터 天山에서 부락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鄭仁泰가 [그들 부락에] 도착하자 두려워서 항복하였다. 정인태는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병사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이에] 이들은 서로를 이끌고 멀리 달아났다. 候騎가 정인태에게 ‘오랑캐는 가족들이 들판에 퍼져서 풀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131) 『新唐書』 권3, 「高宗紀」, 62쪽, “龍朔二年, 三月庚寅, 鄭仁泰及鐵勒戰于天山, 敗之”.

132) 전한시대 이래 한문 사료에서는 대부분 ‘燕然山’으로 표기되었다. 佐藤長, 2000, 「匈奴の若干の地名について」, 『中國古代史論考』, 京都: 朋友書店, 342~343쪽.

133) 몽골 중부의 톨라강(Tola R.) 북방 초원지대가 이 부족의 유목지대였다.

134) 몽골 중부의 톨라강 유역이 이 부족의 유목지대였다.

135) ‘回紇部の 목지인 철륵의 본부를 天山縣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662년 무렵에 회흘부의 아장이 天山, 즉 향가이산맥과 오르콘강 상류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곳은 이전에 몽골의 覇者였던 突厥第一可汗國과 薛延陀可汗國의 可汗庭이 있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몽골의 유목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외튀켄산(Ötükan-yış, 於都斤山=烏德健山)이 있던 곳이다. 따라서 이전에 셀렝가강(娑陵水, 仙萼河, 仙娥河) 유역에 본거를 두고 유목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회흘부가 이곳으로 이동하여 아장을 설치한 것은 비록 647년부터 당의 기미지배를 받게 되어 그 부족장이 可汗을 칭하지는 못했지만, 회흘부가 662년 이전부터 철륵 제부의 수부로서의 지위를 자타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간다면 [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¹³⁶⁾라고 말하자, 정인태가 14,000명의 갑옷을 입은 병사들을 선발하여 내달리게 하니, [그들은] 大漠을 가로질러서 仙萼河에 도착하였지만, 오랑개는 발견하지 못하고 군량만 모두 떨어져서 돌아오게 되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서로 잡아먹었고, 들어왔을 즈음에는 살아남은 병사들이 겨우 20명 중에 1명뿐이었다. 설인귀 역시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의 여자를 취하여 첩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많이 거두어서 뇌물로 써버렸기 때문에, 有司에게 劾奏당했지만 전공이 있었기에 용서를 받았다.¹³⁷⁾

즉 정인태와 설인귀가 거느리는 당의 토벌군은 철록 부중을 추격하여 천산, 즉 향가이산맥에서 선악하(仙萼河), 즉 셀렝가강¹³⁸⁾까지 북진하였다. 그러나 철록 부중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속 그들을 찾아서 추격하다가 원정 거리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군량이 떨어졌고 병사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병사들 상호 간에 서로 잡아먹는 식인의 참상이 벌어졌다. 그 결과 정벌군 14,000명 중에서 겨우 20분의 1만이 살아서 귀환하였다. 결국 철록 제부의 반란을 진압하려던 정인태와 설인귀의 토벌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하여 사령관 정인태는 물론 토벌 중에 개인적 비리와 잔혹 행위를 저지른 설인귀도 귀환하자마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특히 사헌대부(司憲大夫) 양덕예(楊德裔)는 이들을

136)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高宗 龍朔 2년조」, 6328쪽에서는 “三月, 候騎告 [鄭]仁泰, ‘虜輜重在近, 往可取也’”로 기재되어 있다.

137) 『新唐書』 권111, 「薛仁貴傳」, 4141쪽, “鐵勒有思結·多濫葛等部, 先保天山, 及 [鄭]仁泰至, 懼而降, [鄭]仁泰不納, 虜其家以賞軍, 賊相率遁去. 有候騎言鄭仁泰, ‘虜重畜牧被野, 可往取.’ [鄭]仁泰選萬四千卷甲馳, 絕大漠, 至仙萼河, 不見虜, 糧盡還. 人飢相食, 比入塞, 餘兵纔二十之一. [薛]仁貴亦取所部爲妾, 多納賂遺, 爲有司劾奏, 以功見原”.

138) ‘仙萼河’, 즉 셀렝가강은 『舊唐書』 권195, 「迴紇傳」, 5195쪽에서는 ‘娑陵水’, 『新唐書』 권43(下), 「地理志7(下) - 羈糜州」, 1148쪽에서는 ‘仙娥河’로 기재되어 있다. 『唐會要』 권98, 「回紇條」, 1743쪽, “回紇在薛延陀北境, 居近娑陵水” 중의 ‘娑陵水’는 ‘娑陵水’의 판각의 실수일 것이다.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탄핵하는 주문(奏文)을 올렸다.¹³⁹⁾

정인태와 설인귀가 662년 3월에 거행한 철록 제부에 대한 토벌이 실패한 후 당 조정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철록 반란을 진압하는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철록 부중이 토벌군에게 항복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여 격파하고 그 부중을 병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주는 비정한 행위를 저질러 철록 부중이 도망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쉽게 반란을 진압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고 도리어 수많은 병사들을 잃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¹⁴⁰⁾

그에 따라 당은 철록 부중에 대한 안무(按撫)를 통하여 철록 제부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전략으로 바꾸고 철록 설필부 출신의 설필하력을 철록도안무대사(鐵勒道按撫大使)에 임명하여 철록에 파견한다. 『신당서』 「계필하력전」은 당시 설필하력이 어떻게 철록 부중을 안무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21] - 당시 鐵勒九姓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契苾何力을 [鐵勒道]按撫大使로 삼았다. 설필하력이 輕騎 500명을 거느리고 철록 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하자, 오랑개들이 크게 놀랐다.

139) 『資治通鑑』 권200, 「唐紀16 - 高宗 龍朔 2년조」, 6328쪽, “三月, 軍還, 司憲大夫楊德裔劾奏, 「[鄭]仁泰等誅殺已降, 使虜逃散, 不撫士卒, 不計資糧, 遂使骸骨蔽也, 棄甲資寇, 自聖朝開創以來, 未有如今日之喪敗者. [薛]仁貴於所監臨, 貪淫自恣, 雖矜所得, 不補所喪, 並請付法司推料”.

140) 그것은 『唐會要』 권61, 「御史臺(中) - 彈劾條」, 1068~1069쪽, “龍朔二年三月, 鐵勒道行軍大總管鄭仁泰薛仁貴, 殺降九十餘萬, 更就嶺北討其餘衆, 遇大雪, 兵士糧盡, 冬餓死者十八九. 御史大夫 楊德裔劾奏曰, 謹按仁泰, 猥以非才, 謬荷拔擢, 擁旌瀚海, 問罪天山, 理應虔奉廟算, 恭行天罰, 而褊心無謀, 短懷復諫, 乃肆兇殘, 恣行殺戮. 同若大軍初到, 明諭天旨, 撫納前降, 招來後服, 則鐵勒反善, 不日斯平. 仁泰素闕遠圖, 莫曉機事, 師徒無紀, 軍令不明, 遂使稽顙屈膝者, 被塗炭之誅, 懼死懷生者, 因成絕漠之計. 加以沙塞綿邈, 風雪嚴凝, 不量士馬疲疴, 不度糧食多少, 乃令班師, 凍餒征夫, 殞斃士馬, 骸骨委積, 剝剔縱橫, 暴骨交衢, 下實泉壤, 深可悼恤, 成規失守, 明罰所誅, 自聖朝削平天下以來, 未有如仁泰此行, 損威挫銳之甚. 仁貴貪殘有素, 平允乖方, 縱矜所得, 不補所喪, 豈可並資誣罔, 不寘準繩, 撫悼存亡, 理宜懲肅 其仁泰等故殺降人, 餓殺兵士, 並請付法, 以申典憲”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설필하력이 그들을 혼계하면서 말하였다. ‘조정이 알면서 잘못을 저질렀겠는가? 마침내 [조정] 태도를 바꾸었다. 나를 시켜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 죄는 흉악한 마음을 가진 渠帥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을 잡을 뿐이다.’ 철릭구성의 부중들이 크게 기뻐하자 그들과 함께 가짜 야브구(yabvu, 葉護)와 티긴(tigin, 特勤) 등 200명을 사로잡아서 귀환하였다. 설필하력은 그들의 죄를 헤아려서 말한 후 그들을 죽였다. [이에] 남아있던 철릭 부중이 마침내 안정되었다. [설필하력은] 사졸로서 길에서 죽은 자들은 [시체를] 수습하여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자들을 찾아서 구호하도록 명령하였다.¹⁴¹⁾

[21]의 “남아있던 철릭 부중이 마침내 안정되었다”라는 기사는 철릭 부중에 대한 설필하력의 안무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철릭도안무대사 설필하력이 철릭 부중을 안무한 후에도 철릭 제부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된 것은 아니었다. 『구당서』 「고종기-용삭 3년조」를 살펴보자.

[22] - 봄 정월에 左武威大將軍 鄭仁泰 등의 장수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철릭의 나머지 種落을 토벌하여 철릭 제부의 반란을 모두 평정하였다.¹⁴²⁾

당에 대한 철릭 제부의 반란은 좌무위대장군 정인태 등이 철릭의 나머지 세

141) 『新唐書』 권110, 「契苾何力傳」, 4119~4120쪽, “時鐵勒九姓叛, 詔[契苾]何力爲按撫大使, [契苾]何力以輕騎五百馳入其部, 虜大驚. 契苾何力曰, ‘朝家知而誑誤, 遂及翻動, 使我貴爾過, 得自新, 罪在凶渠, 取之則已.’ 九姓大喜, 共擒僞葉護及特勤等二百人以歸, [契苾]何力數其罪, 誅之. 餘衆遂安. 士卒道死者, 令所在收瘞, 鑿護其家”.

142) 『舊唐書』 권4, 「高宗紀-龍朔 3년조」, 84~85쪽, “春正月, 左武衛大將軍鄭仁泰等帥師討鐵勒餘種, 盡平之”.

력을 토벌한 용삭(龍朔) 3년인 663년 정월에 비로소 평정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대략 660년(현경 5년) 8월부터 663년 정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단속적으로 전개된 철륵 제부의 반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663년 정월에 반란이 완전히 평정되자, 당은 그 다음 달 2월에 막북(외몽골)의 철륵 제부와 함께 막남(내몽골)의 돌궐 제부에 대한 기미지배를 이전에 비해서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즉 당은 647년부터 막북의 철륵 제부를 통감하는 기관으로서 막남의 옛 단우대(單于臺)¹⁴³⁾에 있던 연연도호부(燕然都護府)를 한해도호부(瀚海都護府)로 개명하고 그 소재지도 막북의 오르콘강 유역의 회흘부로 옮겨서 철륵 제부에 대한 기미지배를 통감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흘부에 있던 한해도독부는 운중도호부(雲中都護府)로 개명하여 막남의 운중고성(雲中故城)¹⁴⁴⁾으로 옮겨 돌궐 제부에 대한 기미지배를 통감하도록 하였다.¹⁴⁵⁾ 개편의 핵심은 막북의 철륵 제부에 설치한 기미부주를 총괄하는 기관인 연연도호부를 이전에는 현지에서 멀리 떨어진 막남에 설치했지만, 그 기관인 한해도호부를 막북의 현지로 옮김으로써 철륵 제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다시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막남에 운중도호부를 신설한 것은 돌궐 제부에 설치한 기미주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여 역시 이들이 철륵 제부와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661년 7~8월부터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는 당군을 물러나게 하려고 '고구려와 철륵의 연합'을 목표로 662년 2월 무렵에 몽골의 철륵으로 간 '조우관사절'은 언제 몽골을 떠나서 사마르칸트로 갔을까? 그 시기는 몽골에 도착한 '조우관사절'이 철륵 제부의 반란 경과를 관찰하면서 '고구려와 철륵의 연합'이 절망적이라고 판단했을 시기였을 것으로 보

143)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烏拉特後旗 烏加河 北岸으로 비정되고 있다.

144)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和林格爾縣 서북쪽의 土城으로 비정되고 있다.

145) 『唐會要』 권73, 「安北都護府條」, 1315쪽, “龍朔三年, 二月十五日, 移燕然都護府於回紇部落, 仍改名瀚海都護府. 其舊瀚海都督府移置雲中故城, 改雲中都護府. 仍以嶺爲界, 嶺北諸蕃州, 悉隸瀚海, 嶺南並隸雲中”.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우관사절’은 철록 제부의 반란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서 그들의 사명인 ‘고구려와 철록의 연합’이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또다시 고구려와 연합할 새로운 세력을 찾아서 사마르칸트로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조우관사절’과 동행한 사람들은 몽골의 철록 지역에서 왕성하게 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소그드 상인들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조우관사절’이 몽골의 철록을 떠난 시기는 당의 토벌군이 항가이 산맥에 진입한 662년 3월이나 정인태 등에 의해 철록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는 663년 정월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조우관사절’이 철록을 떠나서 사마르칸트로 들어간 시기는 철록을 떠난 지 늦어도 대략 3개월 정도 지난 662년 6월 혹은 663년 4월 무렵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시아브 궁전지 서벽에 ‘조우관사절’이 그려진 시기에 대해서도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 벽화가 제작된 시기를 비정한 바 있다. 립시츠(V. Livshits)는 640년대, 모데(M. Mode)는 649년, 김원룡(金元龍)과 최광식(崔光植)은 7세기 중엽의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후만이 당으로부터 강거도독에 책봉된 시기, 권영필(權寧弼)은 651~657년, 아나자와 와코우[穴澤味光]는 7세기 중엽으로 660년 이전, 그르네(F. Grenet)는 660년, 야트센코(S. A. Yatsenko)는 662년, 정수일(鄭守一)은 666년 직전, 마르샤크(B. I. Marshak)는 666년 무렵, 알바움(L. I. Al'baum)은 7세기 후반, 노태돈(盧泰敦)은 7세기 후반~8세기 초로 추정하였다.¹⁴⁶⁾

그러나 필자는 ‘조우관사절’이 아프리카시아브 궁전지 벽화에 그려진 시기는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로 들어간 662년 6월 혹은 663년 4월 무렵부터 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의 치세 마지막 해인 675년¹⁴⁷⁾까지로 비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6) 권영필, 2011, 「아프라시아 별궁 벽화와 고구려 사절」,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두성북스, 164쪽.

147) 7세기 말~8세기 초의 역사가자인 아크바르(Akbar)가 쓴 아랍 문헌에 675년 아랍인이 침입하자 사마르칸트의 왕인 바르후만이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

V. 맺음말

지금까지 대략 7세기 4분의 3분기 무렵 고구려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로 간 원인, 과정 그리고 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대강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제2장에서는 ‘조우관사절’이 사행한 7세기 중반까지의 사마르칸트의 정황과 당이 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을 강제도독에 책봉한 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사마르칸트와 주변 제국, 즉 서돌궐을 비롯한 중국의 수당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당시 사마르칸트의 정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마르칸트는 돌궐제일카간국이 성립한 552년부터 서돌궐이 멸망하는 657년까지 서돌궐이 준가리아와 제티수를 장악하고 그 영향력을 서쪽의 소그디아나로 확대하면서 그 중추권 아래 앞드려 있었다. 특히 서돌궐에서 타르두 카간과 톤야브구 카간과 같이 강력한 카간이 등장했을 때에는 서돌궐 카간이 사마르칸트 왕과 장인과 사위관계를 맺어서 사마르칸트를 더욱 강하게 예속시켰다. 사마르칸트와 당과의 관계는 624년부터 사마르칸트가 당에 조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630년에 돌궐제일카간국이 멸망한 이후다. 사마르칸트가 당의 기미지배체제에 편입된 658년 이전에도 당과 사마르칸트, 양국관계는 비교적 활발하였다. 그러나 사마르칸트에 대한 당의 기미지배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사마르칸트인은 상업민족으로서 몽골과

675년 이후에는 사마르칸트에 지배자가 없는 시기라고 하므로 바르후만의 치세는 675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권영필, 2011, 위의 글, 148~162쪽; A. M. Belenitskii & B. I. Marshak, 1981, *The Patings of Sogdiana, Guitty Azarpay, Sogdian Painting - the Pictorial Epic in Oriental Art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47~48; Matteo Compareti, 2009, “Remarks on the Sogdian Religious Iconography in 7th Century Samarkand”, *The Art of Central Asia and the Indian Sub - Continent*, National Museum Institute, New Delhi, p.192. 역시 바르후만의 치세를 675년까지로 보고 있다.

중국 각지에 나가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고구려에서 사절을 파견한다면, 그들의 상업망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여 환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당이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후만을 강거도독에 책봉한 연도가 『신당서』의 기록대로 고종 영희년간인 650~655년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이 연대는 아프리카 공전지 벽화의 제작 연대, 제작을 지시한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후만의 재위 기간 및 고구려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사행한 시기 등을 비정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되던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희 연간은 『당회요』와 『책부원귀』에 의해 오기로 판명되었고, 당이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후만을 강거도독에 임명한 시기는 당에 의해서 서돌궐가간국이 멸망한 이후인 고종 현경 3년(658)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조우관사절’이 몽골(막북)의 철륵으로 사행하게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660년 백제를 멸망시킨 당은 그 기세를 이어 오랜 목표인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질서를 확립하고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660년 12월부터 고구려 정벌을 준비하여 마침내 661년 4월에 35도군을 편성하였다. 재상이자 병부상서인 임아상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설필하력을 육로군 사령관에 임명하고, 소정방을 수로군 사령관에 임명하여 수륙으로 고구려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소정방이 이끈 수로군은 이 해 7~8월부터 이듬해인 662년 3월까지 7~8개월 간이나 평양성을 포위하였고, 661년 9월 설필하력의 육로군은 압록강 유역에서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거느리는 고구려 정예 부대에게 대첩을 거두었다. 더군다나 644년 7월 여당전쟁이 시작된 이후 당이 계속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평양성이 포위된 것은 처음이었다. 고구려로서는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친정한 이후 최대의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실권자 연개소문은 바다 건너 왜에 파병을 요청한 데 이어 당시 당의 기미지배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철륵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때 철륵에 파견된 고구려의 사절이 바로 아프리카시아브 공전지 벽화에 그려져 있는 ‘조우관사절’이다. ‘조우관사절’은 소정방의 수로군이 잠시 평양성에

대한 포위를 푼 662년(보장왕 21) 2월 무렵에 고구려를 출발하여 철륵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제4장에서는 당의 기미지배에 저항한 철륵 제부가 반란을 일으킨 원인과 반란의 전개 과정 및 당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고찰한 후 다음으로 그 과정에서 철륵에 도착한 '조우관사절'이 철륵에서 사마르칸트로 출발한 시기 등에 대하여 비정해 보았다. 철륵 제부의 일부가 당에 대하여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660년 8월이다. 철륵의 반란이 그 수부인 회흘부를 위시한 철륵 제부 전체에 걸쳐 번진 것은 661년 9월에 고구려 정벌군인 설필하력의 육로군의 주력인 회흘부 부족장 파운이 거느리는 회흘군이 그들의 고향인 몽골로 철수한 지 한 달 후인 661년 10월이었다. 이에 당도 철륵도행군대장군 정인태를 사령관으로 하여 5명의 장군으로 구성된 토벌군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철륵의 반란을 진압하려 나섰다. 그 결과 사령관 정인태와 부사령관 설인귀가 거느리는 토벌군은 662년 3월에 향가이산맥까지 북진하여 철륵 부중을 격파하고 많은 철륵 부중들을 죽였다. 이에 철륵 부중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정인태와 설인귀는 이들을 쫓아서 셀렝가강 유역까지 추격하였다. 그러나 월정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군량이 떨어져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당군 내부에서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의 참극까지 발생하여 당의 토벌군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철륵 반란에 대한 당의 진압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진압에 실패한 당은 그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것은 무력이 아닌 철륵 부중을 안무하는 방법이었다. 설필하력이 철륵도안무대사로 파견되어 철륵 제부를 안무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철륵의 반란은 점차 기세가 사그라들다가, 마침내 663년 정월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에 따라 연개소문이 고구려와 철륵의 연합을 통해 당군의 평양성 포위를 풀기 위해 철륵으로 파견한 '조우관사절'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조우관사절'은 몽골의 철륵을 떠나서 서쪽의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시기는 당의 토벌군이 향가이산맥에 진입한 662년 3월 혹은 철륵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는 663년 정월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간 시기는 철륵을 떠난 지 늦어도 대략 3개월 정도가 지난 662년 6월 혹은

663년 4월 무렵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에 ‘조우관사절’이 그려진 시기는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로 들어간 662년 6월 혹은 663년 4월 무렵부터 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의 치세 마지막 해인 675년까지로 비정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벽화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 주요한 연구의 대부분은 미술사 분야의 것으로 벽화의 전체 내용이나 제작 시기 그리고 ‘조우관사절’을 비롯한 벽화에 등장하는 사절들의 국가나 지역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 글은 처음으로 역사학적 시각에서 고구려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온 이유와 배경 그리고 시기 등을 고찰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우관사절’의 그림만 남아 전해지고 있을 뿐 관련 문헌사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글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많은 부분을 당시의 정황에 의거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사료

-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고구려연구재단, 2005).
- 『舊唐書』(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唐會要』(1989, 臺北: 世界書局 全3冊 標點本).
- 『史記』(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三國史記』(정구복 등, 2011, 『역주 삼국사기(1~5)』, 한국중앙연구원출판부).
- 『隋書』(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新唐書』(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日本書紀』(연민수 등, 2013, 『역주 일본서기(1~3)』, 동북아역사재단).
- 『資治通鑑』(楊家駱 主編, 1980, 臺北 世界書局 全16冊 『新校資治通鑑注』).
- 『冊府元龜』(1982, 北京: 中華書局 全12冊 影印本).
- 『通典』(1988,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漢書』(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後漢書』(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논저

- 권영필, 2011, 『문명의 충돌과 미술의 화해』, 두성북스.
- 나가사와 가즈도시 지음, 이재성 옮김, 1990,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民族社.
- 노중국, 2004,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르네 그루셰(René Grousset)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 李基白, 1982, 「新羅의 半島 統一과 渤海의 建國」, 李基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I[古代篇]』, 一潮閣.
- 이재성, 2011, 「麗唐戰爭과 契丹·奚」, 『中國古中世史研究』 26.
- 이재성, 2013, 「아프라시아 宮殿지 壁畫의 ‘鳥羽冠使節’에 관한 고찰-高句麗에서 사마르칸트(康國)까지의 路線에 대하여-」, 『중앙아시아研究』 18-2.
- 정재훈, 2005,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학과지성사.
- 段連勤, 1988, 『隋唐時期的薛延陀』, 西安: 三秦出版社.

- 白述禮, 2006, 『大唐靈州鎮將』,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 薛宗正, 2005, 『中亞內陸大唐帝國』,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 楊聖敏, 1991, 『回紇史』,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 余太山 主編, 1996, 『西域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 余太山, 1986, 『嚙噠史研究』, 濟南: 齊魯書社.
- 榮新江, 2001, 「胡人遷徙与聚落」, 『中古中國与外來文明』, 北京: 三聯書店.
- 吳玉貴, 1998, 『突厥汗國与隋唐關係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統, 1998, 『唐代羈縻府州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 蔡鴻生, 1998, 『唐代九姓胡与突厥文化』, 北京: 中華書局.
- 馮承鈞 原編, 陸峻嶺 增訂, 1982, 『西域地名(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 內藤みどり, 1975, 「エフタル民族とその發展」, 松田壽男博士古稀記念出版委員會 編, 『東西文化交流史』, 東京: 雄山閣.
- 內藤みどり, 1977, 「エフタルの種族問題」, 『史觀』97冊.
- 內藤みどり, 1988, 『西突厥史の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 內田吟風, 1975, 「西突厥初世史の研究」, 『北アジア史研究(鮮卑柔然突厥編)』, 京都: 同朋舎.
- 白鳥庫吉, 1912, 「東胡民族考(第9回)」, 『史學雜誌』23-3.
- 森部豊, 2010, 「北中國東部におけるソグド人の活動と聚落の形成」, 『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ユーラシア世界の歴史的展開』, 吹田 關西大學出版部.
- 森安孝夫, 2007, 「ソグド人の登場」,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興亡の世界史05)』, 東京: 講談社.
- 愛宕松男, 1959, 「莫賀弗と辱紇主」, 『契丹古代史の研究』, 京都大學 東洋史研究會.
- 羽田明 等, 1991, 『西域(世界の歴史10)』, 東京: 河出書房新社.
- 羽田明, 1971, 「ソグド人の東方活動」, 『岩波講座 世界歴史6(古代6-東洋篇III)』, 東京: 岩波書店.
- 佐藤長, 2000, 「匈奴の若干の地名について」, 『中國古代史論考』, 京都: 朋友書店.
- 護雅夫, 1964, 「東突厥官稱號考-鐵勒諸部の俟利發と俟斤-」, 『東洋學報』46-3.
- 護雅夫, 1967,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I』, 東京: 山川出版社.
- 護雅夫・神田信夫 編, 1981, 『北アジア史(新版)』, 東京: 山川出版社.
- A. M. Belenitskii & B. I. Marshak, 1981, *The Patings of Sogdiana, Guitty Azarpay, Sogdian Painting - the Pictorial Epic in Oriental Art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Étienne de la Vaissière, translated James Ward, 2005, *Sogdian Traders*, Brill Leiden · Boston.

Guitty Azarpay, 1981, *Sogdian Painting – the Pictorial Epic in Oriental Art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tteo Compareti, 2009, “Remarks on the Sogdian Religious Iconnography in 7th Century Samarkand”, *The Art of Central Asia and the Indian Sub – Continent*, National Museum Institute, New Delhi.

National Museum Institute, 2009, *The Art of Central Asia and the Indian Sub – Continent*, New Delhi.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조우관사절(鳥羽冠使節)’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 과정 및 시기에 대한 고찰

이재성

이 글은 대략 7세기 4분의 3분기 무렵에 고구려 ‘조우관사절(鳥羽冠使節)’이 사마르칸트[康國]로 간 원인, 과정 및 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우관사절’이 사행(使行)한 7세기 중반까지의 사마르칸트의 정황과 당이 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을 강거도독(康居都督)에 책봉한 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사마르칸트는 돌궐제일카간국[東突厥]이 성립한 552년부터 서돌궐이 멸망하는 657년까지 서돌궐이 준가리아와 제티수를 장악하고 그 영향력을 서쪽의 소그디아나로 확대하면서 그 종주권 아래 엮드려 있었다. 특히 서돌궐에서 타르두 카간과 톤 야브구 카간과 같이 강력한 카간이 등장했을 때에는 서돌궐 카간이 사마르칸트 왕과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맺어 사마르칸트를 더욱 강하게 예속시켰다. 사마르칸트와 당과의 관계는 624년부터 사마르칸트가 당에 조공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양국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630년에 돌궐제일카간국이 멸망한 이후다. 사마르칸트가 당의 기미지배체(羈縻支配體制)에 편입된 당의 종주권이 확립된 658년 이전에도 당과 사마르칸트, 양국관계는 비교적 활발하였지만 사마르칸트에 대한 당의 기미지배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상업민족으로서 몽골과 중국 각지에 나가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고구려에서 사절을 파견한다면, 사마르칸트인들은 그들의 상업망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여 환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당이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후만을 강거도독에 책봉한 연도가 『신당서(新唐書)』 기록대로 고종 영휘년간(永徽年間)인 650~655년이 올바른 것

인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제작 연대,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후만의 재위 기간 및 고구려 '조우관사절'의 사행시기 등의 비정에 기준으로 사용되던 영휘년간은 『당회요(唐會要)』와 『책부원귀(冊府元龜)』에 의해 오기로 판명되었고, 당이 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을 강거도독에 임명한 시기는 당이 서돌궐카간국을 멸망시킨 이후인 고종 현경(顯慶) 3년(658)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조우관사절'이 몽골(막북)의 철륵으로 사행하게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시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660년 백제를 멸망시킨 당은 그 기세를 이어 오랜 목표인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세계질서를 확립하고자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661년 4월에 35도군을 편성하여 수륙으로 고구려를 향해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8월부터 이듬해인 662년 3월까지 7개월 동안이나 평양성을 포위하였고, 661년 9월에는 계필하력(契苾何力)의 육로군은 압록강 유역에서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거느리는 고구려 정예 부대에 대해 대첩을 거두었다. 644년 7월 여당전쟁 발발 이후 고구려는 최대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연개소문(淵蓋蘇文)은 왜에 파병을 요청한 데 이어 당시 당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철륵(鐵勒)과의 연합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이때 철륵에 파견된 고구려의 사절이 바로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에 그려져 있는 '조우관사절'이다. '조우관사절'은 소정방의 수로군이 잠시 평양성에 대한 포위를 푼 662년 2월 무렵에 고구려를 출발하여 철륵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제4장에서는 당의 기미지배에 저항한 철륵 제부가 반란을 일으킨 원인, 반란이 전개된 과정 및 당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과정에서 철륵에 도착한 '조우관사절'이 철륵에서 사마르칸트로 출발한 시기 등에 대하여 비정해 보았다. 철륵의 당에 대한 반란은 660년 8월 시작되었고, 철륵의 수부인 회흘부가 고향 몽골로 철수한 후 661년 10월 철륵 제부 전체로 번졌다. 이에 당도 토별군을 편성하여 대대적으로 철륵의 반란을 진압하려 나섰다. 그 결과 정인태와 설인귀가 거느리는 토별군은 662년 3월에 향가이산맥까지 북진하여 철륵 부중을 격파하고 셀렝가강까지 추격하였다. 그러나 원정 기간이

너무 길어져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식인의 참극까지 발생하자 당의 토벌군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당의 철륵 반란에 대한 진압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당은 방법을 바꾸었는데 계필하력이 철륵도안무대사(鐵勒道按撫大使)로 파견되어 철륵 제부를 안무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철륵의 반란은 점차 기세가 사그라들다가 마침내 663년 정월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에 따라 연개소문이 철륵과의 연합을 통해서 당군의 평양성 포위를 풀려고 파견한 ‘조우관사절’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조우관사절’은 철륵을 떠나서 서쪽의 소그디아나의 사마르칸트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시기는 당의 토벌군이 항가이산맥에 진입한 662년 3월 혹은 철륵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되는 663년 정월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간 시기는 철륵을 떠난 지 늦어도 대략 3개월 정도가 지난 662년 6월 혹은 663년 4월 무렵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아프리카시아브 궁전지 벽화에 ‘조우관사절’이 그려진 시기는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로 들어간 662년 6월 혹은 663년 4월 무렵부터 사마르칸트 왕 바르후만의 치세 마지막 해인 675년까지로 비정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아브 벽화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 주요한 연구의 대부분은 미술사 분야의 것이었다. 이 글은 처음으로 역사학적 시각에서 고구려 ‘조우관사절’이 사마르칸트에 온 이유, 배경 그리고 시기 등을 고찰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아브 궁전지 벽화, 조우관사절(鳥羽冠使節), 계필하력(契苾何力), 소정방(蘇定方), 철륵 제부(鐵勒諸部)의 반란, 연개소문(淵蓋蘇文)

[ABSTRACT]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鳥羽冠使節)” Image on the Wall Painting of the Afrasiab Palace Site in Samarkand: The Visit to Samarkand(康國), the Cause, the Process, and the Times

Yi Jaesung

This is a study of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image that appears on the wall painting at the Afrasiab Palace Site in Samarkand, and focuses on the embassy’s travel to Samarkand, the cause, the process, and the times.

First we examined why in the middle of the seventh century were embassies of Goguryeo(高句麗) dispatched, what was the situation, and when did the Tang(唐) Empire install Varkhumān(拂呼縵), the king of Samarkand, as one of its governors(Kangju - Dudu 康居都督). At that time, Samarkand was under the powerful dictatorship of the Khanate of the Western Tü - chüeh(西突厥可汗國), which extended its territory from early 552 until its collapse in 657, spreading its influence and potential power to Sogdiana. The galvaniz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markand and the Tang Empire through tribute was immediately followed by the collapse of the first khanate of the Tü - chüeh(突厥第一可汗國) in 630. A few decades later, the ruling power of the Khanate of the Western Tü - chüeh was returned to the Tang Empire after 657. That was confirmed by the so - called “loose - reign control”(羈縻支配) by the Tang Empire in 658, that installed Varkhumān, the king of Samarkand, as a governor. At

that time, however, the control of the Tang Empire over Samarkand was merely formal. Moreover, the people of Samarkand were mainly engaged in commercial trade, and they spread their range extensively to many regions of Mongolia and China. Thus, if Goguryeo had sent embassies to that area, the people of Samarkand would have been expected to have surely accepted and applauded embassies with the hope of further opportunities to enlarge their trade networks.

Second is the issue of when and why the officials depicted in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image were dispatched to the Türkish tribes in Mongolia. The reason was probably that the Tang Empire, which had defeated Baekje(百濟) in 660, was in high succession of established a long-cherished unification of the world order by China tried to destroy Goguryeo. Consequently, Tang raised a large force in the fourth lunar month of 661, appointed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War(兵部尙書) Ren Yashang(任雅相) as chief commander, Shiebiheri(契苾何力) as an army general, and Sudingfang(蘇定方) as a naval admiral and permitted them to simultaneously begin transgressions by land and by sea.

Thus, during the seven months from the eighth lunar month of 661 to the third lunar month of 662, the Pyeongyang city wall(平壤城) was under tight siege by the large forces of Sudingfang. In the ninth lunar month of 661, after their start, the soldiers achieved a great triumph over Goguryeo led by troops under the command of Namsaeng(男生), who was a son of Yeon Gaesomun(淵蓋蘇文). Unfortunately, less than twenty years later, Goguryeo faced the critical peril of national collapse after the invasion by Tang’s Emperor Taizu(太宗) in 645. To overcome this crisis, Yeon Gaesomun, the man in power, sent a messenger to ask for assistance from Japanese troops, and at

the same time he came up with an idea of uniting with the nomadic Türkish tribes(鐵勒諸部) of Mongolia against the “loose – reign control” of Tang. That was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image depicted in the wall painting in the Afrasiab Palace sent to Türk tribes as messengers of Goguryeo for affiliation. It may be supposed that by the time of the siege by Sudingfang’s forces in the second lunar month of 662, the messengers had left Goguryeo and had reached the Türkish tribes of Mongolia.

Third, the reason why Türkish tribes rebelled, what was the deployment of soldiers and the suppression, and the timing of the departure of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who reached the Türkish tribes in Mongolia, have been deeply researched. The first revolt of the Türkish tribes against the Tang Empire occurred in the eighth lunar month of 660. And the spread of the rebellion to the Uighurs(回紇部) and the entire Türkish tribe occurred in the tenth lunar month of 661, just one month after the cavalry soldiers led by Porun(婆閏) the attacking army troops in the ninth lunar month of 661, one month earlier, the Uighur spears of the Shiebiheri, of the chief of Uighurs, pulled back their forces into their hometown Mongolia. In response, the Tang Empire appointed General(大將軍) Zheng Rentai(鄭仁泰), who was a commander of the government forces, and he started to trample the rebellious Türk tribes. As a result, moving up to the Khangai Range in the third lunar month in 662, the commander Zheng Rentai and his assistant Shue Rengui(薛仁貴) demolished the Türkish tribes, killing innumerable people. Following the escaping Türkish tribes, Zheng Rentai and Shue Rengui traced them back up to the Selenge River area. But the extension of the expedition caused a lack of provisions and brought

many starving soldiers, and they even resorted to cannibalism. Thus, the attacking soldiers of the Tang Empire had no choice but to evacuate. In the end, the strategies to suppress Türkish tribes by the Tang empire failed, but the Tang Empire, appointing Shiebiheri as Pacification Commissioner - in - chief(按撫大事), tried to pacify the relationship. With time passing, the attitude of Türk tribal revolt diminished and in the first lunar month of 663 the whole suppressing operation came to a complete stop. Therefore, the embassy in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 image, with the intention of solving the critical situation of breaking Tang’s siege of the Pyeongyang city wall, could not accomplish its goals. Having had no way out, the embassy officials could not but switch the route from Mongolia of the Türk tribes to Samarkand of the Sogdians. That era could be tracked back to the third lunar month in 662, the time when Tang’s forces entered, or in the first lunar month of 663, the moment the rebellion of the Türkish tribes was completely suppressed.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at time, the time when th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arrived at Samarkand could date back to the seventh lunar month of 662 or to the fourth lunar month of 663, approximately three months after they had departed. Considering the context and the background, the time of the drawing of the wall painting of the Afrasiab Palace site of the Goguryeo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can be traced back to from the seventh lunar month in 662 or the fourth lunar month in 663 to 675, the last year of King Varkhumān of Samarkand’s rule.

Keywords

Samarkand, the Wall Painting of the Afrasiab Palace Site, “Embassy Officials with Feathers in Their Hats,” Shiebiheri, Sudingfang, the Turkish tribes revolt against the Tang Empire, Yeon Gaesomu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도왜인(渡倭人)

정재운 | 공주대학교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정착한 가와치[河内] 지역은 치카츠아스카[近飛鳥]라고 불리는 곳이다.¹⁾ 아스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다.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로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스카 문화는 7세기 스이코 천황[推古天皇] 무렵부터 정치의 중심지인 나라 분지 남쪽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로, 불교문화가 중심이다.

그런데 백제 성왕은 552년 노리사치계(怒利斯致契)를 왜에 보내 불상과 약간의 번개(幡蓋)와 경론(經論) 등을 보내주었다.²⁾ 이에 따라 6세기 말 아스카

※ 투고: 2016년 2월 18일, 심사 완료: 2016년 5월 2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1) 가와치 지역은 보다 넓은 공간 개념이고, 치카츠아스카 지역은 아스카 천 주변을 중심으로 한 좁은 지역을 지칭한다. 백제계 도왜인들은 가와치 지역에 두루 정착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치카츠아스카 지역이 밀집한 곳이라는 점에서 편의상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아스카'라는 용어로 백제계 도왜인들의 활동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日本書紀』19 欽明天皇 13年 겨울 10月條. 왜의 불교 전래 시기를 이때로 보나,

지역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飛鳥寺]가 건립되며,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아스카 지역에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이들 중 백제계 사찰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불교가 갖는 사회적 파장이다. 사찰을 지을 때 새로운 건축 기술이 도입되며, 불상과 탑 그리고 불화 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불 드리는 방식 등 전반적인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이코 시대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류지[法隆寺]를 건립할 정도로 불교문화가 융성해지기 시작하였다. 쇼메이 천황[舒明天皇] 때에는 백제 천 옆에 백제궁을 짓고, 구다라다이지[百濟大寺]를 지은 후 9층 탑을 지었다고 하니,³⁾ 가히 당시 백제 열풍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일본 아스카 문화를 불교 중심의 문화라 하고, 불교문화를 전래해 준 백제를 빠트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스카는 현재 치카즈아스카와 토오즈아스카[遠飛鳥] 지역 두 곳으로 나뉜다. 두 지역의 구별은 오사카 만에서 가깝고 먼 차이가 기준이다. 두 지역이 아스카라는 말을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은 백제계 도왜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스카 문화 형성에 백제계 도왜인들이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가와치 지역에서는 많은 백제계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며,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을 통해 백제계 성씨(姓氏)로 보이는 가계도 제법 보인다. 그렇지만 461년 개로왕의 명에 의해 파견된 곤지(昆支) 이외에 구체적인 인물을 사서(史書)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곤지의 정착지도 그를 모시는 아스카베[飛鳥戶] 신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유적과 유물, 그리고 성씨를 통해서만 확인된다. 반대로 문헌에서는 개략적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를 잘 연결시키면 백제계 도왜인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의해 538년으로 보는 설도 상존한다.

3) 『日本書紀』19 欽明天皇 13年條.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곤지 파견 이전에 백제계 도왜인들이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모습과 시기를 문헌의 검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토 정권의 일본 열도 통일에 기여한 대표적인 백제계 유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백제계 도왜인들이 한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가와치 지역에 파견된 좌현왕(左賢王) 곤지의 도왜 목적과 그가 백제계 도왜인들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제계 도왜인들에 대한 평가가 제고된다면 고대 한일관계사의 실체에 보다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문헌에 보이는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도왜인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백제계 도왜인들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중심의 천하관에서 서술된 기록이므로 설 불리 인용하기가 주저된다. 왜가 백제를 지배하였다는 왜곡된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해석과 취사선택만 할 수는 없다. 개별 기사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이해해야만 원래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의 저본이 된 원사료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곤지 이전에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A-1. 이때 백제왕의 종족인 酒君이 무례하였다. 이에 紀角宿禰가 백제왕을 질책하자 백제왕이 두려워하여 주군을 쇠사슬로 묶어 龔津彦에 팔려 보내 진상하였다. 이에 주군이 왔는데 石川錦織首許呂斯의 집에 도망하여 숨었다. 그리고 속여 말하길 “천황이 이미 신의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대에게 의탁하여 생활하고 싶다”고 하였다. 오랜 후

천황이 드디어 그 죄를 용서하였다.⁴⁾

2. 庚子朔에 依網屯倉의 阿弭古가 기이한 새를 잡아 천황에게 바치며 “신이 늘 그물을 쳐서 새를 잡아왔지만, 이러한 새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기이하여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은 주군을 불러 새를 보이며 “이것이 무슨 새인가”라고 하였다. 주군이 “이런 새는 백제에 많이 있습니다. 길들이면 사람을 잘 따릅니다. 또한 빨리 날아서 여러 가지 새를 잡습니다. 백제인들은 이 새를 俱知라 부릅니다[구지, 지금의 매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주군에게 주어 사육하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길들이 수 있었다. 곧 주군이 가죽 끈을 새의 다리에 매고, 작은 방울을 꼬리에 달아 팔뚝 위에 앉혀서 천황에게 바쳤다. 이 날에 百舌鳥野에 행차하여 사냥하였다. 그때 암꿩이 많이 날아올랐다. 이에 매를 놓아 잡게 하였다.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꿩을 잡았다. 이달에 처음으로 鷹甘部를 정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매 기르는 곳을 鷹甘邑이라 칭하였다.⁵⁾

사료 A-1에 보이는 주군(酒君)이라는 인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료에는 백제 왕족인 주군이 무례하여 사죄하러 일본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시 백제가 일본에 복속하였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서술⁶⁾로 왜곡된 기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제 왕족이 일본 열도에 간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중에서 사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백제와 왜의 정치적 편견을 배제하면, 주군이 일본 열도로 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가 일본 열도로 간 것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천황에 대한 무례(無禮)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추

4) 『日本書紀』11 仁德 41年 春 3月條.

5) 『日本書紀』11 仁德 43年 가을 9月條.

6) 池内宏, 1970, 「日本書紀の應神天皇ないし武烈天皇の間における半島の記事其一」,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18~119쪽.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무례’를 사용한 용례를 분석⁷⁾하면 왜에 간 이 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겠다. 다음의 자료는 『일본서기』 백제 관련 기사 중 무례가 나오는 경우를 모은 것이다.

B-1. 이 해 백제 辰斯王이 왕위에 있으면서 귀국의 천황에 예를 잃어버려 紀角宿禰·羽田矢代宿禰·石川宿禰·木菟宿禰를 보내 무례한 상황을 꾸짖었다. 이로 말미암아 백제국이 진사왕을 죽여 사죄하였다. 기각 숙네 등은 다시 阿花를 세워 왕으로 삼고 돌아왔다.⁸⁾

2. 봄 3월 백제인이 와서 조공하였다[『百濟記』에 다음과 같이 이른다. “아화왕이 왕위에 있으면서 귀국에 무례하여 枕彌多禮와 峴南·支侵·谷那 등 東韓의 땅을 빼앗았다. 이로써 왕자 直支를 天朝에 보내 신왕의 우호를 닦게 하였다.”⁹⁾

3. 백제 직지왕이 죽었다. 곧 그 아들인 久爾辛이 왕위에 올랐다. 왕의 나이가 어려 木滿致가 정권을 잡고, 왕의 어머니와 간음하여 무례한 행동이 많았다. 천황이 소문을 듣고 불렀다[『百濟記』에 다음과 같이 이른다. 목만치는 木羅斤賚가 신라를 토벌할 때 그 나라의 여자를 취하여 낳았다. 아버지의 공 때문에 임나에서 전횡하고, 우리나라로 들어 와서 귀국과 왕래하였다. 天朝의 조칙을 계승하여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아 권력이 당시 막강하였다. 그러나 천조가 그 횡포를 듣고 소환하였다].¹⁰⁾

7) 무례의 용례를 분석하여 사실을 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서보경, 2009, 「渡倭한 百濟系 韓人과 河內-百濟王族의 渡倭와 관련하여-」, 『史叢』 68, 13쪽)도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8) 『日本書紀』 10 應神天皇 3年條.

9) 『日本書紀』 10 應神天皇 8年條.

10) 『日本書紀』 10 應神天皇 25年條.

4. 여름 4월 백제 加須利君[蓋鹵王이다]은 池津媛[適稽女郎이다]을 태워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 상의하기를 “옛날 여자를 바쳐 采女로 삼았다. 그러나 이미 무례하여 우리나라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지금부터 여자를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어 그 아우인 軍君[昆支이다]에게 “너는 마땅히 일본에 가서 천황을 섬겨라”라고 말했다. 군군이 대답하기를 “임금님의 명령은 삼가 어길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임금님의 부인을 주신 이후에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가수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시집보내며 “나의 임신한 부인은 이미 해산할 달이 되었으니 만약 가는 도중에 낳는다면 한 배에 실어서 다다른 곳이 어디인지 불문하고 속히 나라로 돌려보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하고 삼가 조정에 파견되었다.¹¹⁾

사료 B-1에는 진사왕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자 백제가 왕을 죽여 사죄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처럼 진사왕의 죽음을 왜에 대한 무례로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구려의 침공으로부터 미숙한 대응 혹은 패전 후 사후 수습을 명분으로 진사왕이 제거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²⁾ 그렇다면, 진사왕의 죽음과 무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무례는 왜의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왜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을 시사해주는 때문이다. 이는 사료 B-2에서 확인된다. 아화왕(아신왕)이 무례하여 왜가 침미다례와 동한의 땅을 빼앗자 직지(전지왕)를 보내 선왕의 우호를 닦게 하였다는 기사에서 무례가 선왕의 우호를 닦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례는 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사료 B-3의 무례도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목만치의 소환으로 귀결되어 왜와의 관련이 주된 것임을 확인시켜

11) 『日本書紀』 14 雄略天皇 5年條.

12) 梁起錫, 1982, 「百濟 腆支王代의 政治的 變革」, 『湖西史學』 10, 호서사학회, 15쪽.

준다.¹³⁾ 사료 B-4에 보이는 곤지의 도왜 또한 지진원(池津媛)의 무례와 관련이 있다. 그 결과로 곤지가 파견된 것은 왜와의 우호관계 수립 때문이었다.¹⁴⁾ 이상을 살펴볼 때 주군의 무례는 일본 중심의 관점을 제거하면 앞의 사례처럼 왜와의 우호관계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파견된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

주군의 왜에서의 활동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진다. 그는 사료 B-2에 의하면 왜에 매를 활용한 사냥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 교류 차원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 이를 담당하는 응감부(鷹甘部)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료는 응감부 설치 기원과 관련된 기사로 배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⁵⁾

다음으로 주군이 왜에 정착한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를 전하고 있는 닌토쿠[仁德] 41년은 353년이지만 『일본서기』의 편년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기 힘들다. 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서기』 기년을 2주갑 인하여 보정한다면 473년이 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유라쿠 천황[雄略天皇]이 재위한 때였다. 이는 『송서(宋書)』에 나타난 왜 5왕 찬(讚), 진(珍), 제(濟), 흥(興), 무(武)가 『일본서기』의 왕명과 재위 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다.¹⁶⁾ 이에 따라 논자마다 왜 5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다르다. 다만 왜왕 무가 유라쿠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한다.¹⁷⁾ 따라서 앞의 주군 기사는 최소한 유라쿠 천황의 재위 기간과 겹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라쿠 시대 이전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유라쿠 천황이

13) 목만치 기사는 고구려의 한성 공격 때 문주왕을 도와 남행하였던 木芻滿致(『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년 가을 9월조)와 동일한 인물인가 여부뿐만 아니라 出自와 왜와의 관련성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日本書紀』에서 기술한 무례의 용례에 제한하여 찬자의 인식만을 살펴보겠다.

14) 이는 뒤의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기사의 뒤를 이어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新撰』에 ‘兄王之 우호를 닦게 하였다’는 기사에서 확인된다.

15) 井上光貞, 1965, 『日本古代國家の研究』, 岩波書店, 59~60쪽.

16) 英木英夫, 2002, 「倭의 五王과 高句麗 - 한반도와 관계된 왜왕의 칭호와 對高句麗 전쟁 계획 -」, 『高句麗研究』 14, 180쪽.

17) 연민수, 1998a, 「왜의 오왕시대(五王時代)의 대외관계」,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08쪽.

송(宋)나라에 보낸 국서(國書)에 ‘고구려를 토벌하려고 하던 중, 졸지에 아버지와 형을 잃게 되어 바야흐로 성취하려 했던 고구려 토벌의 군공도 마지막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라는 구절도 주목된다. 여기에서 보이는 아버지와 형에 닌토쿠 천황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와 흥이 아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닌토쿠의 재위 시기는 최소한 왜왕 진 이전이기 때문에 5세기 초반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준 편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주군의 기사는 윤색이 강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기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언가 주군 관련 기사를 배치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응감부 설치 기원으로 주군 기사를 배치한 것은 그 좋은 예다. 이는 주군의 후예 씨족들에 의해 그의 무용담이 전해지고, 후대의 전승에 의해 『일본서기』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이를 고려하면 주군의 도왜 시기를 확정지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매가 부각된 시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백제에서 매가 집중적으로 보이는 시기를 살펴보자. 먼저, 아신왕 즉위년(392)에 ‘뜻과 기개가 무척 빼어나고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는 기사¹⁸⁾가 보인다. 이를 통해 아신왕 때 매사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유왕 8년(434)에도 신라에 화친을 청할 때 흰 매를 보냈다는 기사¹⁹⁾가 있다. 이를 통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 당시 백제에서 매가 특산물이었음이 확인된다.²⁰⁾ 백제에서 매사냥이 유행하였던 시기를 통해 주군은 적어도 4세기 말 이후 5세기 초반 도왜하였을 가능성이 커진다.

주군이 일본에 건너간 시기는 정치적 상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근초고왕 때 통교를 한 이후 4세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의 항쟁이 치열해지면서 왜를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였다. 광개토왕릉비에 396년 백제 정벌과

18) 『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阿莘王 卽位年條.

19) 『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毗有王 8年條.

20) 백제의 별칭으로 매와 관련된 鷹準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趙法鍾, 1989, 「百濟 別稱 鷹準考」, 『韓國史研究』 66, 8~26쪽.

399년 백제와 왜가 화통(和通)한 사실²¹⁾ 등에서 당시 백제와 왜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뒷받침된다. 396년 아신왕이 고구려에 굴복한 직후 태자인 전지왕을 왜에 파견한 것도 그만큼 백제의 절심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구조상으로도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이는 근초고왕-근구수왕-침류왕-진사왕-아신왕-전지왕의 재위 기간이 기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진구기[神功紀]와 오진기[應神紀]를 이에 맞추어 기년을 2주갑 인하고 있다. 최소한 주군은 전지의 파견 이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지왕 이후 백제계 인물의 도왜가 빈번해지므로 주군의 도왜는 5세기 초반이라는 시기로 제한할 수 있겠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와 관련된 기사가 집중 분포한 시기와의 일치된다. 따라서 주군 관련 기사는 5세기 초반 무렵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정착한 곳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점이다. 주군은 왜에 건너가 이시카와노니시고리노오비토코로시[石川錦織首許呂斯]의 집에 정착하였다. 이시카와노니시고리노오비토코로시는 석천금직씨(石川錦織氏)²²⁾로, 석천금직씨는 가와치 이시카와군[石川郡]을 본거지로 하는 소아씨(蘇我氏)계 혹은 백제계로 분류된다.²³⁾ 그중에서도 ‘금직(錦織)’이라는 씨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백제 계통의 직조와 관련된 인물임을 암시해준다.²⁴⁾

그런데 주군이 정착한 곳은 석천(石川)이라는 씨명에서 암시하듯이 가와치 이시카와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시카와군은 오늘날의 오사가 미나미가와치[南河内]군과 하비키노[羽曳野]시의 일부, 돈다바야시[富田林]시의 동부 지역에 해당하며, 아마토가와치의 지류인 이시카와를 배경으로 형성된 곳이다. 이러한

21)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7쪽 주 41.

22) 石川錦織氏は石川の錦織氏라는 의미다. 또한 뒤에서 살펴볼 石川氏와 동일하거나 달리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石川 지역에 근거를 둔 씨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23) 坂本太郎 外, 1967, 『日本書紀』 上, 岩波書店, 408쪽 주 10.

24) 김기섭, 2005, 「5세기 무렵 백제 도왜인의 활동과 문화」,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39쪽.

면에서 백제계 도왜인들의 조상인 주군이 5세기 초반 무렵 이시카와 지역에 정착한 것은 인정할 수 있겠다.²⁵⁾ 문헌을 통해 백제 왕족이 가와치 이시카와 지역에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⁶⁾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백제계 도왜인으로는 주군 이외에 지진원이라는 인물도 보인다. 다음의 사료 C는 이와 관련된 자료다.

C- 가을 7월 백제 池津媛은 천황이 침전에 들려고 하는 것을 어기고 石川楯[옛 책에서는 石河股合首의 조상인 楯이라 하였다]과 정을 통하였다. 천황이 크게 화가 나 大伴室屋大連에 조칙을 내려 來目部에게 두 夫婦의 사지를 나무에 묶어 임시로 만든 시렁 위에 두고 불로 태워 죽이게 하였다[『百濟新撰』에 이르되 “己巳년 개로왕이 즉위하였다. 천황이 阿醜奴腕를 보내와 여자를 물색하므로 백제에서 慕尼 부인의 딸 適稽女郎을 꾸며 천황에 바쳤다.”라고 하였다].²⁷⁾

지진원은 위의 사료에 의하면 백제가 천황에게 바쳐진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이를 인정하면 지진원은 『일본서기』에 언급되고 있는 채녀(采女)로, 백제에서 바친 일종의 공녀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료 C 또한 백제가 일본의 복속국이라는 전제하에서 윤색된 것임을 보여 준다.²⁸⁾ 그러나 사료 C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점이 발견된다. 지진원은 천황이 침전에 들려고 하는 것을 어기고 이시카와노타테[石川楯]와 정을 통하였다고 하나 이미 이 들은 부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로 보아야 한다. 천황과 지진원, 이시카와노타테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진원을 공녀로 보낸 정치적 사실만을 제거하

25) 주군의 정착이 가와치 이시카와에 있는 백제계 세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로는 서보경, 2009, 앞의 글, 17쪽도 있다.

26) 정재운, 2015, 「5세기 백제계 渡倭人 - 근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 속의 백제와 왜(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6)』, 한성백제박물관, 118~119쪽.

27) 『日本書紀』 14 雄略 2年 가을 7月條.

28) 門脇禎二, 1965, 『采女(うねめ) - 獻上された豪族の娘たち』, 中央公論社, 45쪽.

면 백제에서 지진원을 보냈고, 지진원은 이시카와노타테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진원과 관계를 맺은 이시카와노타테에 주목해야 한다.

이시카와노타테는 씨명이 이시카와이며, 이름은 타테다. 지역적으로 보아 석천씨는 소아씨와 동족이라는 전승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²⁹⁾ 그가 당시 왜의 실력자였던 것임을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료 B에 인용된 『백제신찬(百濟新撰)』에는 기사년(己巳年)에 개로왕이 적계여랑(適稽女郎)을 보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일본서기』 각주에 인용한 것은 편찬자가 지진원을 적계여랑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진원을 적계여랑이라고 한다면 개로왕이 기사년에 즉위하여 그녀를 왜에 보냈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³⁰⁾ 기사년은 개로왕대에 없으며, 비유왕 3년(429)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비유왕 2년(428) 왜국의 사신이 온 『삼국사기』 기록³¹⁾과 연계하여 지진원이 도왜한 시기로 보는 견해³²⁾가 있다. 이 입장에서는 지진원을 전지왕이 오진 천황[應神天皇] 39년 파견한 신제도원(新齊都媛)³³⁾과 동일한 인물로 본다. 오진[應神] 39년을 2주갑 인하하면 428년이 된다. 통상 1년은 유년 칭원법과 즉위년 칭원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진원과 신제도원이 동일한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³⁴⁾ 분명한 것은 기사년을 개로왕 즉위와 분리한다면 지진원(적계여랑)이

29) 坂本太郎 外, 1967, 앞의 책, 462쪽 주 7.

30) 개로왕대 보낸 사실로 인정하는 견해로 양기석, 2005, 「5세기 百濟와 倭의 關係」,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78쪽도 있으나 간지가 다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31) 『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毗有王 2年 봄 2月條.

32) 李根雨,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01~103쪽.

33) 『日本書紀』 10 應神天皇 39年條.

34) 적계여랑을 신제도원과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견해(池内宏, 1970, 앞의 글, 121쪽), 같이 간 7부녀 중의 하나인지 혹은 동일한 인물인지 알 수 없다는 견해(이근우, 1994, 앞의 책, 102쪽)가 있다.

429년 도왜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지진원이 파견된 시기는 곤지가 도왜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5세기 중반 이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료 C에 의하면 적계여왕은 모니부인(慕尼夫人)의 딸이었다. 부인을 ‘하시카시’로 혼독하는 것은 그 표현이 백제어임을 나타내 준다.³⁵⁾ 그런데 백제에서 부인은 귀족의 여성에게 붙이는 존칭이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은제 팔찌에서 다리(多利)가 대부인(大夫人)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구절이 보인다. 이때 대부인은 최고의 여성인 왕비를 칭하는 극존칭이기 때문에 부인이 존칭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진원은 왕족 혹은 유력한 귀족의 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진원이 정착한 곳은 이시카와노타테가 이시카와 지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와치 지역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는 유력한 집안의 여성인 지진원을 보내 가와치 지역의 세력가와 결합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필요는 무엇이였을까. 당연히 야마토의 관문인 가와치 지역에 기반을 마련하여 백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시키려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곤지에 앞서 간 유력한 인물들이 모두 5세기경 가와치 지역에 정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백제가 처음 태자인 전지를 왜에 파견할 때가 고구려에 굴욕을 당한 직후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전지왕이 파견된 이후에는 5세기 초반 주군이 도왜하였다. 그리고 주군을 이어서 유력한 집안의 여성이 파견되었다. 그 순서를 보면 태자에서 왕족, 그리고 여성으로 점점 격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마 왜의 중요성에 따라 백제에서 파견된 인물의 격이 달라지지 않았나 추정된다. 전지왕이 파견될 때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고, 5세기 초반 이후로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큰 충돌이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백제의 상황에 따라 파견되는 인물이 달라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35) 坂本太郎 外, 1967, 앞의 책, 463쪽 주 18.

그런데 개로왕이 즉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455년 개로왕이 즉위하자마자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고 신라가 이를 구원하였다.³⁶⁾ 평양 천도 이후 이제까지의 소강상태를 깨트리고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 것이다. 5세기 초반의 소강상태는 고구려는 평양 천도 직후부터 평양 일대에 대한 경영에 힘을 쏟았고, 백제에서는 대고구려전 온건파인 해씨 세력이 집권하였기 때문이다.³⁷⁾ 개로왕이 즉위한 이후 해씨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로왕의 즉위는 대고구려 강경정권의 출현이었고, 이 때문에 고구려가 백제를 선제공격하여 상황을 살펴보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다시 전운이 감돌자 백제는 전지왕을 파견할 때처럼 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제2인자인 곤지를 보내 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⁸⁾ 곤지가 가와치 지역에 정착하였던 것은 앞에서 파견된 인물처럼 백제계 도왜인들과 관련되었음이 분명하다. 백제에서 파견된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하는 점은 백제계 유적과 곤지의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I.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유적과 그 의미

많은 백제계 도왜인들은 일본 열도로 건너와 가와치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들이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와치 지역은 세토나이카이와 아마토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즉 이 지역은

36) 『三國史記』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39年 겨울 10月條.

37) 李龍虎, 2009, 「百濟 腆支王代 解氏勢力의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韓國史研究』 147, 74~79쪽.

38) 왕녀를 채녀로 삼았기 때문에 곤지를 보냈다는 견해(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百濟學報』 6, 177~178쪽)도 있으나 채녀 기사 자체의 사료적 검토가 필요하며, 개로왕대 강화된 대왜외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야마토 정권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다. 백제계 도왜인들이 하필이면 이곳에 집중적으로 정착한 까닭은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지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야마토 정권은 주변을 점차 통일하면서 일본 열도를 체계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였고, 백제의 선진문물과 제도 수용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 이때 백제와 야마토 정권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백제계 도왜인들이 하였던 것이다.³⁹⁾ 야마토 정권의 관문인 가와치 지역에 백제인들이 적극 정착하였던 것은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백제계 도왜인들은 가와치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그들이 남긴 흔적과 관련이 있는 유적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제방 유적이다. 백제계 도왜인들과 관련있는 가메이[龜井] 유적은 가와치 지역의 야오[八尾]시에 위치한다. 이곳은 예전의 가와치호 남쪽 약 3km 정도 저지대에 있으며, 오사카 만으로 통하는 곳이다. 수해가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전(水田)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제방은 저습지의 경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쌓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로 인해 시도된 것은 백제 토목기술인 부업공법이었다. 새로운 백제 기술이 도입된 것은 이를 축조한 집단이 백제계 도왜인이었음을 알려준다. 이 유적과 인접한 시로야마[城山] 고분에서 백제토기가 다수 출토된 것도 이를 확인시켜 준다.⁴⁰⁾ 유적이 축조된 시기를 통상 7~8세기로 보지만 보춘 이전의 지반 보강공법에 주목한다면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반에 백제인이 처음 쌓았을 가능성이 크다.⁴¹⁾

39) 정재윤, 2013, 「東城王代 倭系 세력의 동향」, 『歷史學研究』 49, 湖南史學會, 7~8쪽.

40) 박天秀, 2012, 『일본 속 고대 한국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04~105쪽.

41) 小山田宏一, 2013, 「東アジア海が結ぶ沿海低地の開發方式」, 『東アジア海文明の歴史と環境』, 東方書店, 397~398쪽. 氏는 조선반도의 도래인이라는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인근에서 출토된 토기가 백제 계통이라는 연구 성과에 힘입어 백제인이라고 보았다.

제방의 위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야마이케[狹山池] 유적이다. 이 유적은 오사카 남동부의 사야마시에 위치한다.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616년으로 알려졌으며, 731년 백제계 도왜인의 후손인 행기(行基)가 개수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축되었다. 8세기, 14~15세기 등 우리나라에서 제방을 대대적으로 개수한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개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⁴²⁾ 또한 시대를 내려올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방을 축조할 때 가메이 유적처럼 백제의 부업공법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적을 축조한 인물이 백제계 도왜인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저수지의 관개농법으로 오사카 평야지대까지 심지어는 시텐노지[四天王寺] 부근까지 물이 제공되었다. 백제의 제방 기술이 가와치 일대를 옥토로 만든 일등 공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계 도왜인들의 제방 축조 기술은 저습지의 개간, 생산력의 증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가와치 지역의 저습지에 정착한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고대국가의 생산기술에 필수적인 제철 유적도 보인다. 오오가타[大縣] 유적은 기나이[畿内] 지역 최초의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위치한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 고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제철은 농기구와 무기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의 혁신이었다. 무기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국가 생존권과 관련된 자원이다. 양질의 농기구 또한 생산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가가 철을 전매하여 통제할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원래 가야 지역에서는 양질의 철이 생산되어 한반도와 중국, 일본 열도에 수출되었다. 이후 일본 열도에서 이 기술을 전수받아 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기나이 지역의 오오가타 유적에서 대규모 제철 생산 유적이 발견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오오가타 유적에 인접한 수혈주거지에서 한반도산 회청색 경질토기와 연질 시루가 출토되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다. 시루 형태도 한반도 서남부 지역과 유사하여, 이 지역에

42) 小山田宏一, 2008, 「碧骨堤の太宗15年の改修とそれ以前」, 『大阪府立狹山池博物館研究報告』 5, 33~36쪽.



〈그림 1〉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유적

- | | | |
|--------------|---------------|-------------|
| 1. 시토미야키타 유적 | 4. 다카이다야마 고분군 | 7. 이치스카 고분군 |
| 2. 가메이 유적 | 5. 아스카센즈카 고분군 | 8. 신당폐사 |
| 3. 오오가타 유적 | 6. 아스카베신사 | 9. 사야마이케 유적 |

백제계 도왜인 야철 기술자 집단이 정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형의 미니어저 제작도 이곳이 백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말해준다. 출토 유물로 볼 때 유적의 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추정되어 이 유적의 피장자가 다카이디아야마 고분을 축조한 집단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⁴³⁾

흥미로운 사실은 오오가타 유적을 파괴하고 들어선 도로 유적이 다지히미치[丹比道]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지히미치는 오사카 만에서 야마토로 이르는 주요한 교통로였다. 이처럼 백제계 도왜인들은 국가의 중요한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물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교통로를 장악하여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계 도왜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와치 지역에 많은 백제계 사찰이 보인다는 점도 빠트릴 수 없다. 백제 성왕은 552년에 노리사치계를 보내어 불상과 번개 약간 그리고 경론 등을 전래해 주었다.⁴⁴⁾ 국가에서 불교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상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국가체제를 일원화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고대국가의 정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백제의 불교 전래에 의해 아스카 지역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가 건립되었다. 일본 열도 초기의 사찰이 대부분 가와치 지역에 지어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백제계 도왜인들이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유적지에서 백제 와당이 출토되었다는 점은 이들 사찰이 백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준다. 이는 백제계 도왜인들이 백제와 왜의 교류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백제계 사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신도하이지[新堂廢寺]를 들 수 있다. 신도하이지는 가와치 남쪽의 중심 지역인 돈다바야시시에 있다. 이곳은 백제촌, 하백제 등의 지명이 남아있을 정도로 백제와 활발히 교류하였던 지역이다. 신도하이지는 7세기 전반에 창건된 가장 오래된 사찰 중의 하나이며, 발굴 결과 사찰의 초기 형태는 중문-탑-금당-강당이 일직선으로 연결된 일탑일금당

43) 朴天秀, 2012, 앞의 책, 109~110쪽.

44) 『日本書紀』19 欽明天皇 13年 겨울 10月條.

양식으로 판명되었다.⁴⁵⁾ 이 구조는 정립사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백제 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탑일금당 양식은 중국에서도 보이지만 강당과 결합한 양식이 백제 사찰에서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⁴⁶⁾ 이는 강당의 활용을 극대화한 것으로, 불교의 대중법회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이처럼 전형적인 백제 사찰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이 사찰이 백제계 도왜인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시사한다.

신도하이지에서 발견된 연화문 와당은 완전한 백제식 기와의 자태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주변에는 오간지[オガンジ池] 기와 가마터와 오카메이시[お龜石] 고분군이 존재한다. 특히 오카메이시 고분은 신도하이지와 동일한 기와가 사용되어 이 둘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 무덤이 백제계 황혈식 석실분이라는 점과 백제계 사찰이라는 사실을 연결시켜 두 유적이 모두 같은 백제계 도왜인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찰과 고분, 기와 가마의 동일한 주체가 일괄적으로 발견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계 도왜인들이 생산 기반시설인 가마를 만들고, 사찰을 지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유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덤은 피장자의 성격과 문화를 확실히 보여주는 물적 증거다. 일본 열도의 고분시대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전방후원분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백제는 황혈식 석실분이라는 무덤이 유행하였다. 그런데 기나이 지역에 이러한 백제 중앙의 무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덤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부장된 유물에서도 백제의 색깔이 완연하게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바로 백제인들이 이곳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백제계 무덤을 사용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45) 朴天秀, 2012, 앞의 책, 142쪽.

46) 정재윤, 201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百濟文化』 54, 19~20쪽.

47) 朴天秀, 2012, 앞의 책, 143쪽. 氏는 신도하이지를 오카메이시 고분 피장자의 墓寺로 보았다.

이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다카이다야마 고분이 있다. 이 유적은 야마토가와와 이시카와가 합류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현재의 가시와라[柏原]시에 있다. 기나이 지역 최초의 백제계 무덤인 이 고분은 야마토가와를 전망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점에서 위계가 가장 높으며, 따라서 이 일대의 교통로를 관할한 인물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실제 스이코 21년(613) 나니와에서 야마토에 이르는 큰 길을 만들었다는 기사⁴⁸⁾에서 큰 길은 다케우치카이도[竹内街道]로 보고 있다. 다케우치카이도가 이 지역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무덤의 피장자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야마토가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무덤은 2기가 있으며, 동쪽 무덤에서는 금제이식과 청동다리미 등이 출토되어 피장자가 여성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부 합장묘는 일본에서 볼 수 없는 형식이다. 무덤에서는 금층의 유리옥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층의 유리옥 사이에 금박을 끼워 넣은 것으로 이러한 형식 또한 한반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청동다리미 역시 무령왕릉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다. 관정을 사용한 목관도 당시 일본 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로, 백제 목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을 나타내준다. 이처럼 다카이다야마 고분의 피장자는 무덤의 형식뿐만 아니라 유물도 백제 계통의 것이 많아 당대에 백제에서 이주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⁹⁾

다카이다야마 고분이 건립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5세기 후반으로 보지만 학자에 따라 6세기 초반까지 보기도 한다. 고분의 주인공으로는 구체적으로 오오카타 지역에 거주한 이주민 기술자들을 통괄한 왕족급 인물로 보는 견해⁵⁰⁾도 있지만, 기술자 집단의 장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활동 영역을 축소할 수 있다. 오오카타 유적을 백제계 도왜인들의 생산 기반시설로만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묘제나 유물을 볼 때 백제 왕족에 필적하며,⁵¹⁾ 지리적 요인

48) 『日本書紀』22 推古天皇 21年 겨울 11月條.

49) 安村俊史, 2014, 「機内初期横穴式石室にみる百濟の影響」, 『百濟文化』50, 22~26쪽.

50) 朴天秀, 2012, 앞의 책, 113쪽.

51) 安村俊史, 2014, 앞의 글, 23쪽.

까지 고려하면 백제와 왜의 교류에 관여한 흔적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무엇보다도 백제계 도왜인의 구심점 역할을 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가장 좋은 교통로의 교차 지점에 묻힌 것으로 생각된다.

이치스카[一須賀] 고분군도 백제계 도왜인들의 흔적과 관련하여 빠트릴 수 없는 유적이다. 이치스카 고분군은 미나미가와치군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이시카와가 흐르고 뒤편으로 후루이치[高市] 고분군이 멀리 조망된다. 또한 치카츠아스카 박물관이 건립될 정도로 일본 기나이 지역의 대표적인 고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박물관 능선 위로 올라가면 300여 기가 넘는 고분을 만날 수 있다. 이 중 40여 기는 직접 볼 수 있으며, 완전한 백제계 황혈식 석실분임을 확인해준다.

출토된 유물에서는 백제에서 볼 수 있는 축소 모형의 취사도구가 주목된다. 이는 백제의 매장 의례가 도입된 흔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1호분에서 출토된 용봉문환두대도는 무령왕릉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여 사여의 주체가 백제임을 말해준다. 금동신발과 뒤꽂이 등의 유물에서도 백제인들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고분군이 백제계 도왜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금제 귀걸이의 경우 가야산으로 보이지만,⁵²⁾ 전체적으로 백제계 도왜인의 성격이 짙은 고분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

무덤이 축조된 시기는 6세기 중반부터이며, 6세기 후반 절정에 이르다가 7세기 초엽에 쇠퇴하였다.⁵³⁾ 또한 능선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족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이한 양상은 무덤의 부장품으로 무기가 거의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주목되는 것은 무덤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였던 금부씨(錦部氏)다. 니시고리군[錦部郡]은 백제와 여호(余戶)의 2향(鄉)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제계의 금부련(錦部連)과 한인계(漢人系)의 고향촌주(高向村主)의 거주지였다.⁵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와치 지역에서는 이시카와노니시고리

52) 朴天秀, 2012, 앞의 책, 138~139쪽.

53) 水野正好, 1989, 「河内飛鳥と漢韓人の墳墓」, 『古代を考える河内飛鳥』, 吉川弘文館, 94쪽.

54) 水野正好, 1989, 위의 글, 94쪽.

노오비토코로시라는 백제계 인물이 확인되고, 그가 직조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금부씨일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직조 활동도 무기류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무덤은 금부씨의 씨족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⁵⁾ 이처럼 이치스카 고분군 피장자들은 일본 열도로 건너온 직조 관련 도왜인들이며,⁵⁶⁾ 이 중에서 백제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적을 통해 백제계 도왜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무덤에서 대규모 백제계 도왜인들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스카센즈카 [飛鳥千塚]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대규모 백제인들의 무덤군이 이곳 가와치 지역에 있는 것이다. 아스카센즈카 유적이 위치한 하비키노시 일대는 백제계 씨족인 선사씨(船史氏), 진사씨(津史氏) 등이 살던 곳이다. 특히 야마토로 이르는 주요 도로가 시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고분군은 하치부세야마[鉢伏山]에서 파생된 능선으로 이어지는 구릉 위에 분포하여, 현재 130여 기 정도가 남아 있다.

대표적인 무덤은 간논즈카[觀音塚] 고분으로, 황구식 석곽이다. 무덤은 석곽부, 전실, 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뛰어난 돌쌓기 기술은 백제의 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적인 것은 석곽 구조로, 백제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7세기 중엽, 즉 사비 시대 후기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⁵⁷⁾ 아스카센즈카 고분군은 6세기부터 축조되어 7세기 말기까지 축조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고분군이 곤지의 후예인 아스카베 씨족의 분묘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곤지의 실체가 유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고분뿐만 아니라 곤지를 모신 신사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스카베신사가 바로 그것이다. 곤지가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은 이곳이 백제계 도왜인들의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를 모시는 신사가 있다는 것은 곤지를

55) 박재용, 2014, 「6세기 고대일본 백제계 渡倭인과 불교」, 『百濟文化』 50, 64쪽.

56) 백제에서 직조 관련으로 도왜한 인물로는 백제왕이 眞毛津이라는 縫衣工女를 바친 사실(『日本書紀』 10 應神天皇 14年 봄 2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7) 朴天秀, 2012, 앞의 책, 130쪽.

통해서 후손들이 단합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유적을 통해 곤지의 역할을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다. 백제계 도왜인들의 구심점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유적들을 통해 백제계 도왜인들의 활동을 종합해보면, 곤지가 백제계 도왜인들을 통해 추구하려는 역할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제방 축조를 통해서 생산력의 증대와 생산 기반시설의 확대를 가져왔다. 제철 기술을 통해서서는 국가의 중요한 기술의 혁신의 가져왔다. 사찰의 건립을 통해서서는 국가체제를 일원화시켜 고대국가 완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수도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를 장악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백제의 선진문물을 왜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백제계 도왜인들이 야마토 정권의 체제정비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면 이들의 구심점을 자임한 곤지는 어떤 역할을 하려 했을까. 곤지의 활동을 백제계 도왜인들과 분리하여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구체적인 그의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IV. 곤지의 가와치 지역 정착과 도왜 목적

『일본서기』에서는 왕인(王仁)의 후예 씨족인 서문씨(西文氏)와 왕진이(王辰爾)의 후예 씨족인 선사·진사·백저사(白猪史)씨 등 많은 백제계 씨족들이 보인다. 이들이 가와치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일본서기』와 씨사(氏寺)의 위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⁵⁸⁾

백제계 도왜인들이 이처럼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은 야마토 정권의 내해로

58) 박재용, 2014, 앞의 글, 65~67쪽.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羅幸柱, 2015, 「일본 고대국가와 백제계 도왜인 - 특히, 백제계 문필(文姓) 씨족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2, 21~44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관문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교통의 요지이긴 하였지만 상습 범람 지역이기 때문에 살기에 어려웠으리라 추정된다. 이들이 토착인들과 별 마찰 없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공지(空地)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듯하다. 백제계 도왜인들은 범람 지역에 제방을 축조하고,⁵⁹⁾ 저수지를 만들어 농로를 개설하면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으로 개간하였다. 가와치 지역에서 농경의 확대와 저수지가 만들어진 시기가 5세기에서 6세기로 상정되는 것⁶⁰⁾과 백제계 도왜인들의 이주 시기가 일치한 점도 흥미롭다. 아울러 건전 농법이라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온 사실⁶¹⁾도 놓칠 수 없다. 가와치 평야의 개발은 야마토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시킴으로써 다른 지역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된 것이다.⁶²⁾ 이와 관련하여 화주오군신사신명장대략주해(和州五郡神社神名帳大略注解)에는 앞에서 살펴본 이시카와노타테가 유라쿠 천황 이전인 안코 천황[安康天皇] 때에 견강(桴岡)을 개간하고 전지(田地)를 운영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⁶³⁾이 보인다. 이 자료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일정 부분 백제계 도왜인들이 가와치 지역을 개발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때문에 주목된다. 요컨대, 가와치 지역은 교통의 요지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신천지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곤지가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도 이곳이 이처럼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일본서기』를 통해 곤지의 도왜 경로와 파견 목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곤지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다.

59) 小山田宏一, 2001, 「古代河内の開發と渡來人」, 『古代の河内と百濟』, 枚方歴史フォーラム, 94~96쪽.

60) 森浩一, 1975, 「群集墳と古墳の終末」, 岩波講座『日本歴史』2-古代, 99쪽.

61) 飯沼二郎, 1973, 「五世紀にをける農業革命」,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20, 58~59쪽.

62) 가와치의 개발과 경영을 야마토 정권의 현안 과제로 보는 견해로 서보경, 2009, 앞의 글, 21쪽도 있다.

63) 坂本太郎 外, 1967, 앞의 책, 462쪽 주 7 재인용.

D- 여름 4월 백제 加須利君[蓋鹵王이다]이 池津媛[適稽女郎이다]을 태워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 상의하기를 “옛날 여자를 바쳐 采女로 삼았다. 그러나 이미 무례하여 우리나라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지금부터 여자를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이어 그 아우인 軍君[昆支이다]에게 “너는 마땅히 일본에 가서 천황을 섬겨라”라고 말했다. 군군이 대답하기를 “임금님의 명령은 삼가 어길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임금님의 부인을 주신 이후에 삼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가수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軍君에게 시집보내며 “나의 임신한 부인은 이미 해산할 달이 되었으니 만약 가는 도중에 낳는다면 한 배에 실어서 다다른 곳이 어디인지 불문하고 속히 나라로 돌려보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하고 삼가 조정에 파견되었다. 6월 병술 초하루 임신한 부인이 과연 가수리군의 말처럼 筑紫의 各羅嶋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로 인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嶋君이라 하였다. 이에 군군은 배에 태워 嶋君을 나라로 돌려보내니 이가 무령왕이 되었다. 백제인은 이 섬을 主嶋라고 부른다. 가을 7월 군군이 수도로 들어왔으니 이미 다섯 자식이 있었다[『百濟新撰』에 이르길 “신축년 개로왕이 아우 昆支君을 보내어 大倭로 향하여 천왕을 모시고 兄王의 우호를 닦게 하였다”].⁶⁴⁾

사료 D에 의하면 곤지가 파견된 시기는 유라쿠 5년(461)이다. 무령왕릉 지석(誌石)에 의하면 무령왕은 523년 62세로 죽었기 때문에 461년 왜로 가는 도중에 탄생한 것과 일치한다. 다만 무령왕릉의 나이를 만으로 하였는가 하는 계산법에 따라 달리 볼 여지⁶⁵⁾도 있다. 그렇지만 『삼국사기』도 유년 칭원법과 즉위년 칭원법에 따라 1년의 편차⁶⁶⁾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뒤엎을 결정적인

64) 『日本書紀』14 雄略天皇 5年條.

65) 李在碩, 2001, 「5세기말 昆支의 渡倭 시점과 동기에 대한 재검토」, 『百濟文化』 30, 23쪽.

66) 예를 들어, 廣開土王陵碑와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즉위년이 1년의 편차가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계산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곤지는 4월 백제를 출발하였고, 6월 쓰쿠시[筑紫] 지역에서 무령왕을 낳았으며, 7월 왜의 수도로 입성하였다. 그런데 백제에서 왜의 수도까지 빠른 경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한 것⁶⁷⁾을 보면 곤지는 바로 야마토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쓰쿠시 지역에도 일정 정도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쓰쿠시의 동향도 살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7월 수도에 이른 후 최종적으로 야마토 정권의 관문인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은 아마 야마토로 집중되는 권력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즉 백제계 도왜인을 규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D에서 곤지가 향한 야마토를 ‘대왜(大倭)’라고 표기한 것을 주목하면, 야마토는 여러 왜 세력 중 큰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⁶⁸⁾ 그런데 쓰쿠시 지역에서는 곤지가 귀국한 이후 6세기 초반 이와이[磐井]의 난이 발생하였다.⁶⁹⁾ 이는 야마토 정권이 쓰쿠시 지역을 압박하면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며, 집권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 6세기 초반까지 야마토 정권이 큐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견해⁷⁰⁾는 이를 대변해준다. 이러한 면에서 곤지가 왜 쓰쿠시에서 야마토로 향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백제계 도왜인들은 당시 백제와 왜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곤지의 도왜 목적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곤지에 앞서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에 정착하였고, 이들의 능력에 감탄한 야마토

67) 정재운, 2007, 「熊津時代 百濟와 倭의 關係에 대한 豫備的 考察 -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 『百濟文化』 37, 70쪽.

68) 정재운, 2007, 위의 글, 70~71쪽.

69) 『日本書紀』 17 繼體天皇 21年·22年條.

70) 5세기대 왜와 백제의 외교의 이중성을 들고 있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이에 의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야마토 정권은 백제와 외교관계를 맺었고, 큐슈 일대의 서일본 세력은 민간 차원에서 신라·가야와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大山誠一, 1982, 「繼體朝成立をめぐる國際關係」, 『史學論集』 10, 東京大學古代史研究會, 2~27쪽. 또한 6세기에 이르러서도 서일본의 제 세력들은 가야 제국과 개별적인 교류를 하여 국가 외교와 지방 외교가 병존하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연민수, 1998a, 앞의 글, 490~493쪽.

정권은 백제계 도왜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백제 또한 이들을 세력화하여 본국에 도움을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백제는 점점 압박하는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좌현왕이었던 곤지를 아예 일본 열도에 장기간 파견하는 큰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백제는 아신왕 때 고구려에 굴복하였던 것 이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 때문에 일본 열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가 부인과 자식을 대동하고 백제를 출발한 것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정착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보여준다.⁷¹⁾ 이는 백제계 도왜인의 세력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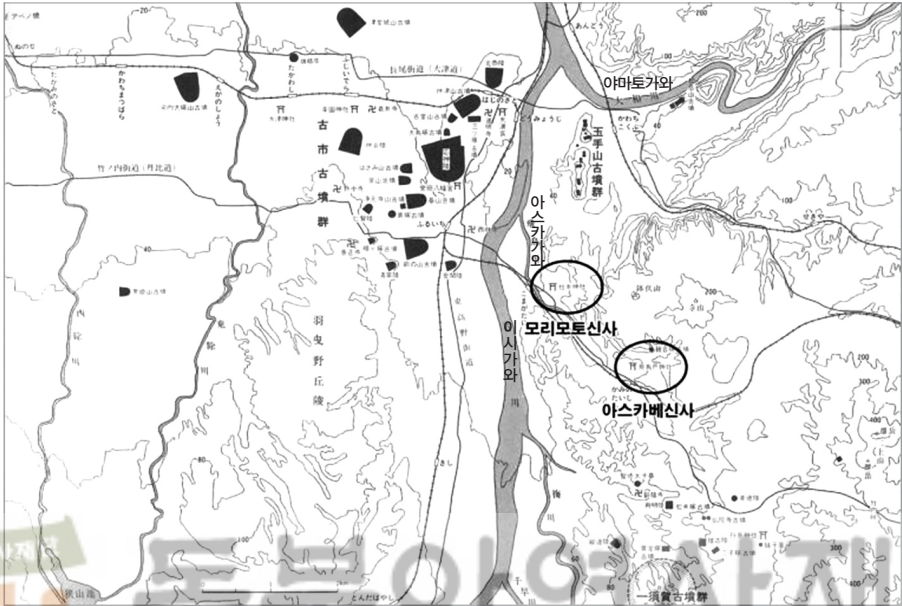
그렇다면 곤지가 정착한 곳은 가와치 지역 중 어느 곳이었을까. 곤지가 활동한 곳은 현재 아스카베신사가 있던 곳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스카베신사는 조금 궁벽진 곳이어서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 일대는 야마토에 이르는 주요 도로였던 다지히미치가 인근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로를 장악한 백제계 도왜인의 활동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백제계 도왜인들의 중심 무대는 역시 왕진이를 시조로 하는 선사씨가 창건한 야추지(野中寺)라는 절과 왕인 박사를 시조로 하는 서문씨의 씨사인 사이린지(西琳寺)가 있는 지역이 마땅하다. 치카츠아스카 중심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이린지는 『서림사연기(西琳寺緣起)』에 인용된 서림사문영주기(西琳寺文永注記)에 의하면 긴메이 천황[欽明天皇] 때인 기묘년(559)에 서수아지고(書首阿志高)와 여러 친족이 창건하였다고 한다.⁷²⁾ 야추지 역시 출토된 기와를 보면 아스카 시대 후기로 보이지만 이들의 활동은 이보다 앞섰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⁷³⁾ 오진천황릉[應神天皇陵]으로 유명한 후루이치 고분이 있는 것도 이곳이 중심지였음을 말해준다. 야추지는 야마토로 이르는 주요

71)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8~30쪽.

72) 박재용, 2014, 앞의 글, 65쪽.

73) 박재용, 2014, 위의 글, 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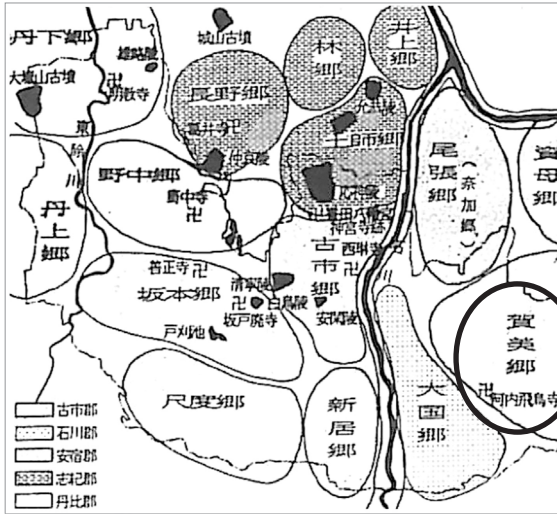


〈그림 2〉 끈지의 활동 근거지 일대 유적군⁷⁴⁾

도로였던 다지히미치가 관통하고, 히가시코야카이도[東高野街道]와 다케우치카이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고대 교통로의 요지에 세워졌음을 확인시켜준다. 주요 도로에 사찰이 위치한 것은 일본 고대국가 완성기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지역은 이시카와 서편에 위치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곳은 이시카와 동편과 지류인 아스카 천이 흐르는 지역이다. 〈그림 2〉에 보이는 현재의 모리모토[杜本]신사는 이 지역의 중심점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리모토신사는 이시카와에서 갈라진 아스카가와와 주변에 있어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하였고, 산 아래 자리잡은 아스카베신사보다 상대적으로 번성하였다. 그런데 모리모토신사는 905년에서 927년에 만들어진 『연희식(延喜式)』 신명장(神名帳) 연희오(延喜五)에 2좌(座)가 확인된다. 이를

74) 門脇禎二·水野正好, 1989, 『古代を考える河内飛鳥』, 吉川弘文館, 付図 河内飛鳥主要遺蹟에서 재인용.



〈그림 3〉 고대 가와치 지역 일대 군향(郡郷)⁷⁵⁾

통하여 모리모토신사는 최소한 헤이안 시대 초기에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⁷⁶⁾

아스카베신사 역시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졌으나 전국시대(戰國時代) 때 불탔고, 메이지 초기에 현재의 위치에 재건되었다.⁷⁷⁾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촌사(村社)로서 위치도 궁벽해져 쇠락한 모습이다. 아마도 백제계 도왜인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아스카베신사 또한 위상도 낮아졌고, 그 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고 생각된다. 일본 고대 군향(郡郷) 편제로 보면 〈그림 3〉에 보이는 아스가베군[安宿郡] 하미향(賀美郷) 지역이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아스카베신사와 곤지의 활동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스카베신사는 곤지 후손들의 거주지와 관련이 있고, 그 후손들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시대를 달리하여 옮겨질 수 있다. 반면, 곤지의

75) 笠井敏光, 2014, 「昆支王と飛鳥千塚古墳群」, 『百濟文化』 50, 10쪽 〈도면 2〉에서 재인용.

76) 羽曳野市史編纂委員會, 2008, 『羽曳野市史』 1, 550~553쪽.

77) 羽曳野市史編纂委員會, 2008, 위의 책, 629~630쪽.

거주지는 그가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이쯤에서 백제계 도왜인들이 정착한 곳이 석천씨와 관련이 있고, 이들의 주 무대가 이시카와였음을 상기하자. 그러면 곤지의 활동 무대는 이시카와 일대였고, 치카츠아스카라는 명칭과 관련시켜 보면 이시카와의 지류인 아스카가와가 흐르는 지역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카이다이마 고분이 아마토가와와 이시카와의 교차점에 있는 사실까지 덧붙이면, 아마 곤지의 활동 중심지는 이시카와와 아마토가와가 교차하는 상류를 기점으로 지류인 아스카가와 일대까지 미치는, 다시 말하면 <그림 3>에 보이는 모리모토신사 부근의 아스가베군 미장향(尾張郷) 지역이라고 생각된다.⁷⁸⁾

다음으로, 곤지의 역할과 관련하여 백제에서의 정치적 위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곤지는 비유왕(毗有王)의 아들이며, 개로왕과 문주왕(文周王)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458년 개로왕이 송에 자칭한 관작의 승인을 요청할 때 보이는 행정로장군좌현왕(行征虜將軍左賢王) 여곤(餘昆)과 동일한 인물이다.⁷⁹⁾ 좌현왕은 흉노(匈奴)에 보이는 관작으로 선우(單于)의 뒤를 이은 왕위계승권을 가졌으며, 군권(軍權)을 장악하였다.⁸⁰⁾ 사료 D에 보이는 것처럼 곤지가 461년 왜에 파견될 당시에 군군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확인된다.

이렇게 백제의 제2인자였던 곤지가 왜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먼저, 백제 내의 권력 다툼으로 이해한다면 정략적 추방⁸¹⁾으로 볼 수 있다. 개로왕의 견제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와의 군사적 긴장관계에 주목한다면 청병사(請兵使)⁸²⁾로 볼 수 있다. 또한 백제계

78) 정재운, 2015, 앞의 글, 122~125쪽.

79) 李基東, 1974,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30~33쪽.

80) 坂元義種, 1968, 「5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56쪽.

81) 연민수, 1998b, 「5세기 후반 백제와 왜국」, 『고대한일관계사』, 411~417쪽.

82) 梁起錫, 1981,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대하여」, 『史學志』 15, 55~56쪽.

도왜인들의 결속을 통해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아마토 정권의 선진문화에 대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켜 왜와의 정치적 유착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³⁾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지만 파견 목적이 하나의 사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목적용 성격도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목적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열린 관점도 필요한 것이다. 군사적 구원이라는 청병사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토 정권의 수도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옳다. 가족들을 대동한 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정략적 추방도 도왜 이후 곤지의 역할이 오히려 증대했으며, 그의 아들들이 이후 왕위에 오른다는 점에서 추방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보다는 곤지 에 대한 견제적 요소 등 복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파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왜에서 곤지가 한 역할과 정착 상황을 이해하면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곤지가 파견될 때 가진 직함인 좌현왕은 흉노에서 중앙의 선우와 별도의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다가 유사시에 서로를 구원하는 효율적인 군사제도다.⁸⁴⁾ 좌현왕이 흉노와 같은 체제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무렵 등장하는 것은 백제가 임박한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보인다.⁸⁵⁾ 따라서 곤지가 좌현왕으로 파견되었다는 점, 체류가 장기간이며 도읍지가 아닌 백제계 도왜인들의 밀집 지역에 파견된 점을 중시하면 곤지의 파견 목적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곤지는 군군이라는 직함을 통해서 백제계 이주민을 규합시켜 아마토 정권과 협력하면서 유사시에 백제를 구원하는 역할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흉노에서는 좌현왕이 독립 군단을 거느리고 중앙을 구원하는 체제

83) 연민수, 1998b, 앞의 글, 421쪽.

84) 山田信夫, 1989, 『北アジア遊牧民族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1~22쪽, 33~40쪽.

85) 鄭載潤, 1999, 앞의 글, 21~24쪽.

였으나 백제에서는 중앙을 구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밀리는 백제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열도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며, 일본 열도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백제계 도왜인들은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친백제적인 야마토 정권을 지원하여 집권력을 높인다면 백제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으며, 백제계 도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근지의 파견 목적과 역할은 태자의 신분으로 왜에 파견된 전지왕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E-1. 여름 5월에 왕이 倭國과 우호를 맺고 태자 腆支를 볼모로 보냈다.⁸⁶⁾

2. 봄 3월 백제인이 와서 조공하였다[『百濟記』에 다음과 같이 이른다.
“阿花王이 왕위에 있으면서 귀국에 무례하여 (왜가) 枕彌多禮와 峴南·支侵·谷那 등 東韓의 땅을 빼앗았다. 이로써 왕자 直支를 천조에 보내 先王의 우호를 닦게 하였다”].⁸⁷⁾

3. 이 해 백제 아화왕이 죽었다. 천황이 직지왕을 불러 일러 말하길 “그대는 나라로 돌아가 왕위를 잇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이어 또한 東韓의 땅을 주어 보냈다[동한이란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이다].⁸⁸⁾

사료 E에 의하면 전지왕은 볼모로 왜에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전지왕을 왜에 파견한 것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하에 맞서 왜와의 군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목적이 강하였다. 실제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영락 14년

86) 『三國史記』 25 百濟本紀 3 阿莘王 6年條.

87) 『日本書紀』 10 應神天皇 8年條.

88) 『日本書紀』 10 應神天皇 16年條.

(404)조의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대방계를 침입하였다는 기사⁸⁹⁾는 협력의 구체적 증거로 들 수 있다.

전지왕은 왜에 파견되어 9년 동안 장기간 머물렀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제2인자였고, 왜에서 장기간 체류하였다는 점에서 곤지와 유사하다. 전지는 파견할 때 사료 E-2에 보이는 것처럼 선왕(先王)인 아신왕의 우호를 쌓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곤지 또한 사료 D에 보이는 것처럼 형왕(兄王)인 개로왕의 우호를 닦는 역할로 파견되었다. 너무도 여러 정황이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전지왕이 파견될 때는 고구려 광개토왕에 굴복한 직후였다. 따라서 아신왕이 태자를 파견한 것은 절치부심한 고민 끝에 나온 특단의 조치였다. 고구려의 남하에 맞서기 위해서는 왜와의 군사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했기 때문에 태자를 파견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려는 백제 측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주군과 지진원 등이 파견되고 다시 고구려와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개로왕은 백제의 2인자인 곤지를 파견하였다. 너무도 흡사한 상황이라면 곤지의 파견 목적을 전지왕 때처럼 군사 협력체계의 구축이라고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곤지 파견 당시 백제와 왜의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⁹⁰⁾ 한성 함락 당시에 왜의 구원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한성 함락이 불과 7일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왜가 백제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 유라쿠기를 보면 고구려군이 전의를 상실한 백제군을 몰아치지 않고 천황의 관가(官家)라 하여 멈추고 있다.⁹¹⁾ 이는 왜곡된 표현임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고구려가 왜의 구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⁹²⁾ 따라서

89) 王健群이 ‘和通殘兵’으로 판독(王健群·林東錫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274~275쪽)하여 백제와 왜가 군사적으로 연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90) 서보경, 2006, 「5세기의 高句麗와 倭國 - 宋書 倭國傳의 倭王武 上表文에 나타난 ‘고구려 정토’ 문제를 중심으로 - », 『百濟研究』 43, 7~14쪽.

91) 『日本書紀』 14 雄略天皇 20年 겨울조.

92) 정재윤, 2015, 앞의 글, 122~125쪽.

곤지가 파견된 주요 목적은 백제계 도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아마토 정권에 협력하면서 왜와 군사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곤지의 좌현왕 역할과 관련하여 가와치의 마사(馬飼) 집단 유적이 쓰쿠시 북부 세력과 관련된다는 견해를 참조하면 더욱 흥미로운 논의도 가능하다. 이 유적의 말 관련 유물을 영산강 유역의 세력이 매개하였다고 보는 것이다.⁹³⁾ 마사 집단의 흔적으로는 오사카부 북동부의 시죤나와테[四條畷]시 기타가와치 지구에 있는 시토미야키타[菰屋北] 유적을 들 수 있다. 시죤나와테시는 서쪽으로는 가와치 내해와 연결되고 동쪽은 이코마[生駒]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은 말이 천변에 자란 풀을 먹을 수 있는 한편 말을 가둬 놓을 수 있어 말 사육 장소로는 최적이었다. 이 유적에서는 영산강 유역에서 보이는 부뚜막과 백제의 대벽건물지가 확인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취사용 백제토기가 다수 확인되어 백제계 도왜인 집단들이 거주하면서 말을 사육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좌현왕 곤지가 왜에 파견된 목적은 그의 행적과 유적을 연결시켜보면 영산강-큐슈-기다이로 이어지는 군사 협력체계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왜의 물적·인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받기 위하여 아마토 정권에 협조했으며, 그 중심에 백제계 도왜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사 협력체계의 가동은 성왕의 관산성전투와 백제 멸망기의 백강전투에서 보인다. 한성이 급작스럽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동이 되지 못했지만 곤지가 이룩한 군사 협력체계가 후대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93) 朴天秀, 2006,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을 통해 본 5~6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研究』 43, 50~52쪽.

V. 맺음말

이제까지 필자는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도왜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와치 지역은 백제계 도왜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한 지역으로 백제와 왜의 군사적 협력체계를 이끈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지는 461년 백제와 왜의 군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왜에 파견되었다. 단순한 파견이 아닌 가와치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백제계 도왜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야마토 왕권에 협력함으로써 유사시에 백제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가 좌현왕 혹은 군군이라는 직함을 가진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하필이면 근지가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은 근지 이전에 주군과 지진원이 정착한 곳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은 백제계 도왜인들의 밀집 지역이라는 점과 야마토 정권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관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야마토 정권은 백제의 선진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그 주도적 역할을 백제계 도왜인들이 하였다. 근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규합하며, 백제와 왜와의 매개 역할을 하는 등 일본 열도에서 백제와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주요 유적들은 제방, 제철, 사찰, 고분 유적을 들 수 있다. 제방 유적으로는 가메이 유적과 사야마이케 유적을 들 수 있다. 백제계 도왜인들은 부업공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제방을 축조하였으며, 관개 작업을 하여 삼승 범람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았다. 생산력의 증대와 생산 기반 시설을 확대한 것이다. 제철은 농기구와 무기류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오오가타 유적이 대표적이다. 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술의 혁신을 가져온 것이다. 사찰은 불교를 통해 국가의 통일성을 추구한 것으로 신도하이지를 꼽을 수 있다. 이들 백제계 도왜인들이 흔적은 다카이디아마, 이치스카, 아스카센즈카 유적 등 많은 백제계 황혈식 석실분이 조영된 것에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곤지를 모시는 아스카베신사의 건립은 그가 가와치 지역에서 백제계 도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만, 곤지의 활동 무대는 현재의 아스카베신사 지역보다는 이시카와와 아스카가와가 흐르는 모리모토신사 부근의 미장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은 아스카라는 명칭과 어울리며, 고대 교통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보다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곤지의 활동으로 백제는 왜와 군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후 관산성전투와 백강전투에서 왜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김기섭, 2005, 「5세기 무렵 백제 도왜인의 활동과 문화」,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百濟學報』 6.
- 羅幸柱, 2015,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 - 특히, 백제계 문필(史姓) 씨족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52.
-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大山誠一, 1982, 「繼體朝成立をめぐる國際關係」, 『史學論集』 10, 東京大學古代史研究會.
- 梁起錫, 1982, 「百濟 腆支王代の 政治的 變革」, 『湖西史學』 10, 호서사학회.
- 門脇禎二, 1965, 『采女(うねめ) - 献上された豪族の娘たち』, 中央公論新社.
- 門脇禎二·水野正好, 1989, 『古代を考える河内飛鳥』, 吉川弘文館.
- 박재용, 2014, 「6세기 고대일본 백제계 渡倭인과 불교」, 『百濟文化』 50.
- 朴天秀, 2012, 『일본 속 고대 한국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朴天秀, 2006, 「榮山江流域 前方後圓墳을 통해 본 5~6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 『百濟研究』 43.
- 飯沼二郎, 1973, 「五世紀にをける農業革命」,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20.
- 山田信夫, 1989, 『北アジア遊牧民族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森浩一, 1975, 「群集墳と古墳の終末」, 岩波講座『日本歴史』 2 - 古代.
- 서보경, 2006, 「5세기의 高句麗와 倭國 - 宋書 倭國傳의 倭王武 上表文에 나타난 '고구려 정토' 문제를 중심으로 -」, 『百濟研究』 43.
- 서보경, 2009, 「渡倭한 百濟系 韓人과 河内 - 百濟王族의 渡倭와 관련하여 -」, 『史叢』 68.
- 小山田宏一, 2001, 「古代河内の開發と渡來人」, 『古代の河内と百濟』, 枚方歴史フォーラム.
- 小山田宏一, 2008, 「碧骨堤の太宗15年の改修とそれ以前」, 『大阪府立狭山池博物館研究報告』 5.
- 小山田宏一, 2013, 「東アジア海が結ぶ沿海低地の開發方式」, 『東アジア海文明の歴史と環境』, 東方書店.
- 水野正好, 1989, 「河内飛鳥と漢韓人の墳墓」, 『古代を考える河内飛鳥』, 吉川弘文館.

- 安村俊史, 2014, 「機内初期横穴式石室にみる百濟の影響」, 『百濟文化』 50.
- 梁起錫, 1981,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대하여」, 『史學志』 15.
- 양기석, 2005, 「5세기 百濟와 倭의 關係」,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연민수, 1998a, 「왜의 오왕시대(五王時代)의 대외관계」,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 연민수, 1998b, 「5세기 후반 백제와 왜국」, 『고대한일관계사』.
- 英木英夫, 2002, 「倭의 五王과 高句麗 - 한반도와 관계된 왜왕의 칭호와 對高구려 전쟁 계획 -」, 『高句麗研究』 14.
- 王健群·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 羽曳野市史編纂委員會, 2008, 『羽曳野市史』 1.
- 李根雨,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李基東, 1974,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 李龍虎, 2009, 「百濟 腆支王代 解氏勢力의 擡頭와 對高句麗 政策」, 『韓國史研究』 147.
- 李在碩, 2001, 「5세기말 昆支의 渡倭 시점과 동기에 대한 재검토」, 『百濟文化』 30.
- 井上光貞, 1965, 『日本古代國家の研究』, 岩波書店.
- 정재운, 2007, 「熊津時代 百濟와 倭의 關係에 대한 豫備的 考察 -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 『百濟文化』 37.
- 정재운, 201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와 의미」, 『百濟文化』 54.
-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정재운, 2013, 「東城王代 倭系 세력의 동향」, 『歷史學研究』 49, 湖南史學會.
- 정재운, 2015, 「5세기 백제계 渡倭人 - 곤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 속의 백제와 왜(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 6)』, 한성백제박물관.
- 趙法鍾, 1989, 「百濟 別稱 鷹準考」, 『韓國史研究』 66.
- 池内宏, 1970, 「日本書紀の應神天皇ないし武烈天皇の間における半島の記事其一」,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 坂本太郎 外, 1967, 『日本書紀』上, 岩波書店.
- 坂元義種, 1968, 「5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국문 초록]

가와치 지역의
백제계 도왜인(渡倭人)

정재윤

이 글은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백제계 도왜인들의 현황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 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 결과 곤지는 가와치 지역에서 정착하여 백제와 왜의 군사적 협력체계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곤지는 461년 왜에 파견되어 가와치 지역에 정착하였다. 곤지 이전에 이 지역에 파견된 인물로는 주군과 지진원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5세기경에 왜에 파견된 인물로 왜와 우호를 닦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가와치 지역에 정착한 것은 백제계 도왜인들의 밀집 지역이라는 점과 아마토 정권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에 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아마토 정권은 백제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그 주도적 역할을 백제계 도왜인들이 한 것이다.

이들이 가와치 지역에 남긴 주요 유적들로는 제방, 제철, 사찰, 고분 유적을 들 수 있다. 부엽공법을 활용한 관개 작업은 상습 범람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았으며,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가메이 유적과 사야 마이케 유적을 들 수 있다. 제철 유적으로는 오오가타 유적이 대표적이며, 농기구와 무기류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신도하이지는 대표적 사찰로, 불교를 통해 국가의 통일성을 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백제계 도왜인들이 흔적은 다카이다야마, 이치스카, 아스카센즈카 유적 등 많은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조영된 것에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곤지를 모시는 아스카베신사가 존재한 것은 그가 가와치 지역에서 백제계 도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그가 좌현왕 혹은

군군(軍君)이라는 직함을 가진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곤지는 이들의 힘을 바탕으로 백제와 왜와의 매개 역할을 하는 등 일본 열도에서 백제와의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다만 곤지의 활동 무대는 현재의 아스카베신사 지역보다는 이시카와와 아스카가와가 흐르는 모리모토신사 부근의 미장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은 아스카라는 명칭과 부합하며, 고대 교통로의 중심이어서 보다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곤지의 활동으로 백제는 왜와 군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이후 관산성전투와 백강전투에서 왜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동북아역사재단

가와치, 곤지, 백제계 도왜인, 아마토 정권, 백제, 아스카베신사, 군사 협력체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Baekje Immigrants to Wa
in Kawachi Province

Chung Jaeyun

This article examines the situation and the role at that time of Baekje immigrants in Wa(百濟系 渡倭人) who had settled in Kawachi Province(河内). The results showed that Gonji(昆支) settled in Kawachi Province and led the military cooperation system between Baekje and Wa(倭).

Gonji played a pivotal role in organizing Baekje immigrants in Wa and in saving Baekje in times of national emergency by cooperating with the Yamato government(大和政權). The reason why he was titled Jwahyeon - wang(左賢王) or Gun - gun(軍君) is related to this. In addition, the reason why Gonji settled in Kawachi Province is related to the fact that Ju - gun(酒君) and Jijin - won(池津媛) had settled there.

Baekje immigrants in Wa left archaeological sites associated with levees, ironmaking, and temples in Kawachi Province and constructed many Baekje horizontal stone chamber tombs, such as the Asuka Senzuka tumuli(飛鳥千塚古墳群). Above all, the foundation of Asukabe Shrine(飛鳥戸神社), which enshrines Gonji, clearly shows that he played a central role in organizing Baekje immigrants in Kawachi Province.

Keywords

Kawachi, Gonji, Baekje immigrants to Wa, Yamato government,
Baekje, Asukabe Shrine, military cooperation syste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

유미림 | 한어문화연구소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 문헌에서 '울릉도·우산도'에 관한 기술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계술과 고증의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것이다.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을 보면 '울릉도 쟁계'를 기점으로 변화가 있으며, 관찬인가 사찬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찬은 기본적으로는 관찬의 기술에 근거하되 사승(師承)관계를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전문(傳聞)정보를 추가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사찬 간에도 관찬 문헌을 인용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른바 실학사상이 태동하고 역관들에 의한 대일(對日)정보가 유입·유통되어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선학을 계술(繼述)하는 것을 학문적 전통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계술의 형태를 취하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식으로 기술하거나 자설(自說)을 세

※ 투고: 2016년 2월 15일, 심사완료: 2016년 4월 22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왔다. 지식인들이 ‘울릉도·우산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한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고,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울릉도 쟁계’ 관련 안용복 행적이었다. 이들은 동일한 문헌을 참고하여 인용하고 있음에도 울릉도·우산도 관련 변증설, 안용복 관련 사항이 저자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한국학계의 독도연구는 『삼국사기』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에 이르는 관찬문헌의 계보 안에서 ‘울릉도·우산도’ 기술을 인용하고 사찬 문헌을 함께 참조하고 있지만, 문헌의 계보가 어떠한지, 거기에 기술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지식인의 변증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¹⁾ 이 글은 한국 문헌에서 ‘울릉도 쟁계’를 기점으로 전후의 기술이 저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이수광에서 시작한 변증설이 이규경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전승·변화되고 있는지 고찰하여, 문헌의 ‘울릉·우산’ 기술이 ‘일도이명(一島二名)’을 기술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저자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밝혀둔다.

1)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장순순, 2015,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對日談論으로서의 울릉도·독도」, 『한일관계사연구』 제51집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관한 18세기 지식인의 인식을 고찰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면, 이 글은 ‘우산도’ 기술의 계보와 내용의 사실관계, 오기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II. '울릉도 쟁계' 이전의 '우산도' 기술

1_삼국·고려시대의 우산국과 우산도

한국 문헌에서 '우산국' 관련 기사는 삼국시대의 기록이 최초다. 『삼국사기』의 '지증마립간 13년(512) 6월' 기사는 지증왕이 이사부를 하슬라주(何瑟羅州, 강릉)²⁾ 군주로 삼아 우산국을 귀복(歸服)시킨 내용이다. 이때의 '우산국'은 사방 100리의 울릉도임이 기사 안에 밝혀져 있다. 동일한 '우산국'에 대하여 『삼국유사』에는 '지철로왕(智哲老王)'³⁾ 기사에서 아슬라주(阿瑟羅州)의 동쪽 바다의 섬으로 기술하고 순풍이면 이틀거리에 "우릉도[지금은 羽陵으로 쓴다]"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우산국 귀복 사실을 기술했는데, 이사부를 이찬(伊滄) 박이종(朴伊宗)으로 기술했고, 섬의 둘레[周廻] "2만 6천 7백 30보"를 추가했다.

『고려사』에서 '우산국' 관련 기사는 지(志)⁴⁾에서 다루었다. 울릉도를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古于伊郡이라고도 한다>)' 소속에서 울진현 소속으로 바뀌었다고 기술했다. 그리하여 울릉도 위치가 강릉의 동쪽 바다에서 울진현 동쪽 바다로 바뀌어 있고, 울릉도의 이칭(異稱)으로는 우산국, 무릉(武陵), 우릉(羽陵)이 언급되어 있다. 우산국 사람이 항복한 해를 지증왕 12년으로 적었는데, 이는 13년의 오기다. 조선 후기 학자들은 대부분 이 오기를 답습하고 있다.⁵⁾ 고려시대를 다룬 사서이므로 고려 연간의 기사(태조 13년과 의종 11년)를

2) 문헌에는 阿瑟羅州, 河瑟羅州(『삼국사기』 「신라본기」 8; 『연려실기술』)로 표기가 다르다. 『삼국유사』에는 阿瑟羅州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지증마립간 외)와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何瑟羅州로 되어 있다.

3) 지철로왕의 성은 김씨(金氏)이고 이름은 智大路 또는 智度路다. 智證은 시호다. 麻立干은 왕을 일컫는다.

4) 志 권12 地理 3 東界 울진현 조.

5)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지증왕 12년(511)과 계제 6년(512)을 둘 다 거론했다. 후에

추가했다. 의종 연간의 기사는 울릉도에 이주정책을 펴기 위해 감창 김유립을 파견하여 조사시킨 내용인데, 이는 『고려사』 권129 「열전」 42, 「반역」 3, 崔怡 30년 기사에도 나온다.⁶⁾ 이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최충헌의 일로 기술한 후로 학자들 대부분이 이를 답습하고 있다.

『고려사』의 내용은 “……有鬱陵島【在縣正東海中 新羅時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 一云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이다. 섬의 위치와 이칭, 땅의 크기를 기술한 방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같지만, 『고려사』에만 특기한 것이 있다. 바로 “一云于山武陵 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우산과 무릉이 본래 다른 섬”임을 일설로서 소개한, 이른바 1도설이다. 여기에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이른바 2도설을 부연했다. 이는 삼국시대에 ‘우산국=울릉도’로 보던 인식이 고려시대에는 ‘우산국=무릉(우릉)≠우산도’ 인식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_ 조선시대의 울릉도·우산도 기술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제를 구현하려는 통치이념 때문에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 사업이 활발해졌다. 이때의 지리지 가운데 『경상도지리지』(1425)와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1432)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의 저본이 되었고, 『팔도지리지』(1477)는 다시 『동국여지승람』(1481)의 저본이 되었다.⁷⁾ 현재 『신찬팔도지리지』는 전하지 않으므로 현전하는 지리지를 중심으로 『세종

지증왕 13년으로 바로 기술한 사람은 이규경뿐이다.

- 6) 울릉도 관련 내용은 “東海中 有島名蔚陵 地膏沃多珍木海錯 以水程遠絕往來者久 怡遣人視之 有屋基破礎宛然 於是 移東郡民實之 後以風濤險惡人多溺死 罷其居民”으로 되어 있다.
- 7) 『경상도지리지』는 후에 『경상도속찬지리지』(1469)로 이어졌고, 『세종실록』 「지리지」는 『신찬 팔도지리지』에 의거하여 참진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단종 2년(1454)에 실록에 붙여 모두 8권 8책으로 완성되었다.

〈표 1〉 『고려사』와 『세종실록』의 울릉도·우산도 기술

문헌명	고려사	세종실록
島嶼名	有鬱陵島	于山武陵
본문		二島在縣正東海中
분주(分注)	【在縣正東海中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武陵 一云羽陵 地方百里 …… 一云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 日清明 則可望見】…….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 百里 ……】…….

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으로 이어진 규칙을 추정·비교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이하 『세종실록』으로 약칭)에서 ‘우산도’ 관련 기술은 ‘강원도/삼척도호부/울진현’에 보이는데, 현의 유래는 『고려사』보다 자세하다.⁸⁾ 두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의 서두 부분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두 문헌을 비교해보면, 『고려사』에서는 도서명으로 ‘울릉도’만을 거론하고 “于山武陵 本二島”를 일설로서 소개한 데 비해, 『세종실록』에서는 도서명으로 ‘于山武陵’ 두 섬을 거론하고 “一云鬱陵島”라는 일설을 소개했다. 이어 『세종실록』은 ‘于山武陵’에 대하여 분주 형식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것은 주지하듯이,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고려사』에서도 보였던 내용이다. 다만, 『고려사』에서는 한 섬[一島]임을 주설로 한 데 비해, 『세종실록』은 두 섬[二島]임을 주설로 한 차이가 있다. 이로써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우산과 무릉’ 두 섬이 “날씨가 맑은 날 서로 바라보인다”는 사실이 주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은 『고려사』에 기술된, 신라시대의 우산국 귀복 기사와 고려 태조 13년과 의종 13년의 기사에다가 조선시대의 내용을 추가했다. 그것은 태조

8)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이 신라에 와서 군(郡)으로 되었다가 고려와 조선에서 울진현이 되었다고 밝혔다.

(태종의 오기)⁹⁾가 안무사 김인우를 보내 섬 주민을 쇄출하고 섬을 비웠다는 내용이다. 『세종실록』에 이어진 것은 『동국여지승람』(1481)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이다. 『팔도지리지』에 문사의 시문을 첨가한 형태의 『동국여지승람』(50권)은 수정과 증보 과정을 거쳐 중종 26년(1531)에 총 55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완성되었다. 여기에도 ‘강원도/울진현¹⁰⁾의 산천 항목에 ‘우산도 울릉도’가 기술되어 있는데, ‘골장진(骨長津)’의 뒤에 이어지고 있다. 선대를 계승하고 있으므로 세종대의 안무사 파견까지를 계승한 뒤에 세종 20년¹¹⁾ 성종 2년의 기사¹²⁾를 추가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의 ‘우산도·울릉도’ 기술은 다음과 같다.

우산도 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땅이 사방 백 리라고 한다. 신라 때는 지세가 험한 것만 믿고 복종하지 않기에 지증왕 12년에 ……】.

9) 『세종실록』에는 태종 16년과 17년 기사로 나온다.

10)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체제는 울진현의 견치연현, 관원, 군명, 성씨,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학교, 역원, 불우(佛宇), 사묘, 고적, 명환, 인물, 제영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11) “세종 20년에 울진현 사람 만호(萬戶) 남호(南顙)를 보내어서 수백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도망해 가 있는 백성들을 수색하여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니 그곳 땅이 그만 비었다”.

12) 그 내용은 「성종 2년에, 따로 삼봉도(三峯島)가 있다고 알리는 자가 있어, 박종원(朴宗元)을 보내어 가서 찾아보게 하였는데, 풍랑으로 인하여 배를 대지 못하고 돌아왔다. 같이 갔던 배 한 척이 울릉도에 정박하였다가, 큰 대나무와 큰 진북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섬 중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세종실록』에서는 '우산무릉'이라고 하여 두 섬 사이에 공백없이 병기되고 있는 데 비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우산도'를 명기한 뒤 공백을 두었다가 그 뒤에다 '울릉도'를 명기했다. '우산도'를 명기했지만 공백을 두고 이어 울릉도를 명기한 것은 '우산도'에 대해 기술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울릉도' 역시 본문 기술은 없고 분주로만 기술했다. 그럼에도 두 섬의 이름을 병기한 것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울진현 관할임을 밝힌 것이다. 이렇듯 세 문헌의 표기 방식은 약간씩 다르다. 『삼국사기』에서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기까지의 두 섬에 관한 기술을 보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로 알 수 있듯이, 『고려사』와 『세종실록』이 두 섬의 관계를 기술한 방식은 같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다르다.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지리지 규칙을 따랐을 것이므로 다른 규칙에 따라 편찬되었을리는 없다. 지리지는 국책사업이므로 예조가 규칙[事目]을 정해 각도에 내려 보내면, 각도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춘추관에 보내게 되어 있다. 다만 예조가 정해주는 규칙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세종실록』 편찬에 저본이 된 『경상도지리지』는 도서의 경우 육지에서의 거리(수로)를 쓰도록 규칙을 정했다.¹³⁾ 『속찬지리지』(1469)도 도서가 본읍의 어느 방향에 있는지, 수로는 몇 리이며, 육지(연안)에서 본읍까지의 거리는 몇 리인지, 섬의 둘레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쓰도록 했다.¹⁴⁾ 이런 규칙은 하나의 섬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실록』에 명기된 도서는 하나가 아니다(우산·무릉).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도 마찬가지로 두 개(우산도·울릉도)의 도서를 언급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런식의 기술은 지리지 규칙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지리지 규칙을 『세종실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무릉(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13) “諸島 陸地相去水路息數 及島中在前人民接居 農作有無 開寫事”.

14) “海島 在本邑某方 水路幾里 自陸地去本邑幾里 四面周回相距幾里 田畝幾結 民家有無”.

〈표 2〉 관찬 문헌의 '울릉·우산' 관련 기술

사료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구분	신라본기/지증마립간 13년	지/지리지3/동계/울진현	지리지/강원도/삼척도호부/울진현	강원도/울진현
도서명	鬱陵島	鬱陵島	于山武陵	于山島 鬱陵島
울릉도 기사	于山國 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	在縣正東海中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武陵一云羽陵 地方百里 …… 一云于山武陵本二島 相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峰岌嶮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
지증왕 기사	智證王十三年夏六月 于山國歸服 ……	智證王十二年 來降 ……	恃險不服 智證王十二年 ……	新羅時 恃險不服 智證王十二年 ……
(고려) 태조 기사		太祖十三年 ……	太祖十三年 ……	太祖十三年 ……
의종 기사		毅宗十一年 ……	毅宗十三年 ……	毅宗十三年 ……
(조선) 태종 기사			我太祖時 …… 金麟雨 …… 刷出空其地 …… 他物稱是】	崔忠獻獻議 …… 本朝太宗金麟雨 …… 刷出空其地 …… 他物稱是
세종 기사				世宗二十年 南顯 ……
성종 기사				成宗二年 三峯島 …… 朴宗元 ……】

어렵다.¹⁵⁾ 육지에서부터 도서와의 거리를 기술하는 규칙을 적용할 경우 이 조건에 맞게 기술한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뿐이다. “二島在縣正東海中”이라고 하여 육지에서의 방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三峰岌嶮撐空” 이하 “風便則二

15)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16~41쪽 참조.

日可到”의 내용도 육지(울진)에서 도서(울릉도)의 수목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순풍이면 이틀만에 갈 수 있다고 한 것도 울진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므로 구식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고려사』와 『세종실록』은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고 했으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맥과는 다르다.

3_울릉도의 목격과 『지봉유설』의 「울릉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어떤 배경에서였을까? 16세기가 되면 이런 사실을 묘사한 문헌이 등장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의 기행문 내지 시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다. 1591년에 강계(江界), 1592년에 평해(平海)에 유배된 바 있던 아계 이산해(李山海, 1539~1609)는 「蔚陵島」¹⁶⁾와 「江夜」¹⁷⁾에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며 ‘울릉도’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蔚陵島說」에서는 해무가 걷혀 날씨가 맑아지면 영동 지방에서 울릉도가 보이는데, 특히 소공대에서는 울릉도의 수목과 강만(岡巒)의 모습이 또렷이 보인다고 적었다.¹⁸⁾ 평해에서 울릉도가 잘 보인다는 사실은 그의 다른 시에도 언급되어 있다.¹⁹⁾ 진주나 평해 등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한 것은 이산해의 경험에 의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해부(寧海府)에서 태어난 신활(申活, 1576~1643)도 유람하다 울릉도를 바라볼 기회가 있었음을 그의 문집에서 볼 수 있다.²⁰⁾ 그에 따르면, 무신년

16) 『鵝溪遺藁』 권1, “漢武秦皇訪異翁 龍舟猶阻蔚陵風 滄波萬古空朝暮 明月蟠桃幾度紅 海雲開盡水浮空 一片芙蓉插鏡中 爲問仙翁容我否 布帆將欲掛西風 倦倚松根午夢闌 冷風吹上鶴天寒 翩躚飛過滄溟外 三島扶桑瞥眼間”.

17) 『鵝溪遺藁』 권2, “故國無消息 孤舟有敝裘 風高蔚陵島 霜落嶺東州 星月寒沙夜 魚龍碧海秋 憂時兼戀主 白髮淚雙流”.

18) 『鵝溪遺藁』 권3, “蔚陵島 在東海之中 距海濱不知其幾百里也 每秋冬之交 陰噎捲盡 海氣澄朗 則自嶺東望之 如一片蒼煙 橫抹於水天之間 獨眞珠府與此島最爲相對 故行人之登召公臺者 或見其林木岡巒之狀 了了可辨 以此知不甚遠也”.

19) 『鵝溪遺藁』 권3 「遊修真寺記」, “……雲捲海朗 則蔚陵島瞭然可望也……”.

20) 『竹老先生文集』 권3 「書蔚陵島圖後」.

(1608) 여름에 기성(箕城, 평해)의 백암산 정상의 암자에서 동북쪽으로 멀리 바다 가운데 산 하나가 보였는데, 이른바 울릉도(蔚陵島)였다는 것이다. 기성에서 울릉도가 보인 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그래서 울릉도의 “빠어난 봉우리들이 구름 위로 우뚝 솟아”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영해의 관어대에서도 울릉도의 삼봉이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²¹⁾

이렇듯 울진, 평해, 영해, 삼척 등지에서는 맑은 날 누대에 오르면 쉽게 울릉도를 목격할 수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시대와 동시대인 심광언(沈彦光, 1487~1540)은 「蔚珍路上望鬱陵島」²²⁾라는 시를 지었다. 이 역시 울진에서 울릉도가 보였음을 말해준다.²³⁾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전문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던 것 같다. 관동 지방을 기행한 박운(朴雲, 1493~1562)은 임자년(1552) 7월 15일 평해현에서 월송정 등을 두루 유람한 뒤 17일에는 우산(牛山)을 둘러보았다. 이때 그는 맑은 날이면 이 지역에서 울릉도(羽陵島)의 봉만(峰巒)이 역력히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²⁴⁾

이런 기술은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風日清明 卽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과 부합된다. 당시 학자들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헌이 『팔도지리지』와 문사들의 시문을 참고하여 편찬되었음을 감안할 때,²⁵⁾ 육지에서 울릉도를 목격한 사실이 널리 퍼져 있던 정황을 반영하여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于山島 鬱陵島’로 언급했지만, 문사들은 ‘울릉도’만 언급하되 ‘蔚陵島’로

21) 『竹老先生文集』 권3 「觀魚臺遊行記」, “望其東海上 三峯次第聳出 隱見于杳靄之間者 蔚陵島也……”.

22) 『漁村集』 권4 「東關錄」.

23) 울릉도 쟁계 당시 승지 김만귀도 자신이 강원도사로 있을 때 울릉도를 멀리서 본 경험이 있음을 승종에게 아뢴 적이 있다. 『승종실록』 20년 2월 23일.

24) 『龍巖先生文集』 권2 잡저 「關東行錄」, “十七日觀東溟 至牛山隈 萬里滄溟 極目無際 縹渺蒼茫 與天相接 相傳羽陵島峯巒 日晴則歷歷可辨云 有魚店十數區列居海陬 漁人數十輩 倚艇引瓢 出沒波濤 如鷗然 支進鯁蛤鮮魚者絡繹 須臾堆積於前壯觀也 於是遍閱珍異 盡日而返”.

25) 『신증동국여지승람』 서문.

썼고, 鬱陵島와 羽陵島는 간혹 보인다. 문사들의 글에는 『세종실록』에 보인 ‘무릉도’는 보이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一云武陵 一云羽陵”이라고 하여 울릉도의 이칭(무릉도와 우릉도)이 보이지만, 문사들의 글에 ‘무릉도’는 보이지 않는다.

17세기 이전의 문헌은 대부분 육지에서 보이는 섬을 ‘울릉도’ 한 섬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두 섬으로 기록한 것도 있다. 이시성(李時省, 1598~1668)은 평해의 망양정 누대에 올라 ‘于山鬱陵’을 바라보고 돌아왔다고 했다.²⁶⁾ 그는 두 섬을 언급했지만, 평해에서 우산도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때의 우산도를 독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가 이렇게 기술한 것은 우산도를 울릉도 인근의 다른 섬으로 인식했거나²⁷⁾ ‘우산·울릉’에 관한 전문을 답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개인이 ‘울릉도’를 지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변증한 최초의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峰類說)』(1614)에서다. 이 문헌은 국내적으로는 봉당정치가 정파 간 세력다툼으로 변질되고 대외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북방 여진족의 흥기로 세력 판도가 재편되던 시기에 국가 증흥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리된 것이다.²⁸⁾ ‘울릉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호칭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수광은 ‘鬱陵島’에 대하여 “一名武陵 一名羽陵 在東海中 與蔚珍縣相對 島中有大山 地方百里 風便二日可到 …… 三峰島亦在東海中 成廟朝 人有告之者 遣朴元宗²⁹⁾ 往探 因風濤不得泊 還過鬱陵島云 ……”³⁰⁾이라고 했다. 그는 이 외에도 신라 지증왕 때

26) 『騏峰集』 권4 「送豐安君趙公赴杆城郡序」, “鴻鵠一舉 雲天無際 因欲過舊所遊洛山 而下臨瀛觀 寒松鏡浦 過陟而登竹西 遊珍之越松 海之望洋 上五臺 窺于山鬱陵二島而還”. 이 시는 내용으로 보아 임신년 즉 1632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27) 울릉도 인근의 섬은 죽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당시는 죽도라는 존재가 알려지거나 문헌에 명기되기 전이다.

28) 신병주, 2008, 「이수광」, 『한국사시민강좌』 42, 일조각, 160~161쪽.

29)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朴宗元으로 되어 있다.

30) 『지봉유설』 권2 「지리부」 「島」.

우산국이라 칭한 사실, 고려 태조 때 섬 사람이 방물을 바친 사실, 조선 태종 때 안무사를 보내 주민을 쇄출하고 섬을 비운 사실 등을 기술했다. 이는 『고려사』와 『세종실록』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일부 보였던 내용들이다. 이로 볼 때 선학의 계술(繼述)로 시작해서 자설(自說)을 세워나가는 전통을 세우기 시작한 사람은 이수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른 글에서 『여지승람』을 인용한 바 있으며, 한림학사로 있을 때 많은 서적을 보았음도 밝힌 바 있다.³¹⁾ 관직을 두루 거친 관료로서의 위치가 많은 정보를 접하는 데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礮竹島’ 운운도 이러한 정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수광은 임진왜란 때 일본의 분략(焚掠)을 당해 울릉도에 인적이 끊어진 틈을 타 일본이 점거했다고 보았다. 이때 그는 “壬辰變後 人有往見者 亦被倭焚掠 無復人烟 近聞倭奴占據礮竹島 或謂礮竹 卽蔚陵島也”라고 하여 ‘蔚陵島’에 대한 일본식 명칭 ‘礮竹島’와 ‘礮竹’을 언급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이후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이때의 ‘礮竹’은 『多聞院日記』³²⁾에서 보인 명칭이기도 하다. 이 문헌의 1592년 조에 ‘이소타키인삼(礮竹蔘)’이 나온다.³³⁾ 이수광이 언급한 일본 명칭은 ‘울릉도 쟁계’ 당시 일본 측과 조선 측 학자들도 거론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³⁴⁾ 그런데 이수광이 “요사이 들으니 왜인(倭人)이礮竹島를 점거했다고 한다”고 한 내용은 도리어 ‘울릉도 쟁계’ 당시 일본이 다케시마가 일본의 속도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써 많이 이용했다. 사실 이수광의

31) 『지봉유설』 권4 「관직부」 「史官」, “…… 余爲內翰 因曝曬得閣地庫諸書 前朝時秘史積在者甚多 …… 我朝實錄 平時內則春秋館 外則忠州星州全州等處分藏 而壬辰兵燹後 唯全州者獲免 移置於江華 至癸卯年(1603) 設局印出累件 分藏於江華及妙香山 太白山五臺山其慮患之意 益深遠矣 但宣祖大王即位以後 至壬辰時政記 蕩然無存 國俗禁野史 故亦無家藏史稿 使二十年間嘉言善政 無憑可書 惜哉”.

32) 나라[奈良] 고후쿠지[興福寺] 다문인[多聞院]의 승려 조지쓰보 에이순[長實房 英俊] 등의 일기를 말하는데, 1478년부터 1618년까지 140여 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원본은 소실되었지만, 흥복사에 46권이 소장되어 있는 등 많은 사본이 현존한다. 『독도 사진』 참조.

33) 礮竹島는 竹島를 가리키지만 명확한 유래가 없으므로 좀 더 고증이 필요하다. 다보 하시는 礮竹은 쓰시마의 명칭이라고 보았다.

34) 남구만은 숙종에게, “지봉유설에 礮竹島는 바로 울릉도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숙종실록』 20년 2월 23일.

‘울릉도’ 기술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³⁵⁾ 성종 2년 삼봉도를 찾으려간 관원이 ‘박원중’으로 되어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삼봉도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울릉도에 들렀다”고 했으므로 이수광은 ‘삼봉도’가 울릉도와는 다른 섬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울릉도에 그들 나름의 호칭을 붙이기 시작한 시기는 임진왜란 전후다. 그리고 일본이 ‘竹島’라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620년 전후 울릉도 왕래가 빈번해진 시기다.³⁶⁾ 『지봉유설』 이후의 지리서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³⁷⁾가 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이를 유형원의 저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³⁸⁾ 이들 문헌에 기술된 ‘울릉도’ 관련 내용은 ‘울릉도 쟁계’를 계기로 보다 상세해진다.



동북아역사재단

III. ‘울릉도 쟁계’의 발생과 이후의 기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_사건 경험자의 증언과 기록

울릉도 쟁계가 일어나기 전 한국 측 문헌은 일국의 사관을 반영했을 뿐 상대국의 인식을 반영하여 기술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는 ‘磯竹’이 전부였다. 이 글은 ‘울릉도 쟁계’에 관한 고찰이 아니므로 인식과 관련해서만

35) 『신증동국여지승람』, “成廟二年 有告別有三峯者 乃遣朴元宗往覓之 因風濤不得泊而還 同行一船泊鬱陵島 只取大竹大鰻魚 回啓云島中無居民矣”; 『지봉유설』, “三峰島亦在東海中 成廟朝 人有告之者 遣朴元宗往探 因風濤不得泊 還過鬱陵島云”.

36) 광해군 연간(1614)에 조선은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 금지를 쓰시마 도주에게 알린 적이 있고, 1620년에는 쓰시마 상인이 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광해군일기』 6년 9월 신해조; 이경직, 『이석문 부상록』.

37) 卷7 江原道 蔚珍縣 山川 于山島鬱陵島.

38)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앞의 책, 114~117쪽을 참조.

고찰하자면, 울릉도 쟁계 이후의 인식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기록은 1694년 장한상의 기록을 들 수 있다. 1693년 겨울 일본정부가 쓰시마를 통해 조선인의 울릉도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서계를 보내오자, 조선정부는 1694년 가을 울릉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무신 장한상을 파견했다. 그가 울릉도 조사 후 남긴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을 보면, 9월 19일 삼척의 대풍소에서 출선하여 울릉도에 도착한 뒤 10월 3일까지 중봉(성인봉)을 비롯하여 끝짜기와 해변가를 돌면서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 쟁계’에 관한 직접적인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울릉도 동쪽 5리 되는 곳에 작은 섬이 있다”고 하거나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디다”라고 하여 울릉도 외에 다른 섬에 비견될 만한 섬을 거론했지만 죽도나 우산도로 명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동시대인인 서계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울릉도(鬱陵島)」에서 ‘우산도’를 언급했다. 그는 “……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해기(海氣)가 아주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³⁹⁾고 했다. 이때 ‘우산도’는 울릉도와는 다른 섬을 의미한다. 박세당이 “蓋二島去此 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晴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이라고 한 것은 『세종실록』의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과 비교해볼 때, ‘二島’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며 날씨가 맑아야만 보인다고 한 점에서는 맥락이 같다. 또한 박세당은 “울릉은 (우산도보다 - 역자 주)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사슴[麋鹿]과 노루[熊獐]들이 이따금 바다 건너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으며”,⁴⁰⁾ “울릉도의 참새들이 죽변곶(竹邊串)으로 무리지어 날아온다”⁴¹⁾는 사실도 덧붙

39) “蓋二島去此 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晴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獐 往往越海出來 朝日纔高三丈 則中黃雀 群飛來投竹邊串”.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앞의 책, 53~62쪽 참조.

40) 필자는 이전에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獐 往往越海出來”에 대하여 해석할 때 한학자들과 논의한 적이 있는데, 사슴 등의 동물이 헤엄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41) “朝日纔高三丈 則島中黃雀 群飛來投竹邊串”.

였다. 이 글대로 과연 울릉도에서 죽변이나 평해까지 짐승들이 헤엄쳐 올 수 있는 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산해의 글이다. 이산해는 평해 지역인의 말을 인용하여 미록(麋鹿)과 노죽(蘆竹)이 물가로 떠내려 오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금(鳥禽)도 바다를 건너온다고 했다.⁴²⁾ 이로써 본다면, 울릉도에서 영해나 평해까지 동물들이 헤엄쳐오거나 대나무가 떠내려 온다고 한 것이 과장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울릉도 쟁계’로 인해 일본 호칭인 ‘竹島’가 조선 국왕과 대신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졌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대신으로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안용복을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감형시킨 자다. 그 이유는 “此人以鬱島屬我國事 兩度辨明於日本”⁴³⁾ 즉 안용복이 두 번이나 일본에 가서 鬱島가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울릉도를 鬱島로 칭하는 한편, 일본이 울릉도를 竹島라고 부른다는 사실과 쓰시마의 간교함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남구만은 박세당의 처남이었고, 박세채(朴世采, 1631~1695)는 박세당과 친족 간이었다. 박세채도 장한상을 울릉도로 파견할 것인지를 두고 조정에서 논란이 일 때(1694년 7월) 참석한 바 있다. 그는 울릉도를 조사하는 일보다 일본과의 교린관계에 금이 갈까봐 더 신경을 썼다.⁴⁴⁾ 이들은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울릉도 쟁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차이가 있다. ‘울릉도 쟁계’ 이후 관련 정보는 이른바 성호학파를 통해 전승되고 있었다. 이때 사승관계나 학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계열의 전통이 적극 계승되고 있었는데, 신경준은 사승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자득한 학자였다. 이런 학맥의 차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학문 방법의 차이로 이어졌다.

42) 『鵝溪遺藁』 권3 「蔚陵島說」, “箕城人嘗言 麋鹿蘆竹 往往浮出於沙渚之間 禽鳥之不知名者 亦翩翩渡海而來 及至海濱 垂翅自墮 爲兒童所捕者數矣”.

43) 『藥泉集』 권31 「答柳相國 丙子十月五日」.

44)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 권5 「筵中講啓」.

2_ '울릉도 쟁계' 기술의 효시인 『성호사설』

이수광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자들은 백과사전적인 학풍도 계승했다. 이익의 『성호사설』, 안정복의 『잡동산이(雜同散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최한기의 『명남루총서(明南樓叢書)』,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과 같은 저술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울릉도 연혁과 쟁계,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기술에서 일종의 교과서적 모델을 제시한 효시는 성호 이익(李瀾, 1681~1763)의 『울릉도』⁴⁵⁾다. 이익은 『고려사』와 『실록』 등의 사료 뿐만 아니라 『지봉유설』도 언급했다. 이수광의 문인 이익은 문하에 안정복을 두었고, 아들로는 『춘관지(春官志)』의 저자 이맹휴가 있다. 이익의 증조부는 이수광과 함께 주청사로서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익이 이수광의 저술을 인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관해 처음으로 기술한 자는 이익이고 이를 완성시킨 자는 아들 이맹휴다. 이들의 기술은 후학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익은 「울릉도」에서 울릉도의 연혁 및 '울릉도 쟁계'에 관해 이전의 사서(史書)를 인용함으로써 그의 저술을 시작했다. 지증왕 12년(13년의 오기-역자) 및 고려 의종 11년, 조선 태종과 세종 시대의 '쇄환' 사실은 선학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다만 이익은 지증왕대의 기사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했다.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데, 우산국(于山國)이라고도 한다. 육지에서 멀리 700~800리쯤 되며, 강릉과 삼척 등지의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 세 봉우리가 가물거린다"라는 내용이다. 그가 육지에서 거리, 그리고 앞의 기행문에서 나왔듯이 삼척 등지에서 울릉도의 세 봉우리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인데,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익은 이수광이 말한 '礮竹島'를 재인용했지만, '礮竹'인지 '礮竹'인지에 대해서는 고증하지 않았다. 이익은 장한상의 북명 기록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이 '울릉도 사적'과는 같지 않지만, 울릉도 남북과 동서 간의

45) 『星湖塞說類選』 권9 하 經史篇 8 論史門 「鬱陵島」.

거리, 가지어(嘉支魚)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어 있다.

이익은 “왜인들이 어부 안용복이 월경(越境)한 일을 가지고 와서 쟁론할 때, 『지봉유설』과 예조의 회답 가운데 ‘貴界’니, ‘竹島’니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다”고 했다. 예조의 회답서는 이른바 정부 측 문서다. 이익이 이수광과의 관계, 즉 이익의 딸이 이수광의 후손과 결혼한 사실 등 집안끼리 세교(世交)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익이 이수광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수광이 언급하지 않은, 이른바 안용복 사건 관련 예조의 문서까지 언급하게 된 것은 어떠한 배경에서였을까? 그것은 이익의 아들 이맹휴가 예조 정랑을 지낸 사실과 관계있어 보인다. 이맹휴는 1744년에 예조 정랑으로 재임 시 예조의 등록을 정리·인출하는 일을 담당했고 그렇게 해서 성립한 것이 바로 『춘관지』다. 『춘관지』는 관찬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맹휴는 아버지인 이익보다 먼저 죽었고,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춘관지』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맹휴는 『춘관지』에서 ‘울릉도 쟁계’ 관련 사실뿐만 아니라 안용복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다. 그런데 이맹휴의 글에 자설을 추가하거나 고증한 점을 제외하면, 이맹휴의 기술을 계승한 자는 신경준이다. 그리고 신경준을 계승한 자가 안정복이다. 신경준과 안정복을 제외하면, 이후 울릉도에 관한 변증설은 대부분 이맹휴의 『춘관지』를 전범(典範)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학자에 따라 이맹휴의 오류까지 답습했느냐 아니면 고증했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할 것이다.

이익은 울릉도 쟁계 당시 조정의 처사가 미비함을 비판하여 “우릉(羽陵)으로 부르든, 의죽(儀竹)으로 부르든, 무어라 지칭하던 울릉이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며, 그 부근의 도서(島嶼)도 울릉의 속도(屬島)에 지나지 않는다”⁴⁶⁾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일본 측에 “설령 중간에 일본이 함부로 빼앗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양국이 성신으로 화약(和約)을 맺은 뒤에는 하루빨리 옛 영토를 돌려주어야 하는 법인데 허물며 일본

46) 『성호사설』 제3권 「天地門」의 「鬱陵島」, “無論羽陵儀竹之何指 鬱陵之屬我邦 則百分明白 而其旁近島嶼 亦不過鬱陵之屬島”이다.

의 판적(版籍)이 든 적이 없었던 땅임에랴”고 강하게 비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릉도 쟁계가 일본이 울릉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울릉도 부근의 도서도 울릉도의 속도”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울릉도 쟁계가 울릉도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이들 섬이 일본의 판도(版圖)에도 든 적이 없다고 보았다.

이익은 안용복의 행적을 처음으로 소개한 자다. 그가 기술한 안용복의 행적은 줄곧 계술되고 있으므로 다소 길지만 내용을 적어보기로 한다.

안용복은 동래부 전선(戰船)에 속한 노군(櫓軍, 뱃사공)으로 왜관에 출입하여 일본어에 능숙했다. 1693년 여름 울릉도에 표류했다가 먼저 와 있던 7척의 왜선과 다툼이 일어나 그 중의 일본인에게 잡혀 오랑도(五浪島)로 잡혀가 구금당했다. 안용복은 도주에게 ‘울릉과 우산은 본래 조선에 속하며, (이들 섬은) 조선쪽에 가깝고 일본쪽에서는 멀다(鬱陵芋山本屬朝鮮 朝鮮近而日本遠)는 사실을 들어 항의하자, 도주는 호키주[伯耆州]로 보냈다. 호키에서도 도주가 후대하고 은지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호키 도주는 에도에 아뢰어 계권(契券)을 만들어주었다(稟于江戶 成契券與之). 결국 안용복은 돌려보내져 행차가 長崎(崎)의 오기-역(或)에 이르렀는데 도주가 쓰시마[馬島]와 한편인지라 계권을 빼앗고 쓰시마로 보냈다. 쓰시마 도주가 에도에 보고하자, 에도에서는 다시 서계를 만들어 두 섬을 침략하지 말라고 하고 본국으로 호송하도록 명했다(江戶復爲書契 勿令侵兩島 且令護送). 쓰시마 도주는 다시 그 서계를 빼앗고 50일을 감금했다가 동래왜관으로 보냈다. 거기서 다시 40일을 있다가 동래부로 보내졌다. 안용복은 모든 일을 동래부사에게 호소했지만, 부사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월경죄로 2년형을 내렸다. 을해년(1695)⁴⁷⁾ 여름 다시 안용복은 분해서 승려 5명과 사공 4명과 함께 울릉도에 갔다. 조선의 상선 3척이 먼저 와서 어채하고 대나무를 베

47) 병자년, 즉 1696년의 오기다.

고 있었다. 왜선이 오자 안용복은 이들을 포박하려 했지만 일행들이 무서워 따르지 않았다. 왜인들은 “우리들은 마쓰시마[松島]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고 물러가자, 안용복은 “마쓰시마[松島]⁴⁸⁾도 본래 우리 우산도이다(松島本我芋山島)”고 하고는 다음날 우산도(芋山島)로 갔다. 안용복은 도망가는 일본인들을 뒤쫓아가서 옥기도(玉岐島, 오키도의 음차)로 갔다가 호키주에 이르렀다. 호키주 도주가 맞이하자 안용복은 ‘울릉 수포장(鬱陵搜捕將)’이라 자처하고 교자를 타고 들어가 도주와 전후의 일을 소상히 대답하였다. 그리고 쓰시마가 물품을 가로챈 기만을 관백(關伯, 關白의 오기)에게 직접 알리겠다고 한 뒤 일행 중 글을 아는 자가 소장(疏章)을 지어 도주에게 보여주었다. 쓰시마 도주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호키로 와서 용서를 구했고, 사과와 서간을 보내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결말이 지어졌다. 안용복이 8월에 양양으로 돌아오자 방백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여 안용복 등을 한성으로 압송했는데 심문 당시 여러 사람의 진술이 같았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참형에 처하려 했다. 죄목은 월경하여 이웃나라와 분쟁의 단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신 윤지원과 남구만이 안용복이 쓰시마의 죄상을 폭로한 정상을 참작해서 귀양 보내는 것으로 감해주었다. 안용복은 영웅호걸이다. (밑줄은 인용자)

이것이 두 번에 걸친 안용복 사건에 대한 이익의 기술이다. 이렇듯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는 『성호사설』이 최초이며, 그 내용은 후학들에 의해 계술과 전승을 거듭했다. 후학들은 일부 내용을 잘못 옮겨 적기도 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익이 기술한 내용을 포함해서 쟁점이 될 만한 것을 보면, 안용복이

48) 일본인이 먼저, ‘마쓰시마’라고 했으므로 안용복도 마쓰시마로 칭했다고 보아야 한다. 안용복이 일본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안용복은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항의할 때 근거한 것은 무엇이며 ‘우산도’도 함께 거론했는가, 계권은 호키 태수가 에도에 아뢰어 발급해준 것인가 아니면 안용복이 직접 에도에 가서 받아온 것인가, 이익은 서계를 작성한 자가 호키 태수와 에도 두 곳인 듯 적었고 쓰시마도주가 빼앗은 서계는 에도의 서계인 것처럼 기술했는데, 빼앗긴 서계는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빼앗긴 곳은 나가사키인가 쓰시마인가? 에도막부가 조선의 두 섬을 침략하지 말라는 서계를 써주었다는 것은 사실인가? 1696년(원문은 1695년)에 안용복은 호키에 소장을 제출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록과 맞지 않거나 실록에 없는 내용이 있다. 실록은 안용복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일본 기록과도 다르다. 이 글은 한국 측 문헌에 관한 고찰이므로 이익과 이맹휴의 기술을 통해 검증하기로 한다.

3_ 『춘관지』의 기술: 계술과 자설 사이에서

이익의 아들 이맹휴(李孟休, 1713~1751)는 「울릉도 쟁계」를 지었고, 이는 『춘관지』(1745 완성, 1781 예조)⁴⁹⁾에 수록되었다. 『춘관지』가 예조에서 편록(編錄)된 것이니 만큼 거기 실린 「울릉도 쟁계」도 서계와 일본 측 문서를 싣고 있어 사찬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맹휴가 먼저 죽은 데다 저술 연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기록의 선후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맹휴가 기술한 내용이 이익의 기술보다 상세하다. 『춘관지』 자체는 독자적인 저술이기보다는 등재(騰載)한 것이어서 다른 기록을 인용·편집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익은 그 안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아들에게서 제공받았을 것으로

49) 규장각 해제에 따르면 1744년으로 되어 있다. 1781년에 조카인 이가환이 예조 낭관 자격으로 완성시켰다. 그러나 『춘관지』 범례에 따르면, 이 문헌은 예조의 사례를 등록(騰錄)에 의거하여 요약해서 실은 것이고, 등록에 없는 것은 선배의 遺集, 野史, 稗乘에 의거하여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원문을 그대로 신되 약간의 윤척(潤刪)을 했으며, 등록이 소략하여 야사 등을 참고했음도 밝혀져 있다.

보인다.⁵⁰⁾ 이맹휴는 울릉도가 울진현에 속하는 섬임을 밝히고 『여지승람』을 인용했다. 이는 이익이 모두(冒頭)에서 육지와 울릉도 간의 거리를 언급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맹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一云武陵 一云羽陵 在蔚珍正東海中 三峯岌嶮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 本一島”까지를 인용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本一島’ 뒤에 ‘地方百里’ 네 글자가 더 있는 것을 제외하면 완전히 같다. 이어 이맹휴는 “동사운(東史云)”을 빌어 삼국시대의 역사부분을 계술했다. 즉 지증왕 12년(13년의 오기)의 기사와 고려 태조 13년, 의종 12년, 조선 태종 기사, 세종 20년 기사, 성종 2년의 ‘삼봉도’ 기사, 그리고 『지봉유설』의 ‘礮竹’을 인용했다. 그는 다시 광해군 4년(6년의 오기-역자)의 사건과 숙종 19년의 울릉도 쟁계, 일본 측 서계에 대한 답서, 1694년에 일본 측이 ‘울릉’ 삭제를 요구한 서계와 예조의 답서, 1695년 5월 橘眞重의 항의서간, 1696년 10월 쓰시마가 역관 편에 보내온 서간, 안용복에 관한 행적을 기술했다. 이 가운데 숙종 19년부터 22년까지 양국 간의 외교적 논쟁은 이익이 기술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맹휴는 장한상의 조사 후 5년마다 월송 만호와 삼척 영장을 교대로 보내기로 한 사실도 기술했다. 이익은 장한상의 조사와 가지어(嘉支魚)에 대해서는 기술했지만, 수도 제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맹휴가 기술했다면, 이는 그가 이익의 저술 외에도 다른 것을 참고했음을 의미한다.

이맹휴는 이수광의 글을 인용하되 명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수광이 언급한 ‘礮竹島’ 혹은 ‘礮竹’이 전문(傳聞)에 의거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대개 이 섬은 대가 나는 까닭에 竹島라 하고 세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삼봉도라 하며, 우산이니 우릉이니 울릉이니 무릉이니 의죽이니 하는 것은 모두 발음[音號]이 잘못 전해져 그런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즉 이맹

50) 장순순(2015)은 이익이 이맹휴의 정보를 참고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익이 다른 글에서 이맹휴의 견해를 소개한 것이 울릉도 쟁계와 관련해서도 이맹휴의 견해를 차용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이맹휴가 당시 외교문서 등을 접할 수 있었고 일본 관련 지식이 많았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아들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했다고 보인다.

휴는 磯竹島는 물론이고 삼봉도와 우산도도 울릉도의 이칭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이맹휴는 숙종 연간 조·일 양국이 벌인 논전(論戰)도 기술했다. 이 내용은 표로 정리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그가 일본으로 잡혀간 사람이 안용복, 박어둔임을 밝힌 데 비해, 이익은 박어둔을 밝히지 않았음을 언급하는 데 머무르고자 한다. 이맹휴도 안용복의 행적을 기술했다. 그가 기술한 내용은 이익의 기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실록을 함께 대조해보고자 한다. 한국 측 문헌의 내용은 일본 측 문헌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국 문헌에 초점을 맞춰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이익은 ‘울릉도 쟁계’와 관련하여 적게 언급했지만,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용복 관련 내용은 서로 양적으로 비슷하게 기술했다. 다만 세 문헌을 비교해보면, 실록은 기술하지 않은 사실도 『성호사설』이나 『춘관지』는 기술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자. 우선 실록은 안용복이 들어간 일본 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익과 이맹휴는 ‘오랑도’로 명시했다가 1696년에는 玉岐島로 명시했다. 이익과 이맹휴는 표현은 다르지만 둘다 안용복이 도주에게 울릉도가 조선에서는 하루길, 일본에서는 5일 길이라고 말한 사실을 기술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실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관백의 서계 부분을 보면, 실록은 안용복이 관백의 서계를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작성자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익과 이맹휴는 호키 태수가 에도에 아뢰어 서계를 만들 어준 것으로 기술했다. 위 문장만으로는 서계 작성자가 에도인지 호키 태수인지가 불분명하다. “에도에 아뢰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에도의 허락을 받아 호키에서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익은 서계를 두 군데서 받은 것으로 적었지만, 이맹휴는 호키에서만 받은 것으로 적었다. 이맹휴는 서계에 “울릉은 본래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써있다고 했다. 즉 ‘우산도 혹은 자산도’는 빠져 있다. 안용복은 서계를 빼앗은 자가 쓰시마도주라고 진술했지만,⁵¹⁾ 이익과 이맹휴는 쓰시마 도주와 한 당인 나가사키 도주가 빼앗은 것으로 적었다. 이익은 1696년 안용복이 두 번째로 도일한 시기를 1695년

51) 『숙종실록』 22년 9월 25일.

〈표 3〉 안용복 행적에 관한 세 문헌의 기술

키워드	속종실록	성호사설	춘관지
도서명	섬이름 언급 없음	五浪島	五浪島
거리 언급	거리관계 언급 없음	조선에서는 가깝고, 일본에서는 멀다	조선에서는 하루길, 일본에서는 5일 길
서계 작성자	에도로 잡아감(남구만의 말), 근년에 鬱陵子山을 조선 지계로 해준 관백의 서계가 있었다(안용복의 말)	호키 도주가 에도에 아뢰어 계권을 만들어주었다	호키 태수가 관백에게 아뢰어 서계를 만들어 주니, 울릉은 본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쓰여 있었다(稟關伯 作書契受之 言鬱陵非本日界)
서계 강탈	계권을 쓰시마도주가 강탈함	계권을 長碕도주가 빼앗았다	서계를 長碕도주가 강탈했다
서계 작성 여부	언급 없음	쓰시마 도주가 보고하자, 에도에서는 兩島를 침략하지 말라는 서계를 쓰시마로 보냈다	쓰시마도주가 관백의 명을 빙자하여 서계를 보냈다
구금 기간	언급 없음	쓰시마에 50일, 동래왜관에 40일 구류되었다	쓰시마와 동래에 구금, 90일 만에 방면되었다
1차 처벌	언급 없음	월경죄 2년형	언급 없음
1694년	1694년 접위관 유집일 파견, 안용복 심문	언급 없음	1694년 접위관 파견, 안용복이 진술
차왜			차왜의 잦은 방문과 위협
1696년 도일	1696년 울산, 뇌헌 등 11명	1695년 총 10명, 조선 상선 3척	1696년 울산에서 상승 雷 등 유인, 사흘 만에 울릉도 도착
도서명 언급	안용복, 松島卽子山島	안용복, 松島本我芋山島	안용복, 松島卽芋山島
진술 - 1	태풍으로 玉岐島, 다시 伯耆州 울릉자산 양도 감사장, 이인성이 疏 작성	玉岐島에서 伯耆州로, 울릉 수포장, 글 아는 자가 疏작성	백기주 항례, 울릉 감세관, 馬島 행위 폭로
진술 - 2	도주 부친이 伯耆州에 간청, 왜인 15인 처벌	쓰시마 도주 부친이 伯耆州에 용서를 구해 결착	쓰시마 도주 부친이 에도에서 듣고, 伯耆 태수에게 간청, 태수가 안용복 회유
진술 - 3	도주, 兩島旣屬兩國之後 ……	언급 없음	언급 없음
귀국	차왜 호송을 사양, 양양 귀국, 비변사행, 다른 사람의 공술과 일치	양양 귀국, 한성으로 압송, 심문, 공술	양양 귀국, 소장을 태수에게 제출, 10인 공술
쟁계 후 처리	언급 없음	쓰시마가 서간으로 인정, 사과	쓰시마가 서간을 보내 울릉도 조선 땅임을 인정, 사과, 안용복의 통로 문제시함
2차 처벌	감사(減死), 정배(定配)	참형과 감형, 유배	참형과 감형, 유배

총 10명으로 기술했지만, 이맹휴는 1696년에 총 11명이 간 것으로 적었다. 실록은 안용복이 오키호키로 오기 전 일본인들에게 “松島는 바로 자산도이다”라고 말했다고 기술했지만, 이익과 이맹휴는 ‘자산도’가 아닌 ‘芋山島’로 기술했다. 실록은 안용복이 일본 호키에서 사칭한 관명을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으로 기술했는데, 이익은 ‘울릉 수포장’으로, 이맹휴는 ‘울릉 감세관’으로 기술했다. 이후의 기록들도 대부분 ‘울릉 감세관’으로 적었고, 일본 기록은 ‘조울 양도 감세장’⁵²⁾으로 적었다. 이맹휴는 1696년 안용복이 귀국 후 일본에서 바쳤던 소장(訴狀)을 제출한 것으로 적었지만, 실록과 이익의 문헌에는 이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실록과 두 사람의 기술은 다르지만, 이익과 이맹휴 두 사람의 기술은 대체적인 내용이 같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실록은 안용복이 에도에서 관백의 서계를 받은 것으로 기술했지만,⁵³⁾ 이익과 이맹휴는 호키 태수가 에도에 아뢰 뒤 작성해준 것으로 기술했다. 다만 실록에는 안용복이 “내가 근년에 이곳(호키)에 들어와 울릉도와 자산도 등의 섬을 조선 땅으로 정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있는데(頃年吾入來此處 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 至有關白書契)”라고 한 사실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前日以兩島事 受出書契 不啻明白 ……)”라고 말한, 두 가지 사실이 기술되어 있으나, 에도에 직접 갔다고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관백의 서계라고 했지만, 이익과 이맹휴의 기술대로라면 호키 태수가 관백의 명에 의거하여 써주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안용복이 에도에 갔다고 본 사람은 남구만으로, 조선이 보낸 서계에 대한 개작 회답서에서 보인다.⁵⁴⁾ 그런데 남구만은

52) 『竹島考』.

53) 1693년 안용복의 납치를 계기로 일본이 울릉도 영유권을 두고 조선과 교섭에 나서며 그 과정에서 쓰시마는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획책을 강구하여 에도에 상신한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에도 막부가 호키주의 보고에 근거해서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서계를 써주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송병기는 관백이 아니라 돛토리번의 중신으로부터 받은 서계로 보고 있다.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54쪽.

54) 『숙종실록』 20년 8월 14일.

다시 1696년에는 “본주(호키주)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라고 하여 1693년에 공문을 써 준 주체를 호키주로 보고 있다. 동일인의 진술에 따른 기록이지만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 1696년에 안용복이 울릉도에 있던 일본인을 쫓아내며 松島로 쫓아가 “松島는 바로 자산도이다”고 말한 사실은 문헌마다 공통적으로 보인다. 다만 도명이 실록은 子山島로, 이익과 이맹휴는 芋山島로 적었다. 이익은 “鬱陵芋山本屬朝鮮”이라고 하여 ‘芋山’으로 적었다. 그렇다면 ‘子山’과 ‘芋山’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걸까? 子山과 芋山은 글자가 비슷하다. 그러므로 子山을 芋山으로 오기할 개연성은 있지만, 子山을 芋山으로 오기할 개연성은 적다. 그런데 이익과 이맹휴는 둘다 ‘芋山島’로 적었다. 그렇다면 이는 芋山島가 于山島와 통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안용복이 칭한 관명이 실록에는 ‘鬱陵子山 兩島監稅將’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익과 이맹휴가 ‘芋山島’로 표기했다면, 이는 안용복이 ‘자산도’라고 칭했다기보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于山島’를 ‘子山島’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셋째, 이맹휴는 안용복이 1696년 양양으로 귀국한 뒤의 심문에서, 호키에 있을 때 태수에게 올렸던 소장(奏狀)을 증거로 바쳤다(獻在伯耆時呈太守文)고 말한 것으로 기술했지만, 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속중실록』 1696년 9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안용복이 비변사에서 심문받을 때, 호키에서 이인성으로 하여금 소장을 지어 바치게 했지만(使李仁成 構疏呈納), 에도에는 품정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안용복이 호키 태수에게 소장을 이미 제출했는데, 조선으로 돌아와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따로 부분을 만들어 두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⁵⁵⁾ 다만 소장이 증거로 남아 있는가와는 관계없이 안용복이 일본 측에 정

55) 송병기는 안용복이 소장 사본을 돛토리번에 제출했으며 소장은 오키에서 이인성과 의논하여 쓰게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속중실록』에는 사본이 있었을 것임을 뜻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송병기, 2010, 앞의 책, 94쪽.

문(美文)했음은 양측 기록이 인정하는 바다. 안용복이 돛토리번에 다케시마 문제로 소송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를 심문한 오키 관리도 알고 있었고, 소장물 돛토리번에 제출했음은 일본 기록에도 보이기 때문이다.⁵⁶⁾

이렇듯 이익과 이맹휴의 기술은 실록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실록에 없는 내용을 신거나 문맥이 다르게 기술한 경우가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맹휴가 예조의 관리로서 등록(謄錄)을 볼 수 있었던 사실 외에 범례에서도 밝혔듯이 야사, 일기 등의 기록을 참고했기 때문이다.

IV.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계술에 대한 고찰

1_ 이중환과 안정복의 계술

이수광과 이익 간의 사승관계, 이익과 이맹휴 간의 부자관계는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관한 정보를 공유·전송하기에 충분했다. 이익은 문인을 배출하고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울릉도 관련 논저를 남긴 자는 이중환과 안정복이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이익의 종손이며, 따라서 『택리지』 서문을 이익에게서 받았다. 그렇다면 이중환은 울릉도 관련 내용을 어떻게 기술했을까?⁵⁷⁾ 이맹휴는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보았는데, 이중환은 강원도 삼척부 소속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역시 “天晴登高望見或如雲氣

56) 『숙종실록』 22년 10월 13일, 남구만은 숙종에게 “이제 안용복이 다시 백기주에 가서 정문(美文)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일본에서는 『御用人日記』 元祿 9년 6월 22일자 기록에 보인다. 박병섭, 2015, 「元祿·天保 竹島一件と竹島=獨島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0号, 鳥取短期大学, 27쪽에서 재인용.

57) 『擇里志』 「卜居總論」 「山水」.

……”라고 하여 울릉도가 육지에서 맑은 날 보인다고 인식했다. 그는 장한상이 함경 안변부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떠난 지 이틀 만에 도착했다고 적었는데, 삼척 영장으로서 장한상이 함경도 안변부에서 출선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익이나 이맹휴의 기술과도 다르다. 이중환은 수세(水勢)가 변해 일본배가 많이 표류하여 영동에 이르게 된 상황을 근심했지만, ‘울릉도 쟁계’를 상술하지는 않았다.

이익의 제자로서 울릉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자는 안정복이다. 경기도 광주 출신인 안정복은 스승의 글을 『성호사설유선』(1762)으로 정리한 자다. 정조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를 편찬하려 할 때 안정복은 이가환에게 신경준의 지리서와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 『성경지(盛京志)』 등을 참고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⁵⁸⁾ 안정복은 이가환과의 서신에서도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을 언급했는데,⁵⁹⁾ 이가환(1742~1801)도 이익의 종손이다. 그러므로 안정복은 이가환과도 학맥과 세교(世交)가 있었다. 안정복(1712~1791)의 울릉도 관련 기술은 『잡동산이』(1759년 이후)에 실려 있는데, 고려 의종 11년을 12년으로 오기한 것을 제외하면, 내용은 신경준의 『강계고(疆界考)』⁶⁰⁾와 거의 똑같다. 안정복은 신경준(1712~1781)과 동갑으로 신경준⁶¹⁾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잡동산이』는 1759년 이후에 완성되었고, 『강계고』가 완성된 시기는 1756년이다. 게다가 신경준은 1770년에 『동국문헌비고』

58) 『順菴先生文集』 권7 「與李廷藻 家煥書」(기유 1789).

59) 『順菴先生文集』 권7 「與李廷藻 家煥書」(기유 1789).

60) 표지에는 『강계지』로 되어 있지만, 『여암전서』에는 「疆界考序」로 했으므로 『강계고』로 했다. 3권 3책의 『강계고』를 1930년대에 조선사편수회가 7권 4책의 『강계지』로 엮었다.

61) 신경준은 33세(1744)부터 43세까지 10년간 고향(전남 순창)에서 머물며 저술에 힘쓰다가 그의 나이 41세(1754)에 증광시에 합격했다. 이때 장시관이 홍양호였다. 홍양호는 그 후 여암의 평생의 지기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홍양호는 1757년에 영조에게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을 건의하여 여지도서 편찬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가 여암의 『강계지』를 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동환, 2003, 『旅菴 申景濬의 학문과 사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183~184, 188쪽.

「여지고」를 담당했다.⁶²⁾ 그렇다면 이들의 계승관계는 어떠한가?

안정복이 연도를 오기한 경우가 있는데⁶³⁾ 이맹휴도 같은 오기가 보인다. 그렇다면 안정복의 오기는 이맹휴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안정복이 이맹휴가 기술한 대로 전부 수록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안정복은 이맹휴가 기술한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켰지만, 신경준이 기술한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실었다. 안정복이 이맹휴의 『춘관지』를 참고했음은 분명하지만,⁶⁴⁾ 전반적인 내용이나 구성을 보면 신경준에 더 가깝다. 신경준이 이맹휴의 오기를 바로잡았는데, 안정복은 신경준을 따랐으므로 안정복은 신경준을 계승한 것이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안정복의 글에 있다. 안정복은 신경준의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부분을 인용했다. 이 내용은 『동국문헌비고』에 실려 있지만, 『강계고』에서 유래한다. 즉 『강계고』에 “愚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本一島 而考諸圖志 二島也 一則所謂松島 而蓋二島俱是于山國也”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신경준이 『동국문헌비고』(1770)를 찬술하면서 관찬서 체제에 맞춰 ‘愚按’을 빼고 일부를 수정하여 『동국문헌비고』에 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정복은 『동국문헌비고』의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동국문헌비고』의 문장을 자기 저술에 온전히 인용한 자로는 안정복이 유일하다. 이로써 안정복이 신경준의 인식을 온전히 계승했음이 입증된다. 이 또한 안정복이 이익, 이맹휴와 사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르지 않고 신경준을 따랐음을 의미한다. 신경준의 『강계고』가 완성된 시기는 이맹휴의 『춘관지』가 완성되고 10여 년 뒤다.

62) 신경준은 영조의 명으로 『여지승람』을 감수한 바 있고, 1770년에 『문헌비고』를 편찬할 때 「여지고(輿地考)」를 담당했다. 「동국여지도」의 감수도 맡았다. 그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흥봉한이 신경준의 『강계고』를 보고, 울릉도 쟁계 관련 외교문건에 관한 책자 편찬의 실무 책임자로 천거했기 때문이라고 한 점(고동환, 2003, 앞의 글, 185쪽)으로 보건대, 외교문서를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3) 신경준이 고려 의종 기사를 11년(11년이 맞다)으로 적었는데 안정복은 12년으로 적었다. 광해군 4년 의죽도 관련 기사를 신경준은 광해군 6년(6년이 맞다)으로 적었는데 안정복은 광해군 4년으로 적었다. 광해군 4년으로 적은 시초는 이맹휴다.

64)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 저술은 다른 전적에서 발췌하거나 전제한 경우가 많다고 하여 폄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

2_신경준의 고증과 자설(自說)의 성립

일본은 신경준이 이맹휴의 설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들어 신경준이 이맹휴의 설을 개찬(改竄)했다고 비판한다. 과연 신경준은 이맹휴의 「울릉도 쟁계」를 계술한 것인가 개찬(改竄)한 것인가, 아니면 개찬(改撰)한 것인가? 이는 두 사람의 글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⁶⁵⁾ 신경준의 『강계고』는 얼핏 보면 이맹휴의 「울릉도 쟁계」를 계술한 듯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이맹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三峯岌嶽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 부분을 답습했지만, 신경준은 “鬱一作蕙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即于山 在蕙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歧州相近”이라고 기술했다. 이맹휴는 “울릉도는 강원도 해중에 있는데 울진현에 속한다”로 시작하고 나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했다. 하지만 신경준은 이를 인용하기에 앞서 “鬱陵島의鬱자가 다르게 쓰여 蕙陵, 芋陵, 羽陵, 武陵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두 섬이며 그 중의 한 섬은 于山島이다”라는 내용을 먼저 삽입했다. 즉 “울릉과 우산은 두 섬이며 그 중 하나는 ‘우산(于山)’이라”는 내용은 신경준의 자설이다. 이는 이맹휴가 언급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一說于山鬱陵本一島”에 대한 신경준의 비판적 평가이기도 하다. 신경준은 이들 섬이 일본의 오키주와 가깝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자다. 이익은 울릉도가 울진에서 700~800리가 된다고 보았지만, 이맹휴와 이중환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신경준도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신경준은 두 섬이 일본 오키에 속한다고 보아서 이맹휴를 따르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신경준이 다시 울릉도가 “조선에서는 하루길이고 일본에서는 5일 길”이라는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봉도’와 관련해서 신경준과 이맹휴는 의견이 완전히 갈린다. 이맹휴는 성종 2년에 출현한 ‘삼봉도’가 울릉도를 의미한다고 단정했지만, 신경준은

65)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앞의 책, 94~128쪽을 참조.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 대신에 성종 2년 기사 다음에 “(愚)⁶⁶⁾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本一島 而考諸圖志二島也 一則其所謂松島 而蓋二島俱是于山國也”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과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⁶⁷⁾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요점은 다음과 같다. 즉 신경준은 이맹휴가 『여지지』의 “一說于山鬱陵本一島”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삼봉도와 의죽도, 우산도를 모두 울릉도로 단정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 이 구절을 고의로 삽입했다는 것이다. 신경준은 우산과 울릉이 별개의 섬(2도설)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의 호칭 ‘마쓰시마’까지 거론한 것이다.

신경준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일설’을 검증하여 세운 자설은 두 종류의 문헌에 실렸다. 하나는 『강계고』이고, 다른 하나는 『동국문헌비고』다.⁶⁸⁾ 모두 ‘2도(二島)’설을 신고 있다. 그런데 신경준과 동시대인 그리고 후대의 학자 중에 누구도 『춘관지』의 ‘일설(1도설)’을 인용하지 않고 있다. 신경준의 ‘2도’설도 안정복을 제외하면, 아무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안정복이 인용한 것은 『동국문헌비고』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후에 관찬 문헌 『만기요람』(1808)으로 이어져, 성종 2년 박종원의 조사 다음에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증보문헌비고』(1908)에도 성종 2년 박원종(원문대रो)의 조사 다음에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내용이 분주로 삽입되었다. 두 문헌은 관련 내용을 본문과 분주 형식으로 기술한 차이는 있지만, 신경준의 『강계고』와 『동국문헌비고』의 인식을 수용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듯 관찬 문헌에 신경준의 인식이 계승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 조정이 이맹휴가 아닌 신경준의 인식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신경준의 ‘여지지문’ 부분은 이맹휴의 설을 개찬(改竄)한 것이

66) 『여암전서』에 실린 『강계고』에는 ‘按’으로 되어 있고, 수필본(手筆本) 『강계고』에는 ‘愚按’으로 되어 있다. 수필본은 고려대학교 소장본이다.

67) 유미림, 2013, 앞의 책, 94~128쪽.

68)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강계고』, “(분문으로) 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本一島 而考諸圖志二島也 一則其所謂松島 而蓋二島俱是于山國也”; 『동국문헌비고』, “(분주로)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아니라 개찬(改撰)한 것이다. 이맹휴는 수토제를 '5년'설로 기술했지만, 신경준은 '3년'설로 기술했다. 이익도 '3년'설로 보았었다. 이맹휴는 이익의 설을 계승했지만 수토간격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익과 이맹휴가 안용복의 공적을 소개하되 따로 제목을 붙이지 않은 반면, 신경준은 '安龍福事'라는 제목을 붙였다.

신경준의 '울릉도 쟁계' 관련 내용을 안정복이 계승했음은 그가 신경준의 학문방법과 인식을 계승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편 안정복은 스승의 아들인 이맹휴의 견해도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신경준은 성호학파가 아니었지만, 안정복은 성호학파에 속한다. 안정복이 역사를 기술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강역을 알아야 역사의 성쇠를 알 수 있다는, 이른바 강역에 대한 중시였다. 안정복은 강역과 자국사를 중시하는 인식에서 신경준을 따르고 있었다. 안정복은 안용복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若無安龍福則蔚陵島必爲倭人所占據矣”⁶⁹⁾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안정복은 숙종 연간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영토를 넓히지 못한 점을 애석해할 때도 안용복 사건을 함께 논했다. 이 역시 그의 강역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일단이다.

3_원중거의 울릉도 인식

안정복과 동시대인으로서 울릉도 관련 내용을 기술한 자료는 무반 출신의 학자 원중거(元重舉, 1719~1790)가 있다.⁷⁰⁾ 원중거는 성대중, 김인겸과 함께 1763년의 통신사행에 서기로 수행하여 일본의 문물과 학술을 접한 바 있다. 그는 사행 후 『승사록(乘槎錄)』을 남겼고, 『화국지(和國志)』(1763~1778년

69) 『順菴先生文集』 권7 「與李廷藻 家煥書」, “만일 안용복이 아니었다면 울릉도는 필시 왜인이 점거했을 것이다”.

70) 원중거는 본관은 원주이며, 1750년에 사마시에 합격했다. 아들은 1796년(정조 20)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으로 발탁된 원유진(元有鎭)으로, 이덕무의 여동생과 혼인하였다. 1789년 71세 때 성대중, 박제가, 이만수 등과 『海東邑誌』 편찬에 참여한 바 있다.

사이)⁷¹⁾도 저술했다.⁷²⁾ 안용복에 대한 그의 인식은 『화국지』에 실린 「안용복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성대중도 「안용복전」을 기술한 바 있다. 원중거의 「안용복전」은 안용복의 출생과 관련 내용 및 울릉도 쟁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도 대부분 선학을 계술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안용복이 서계를 빼앗긴 곳이 이전 문헌에는 나가사키로 되어 있었지만, 원중거는 히젠주[肥前州]로 적었다. 나가사키가 히젠(肥前)에 속한 것임을 알고 이렇게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원중거는 안용복이 호키주에서 칭한 관명을 ‘울릉도 감세관’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맹휴에게서 이미 보였던 사실이다. 원중거는 수토간격을 이맹휴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적었다. 원중거는 호키주의 성주(城主)가 안용복을 위해 주선해준 태도는 쓰시마 태수와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일본인을 내주인(丙州人)과 마도인(馬島人), 즉 본토인과 쓰시마인으로 구분하고 본토인은 교활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는 그의 일본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쓰시마인이 간교한 악행을 멈추게 된 것은 안용복 같은 인걸(人傑)이 있었기 때문임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원중거의 지식과 정보는 이덕무와 박제가, 유득공에게 전해졌다. 그런데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기술은 매우 간단하다. 그는 ‘우산국’에 대하여 “在東海島中或云與鬱陵本一島地方百里今蔚珍 ○新羅智證王十三年壬辰?降之”⁷³⁾라고 기술하는 데 그쳤다. 그는 우산국을 울진으로 보았으나, 한편에서는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사실을 인용하고 있을 뿐⁷⁴⁾ 우산국의 연혁을 고증하지는 않았다. 이덕무는 원중거의 영향을 받았지만, 원중거가 높이 평가한 안용복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맹휴로부터 원중거로 전승된 내용은 도리어 이공익, 성대중·성해응 부자, 이규경에게로 전승되었다.

71) 저술 연도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덕무의 『청령국지』(1778)에 『화국지』 내용이 인용되고 있으므로 이렇게 추정된다.

72) 이우성 편, 1990, 「화국지 해제」, 『화국지』, 아세아문화사.

73) 『靑莊館全書』 권 26 「紀年兒覽」下.

74) 『청장관전서』 62권 「西海旅言」, 19일 계유.

4_19세기 지식인들의 기술과 인식

청성 성대중(成大中, 1732~1809)⁷⁵⁾은 이맹휴의 『춘관지』를 필사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토로한 바 있다.⁷⁶⁾ 「울릉도 쟁계」는 『춘관지』에 실렸고, 『춘관지』는 예조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학자들이 예조에서 『춘관지』를 빌려다 필사한 것이다. 성대중은 이맹휴가 안용복에 관한 전기⁷⁷⁾를 『춘관지』의 맨 뒤에 편집한 이유가 교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라고 짐작했다.⁷⁸⁾ 그는 안용복의 행적이 『문헌비고』에도 실렸다면 그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자신은 변증설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울릉도를 해방론의 관점에서 중시한 면모는 그의 아들 연경재 성해응(成海應, 1760~1839)에게서 보인다. 규장각 검서관 성해응은 아버지의 지기(知己)들과 교류하여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과도 교분이 있었다. 성해응의 학문은 이른바 한송(漢宋) 절충론을 택했으므로 학문방법은 고증학적 방법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는 「동수경(東水經)」, 「서북강역변(西北疆域辨)」, 「서북변계고(西北邊界考)」, 「사군고(四郡考)」 등⁷⁹⁾ 지리에 관한 글을 남겼는데, 울릉도에 관해서는 「완릉도지(菴陵島志)」를 남겼다. 성대중이 원증거와 함께 1763년 일본 통신사행에 참여한 적이 있으므로 성해응도 일찍부터 일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해응은 「완릉도지」에서 울릉도를 ‘菴陵島’로 표기했다. “島在蔚珍縣正東海中 或稱武陵 或稱羽陵 與日本之隱岐州最近 三峰岌巖撐空 南峰稍卑 日清

75) 성대중의 본관은 창녕이다. 1763년에 통신사 조임을 수행하여 일본에 갔다 왔고, 1784년 흥해 군수를 지냈다. 노론 성리학과 중 낙론계에 속한다. 이덕무, 박지원, 유득공, 박제가 등과 교류했다.

76) 『靑城雜記』.

77) 『춘관지』에 「울릉도 쟁계」라는 제목은 있지만 ‘안용복전’이라는 제목은 없다. 신경준은 ‘안용복사’로 붙였는데, 성대중은 ‘안용복전’이라고 붙였다.

78) 『靑城雜記』 「울릉도에서 왜인을 내쫓은 안용복전(安龍福傳)의 전말」.

79) 이원택, 2012,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우산도 인식」, 『한국사상사학』 제41집, 231쪽.

則峰頭樹木及山根沙渚歷歷可見 遇順風二日可到 地方百里 有大山 ……”으로 시작하여 지증왕 기사, 고려 태조, 현종, 덕종, 인종, 의종 기사, 조선 태종과 세종, 성종, 광해군, 숙종 연간의 기사, 장한상 파견과 수도제, 안용복 관련 내용 등을 실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춘관지』, 『강계고』의 내용을 절충·인용한 것이므로 계술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숙종 19년부터 22년 사이 양국이 왕복한 문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인용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신경준을 계술했다고 할 수 있다. 『춘관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해응이 이맹휴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이맹휴가 인용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一說于山鬱陵本一島)”고 한, 이른바 ‘1도’ 설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맹휴는 ‘1도’ 설을 언급했지만, 신경준과 이증환, 안정복, 원종거, 성대중, 성해응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이공익과 이규경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一說于山鬱陵本一島”를 수용하지 않았다. 신경준은 이맹휴가 언급한 ‘1도’ 설을 부정하고 “두 개의 다른 섬임을 고증(考諸圖志二島也)”했고, 안정복은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를 인용하여 신경준을 계술했다. 성해응도 ‘1도’ 설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인용했으면서도 유독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내용만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이 우산과 울릉을 한 섬으로 본 선학(이맹휴)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한편, 2도설이 정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성해응은 「제안용복전후(題安龍福傳後)」⁸⁰⁾에서 안용복의 공적을 평가하되, 쓰시마에만 의존해왔던 양국 간 통로를 호키 항로로 넓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⁸¹⁾ 그의 도서 인식은 지정학적 인식⁸²⁾

80) 『研經齋全集』 속집 문3 「題安龍福傳後」, 이는 아버지 성대중이 「안용복전」이라고 명명한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安龍福傳 載於李孟休所著春官志”).

81) 『연경재 전집』 속집 문3 「題安龍福傳後」, “馬島之居中. 乾沒可知. 而介于兩國. 設機詐以食終必構釁. 構釁則路必梗. 伯耆之船路. 固宜講之 ……”.

82) 이에 대해서는 이원택, 2012, 앞의 글 참조.

이라는 좀 더 큰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이공익(李肯翊, 1736~1806)도 안정복, 원중거, 성대중과 동시대인이다. 그는 소론계열이지만 당색을 가리지 않고 교유했고, 자료를 널리 섭렵했다. 또한 그는 역사 서술에서 가능하면 자설(自說)을 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 했다. 조선사를 기사본말체로 기술한 야사 『연려실기술(練藝室記述)』(1776)의 「변어전고(邊圉典故)」의 「제도(諸島)」에 '울릉도'가 언급되고 있다.⁸³⁾ 여기서의 기술 방식은 『지봉유설』과 『춘관지』, 『통문관지』 등의 문헌을 재인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학자와 달리 이공익은 『통문관지』(1720)⁸⁴⁾ 내용을 추가했는데, 주로 숙종 19년부터 시작된 외교문서의 내용이다.⁸⁵⁾ 이는 역관 김지남·김경문 부자가 펴낸 사대교린 관계 저술이 학자들에게도 유통되어 관련 내용이 함께 전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공익은 “울릉도는 일명 무릉(武陵), 혹은 우릉(羽陵)이니, 동해에 있으며 울진현과 마주보고 있다. 섬 안에 크고 작은 산이 있고 땅은 사방 백 리이며, 순풍이면 이틀에 당도할 수 있다【芝峯類說】”고 했듯이, 출처인 『芝峯類說』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춘관지』와 『통문관지』를 출처로 밝힌 내용이 많다. 그럼에도 그는 『춘관지』에 언급된 “一說于山鬱陵本一島”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 신라 지정왕(智訂王 - 지증왕의 오기)으로부터 시작해서 1695년의 일본 측 서계까지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기는 있지만,⁸⁶⁾ 선학을 계승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공익과 마찬가지로 한치윤(韓致胤, 1765~1814)과 한진서(韓鎭書, 1777~?)도 역사를 찬술한 자다.⁸⁷⁾ 한치윤은 남인계로서 1799년 북경 사행에 동행하여 2개월 체재한 경험이 있다. 조카 한진서가 엮은 『해동역사속』에

83) 「별집」 제17권 「邊圉典故」 「諸島」.

84) 초간본은 1720년에 후배 역관들이 8권 3책으로 펴냈고, 1778년에 10권 4책의 증보판, 1881년에는 11권 5책으로 거듭 편찬되었다. 1913년에 조선고서간행회에서 17권으로 펴냈다.

85) 이공익이 『통문관지』를 인용한 내용은 권9 「紀年」 肅宗大王十九年癸酉, 二十一年乙亥 조에 보인다. 『숙종실록』의 기사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다.

86) 지정왕으로 표기하거나 역관 박재흥을 박자흥(朴自興)으로 표기했다.

87) 『海東歷史續』(1823)은 그의 사후 편찬되었다.

서 ‘울릉도 쟁계’를 기술하지는 않았지만,⁸⁸⁾ 송도·우산도 울릉도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한진서는 ‘근안(謹按)’ 형식을 취해 출전을 밝혔는데, 『문헌비고』에 “于山島倭所爲松島也”라고 했으며, 『여지승람』에 “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라고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는 『수도제강(水道提綱)』에서 “울진의 동쪽으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섬을 천산도(千山島), 완릉도(莞陵島)라고도 한다”고 했지만, “천산도는 우산도의 잘못된 표기이며 완릉도는 울릉도이고, 울이국이나 울도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고 결론지었다.⁸⁹⁾ 특히 울릉도에 대해서는 “[東 30도, 極 36도 8분]⁹⁰⁾ 즉 “동경 130도, 북위 36도 8분”을 분주로 밝혀주었다. 또한 “여기에서 또다시 서남쪽으로 수십 리를 가면 평해성(平海城) 동남쪽을 지나는데, 소수구가 있다. [물은 서쪽에 있는 봉화성(奉化城)의 동쪽에 있는 큰 산에서 나와 두 개의 근원이 합해져서 동쪽으로 100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해구는 바로 천산도가 된다]”라고 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천산도(우산도-역자)의 위치는 울릉도 서쪽의 섬이 되므로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한편, 그는 “『문헌비고』를 보면, ‘우산도는 바로 왜적들의 이른바 송도(松島)이다’라고 하였고……”라고 했으므로 우산도를 일본이 칭하는 松島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때의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한편 그는 『여지승람』의 ‘于山鬱陵本一島’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증도 가하지 않았다. 이런 학문 태도는 그가 중국 문헌에 의거하여 연혁을 주로 고찰했던 사실과도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다.⁹¹⁾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1789년 임금에게 바친 대책(對策)에서 ‘지리책’을 논하는 가운데 울릉도를 거론했다. 그러나 울릉도를 손죽도(損竹

88) 동시대인 윤행임(1762~1801)도 울릉도 쟁계를 기술하지 않은 대신 『石齋稿』 권 9의 『海東外史』에서 ‘안용복’을 다루었다. 내용은 선학이 기술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나 몇몇 오기가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장순순, 2015, 앞의 글에서 다루고 있다.

89) 『海東歷史續』 제13권 「地理考」 13 「산수」 1 경내(境內)의 산(山)과 도서(島嶼).

90) 『海東歷史續』 제13권 「地理考」 14 「산수」 2 경내(境內)의 수(水).

91) 『海東歷史』는 한국 지리의 내용을 대부분 중국문헌에 의거하여 고찰하고 있다.

島)와 함께 빈 섬으로 방치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⁹²⁾ 이른바 해방책의 차원에서 논의했을 뿐 울릉도 쟁계 및 안용복에 관해 상술하지는 않았다.

5_이규경의 변증설, 그리고 '우산도' 인식의 과리

이른바 '변증설'이라는 제하에 '울릉도 쟁계'를 본격적으로 고증한 자는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다. 그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가지(嘉支)와 강치(強治)에 대해서도 고증했다. 그가 변증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여지도(輿地圖)』, 『습유기(拾遺記)』, 『지봉유설』, 『산해경(山海經)』, 『성호사설』, 『여지연의(輿地衍義)』, 『문헌비고』, 『여지승람』, 예조의 서계, 장한상 복명서 등 다양하지만 『춘관지』와 『강계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규경은 변증의 방식을 취했지만, 선학을 계승하면서 변증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는 『성호사설』을 주로 인용했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 이를테면 '가지어'에 관한 내용은 『동국문헌비고』로 보충했다. 몇몇 내용은 『성호사설』에 실린 순서와 다르게 들어가 있거나 『성호사설』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를 보면, 우선 이전의 문헌은 대부분이 “在慰珍縣正東海中” 혹은 “在慰珍縣正東海中與日本之隱歧州相近 ……”로 시작하고 있는 데 비해, 이규경은 “東方多彈丸黑痣之小島 ……”로 시작했다. 그는 울릉도를 동해상의 수많은 도서 중의 하나로 인식한 것이다. 이어 그는 “『여지도』에 울릉은 그려져 있지만 우산도까지는 그리지 않았는데, 어떤 지도에는 섬 하나를 울릉도 위쪽에 그려 놓고는 우산(于山)이라 칭했다”고 했다. 이는 이규경이 새로 추가한 내용이다. 이 시기는 지도상에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위치한 뒤인데 이규경은 왜 『여지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했을까? 그가 말한 『여지도』는 「대동여지도」 시기와 맞지 않으므로⁹³⁾ 뒤에서 보듯이 황엽의 여지도일 가능성이 크다.

92) 『茶山詩文集』 제8권 「對策」 「地理策」.

93) 김정호가 그린 1834년 「청구도」 계열의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그려져 있다.

또한 그는 “왜인은 松島라고 칭한다. 섬은 강원도 울진현 정동쪽 3백 50리 되는 곳에 있다【일본의 오키주와 서로 가깝다 ……】. 세 개의 봉우리가 하늘에 높이 솟아 있는데, 그중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순풍이면 이틀에 당도할 수 있다. 이 세 봉과의 거리는 (울진현에서) 700~800리쯤 되는데, 강릉·삼척 등지에서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세 봉우리가 아스라이 보인다【어떤 기록에는 삼척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했다. 울릉도가 육지에서 700~800리쯤 떨어져 있다고 한 내용은 『성호사설』에 보였고, 울진 동쪽 3백 50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한 것은 『문헌비고』에서 보였던 내용이다. 두 문헌이 거리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이규경은 “왜인은 松島라고 칭한다”라고 기술한 다음에 “섬은 울진 동쪽 3백 50리 되는 곳에 있다”라고 했고, 다시 세 봉우리와는 울진에서 700~800리 떨어져 있다고 기술했다. 이규경의 기술대로라면 울진에서 동쪽 3백 50리 되는 곳의 섬은 松島를 가리키고, 700~800리 되는 곳의 섬은 울릉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때의 松島는 울릉도 서쪽에 위치해야 한다. 이규경은 일본이 칭하는 ‘松島’라고 했으므로 松島는 우산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는 그가 우산도를 울릉도 서쪽의 섬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동국여지승람』의 부도 「팔도총도」에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었지만, 정상기 지도가 나온 후인데도 이규경이 「팔도총도」 당시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헌상의 우산도와 지도상의 우산도 인식에 괴리가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정상기(鄭尙驥)는 이익의 문인이다.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그려져 있었다. 영조의 명으로 정항령(鄭恒齡)이 만든 「동국여지도」는 비변사에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신경준 등 당시의 학자들이 열람했고 청나라 연경에까지 들어갈 정도였다. 신경준은 「동국여지도」를 감수하고 발문(跋文)⁹⁴⁾까지 써주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정상기에서 정항령으로 이어진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를 알지 못해 ‘우산도’의 위치를 울릉도 서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황상 성립하기 어렵다. 이맹후와 신경준 및 이후

94) 『旅菴遺稿』 권5 「東國輿地圖跋」.

의 학자들은 우산도를 울릉도와는 다른 섬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우산도를 '마쓰시마[松島]'로 칭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지도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 서쪽으로 인지하고 있어 괴리가 보인다.

이규경은 「여지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했지만,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1861)는 「청구도」(1834)에 있던 '우산도'를 그대로 옮겨 그렸고, 「청구도」에 있던 내용도 상단 여백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1735년 강원 감사 조최수가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가 있다고 했지만, 이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⁹⁵⁾ 이는 「청구도」에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그려져 있었고 「대동여지도」를 제작할 때의 인식도 마찬가지였음을 의미한다. 이규경이 「여지도」를 언급할 때 국촌 황엽(黃曄, 1666~1736)을 거론한 것으로 보건대, 황엽의 「여지도」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규경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종 2년 삼봉도 기사⁹⁶⁾에 관해 변증하기를, “박원중이 풍랑 때문에 배를 대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같이 갔던 배 한 척이 울릉도에 들러 대죽(大竹)과 대복(大鰻)을 채취해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박원중이 정박하지 못한 곳은 바로 삼봉도이다. 그 섬에 풍랑이 크게 일어 정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같이 갔던 배 한 척이 울릉도에 들러 전복과 대나무를 취해 돌아온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말하는 '삼봉도'가 실제로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감히 없는 섬을 가지고 왕에게 고하겠는가?”⁹⁷⁾라고 했다. 그는 성종 연간에 보인 '삼봉도'를 울릉도와는 다른, 실재하는 섬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규경이 황엽의 글을 인용하여 울릉도 개척 방법을 찾도록 제안한 것도 『성호사설』에는 없던 내용이다. 황엽의 제안은 조선 초기의 쇄환정책을 폐기

95) 『독도사전』의 「대동여지도」 항목을 참조.

96) “成宗二年辛卯 有人告別有三峯島 在東海中 近鬱陵 遣朴元宗往探 因風濤不得泊還 同行一船 過鬱陵島 取大竹大鰻而還”.

97) “按朴元宗 因風濤不得泊還 同行一船 過鬱陵島 取大竹大鰻還云爾 則朴元宗不得泊者 卽三峯島 而島上風濤大作 不得渡泊者然 故同行一船 則過鬱陵 採鰻伐竹而歸也 其辭語實有所語三峯島也 不然 則誰敢以虛無之一島 告于至尊也”.

하고 수군절도사를 신설하여 개척 방도를 찾자는 것이었다. 덧붙여 이규경은 울릉도에 호남의 연해민이 몰래 들어와 소나무를 벌채하여 배를 만들고 전복이나 미역 등을 채취해간다는 사실을 기술했다. 이는 이전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던 최근의 정보다. 『오주연문장전산고』(1850~1860) 저술 당시에는 전라도인의 울릉도 왕래가 목격되던 시절이다. 그리하여 그는 『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에 보였던 사실에 대해서도 분주 형식으로 최근 정보를 수록하는 한편, “울릉도에 큰 대밭 세 군데와 주토(朱土)가 나는 굴이 한 군데 있다”고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기술한 것도 당시 울릉도 왕래가 잦았음을 의미한다. 그가 「嘉支強治海馬鱒鱒辨證說」을 쓴 것도 울릉도에서 그만큼 강치가 많이 목격되었음을 입증한다. 이규경의 기록은 강원도 관찰사 임한수의 보고(1881)와 그에 따른 이규원의 조사(1882)가 있던 시기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기다.

한편 이규원은 이전 문헌에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우산도’에 대해서는 “우산도는 곧 울릉도이며 우산은 옛 국도의 명칭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으로서 울릉도와 30리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고종은 “더러는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니 이는 모두 『여지승람』에 기록된 바이다. 또한 송도 혹은 죽도라고도 칭해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울릉도라고 통칭한다. 그 형세를 모두 검찰하도록 하라”⁹⁸⁾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이규원이 『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지리지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울릉도에서 30리 정도⁹⁹⁾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나의 작은 섬을 ‘송죽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는 일본의 명칭이 전래된 데다 최근 일본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져 정보에 혼선을 겪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당시는 일본이 울릉도에 ‘松島’라고 쓴 표목을 세운 사실이 적발되고 있던 때였다.

98)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4월 7일.

99) 이규원이 거리를 언급한 것은 일본의 지식이 들어와 있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헌에는 양코도가 30리 거리에 있다고 되어 있어 이 섬을 독도로 보고 있다. 『한해통어지침』, 1900년 집필, 1903년 간행.

6_ 고리의 지속과 인식의 단절

이규경 사후에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1860년대)가 편찬되었다. 이 지리지는 김정호가 1861년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후 편찬에 착수하여 1863년까지의 사실을 싣고 있는데, 국가 주도의 관찬 지리지 이후 개인이 펴낸 전국 지리지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전 지리지에 문화 항목이 있었다면, 김정호는 전고(典故) 항목을 두어 군사적 내용을 강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위주로 서술했다.¹⁰⁰⁾ 『대동지지』에서는 ‘울릉도’가 강원도 울진에 소속되어 있다. 이전의 지리지가 ‘우산 무릉’ 혹은 ‘우산도 울릉도’ 안에서 울릉도를 다룬 데 비해, 『대동지지』는 ‘울릉도’만을 다루고 있다.

김정호는 선학과는 달리 지증왕대 기사를 기술하기에 앞서 울릉도 연혁부터 길게 서술했다.¹⁰¹⁾ 여기에는 선학을 계술한 것도 있고 선학에게서는 보이지 않던 내용도 있다. 선학이 기술하지 않은 내용은 울릉도의 돌레와 거리, 일본의 호칭 竹島, 대나무밭과 저전동, 공암, 주토굴 등의 지명이다. <표 4>로도 알 수 있듯이 지증왕대 기사부터 인용함으로써 선학을 계술하고 있지만, 김정호는 ‘울릉도 쟁계’ 관련 기사와 안용복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선학이 기술하지 않았던 숙종 28년 기사와 영조 11년 기사를 추가했다.

1893년에 나온 오홍묵(吳弘默, 생몰 연대 미상)의 『여재촬요(輿載撮要)』는 ‘강원도’에서 울릉도를 언급했다. 지도에는 삼척 부분에 ‘울릉도’와 ‘우산’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산’이 울릉도 동쪽으로 그려져 있고, 울릉도 남쪽으로는 5개의 소도가 그려져 있다. 지도에는 공암, 중봉이 명시되어 있고, 죽전(竹田)에 대

100) 『독도사전』의 「대동지지」 항목을 참조.

101) 그 내용은 “在本縣正東海中 古于山 一云武陵 一云羽陵 周二百餘里 東西七十餘里 南北五十餘里 三峯岌嶭聳空 純是石山 自本縣天晴而登高 望見則如雲氣 便風二日可到 倭人謂之竹島 與日本之隱岐州相近 倭船漁採者 時到 自中峰至正東海濱 三十餘里 正西海濱四十餘里 正南海濱二十餘里 川溪六七 竹田五六 居址數十 自楮田洞 孔岩 朱土窟 石葬古址 船泊處待風所 島之南有四五小島 島中皆石壁石澗洞壑甚多有 狙鼠極大 不知避人 亦有桃李 桑拓菜茹之屬 珍木異草 不知名者 甚多”라는 것이다. 이 뒤에 “新羅智證王十三年 ……”으로 이어지는 기사가 나온다.

해서는 “自中峰二十里”라고 기재되어 있어 중봉을 기준으로 거리관계를 명기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헌에서는 ‘울릉도’에 대하여 “于山島在三陟東 鬱陵島在平海東六日程 長百餘里 廣六十里 四面石角嵯峨 ……”라고 기술하고 있어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도서로 보고 있지만, 지도상의 위치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듯 후대로 올수록 문헌에서의 울릉도 관련 기술은 연혁 및 울릉도 쟁계 기술은 짧아지는 반면, 울릉도 주변 지명과 주변 도서, 거리관계 기술은 자세 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도에서는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 동쪽에 그려지지만, 문헌에서는 그렇지 않아 여전히 괴리가 보이고 있다. 이규원의 지도에서 보이지 않던 ‘우산도’가 이후의 지도에서는 보이지만, 현재의 ‘독도’로 보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식은 단절되고 괴리는 연속되고 있다. 이상이 문헌에 기술된 ‘울릉도·우산도’ 관련 기술의 계보와 그 내용이다.

이제까지 언급된 울릉도·우산도 관련 기술 가운데 신라시대 이전에 나온 ‘울릉도·우산도’ 관련 기술 현황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 각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관련 기술

문헌명	도서명	기술 내용
세종실록	于山武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
신증동국여지승람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峰岌巖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 ……】
지봉유설	鬱陵島	一名武陵 一名羽陵 在東海中 與蔚珍縣相對 島中有大山 地方百里 風便二日可到 ……
성호사설	鬱陵島	鬱陵島在東海中 一名于山國 遠可七八百里 江陵三陟等地登高望之 三峯縹緲隱見
춘관지	鬱陵島 爭界	鬱陵島在江原道海中 屬蔚珍縣 輿地勝覽曰 一云武陵 一云羽陵 在蔚珍正東海中 三峰岌巖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本一島
택리지	鬱陵島	鬱陵島 在江原三陟府海中 天晴登高望見 或如雲氣

문헌명	도서명	기술 내용
강계고	蔚陵島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于山 在蔚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峯岌業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產柴胡藁本 石楠藤草 諸香木蘆竹 ……
잡동산이	蔚陵島	在蔚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峯岌業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產柴胡藁本 石楠藤草 諸香木蘆竹 ……
동국문헌비고	于山島 鬱陵島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于山 有事實錄于左】 島在蔚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峯岌業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產柴胡藁本 石楠藤草 諸香木蘆竹 ……
만기요람 동북아역사재단	鬱陵島	文獻備考曰 鬱陵島在蔚珍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峯岌業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產柴胡藁本 石楠藤草 諸香木蘆竹 ……
연려실기술	蔚陵島	鬱陵島 一名武陵 一名羽陵 在東海 島與蔚珍縣相對 島中有大小山 地方百里 風便二日可到(芝峯類說) …… 新羅 … 島在蔚珍縣正東海中 清明則峰頭山根 歷歷可見 地廣土肥 以其產竹 故謂竹島 以有三峯 故謂三峯島 至於于山羽陵蔚陵武陵鐵竹 皆音訛而然也(春官志) 鬱陵島 與日本之隱岐州相近 ……
연경재전집	宛陵島	島在蔚珍縣正東海中 或稱武陵 或稱羽陵 與日本之隱岐州最近 三峯岌業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峰頭樹木及山根沙渚歷歷可見 遇順風二日可到 地方百里 有大山 ……
오주연문장전산고	蔚陵島	倭人則稱松島 島在江原道蔚珍縣正東三百五十里【與日本之隱岐州相近 卽倭山陰道之隱岐州 隱岐四郡亦一島居山陰道北 五穀乏 藻蜜多小 下國也 隱岐之旁 又有後鳥羽 小島也】三峯撐空 南峯稍卑 風便二日可到 遠可七八百里 自江陵三陟等地 登高望之 三峯縹緲隱見【一作直三陟府】
대동지지	蔚陵島	在本縣正東海中 古于山 一云武陵 一云羽陵 周二百餘里 東西七十餘里 南北五十餘里 三峯岌業聳空 純是石山 自本縣天晴而登高 望見則如雲氣 便風二日可到 倭人謂之竹島 與日本之隱岐州相近 ……
증보문헌비고	于山島 鬱陵島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于山(續) 今爲鬱島郡】 島在蔚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岐州相近 三峯岌業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產柴胡藁本 石楠藤草 諸香木蘆竹 ……

〈표 4〉로 알 수 있는 것은 도서명이 울릉도와 우산도를 병기한 것이 있는가 하면, 울릉도만 기술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 내용은 『강계고』를 분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관찬서들은 『강계고』의 영향을 받아 기술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즉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기술 내용이 대부분 『강계고』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네 문헌만을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관찬서의 기술 비교

문헌명	도서명	기술 내용
강계고	鬱陵島	鬱一作蔚一作芋一作羽一作武 二島一卽于山 在蔚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歧州相近 三峯岌嶮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里 產柴胡藁本石楠藤草 諸香木蘆竹 ……
동국문헌비고	于山島 鬱陵島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一作芋一作羽一作武 二島一卽于山 有事實錄于左】 島在蔚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歧州相近 三峯岌嶮撐空 南峰稍 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 里 產柴胡藁本石楠 ¹⁰²⁾ 藤草 諸香木蘆竹 ……
만기요람	海防/鬱陵島	文獻備考曰 鬱陵島在蔚珍正東海中 與日本之隱歧州相近 三峯岌 嶮撐空 南峰稍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 日可到 地方百里 產柴胡藁本石楠藤草 諸香木蘆竹 ……
증보문헌비고	于山島 鬱陵島	【在東三百五十里 鬱一作蔚一作芋一作羽一作武 二島一卽于山 (續) 今爲鬱島郡】 島在蔚珍縣正東海中 與日本之隱歧州相近 三峯岌嶮撐空 南峰稍 卑 日清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 地方百 里 產柴胡藁本石楠藤草 諸香木蘆 ……

〈표 5〉로 알 수 있듯이, 『강계고』와 『만기요람』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동국문헌비고』와 『증보문헌비고』는 ‘于山島 鬱陵島’로 기술했다.

102) 『강계고』에는 石南藤草로 되어 있다. 『고려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石南草로 되어 있다.

이로써 관찬서가 도리어 두 섬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연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于山島鬱陵島)과 『세종실록』(于山武陵)으로 소급된다. 세 관찬서는 모두 “日淸則峯頭樹木 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二日可到”라는 내용을 기술했지만, 그 내용이 『세종실록』의 “風日淸明 則可望見”과 다른 맥락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을 비교하기 쉽도록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6>은 울릉도 쟁계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 학자별 계술 여부를 검토한 것이고, <표 7>은 안용복의 행적을 기술한 문헌들에서 키워드를 추출해본 것이다.

<표 6> 울릉도 쟁계 관련 키워드로 본 계술 상황

기사 키워드	저자	이익	이맹휴	이증환	신경준	안정복	원종거	이공익	성해응	이규경	김정호
출전	성호사설	춘관지	택리지	강계고	잡동산이	화국지	연려실기술	완릉도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대동지지	
도서명	鬱陵島	鬱陵島	鬱陵島	鬱陵島	鬱陵島	鬱陵島	鬱陵島	宛陵島	鬱陵島	鬱陵島	
소속군	울진현	울진현	삼척부	울진현	울진현		울진현	울진현	울진현/삼척부	울진현	
육지에서 울릉도 간 거리(시간)	700~800리	이틀	이틀	이틀	이틀	하루	이틀	이틀	350리/700~800리 ¹⁰³⁾	이틀	
강릉, 삼척 등지에서 보이는가	삼봉이 가물거린다	×	×	×	×	×	×	×	×	삼봉이 가물거린다	如雲氣
與隱歧州相近	×	×	×	○	○	×	○	○	○	○	○
여지승람 인용	×	○	×	○	○	×	△ 춘관지 재인용	○	○	○	×

103) 울진현(蔚珍縣)에서 울릉도까지가 정동쪽으로 3백 50리쯤, 울릉도의 세 봉우리에 서 울진현까지가 7~8백 리쯤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 기사 키워드	이익	이맹휴	이중환	신경준	안정복	원증거	이금익	성해응	이규경	김정호
自說 삽입	○	○	○	○	×	○	△ 지봉유설 재인용	×	△ 지봉유설 재인용	× 거리 삽입
一說于山鬱 陵本一島	×	○	×	× (여지지운)	×	× (여지지운)	×	×	×	×
지증왕 13년	12년	12년	×	○	×	×	智訥王	○	○	○
고려 태조 13년, 백길토두	×	○	×	○	○	×	○	○	○	13년
고려 현종 13년	×	×	×	○	○	×	○	○	×	9년, 10년
고려 덕종 원년	×	×	×	○	○	×	○	○	○	○
고려 인종 17년, 이양실	×	×	×	○	○	×	○	○	×	19년
고려 의종 11년, 김유립	○	12년	×	○	12년	×	12년	○	○	13년
고려 최충현 (최이) 현의	×	○	○	○	○	×	○	○	○	○
고려 고종, 원종, 이추	×	×	×	○	○	×	○	○	×	×
고려 충목왕 2년, 辛禰 5년	×	×	×	×	×	×	×	×	×	○
조선 태종, 김인우	△	○	×	○	○	×	○	○	○	○
세종 20년, 남호	△	○	×	○	○	×	○	○	○	○
성종 2년 (신묘), 삼봉도	×	○ 박원중	×	○ 박종원	○	×	○ 박원중	○ 박종원	○ 박원중	○ 박종원
지봉유설 인용 (礖竹島, 竹島)	○	○	×	×	×	×	○	×	○ 지봉유설 재인용	×

저자 기사 키워드	이익	이맹휴	이중환	신경준	안정복	원중거	이공익	성해응	이규경	김정호
輿地志云	×	×	×	○	○	×	×	×	×	×
광해 6년 (갑인), 礮竹島	×	4년	×	○	7년	×	4년	7년	7년	×
갑인년 이후 대마도	×	○	×	×	×	×	○	×	×	×
장한상 북명 (거리, 식물, 조수, 가지에)	○	×	△	×	×	×	可之	×	△ 문헌비고 재인용	×
숙종 19년, 일본 측 서계, 박어둔 언급	×	○ 박어둔	×	○	○	×	△ 통문관지 재인용	○ 박어둔	×	×
숙종 19년, 홍중하 답서, 박재홍	×	○	×	○	○	×	△ 林自興	○	×	×
숙종 20년 2월, 일본이 '울릉' 삭제 요구	×	○	×	○	○	×	×	△	×	×
숙종 21년 5월 굴진중 의 서계와 힐문	×	○	×	○	○	×	×	△	×	×
숙종 22년 10월 일본 측 역관에 서간	×	○	×	○	○	×	×	○	×	×
조선 측 박세준의 답서	×	○	×	×	×	×	×	×	×	×
숙종 28년, 이준명	×	×	×	×	×	×	×	×	×	○
영종 11년, 조최수	×	×	×	×	×	×	×	×	×	○

* 주: ○는 인용한 내용이 실록이나 춘관지와 거의 같음을 의미함.

△는 내용을 재인용하거나 요약한 경우를 의미함.

×는 관련 기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표 7〉 안용복 행적 관련 기술에 대한 계승 상황(저자의 출전은 〈표 6〉과 같음)

기사 키워드	저자	이익	이맹휴	이중환	신경준	안정복	원증거	이금익	성해응	이규경
五浪島	왜선 7척	○	×	○	○	×	×	○	○	
鬱陵于山本屬朝鮮	○	×	×	×	×	×	×	×	○	
距我國一日程距日本五日程	朝鮮近而日本遠	○	×	○	○	○	△ 伯耆州	○	朝鮮近而日本遠	
서계	○	○	×	○	○	△	×	○	○	
나가사키행, 도주가 서계 강탈	○	○	×	○	○	馬府行→ 伯耆, 肥前州 강탈	×	長碕	○	
90일 만에 방면, 2년형	○	○	×	○	○	△	×	○	○	
1694 집위관 파견, 안용복 심문.	×	○	×	○	○	○	×	○	○	
1696, 울산행, 3주야 만에 울릉도 도착	1695, 9인과 함께, 상선 3척 (연도 없음)	○	×	○	○	18인	×	○	1695	
松島即于山島	○	○	×	○	○	我國有芋山島	×	松島即芋山島	松島即芋山島	
伯耆州-울릉 감세관, 馬島행위 폭로	울릉 수포장	○	×	○	○	○	×	○	울릉 수포장	
도주 부친 에도, 태수에게 간청, 태수의 회유	○	○	×	○	○	○	×	○	△	
양양으로 귀국, 보고, 10인 공술	○ 공초 일치	○	×	○	○	△	×	○	○	
馬島, 서간으로 사죄	○	○	×	○	○	△	×	○	○	
부산을 거치지 않은 죄, 참형	○	○	×	○	○	○	×	○	○	
윤지완과 남구만이 감형	○	○	×	○	○	○	춘관지 재인용	○	○	
장한상 파견, 조사	×	○	안변부에서 출발	○	○	○	○	○	△	
수도 간격	×	5년	×	3년	3년	5년	5년	3년	3년	
문헌비고 추가	×	×	×	×	×	×	×	×	○	
여지연의 추가	×	×	×	×	×	×	×	×	○	
여지도, 산해경, 습유기 추가	×	×	×	×	×	×	×	×	○	

* 주: 안용복을 주제로 해서 작성하되, 기재 순서는 작성 연도별로 했다. 다만 연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저자의 생몰연대를 기준으로 했다.

○는 인용한 내용이 실록이나 춘관지와 거의 같음을 의미함.

△는 내용을 신뢰 요약해서 실은 경우를 의미함.

×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V. 맺음말

한국 문헌에서 울릉도·우산도 기술은 『고려사』,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개인의 시문이나 변증설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하여 육지(울진, 평해, 삼척, 강릉 등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세종실록』을 인용하여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는 사실을 언급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주된 원인은 지식인들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실록은 쉽게 볼 수 없었던 데 연유할 것이다.¹⁰⁴⁾ 지리적 대상으로서 울릉도 연혁을 처음 언급한 이수광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일본 호칭은 언급했지만, 『세종실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수광의 학문은 이른바 성호 이익과 그의 학파에 의해 계승되고 있었다. 후대의 학자들은 선대로부터 전승받은 사실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오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내용 자체에 의문을 품거나 고증을 한 자는 없었다. 이 일설에 의문을 품고 고증한 자로는 신경준이 유일하고, 안정복은 이러한 신경준의 설을 그대로 따랐다. 신경준은 성호학파가 아니었고, 안정복은 성호학파였다. 안정복이 이익의 문인으로서 스승의 글을 책으로 엮기까지 했으면서도 이익과 이맹휴의 설을 따르지 않고 신경준의 설을 따른 이유를 학통이나 계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학문적 성향이 개재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울릉도 쟁계’를 전후해서 지식정보의 접근성과 공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직의 고하나 거주지, 당색, 정보원에 따라 약간의 개인 차가 있다. 후학이 선행의 학통을 이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도 무조건 선행을 계승하

104) 조선시대에 실록은 군주 사후에 편찬되기 시작했고 완성 후에는 사고에 보관되었으므로 사관 이외에는 누구도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다. 사관이 춘추관에 보관된 실록을 보려면 왕명이 있어야 하고 3인의 당상관원이 입회했다.

지는 않았다. <표 6>과 <표 7>로 알 수 있듯이, 각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구체적 사실들이 학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개중에는 단순한 오기도 있지만 실록에 없는 사실을 기술한 경우도 있고, 안용복의 진술에 대한 같은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그 사실 여부는 여러 사료와 저술들을 종합해서 문맥에 따라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울릉도 쟁계’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었으므로 지식인이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정보는 실록 편찬의 기초 사료가 된 사초(史草)와 조보(朝報), 각사 등록, 승정원일기, 야사, 개인 일기와 기록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 다만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대인인지라 선학을 계승하는 형태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신경준도 선학을 무시하지 않았고 거기에 자유로이 고증하는 개인의 성향이 더해졌을 뿐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문헌상의 ‘삼봉도’ 출현이었다. ‘삼봉도’를 울릉도로 인식한 이맹휴를 따르지 않고 고증한 결과, 신경준은 삼봉도가 울릉도와는 다른 섬 ‘우산도’인 한편, 그것이 일본이 ‘마쓰시마’로 칭하는 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준의 고증 이후 이맹휴의 ‘1도’설에서 신경준의 ‘2도’설로 변천했다. 안정복과 원증거, 성해응, 이공익, 한치윤, 이규경 등의 지식인들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계승했으면서도 ‘1도’설 대신 신경준의 ‘2도’설을 선택했다. 다만 지식인들의 주 관심은 ‘울릉도’였고 ‘우산도’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오면 ‘2도’설이 정착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지도』가 발달하면서 ‘우산도’에 관해 문헌상의 기술과 지도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도 간에도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서로 다른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규원이 울릉도를 현지조사 하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다. 문헌상의 기술과 지도상의 기재에서 괴리가 보이는 원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되므로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문헌상의 ‘우산도’가 모두 단선적으로 일관되게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울릉도’를 가리키지 않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사료

- 『疆界考』(신경준).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박세채).
 『茶山詩文集』(정약용).
 『大東地志』(김정호).
 『東國文獻備考』.
 『萬機要覽』.
 『星湖僊說』(이익).
 『星湖僊說類選』(안정복).
 『世宗實錄』 「지리지」.
 『肅宗實錄』.
 『順菴先生文集』(안정복).
 『新增東國輿地勝覽』.
 『鵝溪遺藁』(이산해).
 『旅菴遺稿』(신경준).
 『研經齋全集』(성해응).
 『練藜室記述』(이공익).
 『五洲衍文長箋散稿』(이규경).
 『雜同散異』(안정복).
 『竹島考』(岡嶋正義).
 『竹老先生文集』(신활).
 『增補文獻備考』.
 『芝峯類說』(이수광).
 『靑城雜記』(성대중).
 『靑莊館全書』(이덕무).
 『春官志』(이맹휴).
 『擇里志』(이중환).
 『海東歷史續』(한진서).
 『和國志』(원증거).

『龍巖先生文集』(박운).

『藥泉集』(남구만).

『漁村集』(심언광).

저서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2011, 『독도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葛生修亮, 1903,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논문

고동환, 2003, 「旅菴 申景濬의 학문과 사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신병주, 2008, 「이수광」, 『한국사시민강좌』 42, 일조각.

이원택, 2012,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우산도 인식」, 『한국사상사학』 제41집, 한국사상사학회.

장순순, 2015,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對日談論으로서의 울릉도·독도」, 『한일관계사연구』 제51집.



[국문 초록]

한국 문헌의 '울릉도·우산도' 기술과
그 계보에 관한 고찰

유미림

이 글은 한국 문헌(文獻)에 '울릉도·우산도'에 관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 계보를 고찰한 것이다. 한국의 관찬 문헌에서 '우산도'가 처음 보인 것은 『고려사』이며,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로 이어졌다. 사찬 문헌에서도 관찬 문헌의 내용이 계승된 데다 '울릉도 쟁계' 관련 기술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대부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우산도와 울릉도는 본래 한 섬이다)은 계승했지만, 『세종실록』의 내용(우산과 울릉은 별개의 섬이다)은 계승하지 않았다.

반면 신경준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인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고증했다. 그 결과 문헌에 보인 삼봉도나 우산도가 울릉도와는 다른 섬이며 일본 호칭 '마쓰시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준과 동시대인, 그리고 후대인들은 신경준의 설을 수용했고, 이로써 18세기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라는 '2도'설이 정착했다. 한편, 지도 제작이 증가하면서 문헌상의 우산도와 지도상의 우산도가 일치하지 않는 괴리현상이 빚어졌다. 이러한 불일치는 19세기 말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호칭 '마쓰시마'가 유입되면서 심화되었다.

주제어

울릉도 쟁계, 우산도, 1도설, 2도설, 안용복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and Their Genealogy of
“Ulleungdo · Usando” in Korean Documents

Yoo Mirim

This article examines how Korean documents described “Ulleungdo – Usando” and the genealogy of those documents. “Usando” is first found in *Goryeosa* (History of Goryeo), a Korean government publication and subsequently in *Sejong sillok jiriji* (The Book of Geography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ed and Augmented Edition of the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Dongguk munheon bigo* (Comprehensive Study of the Written Records on Korea), *Mangi yoram* (Handbook of State Affairs for the Monarch), and *Jeungbo munheon bigo*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of the Comprehensive Study of the Written Records on Korea). Also, the content from this book appeared subsequently in individual publications, and there were additional depictions of the Ulleungdo Incident. However, intellec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ucceeded to their predecessors’ view regarding the content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Usando and Ulleungdo are originally one island), but did not accept the view of the content in *Sejong sillok jiriji*, where Usan and Ulleung are two separate islands.

However, Sin Gyeong-jun conducted historical research regarding the following content from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Someone says that Usan and Ulleung are originally one island.” As

a result, he discovered the fact that Sambongdo(Three Peak Island) and Usando, as shown from the documents, are different islands, and are not Ulleungdo, but was matched with the Japanese name “Matsushima.” Sin Gyeong-jun, himself, his contemporaries, and later generations accepted his view, which led to the rootage of the “Usan-Ulleung Two Islands Theory” in the eighteenth century. However, as publication of atlases increased there appeared a gap between the location of Usando in books and on maps. This phenomenon of estrangement became more intensified because “Matsushima,” the Japanese term for Ulleungdo, was us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동북아역사재단

Keywords

Ulleungdo Incident, Usando, One Island Theory, Two Islands Theory,
An Yong-bok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 - '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박정민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누르하치[努爾哈赤]는 지금의 랴오둥[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에 흩어져 살던 여진인(女真人)을 통합하여 청 제국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청의 역사를 기록한 『만주실록(滿洲實錄)』, 『청실록(淸實錄)』, 『동화록(東華錄)』 등에 누르하치가 건주위(建州衛)를 통일하고, 명에서 독립하는 과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었다. 위의 자료들은 누르하치의 선세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한다. 먼저, 장백산(長白山)¹⁾의 높이, 둘레, 형상 등을 기술하였다. 이후 삼선녀 설화와 포고리옹순(布庫里雍順, Aisin Gioro Bukūri Yongšon)의 탄생과 포고리옹순이 악다리성(鄂多理城)에서 만주를 연 내용 등이 서술되어 있다.

※ 투고: 2016년 2월 12일, 심사 완료: 2016년 4월 22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1) 이하 이 글에서는 중국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통일하여 기술하겠다.

역대 어느 왕조나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선대를 미화하였다. 따라서 청조가 자신의 건국신화를 기록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만주족의 발상지는 장백산이라고 주장한다. 즉, “장백산=만주족의 발상지”라는 논리를 중국 국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하여, 이곳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문화적 연구권과 귀속권의 논리체계를 강화·확산시키려는 것이다.²⁾

이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청조의 건국신화다. 중국은 청조의 조상인 포고리 웅순이 장백산에서 출생하였고, 그가 장백산의 동/동남쪽 악다리성에 거주하여 이곳에서 나라의 터전을 처음 열었다고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장백산이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만주족 역사의 산실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연스럽게 장백산과 그 일대가 자신의 역사 및 영토에 포함된다. 이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중국은 관련 내용의 이론화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건설과 관광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국은 2009년 6월에 지린성 바이산[白山]시에 중국 최초로 만족문화(滿族文化)를 주제로 한 장백산만족문화박물관(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을 개관하여 만주족과 장백산의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³⁾ 최근에는 장백산 천문봉(天文峰)으로부터 동쪽으로 30km 지점의 원지(圓池)를 청조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삼선녀가 내려와 목욕한 포이호(布爾湖)라며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있다.⁴⁾

중국은 청조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악다리성의 구체적인 지역이 둔화(敦化)시라며 2011년 9월 15일에 청시조문화원(淸始祖文化園)을 개원하였다. 청시조문화원의 주요 건물은 청조사(淸祖祠)와 장백산신사(長白山神祠)다. 청조사에서 매년 청 황실의 후예와 만주족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거행하고,

2) 윤희탁,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223쪽.

3) 「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 『中國日報』, 2015, 6, 18.

4)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link?url=KfsLWwjZOWjZStDfKq8Ia4qFmN8aXUoInMla5buDVhnL6nRbD2unQDfsApIFjjC0YmwXoAPuT1tXgVwkPJja>).

장백산신사에서 장백산을 향해 망제를 지낸다. 이는 장백산에 대한 만주족의 연구권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장백산=여진족(만주족)의 뿌리”라는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다.⁵⁾

그런데 청시조문화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발해의 대표적 유적지인 육정산 고분군이 위치한다. 둔화는 발해의 건국지로 우리 역사와 친연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청시조문화원을 건립한 위치는 매우 의도적으로 보인다. 중국은 고조선-고구려-발해-금-청의 역사 인식을 만들기 위해 둔화를 청조의 발상지로 선택한 것이다. 이는 발해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한 여진족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숙신-읍루-물길-말갈 등을 중국사로 편입하기 가장 적당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중국의 주장처럼 둔화가 악다리성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해 여러 학설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지금의 헤이룽장성 이란[依蘭]현에서 함경도 회령으로 이주한 내용이다. 즉, 이곳에 거주하던 여진인이 원말(元末)의 혼란에 두만강 유역으로 남하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에서 인정하는 것은 지린성 둔화시다.⁶⁾ 이를 기반으로 둔화시는 육정산에 청시조문화원을 개원하였고, 현재 포털인 바이두[百度] 백과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동북공정’, ‘장백산문화론’ 등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청조의 발상지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조선 전기 여진과의 관계를 규명할 때, 동맹가침목아(童猛哥帖木兒)의 알타리[斡朵里, 吾都里]와 올량합(兀良哈) 등이 이란에서 두만강 유역으로 이동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⁷⁾ 그러나 청조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5) 윤휘탁, 2015, 앞의 글, 230쪽.

6) 이외 기타 학설이 있으나,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7) 김구진, 1973b, 「몽골의 斡朵里 女眞에 대한 연구」, 『사충』 17; 김구진, 1973a, 「麗末鮮初 豆滿江流域의 女眞分布」, 『백산학보』 15; 한성주, 2012, 「조선 세조대 ‘女眞和解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38; 박정민, 2013, 「조선 건국기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외교구상」, 『역사학연구』 49.

악다리성의 위치, 신화의 역사적 고찰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 고대사와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장백산문화론을 비판하고 대응논리를 만든 것과 달리,⁸⁾ 청조 건국신화의 원형이 만들어진 조선 전기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청조의 건국신화, 그중에서도 청조의 발상지인 악다리성의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백산문화론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청조의 건국신화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학설을 파악한 뒤, 중국이 왜 둔화라는 지역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지 검토하고, 둔화발상설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장하는 장백산문화론에 대한 비판 논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II. 악다리성 위치에 대한 제설 검토

『만주실록』, 『청태조무황제실록』, 『만주원류고(滿洲原流考)』, 『청태조고황제실록』 등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청조의 건국신화다. 장백산의 북쪽 포고리산(布庫里山)의 포이호에서 삼선녀가 목욕을 하였다. 이때 막내인 불고륜(佛庫倫)이 까치가 가져온 붉은 과일을 먹고 임신하여 사내아이를 낳

8) 윤희탁, 2005, 「중국의 東北邊疆政策 - '東北振興戰略'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연구』 27;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백산학보』 76; 조법중, 2007,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79; 윤희탁, 2007, 「中國의 東北 文化疆域 認識 考察 - "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 윤희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조법중, 2009, 「한국 고중세 백두산신앙과 만주명칭의 기원」, 『한국사연구』 147; 윤희탁, 2013,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연구와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51; 윤희탁, 2015, 앞의 글.



(그림 1) 악다리성과 관련된 주요 지역(구글 지도 편집)

았다고 한다. 그 아이가 포고리웅순으로, 불고륜은 그에게 출생 연유를 설명한 후, 배를 주어 순류(順流)를 따라 새 땅에 가라고 하였다. 이후 포고리웅순은 배를 타고 삼성(三姓) 지역에 도착하여 그곳의 혼란을 종식한 후, 장백산 동(동남)쪽 악모휘(鄂謨輝)의 악다리성에 정착하여 만주를 열었다.⁹⁾

9) 『滿洲實錄』. 청조 건국신화와 청 태조 누르하치의 선대에 관한 기록은 『滿洲實錄』, 『清太祖武皇帝實錄』, 『滿洲原流考』, 『清太祖高皇帝實錄』, 『清史稿』 등에 실려 있다. 이들 가운데 『滿洲實錄』의 편찬 연도는 빠르지 않지만, 초기 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문자나 문체 또한 만주어의 초기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김선민, 2012, 『『舊滿洲檔』에서 『滿洲實錄』까지 - 청 태조실록의

주지하듯이, 건국신화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청조 건국신화의 주인공 포고리웅순이 역사적 실존인물인 동맹가첩목아(?~1433)임을 지적하였다.¹⁰⁾ 마찬가지로 건국지인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느 곳인지에 대한 정설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 악다리성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은 알타리(Odoli)부가 헤이룽장성 이란현 일대에 거주하였다가 남하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오도리부가 남하한 지역에 대해 지린(吉林)시·두만강 유역·우수리스크 등으로 의견의 합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연구자들은 공통으로 오도리부가 원말의 혼란기를 틈타 이란현에서 남하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조선 초기의 사료에도 잘 나타난다. 『용비어천가』와 『태조실록』에는 이성계의 위엄과 은덕에 감화한 여진인 주장들이 멀리 이란두만(移蘭豆漫)으로부터 왔다고 명단을 기재하였다.¹¹⁾ 특히, 『용비어천가』의 주석에서 알타리·화아아(火兒阿)·탁온(托溫)을 이란두만으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그 위치를 송화강과 목단강 합류처인 현재의 이란현 일대로 기재하였다. 이란은 여진어 ‘ilan, 3’, 두만이 ‘tumen, 萬’을 뜻하기 때문에 이란두만은 위의 세 부족을 지칭하는 ‘삼만(三萬)’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¹²⁾

편찬과 수정, 『사충』 77, 171쪽. 이 글에서는 『滿洲實錄』의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겠다.

10) 內藤湖南, 1929, 「清朝姓氏考」, 『讀史叢錄』, 弘大堂書房; 孟森, 1932, 「清始祖布庫里雍順之考證」,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3本 第3分(孟森, 2006, 『滿洲開國史講義』, 中華書局에 재수록); 稻葉岩吉, 1933, 「滿洲開國說話の歴史的考察」,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大阪屋號書店; 三田村泰助, 1965, 「清朝の開國傳説とその世系」, 『清朝前史の研究』, 同朋舍; 松村潤, 1971, 「滿洲始祖傳説研究」, 『故宮文獻季刊』, 臺北故宮博物院; 王鍾翰, 2004, 「滿族先世的發祥地問題」, 『王鍾翰清史論集』, 中華書局; 孟森, 2008, 「建州左衛前紀即布庫里雍順紀第三」, 『清朝前紀』, 中華書局.

11) 『龍飛御天歌』 권7, 53장; 『태조실록』 권8, 4년 12월 14일 계묘.

12) 송기중, 1994, 「朝鮮朝 建國을 後援한 勢力의 地域的 基盤」, 『진단학보』 78,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원초(元初)부터 이란 일대에 설치되었던 오군민만호부(五軍民萬戶府: 桃溫, 胡里改, 斡朵憐, 脫斡憐, 勃苦江) 가운데 동맹가첩목아의 알타리부를 비롯한 호리개부와 도온부의 삼만호부가 원명교체기에 지린시 일대로 이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후대의 연구 역시, 알타리, 호리개, 도온 등이 원래 이란 지역에 거주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이주 지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는 알타리, 호리개, 도온 등이 모두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한 뒤, 호리개만 지린을 거쳐 후이파허[輝發河] 상류 평저우[鳳州]에 정착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맹가첩목아의 알타리는 두만강 중하류의 훈춘 일대에 거주하다가 회령으로 이주하였고, 도온은 두만강 중류 온성과 그 맞은편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⁴⁾ 와다 세이[和田清]는 이케우치의 주장을 보완하여 아합출(阿哈出)의 건주위(호리개)의 이주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그는 알타리 등이 이란에서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하였다가 조선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1411년에 아합출의 건주위에 합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¹⁵⁾

쇼노다 카즈키[園田一龜]는 이나바와 같이 알타리, 호리개, 도온이 이란 지역에서 이주하였다고 이해하였다. 이후 호리개는 지린으로 이주한 뒤, 평저우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았다. 이때 그는 호리개의 추장 아합출 등이 거주한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후이파허 상류 북산성자(北山城子) 부근이라고 비정하였다. 반면, 동맹가첩목아의 알타리와 도온에 대해서 이케우치와 같이 이란에서

113~114쪽.

13) 稻葉岩吉, 1913, 「建州女直の原地及び遷住地」, 『滿洲歴史地理』 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4) 池內宏, 1915, 「鮮初の東北境と女眞の關係」 1,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15) 和田清, 1937, 「建州本衛の移動について」,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5,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和田清, 1940, 「清朝發祥地の地域について」, 『池內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座右寶刊行會(두 논문 모두 和田清, 1954, 『東亞史研究』(滿洲篇), 東京國立書院에 재수록).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⁶⁾

가와치 요시히로[河内良弘] 역시 아합출의 세력이 이란에서 지린을 지나 후 이파허 상류의 복산성자에 거주할 때, 명 영락제(永樂帝)로부터 건주위를 개설 받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도 동맹가첩목아가 두만강 유역을 거쳐 회령 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¹⁷⁾ 위의 연구자들은 호리개가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알타리와 호리개, 도온의 세 부족이 처음에 헤이룽장성 이란 지역에 거주하다가 이주한 사실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위의 연구들은 청조의 건국신화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건국신화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이어졌다. 여기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둔 것은 이나바였다. 그는 『길림통지(吉林通志)』 등에서 둔화의 오동성이 악다리성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비판하였다. 이나바는 『청실록』, 『길림통지』 등의 편찬자들이 악다리성과 부족명인 알타리를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해하였다. 한편, 그는 포고리웅순이 원말명초에 실존했던 동맹가첩목아이며, 『동국여지승람』을 근거로 악다리성은 함경도 회령이라고 밝혔다.¹⁸⁾

이후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이 『청태조무황제실록』 등에 기재된 청조의 건국신화를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나이토는 삼선녀 신화가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영향을 받았고, 명초 건주좌위의 쟁난(爭亂) 사실이 전설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명실록』뿐만 아니라 조선의 『용비어천가』,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여 포고리웅순은 원말명초에 실존했던 동맹가첩목아이며, 악다리성은 함경도 회령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 이후 미타무라 타이스케[三田村泰助]도 나이토의 주장에 대부분 동조하며 논지를

16) 園田一龜, 1948, 「建州衛と同左衛の濫觴」, 『明代建州女直史研究』, 東京國立書院.

17) 河内良弘, 1992, 「建州衛の對外關係」, 『明代女真史の研究』, 同朋舎.

18) 稻葉岩吉, 1913, 「清初の疆域」, 『滿洲歴史地理』 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 內藤湖南, 1929, 앞의 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²⁰⁾

중국 청대 연구의 선구자격인 명슨[孟森] 역시 알타리부 등이 이란에 있다가 함경도 회령으로 이주하였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동맹가첩목아에 대한 내용이 청초 건국신화의 원형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그는 명 태조가 철령(鐵嶺) 이북에 삼만위(三萬衛)를 설치한 점과 1388년(홍무 21)에 압록강 동쪽의 이민(夷民)을 초유하기 위해 류시엔[劉顯] 등을 보내 알타리에 삼만위를 설치했다가 식량 부족 등의 이유로 돌아온 기록에 따라, 알타리가 회령에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²¹⁾

이후 중국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주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 이란현 일대에서 알타리, 호리개, 타온 등이 거주하였다가 남하했다고 인식하며 현재까지 그 논조가 이어지고 있다.²²⁾

한편, 리지엔차이[李健才]는 악다리성은 이란이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학설을 수정하였다. 그는 문화와 이란의 마대둔(馬大屯)이 악다리성이라는 주장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후, 『청태조무황제실록』과 『동화록』에 기재된 것처럼 악다리성이 장백산의 동쪽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명초의 건주, 모련(毛憐) 지구의 역참(驛站) 노선, 동맹가첩목아의 초설지(初設地) 등을 고려했을

20) 三田村泰助, 1965, 앞의 글.

21) 孟森, 2006, 앞의 책; 孟森, 2008, 앞의 글. 하지만 아직까지 철령위의 위치와 설립 시기 등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어 위의 논지는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실제로 철령과 철령위의 위치, 설치 시기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이 있다. 즉, 철령의 위치를 어느 곳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孟森의 주장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철령위에 대한 제설은 다음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박원호, 2007, 『鐵嶺衛 설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한국사연구』 136.

22) 戴逸, 1980, 『簡明清史』 1, 人民出版社; 閻崇年, 1983, 『努爾哈赤傳』, 北京出版社; 李建才, 1986, 『明代東北』, 遼寧人民出版社; 董萬倫, 1987, 『東北史綱要』, 黑龍江人民出版社; 王鍾翰, 2004, 앞의 글; 袁閻琨 外, 2004, 『清代前史』 上·下, 瀋陽出版社; 孫乃民 外, 2008, 『吉林通史』 2, 吉林人民出版社. 필자가 2012년 7월에 직접 허투알라성을 답사하였을 때, 전시관에서 오도리가 이란에서 두만강 하류로 이동하였다고 표시하였다. 이는 만주족과 관련된 다른 박물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때, 둔화와 이란 지역을 악다리성으로 단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논지를 펼쳤다. 그는 수이펀허[綏芬河] 하류의 수양청즈[雙城子, 우수리스크]가 바로 악다리성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³⁾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헤이룽장성에 거주하는 일군(一群)의 학자를 중심으로 이와 결을 달리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로 이란현이 청조의 발상지인 악다리성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역사학·민속학·고고학을 이용하여 이란현 마대둔이 바로 아목하이고, 이곳에서 발굴된 성이 악다리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마대둔의 근처에서 발굴된 무덤과 원대에 제작된 석인장(石印章), 『원사』 「지리지」에 기재된 5만호부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²⁴⁾

다음으로, 지린성 둔화시 일대가 악다리성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청대의 『길림통지』, 『영안현지(寧安縣志)』, 『청사고』 「지리지」 등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20세기 이후에 탄치시양[譚其驥]이 주편(主編)한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에서 악다리성의 위치를 둔화로 비정하였다.²⁵⁾ 물론 이 부분을 집필한 왕중한(王鍾翰)은 따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옛 지명을 현재의 지명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역사·지리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후 악다리성이 헤이룽장성 이란현과 전혀 상관이 없고, 둔화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등장하였다. 이들은 『청사고』 「지리지」 등 청대의 사료에서 악다리성이 현 둔화시의 오동성이라고 기재한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강희·건륭제 등이 장백산에 제사 지낸 일, 청 말의 문학가들이 관련 시를 지은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고리웅순이 배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곳도 장백산

23) 李健才, 2006, 「清皇室始祖居地的鄂多里城考」, 『東北史地』 6期.

24) 王新弟, 2000, 「略談滿族的源起與愛新覺羅氏之龍興 - 與黑龍江省考古學家們商榷」, 『牡丹江師範學院學報』 5期; 實璋, 2002, 「滿族第一發祥地斡朵憐故城遺址的發現」, 『學習與探索』 2期; 趙阿平, 2009, 「依蘭古城歷史文化內涵探析」, 『滿族研究』 4期.

25) 譚其驥, 1988,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 東北卷』, 中國地圖出版社, 314쪽. (초판은 1975년에 출판).

수계인 목단강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들은 둔화가 악다리성이라고 주장하였지만,²⁶⁾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며 양밍꾸[楊明谷] 등이 다시 둔화가 청조의 발상지인 악다리성이라고 주장하였다.²⁷⁾ 물론 그 근거는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 보완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은 둔화시, 지린성 등의 홈페이지와 바이두 백과에서 둔화시를 소개하는 내용에 실리는 등 현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²⁸⁾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이다. 덩핑[丁鋒]은 『만문노당(滿文老檔)』에 기재된 포고리산이 실제 포룬산으로, 이곳은 지금의 소흥안령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만주실록』 등에 기재된 장백산이 현재의 장백산이 아니라며 기존의 이란설과 둔화설 등을 부정하였다. 그는 『흑룡강통성여도총책(黑龍江通省輿圖總冊)』 등에 기재된 악막박포(鄂漠博泡), 악막둔(鄂漠屯) 등의 지명을 근거로 악모회 평야는 현재 이춘(伊春)시 우이링[烏伊嶺] 일대라고 비정하였다. 또한, 악다리성은 헤이룽장성 송화강 북안의 수이빈[綏濱]현 북쪽에 있는 뤼베이[蘿北]현이라고 주장하였다.²⁹⁾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학자는 헤이룽장성 이란현, 이란현에서 함경도 회령으로 이동, 지린성 둔화시, 헤이룽장성 뤼베이현, 러시아 우수리스크 등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일부 학자 및 지방정부, 대표적인 검색사이트 등에서는 둔화가 악다리성이고, 청조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6) 範垂政, 1985, 「清始祖所居鄂多哩城考」, 『學習與探索』 2期; 瀛雲萍, 1986, 「滿族究竟發源於何地」, 『滿族研究』 2期.

27) 趙東升, 2003, 「清皇室發源地及清肇祖探討」, 『滿族研究』 1期; 楊明谷, 2006, 「鄂多里城考」, 『清史研究』 1期.

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9) 丁鋒, 2001, 「清皇族始祖發祥地及源流考」, 『黑龍江史志』 4期.

III. 둔화설의 배경과 의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수 의견 중 하나였던 둔화설은 2000년대부터 지린성의 학자들과 둔화시가 중심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2005년 8월 17일에 열린 ‘둔화-청황실발상지연토회[敦化-清皇室發祥地研討會]’가 결정적이었다. 이 회의에 둔화시당사연구원[敦化市黨史研究員] 양밍꾸,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의 류허우성[劉厚生], 인민대학(人民大學) 청사연구소(淸史研究所)의 귀청강[郭成康] 등이 참석하여 둔화가 악다리성이라고 인정하였다.³⁰⁾ 그런데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의 이력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류허우성은 장백산문화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다.³¹⁾ 그는 원래 만주어를 전공하여 『만문노당』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점차 만주족의 샤만[薩滿]문화에 관심을 가진 뒤, 1995년경부터 장백산을 비롯한 동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는 숙신까지 연구하여 만주족이 그들을 계승한 민족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류허우성은 동북 지역에서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의 역사체계를 만드는 주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밍꾸는 둔화현 출신으로 둔화가 악다리성이라고 밝히는 작업을 평생 과업으로 삼았던 인물이다. 그는 교편을 잡았던 교육자로, 둔화 지역의 중등학교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행정 방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양밍꾸는 둔화 지역사도 꾸준히 연구하였고,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발굴하며 둔화현 당사편찬위원(黨史編纂委員)의 직책을 맡았다.

30) 「鄂多里城-敦化是清朝皇室發祥地」, 『東北新聞』, 2005. 8. 19.

31) 윤취탁, 2008, 앞의 글, 117쪽. 최근 장백산문화론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서적인 『中國長白山文化』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10여 년의 준비 기간이 걸렸고,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장백산은 중국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기획·출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劉厚生이다. 劉厚生 主編, 2014, 『中國長白山文化』,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그리고 2005년에 위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²⁾

귀청강은 청사(淸史)연구의 권위자로, 200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당시 국무원(國務院) 부총리 리란칭[李嵐淸]의 요청으로 중남해(中南海)에서 국무원 지도부와 관련 부문 인사들에게 강건성세(康乾盛世)를 중심으로 한 청사에 관한 강좌와 토론을 진행하였던 4인 중 한 명이었다. 이후 2002년 12월에 국가청사편찬위원회(國家淸史編纂委員會)가 설립되었는데, 이때 다이이[戴逸]가 주임, 마다정[馬大正] 등 3인이 부주임이었다. 여기에 귀청강은 21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³³⁾ 즉, 그는 '청사공정'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처럼 2005년 8월에 둔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던 인물들은 중앙과 지방에서 활약하던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회의의 방향은 장백산문화론을 강조하고, 청사공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의 학술대회 이후 둔화시는 이곳에 용흥공원(龍興公園), 청시조기념관의 건립과 성급문화유물보호단위(省級文化遺物保護單位)인 오동성(악다리성) 유적지를 국가급문화유물보호단위(國家級文化遺物保護單位)로 상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³⁴⁾ 아직 오동성은 국가급문화유물보호단위로 상향되지 못하였지만, 그 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둔화시는 2011년 9월에 육정산에 청시조문화원을 개원하며 청조와 둔화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둔화시는 육정산고분군과 청시조문화원, 동양 최대 비구니 사찰인 정각사(正覺寺) 등을 묶어 육정산풍경구(六鼎山風景區)를 조성하였다.

청시조문화원(청시조사)은 부지가 5만 평에 성련호(聖蓮湖)의 서안(西岸), 육정산(六頂山) 남쪽 산 사면에 위치한다. 여기에서 청조사(淸祖祠)가 핵심 공간이다. 건물 안에 신화의 주인공인 포고리웅순의 좌상(坐像)이 가장 크게 자리

32) 「楊明谷和敦化市实验中学的建立」, 『延邊新聞』, 2011. 5. 30; 「老耄老人楊明谷和他的風雨人生路」, 『延邊新聞』, 2012. 9. 21. 이듬해 그는 『淸史研究』에 둔화시 오동성이 알타리성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제출하였다. 楊明谷, 2006, 앞의 글.

33) 허혜운, 2009,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중국근현대사연구』 42, 114~117쪽.

34) 「敦化是淸皇室發祥地?」, 『新文化報』, 2005. 8. 18.

하고, 좌우로 청 12황제의 상이 두르고 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보정(寶鼎)과 천원(天黿), 주과도등주(朱果圖騰柱) 등 제기(祭器)와 만주족 전통의 사면 제례 의식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곳곳에 삼선녀 신화부터 포고리웅순이 배를 타고 삼성에 정착한 것, 청의 성세(盛世) 등을 표현한 부조물들이 자리한다. 즉, 이곳은 청조의 건국신화와 청 황실에 대한 제례를 동시에 구현하는 장소다.

장백산신사 역시 중요한 공간이다. 중국 학자들은 숙신부터 장백산을 숭배 하였고, 발해, 요, 금 역시 이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조도 장백산을 숭배 하여 강희제가 1678년에 지린[大烏喇]에서 장백산에 망제(望祭)를 지내게 한 이후로 직접 제문을 작성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조한다. 또한 옹정·건륭제도 망제를 지내거나 직접 시문을 쓴 것에 주목한다. 특히, 청 황제들이 장백산에서 실행한 망제를 중국 역대 황제들이 실시한 봉선(封禪)의식과 연결하여 이곳의 문화적 귀속권이 중국에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장백산에 대한 만주족의 정신적·문화적 연계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다.³⁵⁾

이처럼 청시조문화원이 자리한 둔화시가 만주족과 장백산에 대한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둔화시가 청조의 발상지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둔화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05년에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체현하는 단계로 둔화시는 관련 시설물을 만들고, 각종 설명문과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여 정설화하고 있다.

현재 둔화시 홈페이지에서도 육정산풍경구와 청시조문화원을 소개하며 둔화가 청 황실의 발상지로 포고리웅순이 삼성의 난을 평정한 곳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⁶⁾ 또한, 지린성정부와 바이산시인민정부에서 운영하는 ‘장백산만주문화’에도 악다리성은 둔화라고 명기하였다.³⁷⁾ 이 사이트의 운영 주체가 지린성정부

35) 윤희탁, 2015, 앞의 글, 227~229쪽.

36) 『敦化市政務信息網』(<http://www.dunhua.gov.cn/article.php?c=2587,2617&id=62>).

37) 『吉林省人民政府網』(http://www.jl.gov.cn/rdzt/ztzl/cbmzwhgjt/mzcs/201312/t20131217_1589566.html).



〈그림 2〉 둔화의 육정산풍경구(구글 지도 편집)

임을 고려할 때, 이곳의 내용은 지린성정부와 중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와 소후[搜狐] 백과 등에도 둔화시가 악다리성라고 기재하고 있다.³⁹⁾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는 둔화의 오동성이 악다리성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에서 왜 둔화를 청조의 발상지라고 강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미 윤희탁이 지적한 것처럼 현 중국의 역사인식 및 동북 지역 개발전략과 밀접히 관계된다. 즉, 동북공정, 장백산문화원, 청시공정 등과

38) ‘長白山滿族文化’는 지린성정부와 백산시인민정부에서 “장백산=만주족의 성산, 발상지” 논리를 강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로 홍보·선전하는 사이트다. 윤희탁은 이 사이트가 장백산을 총괄하는 지린성정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린성정부와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윤희탁, 2015, 앞의 글, 226쪽.

39)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link?url=3TIqmP2xzfqFfZsMuUV_mCKJ-xCw3-UsHyDFgbJe-aPonDUTV0HHKK3AzmW2nXyAvvDGAi3aBl3r__lLjavuJ); 『搜狐百科』(<http://baike.sogou.com/v103436.htm>).

무관하지 않다.⁴⁰⁾ 그러므로 중국은 장백산 등지를 자신의 고유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둔화를 의도적으로 부각했다고 생각한다.

2002년에 시작된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2006년에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 등을 고대 중국의 동북 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 것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는 데에만 역량을 기울였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과제는 이외에도, 동북 지방사, 동북 민족사,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 한반도 정세 및 변화와 그에 따른 중국동북변경지역의 안정에 관한 영향연구 등이 있다. 비록 동북공정이 종료되었지만, 중국은 그 후속 작업으로 장백산문화론, 청사공정 등을 통해 중화민족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論)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중국은 동북 지역의 역사적 연구권에 큰 관심이 없거나, 한민족과 관련된다는 입장이었다. 1963년 6~7월에 북한을 방문했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⁴¹⁾ 물론 진위푸[金毓黻]와 같이 일본 만선사학자들에게 대항하여 동북 지역이 대대로 중국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펼친 학자도 있었지만,⁴²⁾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점차 강대국이 되고, 55개 소수민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점차 동북 지역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동북 지역의 역사가 다원일체론에 부합할 것이라는 중국의 기대와 달리, 실제 이 지역에서 중국 민족의 역사적 연구권은 미약하였다. 중국은 이를 보완

40) 윤희탁, 2008, 앞의 글. 한편, '장백산문화론'을 체계화한 劉厚生은 장백산뿐만 아니라 산맥이 이어지는 곳, 즉 현재의 동북삼성 대부분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劉厚生, 2003, 「長白山文化的界定及其他」, 『中國邊疆史地研究』 4期, 71쪽. 여기에서 그는 대략 북위 38도 46분~47도 30분, 동경 121도 08분~134도의 사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遼寧省 경내의 瀋陽市, 撫順市 등 24개 市縣, 吉林省의 長春市, 四平市 등 29개 市縣, 黑龍江省의 哈爾濱市, 佳木斯市 등 26개 市縣을 포함하며 현재 동북삼성의 상당 지역과 북한의 대부분 지역을 포괄한다.

4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신문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모두 한국 역사」, 『프레시안』, 2004. 8. 13.

42) 金毓黻 지음·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7, 『김옥불의 東北通史』 上·下, 동북아역사재단.

하기 위해 청과 연결된 만주족의 역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작업으로 우회하였다.⁴³⁾ 그 일환인 장백산문화론은 “백두산=조선족(한민족)의 성산”이라는 남북한의 논리에 대응하여 동북 지역의 학자, 정치인, 안보 관계자들이 장백산을 자국의 영토 및 역사로 편입하고, 문화적 귀속권을 강화하려는 작업이다.⁴⁴⁾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장백산 일대의 광활한 지역에서 숙신-음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이 약 3000년 동안 거주한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장백산=만주족의 성산, 발상지”라는 논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장백산문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동북공정의 내용을 계승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구려를 만주족의 뿌리로 보고, 고조선과 발해를 장백산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고조선-고구려-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말갈족은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의 출자(出自) 문제와 연계되어 한중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다.⁴⁵⁾ 중국은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 말갈족이므로 발해가 중국 역사에 편입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만주족이 장백산에서 역사상 세 번 흥기하여 정권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발해, 두 번째가 금, 세 번째는 후금과 청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발해를 만주족 조상이 세운 왕조로 인식하면서 중국 왕조로 규정하고 있다.⁴⁶⁾ 금이나 청은 중국과 남북한이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발해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 지역에서 만주족과 발해의 연관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적합한 장소로 부상한 곳이 바로 둔화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은 발해의 역사가 시작된 둔화에 청조의 발상지라며 역대 청 황제의 사당을 건설하였다. 발해 초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육정산고분군과 멀지 않은 곳에 청시조문화원을 건설한 것은 말갈족-여진족-만주족

43) 조법중, 2007, 앞의 글, 398쪽.

44) 윤희탁, 2015, 앞의 글, 215~216쪽.

45) 한규철, 2008,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3-1.

46) 윤희탁, 2015, 앞의 글, 230~231쪽.

이라는 역사인식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말갈족의 역사에 편입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동북 지역의 역사를 고구려-발해-금(여진)-청으로 체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⁴⁷⁾

둔화시에 청시조문화원을 개원한 것은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자원화, 생활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고구려 문화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복종 공적으로 등재된 후, 동북삼성 각지에서 “고구려 역사문화유적=중국의 역사문화유적”이라는 전제 아래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 헤이룽장성 닝안(寧安)시에서도 발해국상경용천부(渤海國上京龍泉府) 유적을 전국 중점문화 보호단위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도시의 문화 관광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고구려·발해사=중국사’, ‘고구려·발해의 문화유적=중국의 문화유적’이라는 논리를 해당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선전한다. 따라서 해당 시민과 관광객들은 무의식적으로 중국의 논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⁴⁸⁾

둔화 역사 마찬가지로, 둔화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동모산, 오동성, 육정산고분군 등 발해 유적지나 정각사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더라도 청시조문화원을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둔화와 청조의 관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혹은,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과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청조가 발해를 계승한 국가라는 점을 주입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의도로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둔화에 대규모로 청

47) 李德山·欒凡,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張杰, 2006, 「滿族先民與長白山的早期開發」, 『滿族研究』 3期. 임상선은 숙신-음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역사인식 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임상선, 2014, 「북방지역 種族의 繼承關係 검토-靺鞨·女眞·滿洲族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0. 그는靺鞨-渤海-金(女眞)-清(滿洲族)이 수미일관 종족적 연계를 갖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에 합당한 중국 측 기록이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계통적 연원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의 진행과정에서 統一的 多民族國家論을 펼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48) 윤휘탁, 2008, 앞의 글, 118~123쪽.

시조문화원을 조성하였다. 그것도 발해와의 대표적 유적지 중 하나인 육정산고분군과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만주족과 발해와의 관련성을 부각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단순히 둔화가 청조의 발상지 악다리성이기 때문에 이곳이라고 주장하고, 청시조문화원을 개원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더 큰 포석, 즉 발해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고, 장백산에 대한 귀속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 지역과 만주족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작업은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낙후된 동북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남북한과의 역사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⁴⁹⁾

동북아역사재단 IV. 둔화설에 대한 비판

최근 중국에서 청조의 발상지인 악다리성이 둔화시라고 주장하며 관련 구조물 등을 조성하고, 포털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정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서 청 황실의 발상지라고 인정하는 둔화가 사실 이와 관련이 없다. 여기에서는 소위 둔화발상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관련 사료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악다리성의 위치를 확인하겠다. 현재 둔화가 청조의 발상지라는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청사고』 「지리지」 둔화현초의 “청 시조가 살았던 악다리성이 바로 이곳이다”⁵⁰⁾라는 기록을 토대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청사고』는 청의 멸망 후 중화민국정부가 편찬한 사서로, 청조 관련 사료 가운데 가장 늦게 제작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둔화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둔화가 악다리성이라고 주장한다.

49) 윤휘탁, 2005, 앞의 글.

50) 『清史稿』 卷56 地理3 敦化縣, “清始祖居鄂多理城 即此”.

그러나 『청사고』 「본기」의 건국신화를 보면 앞의 내용과 모순적인 내용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악다리성이 장백산 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림 1>과 같이 둔화는 장백산의 정북에 위치한다. 따라서 『청사고』 「지리지」와 「본기」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해 청조의 관련 사료들이 어떻게 기술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조의 주요 관찬 사료인 『만주실록』, 『청태조무황제실록』, 『만주원류고』, 『청태조고황제실록』, 『동화록』, 『청사고』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다.

(1) 이때 장백산 동남쪽 鄂謀輝 지방에 鄂多理城이 있었다.⁵¹⁾

(2) 이때 장백산 동남쪽 鰲莫惠 지방에 鰲朵里城이 있었다.⁵²⁾

(3) (포고리웅순이) 장백산 동쪽 鄂多理城에 살면서 나라 이름을 만주라고 하였다.⁵³⁾

(4) 이에 布庫里雍順이 장백산 동쪽 俄漠惠 들판의 俄朵里城에 살았다.⁵⁴⁾

(5) (포고리웅순이) 장백산 동쪽 俄漠惠 들판의 鄂多里城에 살면서 나라 이름을 만주라고 하였다.⁵⁵⁾

(6) (포고리웅순이) 장백산 동쪽 俄漠惠 들판의 俄朵里城에 살았고, 그 부족(민)들이 만주라고 하였다.⁵⁶⁾

(1)~(6)까지의 자료를 보면, 지명에 대한 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실질적

51) 『만주실록』, “彼時長白山東南 鄂謀輝(地名)鄂多理(城名)”.

52) 『청태조무황제실록』 권1, “彼時長白山東南 鰲莫惠(地名)鰲朵里(城名)”.

53) 『만주원류고』 권1, “居長白山東 鄂多理城 建號滿洲”.

54) 『청태조고황제실록』 권1, “於是布庫里雍順 居長白山東 俄漠惠之野 俄朵里城”.

55) 『동화록』 권1, “居長白山之東俄漠惠之野鄂多里城 國號滿洲”.

56) 『청사고』 본기1, 태조본기, “居長白山東俄漠惠之野俄朵里城 號其部族曰滿洲”.

으로 비슷한 음가를 사용하여 동일한 곳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악모휘(Omohoi)는 오막혜(鰲莫惠), 아막혜(俄漠惠) 등으로, 악다리(Odoli)성 역시 오타리(鰲朶里), 악다리(鄂多理), 아타리(俄朶里), 악다리(鄂多里), 아타리(俄朶里) 등으로 표기하였다. 즉, Omohoi와 Odoli의 음가가 단지 한자로 다르게 표기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악모휘와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모두 장백산을 기준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1), (2)인 『만주실록』과 『청태조무황제실록』에서는 장백산 동남쪽에 악다리성이 위치한다고 보았지만, (3), (4), (5), (6)인 『만주원류고』, 『청태조고황제실록』, 『동화록』, 『청사고』에는 장백산 동쪽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었다. 흥미롭게도 초기의 사료인 『만주실록』과 『청태조무황제실록』에서 악다리성의 위치를 장백산의 동남쪽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에 작성된 사료에는 모두 동쪽으로 기재하였다.

이처럼 청조의 관련사서는 악다리성을 장백산의 동쪽, 혹은 동남쪽에 위치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악다리성은 장백산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둔화는 장백산의 정북에 해당한다. 따라서 악다리성의 후보지로 꼽히는 둔화는 (1)~(6)의 자료를 통해 방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그리고 악다리성은 장백산의 동쪽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길림통지』에 기재된 거리를 검토하겠다. 둔화가 악다리성의 발상지라는 주장들은 일관되게 『길림통지』에서 서술한 싱징(興京)에서 악다리성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악다리성을 오동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점은 둔화의 오동성과 싱징의 허투알라성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길림통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57) 『皇清開國方略』에는 ‘居長白山北之俄朶里城’이라며 俄朶里城을 유일하게 장백산 북쪽에 위치한다고 기록하였다. 『皇清開國方略』卷首, 發祥世紀. 하지만 이는 후일 둔화가 청조의 발상지라는 내용에 따라 편찬자가 윤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稻葉岩吉, 1913, 앞의 글, 590쪽.

(7) 俄朵里城(혹은 鄂多哩, 『八旗通志』에서는 阿克敦이라고 한다).

성의 동남쪽 3리쯤 牧丹江 北岸에 둘레 약 4리의 城基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長白山 동남 俄漠惠의 俄朵里에서 三姓의 사람들이 布庫里雍順을 함께 받들어 군주로 삼았다. 나라 이름을 만주라고 하였으나 남조[명조]에서는 建州라고 오류를 보였다. …… 『欽定盛京通志』에서 『京城志』를 인용하여 發祥世紀를 요약하기를 “시조가 장백산 동쪽 鄂謀輝 들판의 鄂多理城에 거주하였다. (이곳은) 興京의 동쪽으로 1,500리, 寧古塔城의 서남쪽으로 330리이고, 勒富善河의 西岸에 있다”라고 한다.⁵⁸⁾ (밑줄은 필자)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길림통지』는 『흙정성경통지』를 인용하여 악다리성은 상징의 동쪽 1,500리, 영고탑의 서남쪽 330리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둔화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료 (7)에 등장하는 악다리와 오동의 음이 상당히 가깝고, 거리상으로도 사료 (7)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또한, 륜부선하(勒富善河)의 다른 이름은 륜복선하(勒福善河), 륜부성하(勒夫城河) 등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모두 목단강의 상류를 지칭하기 때문에 둔화가 악다리성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⁹⁾

이러한 주장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일단, 지명에 대한 음가는 오동성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헤이룽장성 이란현은 동맹가첩목아의 알타련부(斡朵憐部)를 비롯한 호리개부와 도운부 등이 거주하던 곳이다. 알타련부와 알타리부는 동일 부족에 대한 다른 표기법으로, 『용비어천가』에 의하면 알타리를 ‘오도리’라고 명기하였고, 이것은 악다리의 음가 ‘Odoli’와 일치한다. 따라서 헤이룽

58) 『吉林通志』卷24 輿地志12 城地, “俄朵里城(一作鄂多哩八旗通志作阿克敦)城東南三里許 牧丹江北岸 周圍約四里 尙存土基. 長白山東南俄漠惠俄朵里 三姓人共奉 布庫里雍順爲主 定號滿洲 南朝誤名建州. …… 欽定盛京通志內 京城志引 發祥世紀略云 始祖居長白山東鄂謀輝之野 鄂多理城 在興京東一千五百里 寧古塔城西 南三百三十里 勒富善河西岸”.

59) 趙東升, 2003, 앞의 글, 58~59쪽; 楊明谷, 2006, 앞의 글, 109쪽.

장성 이란현도 악다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 회령은 원래 이름이 오음회(吾音會), 혹은 알목하(幹木河)였다.⁶⁰⁾ 특히, 오음회는 그 지역민들이 '옴회' 등으로 불렀는데, 이는 악모회(Omohoi)의 발음과 거의 유사하다. 이 음가대로 하면, 오동성뿐만 아니라 헤이룽장성 이란과 함경도 회령도 악다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가만 가지고 악다리성이 오동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거리적으로도 앞의 사료는 일치하지 않는다. 사료 (7)에서 영고탑 서남쪽으로 330리를 가면 오동성이 있다고 한다. 둔화는 발해의 건국지였던 구국(舊國)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후 무왕은 732년을 전후한 시기에 중경으로 천도했다가 756년경에 상경(현 ning안시 보하이진)으로 재천도하였다. 이처럼 둔화에서 영고탑인 ning안으로 가는 길은 최소한 발해대부터 활발하게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교통로 주변에는 목단강을 따라 발해의 역참지로 비정되는 24개돌 유적과 주변에 평지성, 산성, 성보(城堡) 등의 방어시설이 밀집하였다.⁶¹⁾ 그리고 그 교통로는 현재의 G201 국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명대·청대에도 영고탑에서 둔화에 이르는 교통로는 발해대뿐만 아니라 지금과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지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면, ning안에서 둔화까지 약 145km이다. 보통 1리가 4km 내외⁶²⁾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360여 리다. 그렇다면 영고탑에서 오동성으로 가는 거리는 사료에 기재된 330리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60) 『용비어천가』 권7, 53장;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 회령도호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0, 함길도, 회령도호부.

61) 둔화시에 江東 24개돌, 그 북쪽으로 官地 24개돌, 海靑房 24개돌, 要甸子 24개돌이 차례로 상경까지 늘어서 있다. 그리고 관련 방어시설들도 이 길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김진광, 2012a,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각, 164~165쪽. 이것은 발해대의 교통로와 지금의 교통로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2) 당시의 里數는 시기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km로 정확히 환산할 수 없다. 하지만 명대에는 1리가 약 3.27km이고, 조선은 약 4.5km, 일본 메이지유신 이후는 3.92km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평균인 약 4km로 환산하였다.

그런데 상징에서 오동성까지 1,500리라는 기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0리를 4km로 환산하더라도 1,500리면 600km이다. 상징에서 직선으로 동쪽 600km 지점은 동해안으로 사료 (7)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당대인들은 교통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청대의 역참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징에서 둔화로 직접 이어지는 교통로를 알 수 없지만, 성경(선양)에서 지린에 이르는 역참로를 다음과 같이 참고할 수 있다.

盛京 → 懿路站 → 高麗屯站 → 開原驛(70리) → 葉赫站(80리) → 黑爾蘇站(赫爾蘇站: 60리) → 阿勒談額墨勒站(阿勒坦額墨勒站: 60리) → 一吧單站(伊巴坦站: 60리) → 刷煙站(蘇瓦延站: 50리) → 衣兒門站(伊勒門站: 70리) → 搜登站(蒐登站: 70리) → 泥什哈站(尼什哈站: 10리) → 吉林城.⁶³⁾

위의 역참로는 『흙정성경통지』와 『길림통지』를 참고한 것으로 지린성(吉林城)이 기준이다. 선양에서 개원역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흙정성경통지』에 기재된 개원역에서 지린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총 530리다. 물론 선양에서 개원역, 지린성에서 오동성까지의 정확한 리수가 포함되지 않은 구간이 있지만,⁶⁴⁾ 이 두 구간을 합치더라도 개원역에서 지린성에 이르는 구간보다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징에서 오동성에 이르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1,000리 내외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행히 이를 뒷받침해주는 조선의 사료가 있다. 숙종대에 조선 조정은 중원에서 한족이 다시 일어나 청을 몰아내고, 만주족은 그들의 본거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영고탑 회귀설’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63) 『欽定盛京通志』卷17, 驛站志; 『吉林通志』卷57 武備志 8 驛站. 지린성을 기준으로 다음 역참까지의 거리는 () 안에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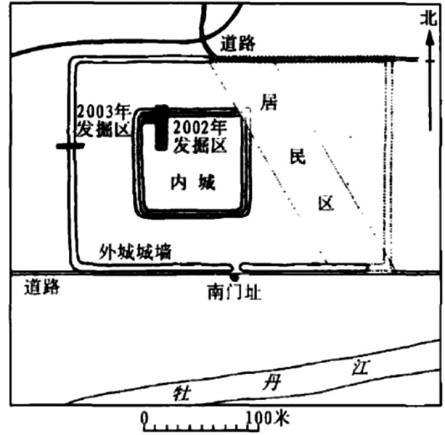
64) 구글지도를 이용하면 선양에서 개원까지 약 100km이다. 이를 리수로 환산하면 약 250리다.

1697년(숙종 23) 5월에 남구만이 숙종에게 <성경도(盛京圖)>라는 지도를 바치며 선양에서 지린(오라)까지 800여 리이고,⁶⁵⁾ 지린에서 영고탑까지 400여 리라고 하였다.⁶⁶⁾

한편, 지린에서 ningan(영고탑)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지린에서 둔화 북부 지역을 지난다. 그리고 오동성은 지린과 ningan의 중간 지점에 있으므로 선양으로부터 최대 1,000~1,120리를 넘지 못한다. 더욱이 상징은 선양으로부터 동

쪽으로 130km가량 떨어져 있어서 실제 거리는 더욱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길림통지』의 '악다리성은 상징의 동쪽 1,500리에 있다'는 기록은 오동성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셋째, 고고학 자료를 이용하여 둔화발상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둔화는 발해의 건국지로, 현재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고고학 자료가 남아있는 편이다.⁶⁷⁾ 특히, 둔화발상설에서 악다리성이라고 비정한 곳은 오동성(敖東城)이다. 오동성은 앞서 인용했던 『길림통지』의 내용과 같이 둔화시 동남쪽인 묵단강 북안에 있는 평지성이다. <그림 3>과 같이 오동성의 평면은 장방형이고,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된다.



<그림 3> 오동성 발굴 지역 위치도

65) 『欽定盛京通志』 卷15 輿地志3 疆域上에 의하면 선양에서 지린까지의 거리는 820리다. 따라서 남구만의 보고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66) 『숙종실록』 권31, 23년 5월 18일 정유. 앞에서 선양에서 지린으로 가는 중간의 개원역에서 지린까지가 530여 리라는 점을 참고하면 이 보고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67) 둔화 지역의 발해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 『敦化市文物志』, 吉林省延邊新華印刷廳; 김진광, 2012a, 앞의 책, 153~165쪽; 김진광, 2012b, 『북국 발해 탐험』, 박문각, 93~154쪽.

오동성의 외성은 동서로 약 400m, 남북 약 200m이고, 남쪽 가운데 지점에 웅문지(甕門址)가 있다. 내성은 정방형으로 한 변이 80m이고, 외성의 서편으로 치우쳐 있다. 전반적으로 오동성은 파손이 심하고, 남벽과 서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

오동성은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각종 지표조사가 시행되었다. 이후 동전·돌절구·도기(陶器)·무기·철술·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일부 유물은 발해 초기의 특성을 보여 일찍부터 발해 건국기의 도성지라고 알려졌다.⁶⁸⁾ 그런데 2002년 8~10월과 2003년 8월에 지린대문물고고연구소[吉林大文物考古研究所]를 중심으로 한 연합발굴단의 조사 결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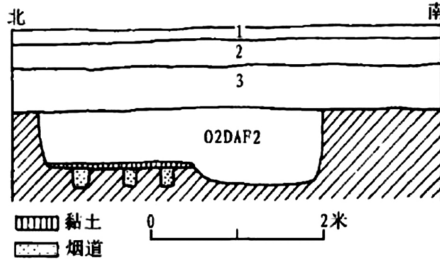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왕페이신[王培新]의 오동성 발굴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⁶⁹⁾ 일단, <그림 3>과 같이 오동성의 일부 지역을 발굴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발굴한 지역의 토층은 총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2년에 발굴한 구역의 토층(O2DAT9)은 <그림 4>와 같이 3층으로 구성되었다. 제1층은 현대의 경작층으로, 두께가 1.5~2cm이다. 제2층은 흑색토로, 극소량의 니질회토(泥質灰陶) 잔편(殘片)과 잔철기(殘鐵器) 등이 나왔고, 두께는 2.5~3cm이다. 제3층은 황회색토로 두께가 5~5.5cm이고, 니질회토 잔편과 백자편(白磁片), 철촉(鐵鏃), 철정(鐵釘), 동물골각기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유구(遺構, 灰坑)는 3층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나, O2DAH1, H10, F3은 2층 아래(3층 상단부)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유구에서 발견된 유물과 동북 지역 금대(金代) 유물들을 비교하면, 금대 말기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즉, 2층부터는 금대 말기 이후 형성된 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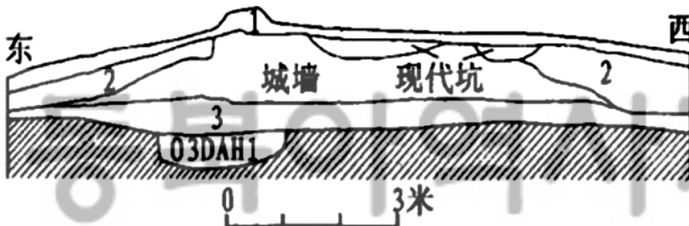
68)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 앞의 책; 김진광, 2012a, 앞의 책, 161~162쪽; 김진광, 2012b, 앞의 책, 137쪽.

69) 王培新 外, 2003, 「吉林敦化敖東城及永勝遺址考古發掘的主要收穫」, 『邊疆考古研究』2輯, 31쪽; 王培新 外, 2006, 「吉林敦化市敖東城遺址發掘簡報」, 『考古』9期, 49~50쪽. 본문의 <그림 3>, <그림 4>, <그림 5>의 도면은 모두 이 두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图三 02DAT9 东壁剖面图
1. 黑灰色土 2. 黑色土 3. 黄灰色土

〈그림 4〉 2002년 발굴 지역의 단면도



图四 03DATG1 南壁剖面图
1. 黑灰色土 2. 灰黄色土 3. 黑色土

〈그림 5〉 2003년 발굴 지역의 단면도

2003년의 발굴 구역(03DATG1) 역시 3층으로 이루어졌다. 제1층은 현대의 경작토로, 두께가 1.5~2.5cm이다. 제2층은 회황색토로 두께가 2.5~8.5cm로 소량의 니질도편(泥質陶片)과 1개의 철축이 출토되었다. 제3층은 흑색토로 두께가 2~5cm이다. 이곳에서도 소량의 니질회도와 니질홍도(泥質紅陶) 잔편이 출토되었다.

2003년 발굴은 외성의 서측 성벽과 2002년에 발굴한 유구들의 관계 규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성의 서측 부분을 발굴하였다. 흥미롭게 이곳의 성벽이 제3층 위에 축조되었다. 2003년의 발굴 구역 제3층과 2002년의 발굴 구역 제3층은 토색 및 포함물이 같고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두 퇴적층은 동일

시기임이 밝혀졌다. 또한 성벽의 판축토 및 붕괴한 퇴적토 내에서 제3층의 유물보다 늦은 시기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성 성벽과 내성의 유구(2002년 발굴)는 동일시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동성의 성벽은 금대에 축조되었고, 그 아래에서 발굴된 집자리 역시 비슷한 시기로 파악된다. 또한, 제2층과 제3층의 집자리에서 송녕통보(崇寧通寶, 1102~1106) 등을 비롯한 송대·금대의 동전 87개가 발견되었다. 왕페이신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오동성을 금대 말기의 유적이라고 편년하였다.⁷⁰⁾

오동성의 모든 지역을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정확히 언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표 조사와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발해와 금대 유적 이후의 것은 없었다.⁷¹⁾ 만일 『성경통지』 등의 내용과 같이 오동성이 알타리성이라면 원말 혹은 명초의 유적 혹은 유구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금대 말기 이후의 토층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고고학 자료 등에서도 둔화가 악다리성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악다리성의 위치가 각종 사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과 고고학 자료 등에서도 둔화가 악다리성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중국 학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둔화의 오동성이 악다리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악다리성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였지만, 후일 다른 논고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70) 王培新 外, 2006, 앞의 글, 49~50쪽.

71)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 앞의 책; 李健才, 2002, 「渤海初期都城考」, 『北方文物』 3期; 王培新 外, 2003, 앞의 글; 王培新 外, 2006, 앞의 글. 물론, 원말명초에 오동성에 여진인이 거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신화의 주인공으로 비정되는 동맹가침목아와 같은 대규모 세력이 거주했다면 오동성 혹은, 주변에 관련 유적이 발견되어야 한다. 반면, 두만강 회령과 그 對岸인 지린성 龍井市 朝東村에서 건주좌위의 것으로 비정되는 유적 및 유물이 발굴되었다.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4a, 『龍井縣文物志』, 吉林省延邊新華印刷廳, 96~98쪽. 이외에 和龍市 福洞鎮의 福洞유적, 崇善鄉의 大洞유적, 八家子鎮의 河南屯유적이 보고되었다.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4b, 『和龍縣文物志』, 吉林省延邊新華印刷廳, 44~47쪽.

V. 맺음말

최근 중국은 G2라고 불릴 만큼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이전의 패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신장[新疆]·티베트 등의 분리 독립 요구를 무마하고, 이들을 항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을 기반으로 한 소수민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의 동북판이 동북공정과 장백산문화론 등이다.

장백산문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만주족과 장백산의 관계다. 중국은 만주족 건국신화 등을 근거로 “장백산=만주족의 성산(발상지)”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장백산 일대 즉, 동북삼성의 영유권도 자신들에게 속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바로 청조의 건국신화다. 각종 사서에 포고리웅순이 장백산 동/동남의 악다리성에서 만주를 열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다리성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두었다.

아직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한 정설은 없고, 여러 학설이 있다. 먼저, 헤이룽장성 이란현 일대에 거주하던 오도리부(후일 건주좌위)가 원말명초에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한 것이다. 물론, 이란현에서 지린, 우수리스크 등으로 이주했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오도리부가 이란현에서 남하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 외에 시종일관 이란현이 악다리성이라는 주장과 헤이룽장성 툽베이현 등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지린성 둔화시가 악다리성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래 둔화발상설은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둔화시는 이와 관련하여 2005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장백산문화론의 핵심 이론가인 류허우성, 청사공정의 주요 인물인 귀청강, 둔화시당사편찬위원회인 양밍꾸 등은 둔화가 청조의 발상지인 악다리성이라고 인정하였고, 둔화시는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둔화시는 2011년에 청시조문화원을 개원하였다. 중국은 이곳의 청조사에서 시조 포고리옹순을 비롯한 청 12명의 황제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장백산신사에서 장백산에 망제를 지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둔화시와 지린성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에서 둔화시를 청조의 발상지 악다리성이라고 소개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장백산뿐만 아니라 동북삼성과 만주족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 있고, 이곳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귀속성을 주장한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둔화를 청조의 발상지로 인식하고, 청시조문화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발해와 청조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지역에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으로 이어지는 역사인식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발해의 건국지인 둔화가 청조의 발상지로 이어진다면 위의 역사인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의도적으로 둔화가 청조의 발상지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시설물을 건설한 것이다.

중국이 둔화를 청조의 발상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사실 악다리성은 둔화가 될 수 없다. 첫째, 각종 사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악다리성은 장백산의 동/동남에 있다. 하지만 둔화는 장백산의 정북에 위치하기 때문에 방위상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여러 사서에서 싱징(현 신빈)에서 악다리성의 거리가 1,500리라고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청대의 역로 및 구글 지도로 거리 계산을 하면 허투알라에서 오동성까지 1,000~1,100리 내외로 맞지 않는다.

셋째, 지금까지 보고된 지표 조사뿐만 아니라 2002년과 2003년에 오동성을 발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곳에서 금대 말기까지의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금 말 이후의 유적 혹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악다리성이 다른 곳에 위치했다는 의견을 제출한 곳에서는 대부분 원말명초 여진인과 관련된 유적지 및 유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둔화가 악다리성이라는 주장은 고고학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둔화를 악다리성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장백산문화론의 핵심 전제 중 하나인 청조의 발상지 악다리성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문화가 될 수 없다. 중국이 문화를 청조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청시조문화원을 발해의 유적지 옆에 조성한 것은 동북삼성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 확보 및 만주족과 발해의 역사적 연계성을 강조하여 발해까지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형적인 '역사 만들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족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백산=만주족의 성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역사적 근거가 있다. 요의 거란, 금의 여진, 만주족 역시 백두산에 관련 신화와 설화들을 가지고 있고, 신성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주장처럼 한민족과 관련성을 배제하고, 발해 등의 역사까지 만주족의 역사로 편입하는 행태는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백두산(장백산)이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영토 및 역사의 공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본사료

- 『吉林通志』.
 『東華錄』.
 『滿洲實錄』.
 『滿洲原流考』.
 『新增東國輿地勝覽』.
 『龍飛御天歌』.
 『元史』.
 『朝鮮王朝實錄』.
 『清史稿』.
 『清太祖高皇帝實錄』.
 『清太祖武皇帝實錄』.
 『皇清開國方略』.
 『欽定盛京通志』.

저서

- 金毓黻 지음·동북아역사재단 번역, 2007,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下, 동북아역사재단.
 김진광, 2012a,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각.
 김진광, 2012b, 『북국 발해 탐험』, 박문각.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윤취탁, 2006, 『신 중화주의』, 푸른역사.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4a, 『龍井縣文物志』, 吉林省延邊新華印刷廳.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4b, 『和龍縣文物志』, 吉林省延邊新華印刷廳.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5, 『敦化市文物志』, 吉林省延邊新華印刷廳.
 譚其驥 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釋文彙編 東北卷』, 中國地圖出版社.
 戴逸, 1980, 『簡明清史』 1, 人民出版社.
 孟森, 2006, 『滿洲開國史講義』, 中華書局.
 孟森, 2008, 『清朝前紀』, 中華書局.
 王鍾翰, 2004, 『王鍾翰清史論集』, 中華書局.

- 袁閻琨 外, 2004, 『清代前史』上·下, 瀋陽出版社.
- 劉厚生 主編, 2014, 『中國長白山文化』,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 李建才, 1986, 『明代東北』, 遼寧人民出版社.
- 李德山·樂凡,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內藤湖南, 1929, 『讀史叢錄』, 弘大堂書房.
- 稻葉岩吉, 1913, 『滿洲歷史地理』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稻葉岩吉, 1933,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大阪屋號書店.
- 三田村泰助, 1965, 『清朝前史の研究』, 同朋舍.
- 園田一龜, 1948, 『明代建州女直史研究』, 東京國立書院.
- 池內宏, 1915,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真史の研究』, 同朋舍.
- 和田清, 1940, 『池內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座右實刊行會.

동북아역사재단

논문

- 김구진, 1973a, 「麗末鮮初 豆滿江流域의 女眞分布」, 『백산학보』 15.
- 김구진, 1973b, 「舌音會의 靺鞨里 女眞에 대한 연구」, 『사충』 17.
- 김두현, 2008, 「『滿文原檔』과 入關前 淸史研究」, 『명청사연구』 30.
- 김선민, 2012, 「『舊滿洲檔』에서 『滿洲實錄』까지 - 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사충』 77.
- 박원호, 2007, 「鐵嶺衛 설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한국사연구』 136.
- 박정민, 2013, 「조선 건국기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외교구상」, 『역사학연구』 49.
- 윤휘탁, 2005, 「중국의 東北邊疆政策 - '東北振興戰略'을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 연구』 27.
- 윤휘탁, 2007, 「中國의 東北 文化疆域 認識 考察 - "長白山文化論"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5.
- 윤휘탁, 2008,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학보』 197.
- 윤휘탁, 2013, 「중국·남북한의 백두산 연구와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51.
- 윤휘탁, 2015, 「중국의 '백두산의 중국화' 전략」, 『동북아역사논총』 48.
- 이훈, 2014, 「청 초기 장백산 탐사와 황제권」, 『동양사학연구』 126.
- 임상선, 2014, 「북방지역 種族의 繼承關係 검토 - 靺鞨·女眞·滿洲族을 중심으로 -」,

- 『고구려발해연구』 50.
- 조법중, 2006, 「中國의 ‘長白山文化’論과 高句麗」, 『백산학보』 76.
- 조법중, 2007,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79.
- 조법중, 2009, 「한국 고증세 백두산신앙과 만주명칭의 기원」, 『한국사연구』 147.
- 한규철, 2008,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3-1.
- 한성주, 2012, 「조선 세조대 ‘女眞和解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38.
- 허혜운, 2009, 「청사공정의 배경과 현황」, 『중국근현대사연구』 42.
- 劉厚生, 2003, 「長白山文化的界定及其他」, 『中国边疆史地研究』 4期.
- 李健才, 2002, 「渤海初期都城考」, 『北方文物』 3期.
- 李健才, 2006, 「清皇室始祖居地の鄂多里城考」, 『東北史地』 6期.
- 範垂政, 1985, 「清始祖所居鄂多哩城考」, 『學習與探索』 2期.
- 實璋, 2002, 「滿族第一發祥地斡朵憐故城遺址의 發現」, 『學習與探索』 2期.
- 楊明谷, 2006, 「鄂多里城考」, 『清史研究』 1期.
- 瀛雲萍, 1986, 「滿族究竟發源於何地」, 『滿族研究』 2期.
- 王培新 外, 2003, 「吉林敦化敖東城及永勝遺址考古發掘的主要收穫」, 『邊疆考古研究』 2輯.
- 王培新 外, 2006, 「吉林敦化市敖東城遺址發掘簡報」, 『考古』 9期.
- 王新弟, 2000, 「略談滿族的源起與愛新覺羅氏之龍興—與黑龍江省考古學家們商榷」, 『牡丹江師範學院學報』 5期.
- 張杰, 2006, 「滿族先民與長白山的早期開發」, 『滿族研究』 3期.
- 丁鋒, 2001, 「清皇族始祖發祥地及源流考」, 『黑龍江史志』 4期.
- 趙東升, 2003, 「清皇室發源地及清肇祖探討」, 『滿族研究』 1期.
- 趙阿平, 2009, 「依蘭古城歷史文化內涵探析」, 『滿族研究』 4期.

[국문 초록]

청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
 - '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박정민

『만주실록』 등에 포고리용순의 탄생 과정과 이후 그가 악다리성에서 만주를 연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이를 근거로 만주족의 발상지는 장백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악다리성의 위치를 지린성 둔화시로 비정하고, 이곳에 청조와 관련된 청시조문화원 등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과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중국의 주장처럼 둔화가 악다리성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악다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헤이룽장성 이란현 일대에 거주하던 알타리부가 원말명초에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둘째, 지린성 둔화라는 내용이다. 이 외에 시종일관 이란현이 악다리성이라는 주장과 헤이룽장성 뤼베이현 등이라는 기타 의견도 있다.

중국이 둔화에 청시조문화원 등을 건설한 것은 의도적으로 발해와 청조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이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 지역에서 숙신-읍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으로 이어지는 역사인식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장백산에 대한 만주족의 연고권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장백산=여진족(만주족)의 뿌리”라는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둔화를 청조의 발상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달리 악다리성은 둔화가 될 수 없다. 첫째, 각종 사서에 기재된 악다리성의 방위를 검토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허투알라에서 악다리성까지 거리도 맞지 않는다. 셋째, 둔화가 악다리성이라는 주장은 고고학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처럼 둔화를 악다리성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장백산문화론의 핵심 전제 중 하나인 청조의 발상지인 악다리성의 위치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둔화가 아니다. 중국이 둔화를 청조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청시조문화원을 발해의 유적지 옆에 조성한 것은 동북삼성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 확보 및 만주족과 발해의 역사적 연계성을 강조하여 발해까지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악다리성, 둔화, 청시조문화원, 동북공정, 장백산문화론, 발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Reexamination of Odoli Castle,
the Birthplace of the Qing Dynasty

Park Jungmin

In *Manchu shilu*(滿洲實錄) there is a section that describes the birth of Bukūri Yongšon(布庫里雍順), the founding father of the Qing Dynasty, and how he pioneered the Manchu region from Odoli(鄂多理) Castle. Based on thi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government recently claimed that Changbai Mountain(長白山) is the birthplace of the Manchu people. The government specifically pointed to Dunhua city(敦化市) in Jilin Province(吉林省) as the ancient location of Odoli Castle, and subsequently established the Qing Ancestor Cultural Park(清始祖文化園) there.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claim is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it should be investigated whether Dunhua is indeed where Odoli Castle was located.

There are various theories regarding the location of Odoli Castle. Some argue that the Odoli people, who had lived near Yilan(依蘭) in Heilongjiang Province(黑龍江省), migrated to the Tumen River(豆萬江) area during the late Yuan period and the early Ming Dynasty. Other scholars claim that the castle was located in Dunhua in Jilin Province. Still others suggest that the castle was in Yilan, or in Luobei(蘿北) in Heilongjiang Province.

The Chinese government's claim of Dunhua as the birthplace of Qing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Qing Ancestor Cultural

Park seems to be intended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Bohai(渤海) and the Qing Dynasty. Indeed, the Chinese government claims the historical flow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at weaves through Sushen(肅慎) – Eupru(挹婁), Mulgil(勿吉), Malgal(靺鞨) – Jurchen, and Jurchen(女眞) – Manchu(滿洲族). This could be seen as an effort to prove that Mt. Changbai is the root of the Jurchen and Manchu people, by strengthening the tie between Mt. Changbai and the Manchu people.

Despite such an effort to claim Dunhua as the birthplace of the Qing Dynasty, Odoli Castle could not have been located in Dunhua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coordinates of Odoli Castle found in historical records do not correspond to the location of Dunhua. Second, the distance between Hetuola(赫圖阿拉) and Odoli Castle does not match the historical records, either. Third, the claim does not conform to the archaeological data. Examination of the location of Odoli Castle from multiple viewpoints reveal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proof to definitively claim that Odoli Castle was located in Dunhua.

The birthplace of the Qing Dynasty – which is among the key premises of the theory of Mt. Changbai(長白山文化論) – cannot be Dunhua. The Chinese government's claim that Dunhua is the birthplac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Qing Ancestor Cultural Park near the ancient relics of Bohai can be seen as intentional moves to claim dominion over the three provinces in the Northeast region, and to incorporate the history of Bohai into Chinese history by emphasizing historical ties between Bohai and the Manchu people.

Keywords

Odoli Castle, Dunhua, the Qing Ancestor Cultural Park, the Northeast Project, the theory of Changbai Mountain, Balha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과 교민 관리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황영원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 수료

동북아역사재단

I. 머리말

1930년대 중국 동북(東北) 지역을 통치한 만주국은 일본제국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예속된 국가였다. 근래의 연구들 역시 만주국이 기본적으로 괴뢰정권이었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 존재하였던 근대성에 주목하며 독립적 다민족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조망하려 시도하고 있다. 국가의 독립성을 판단할 때는 정치행정 시스템의 완전성 및 유효함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승인과 외교적 자유도가 그 척도가 되기도 한다. 1940년대까지 만주국은 일본, 소련,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영사관을 설립하였고 왕징웨이[汪精衛] 정권하에도 통상대표부(通商代表部)를 두었다.¹⁾ 현재까지 만주국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 투고: 2016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6년 4월 26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 이 논문은 2015년도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아울러 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과 한국어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손장훈 학생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엘살바도르, 소련,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와 맺었던 외교관계가 검토되어지고 있지만²⁾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만주국 사이의 외교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 상태의 조선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양자 사이에 외사(外事)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서 만주국은 신의주, 경성에 영사관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민의 신분 전환 및 그 관리를 둘러싼 문제에서 조선 경내의 중화민국 영사관과 일정한 경쟁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만주국의 조선영사관 설치와 교민 관리 등 사실에 주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³⁾ 괴뢰정권이었던 만주국과

- 1) 『滿洲國官吏錄』에 따르면 1940년 11월 1일까지 만주국의 영사관 및 재외기관 설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만주국)국무원총무청인사처 외, 1940. 11. 1, 『滿洲國官吏錄』.

주 하얼빈외무국특파원공사 [哈爾濱外務局特派員公署]	
대공사관 (大公使館)	주차일본국대사관[駐劔日本國大使館], 주차이탈리아국공사관[駐劔意大利國公使館], 주차독일국공사관[駐劔德意志國公使館], 주차스페인국공사관[駐劔西班牙國公使館]
영사관 (領事館)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주바사총영사관, 주블라고베셴스크영사관, 주치타영사관, 주신의주영사관, 주경성명예총영사관, 주모지명예영사관, 주오사카명예영사관, 주니가타명예영사관, 주산살바도르명예영사관, 주제노바명예영사관, 주나폴리명예영사관
주재중화민국통상대표부 (駐在中華民國通商代表部)	베이징통상대표부(산하에 톈진[天津]판사처와 지난[濟南]판사처가 두어져 있음), 상하이통상대표부, 주재몽강(蒙疆)대표부(후허하오터판사처)

- 2) 田嶋信雄, 1992, 『ナチズム外交と“滿洲國”』, 千昌書房; 飯島みどり, 1995, 「ある“親日國”の誕生—“滿洲國”問題と一九三〇年代エルサルバドル外交の意圖—(その一)」, 『岐阜大学教養部研究報告』 32, 岐阜大学教養学部; 寺山恭介, 2005, 「スターリンの對滿政策」, 『東北アジア研究』 9, 東北大学東北アジアセンター; 森田光博, 2007, 「滿洲國の對ヨーロッパ外交(一)」, 『成城法学』 75; 森田光博, 2007, 「滿洲國の對ヨーロッパ外交(二)」, 『成城法学』 76 등 참조.
- 3) 楊韻平, 2007, 『汪政權과 朝鮮華僑(1940~1945)—東亞秩序之一研究』, 臺北: 稻香出版社에서 왕징웨이 정권의 주일본대사관 당안 자료를 바탕으로 왕징웨이 정권

식민지였던 조선의 접변과정은 “변두리” 역사로 취급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주사변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 대륙 진출이 가속화되며 만선관계가 단순한 지역 차원의 교류 문제를 초월하여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글은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치배경과 교민 관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행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만주국의 성격과 일본제국 확장의 구도 속에 놓였던 만선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II.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

1932년 3월 1일 만주국 수립 직후, 일본과 엘살바도르가 이를 가장 먼저 승인하였다. 1937년 이후에는 추축국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이어 만주국을 승인하였으며, 1943년까지 만주국을 공식 혹은 묵시(默示)적으로 승인한 국가는 총 23개국이었다.⁴⁾ 조선은 식민지로서 만주국과 대등한 외교관계는 존재하지

치하 난징국민정부의 주조선 영사관의 입장에서 본 화교의 국적과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장절에서 만주국 주신주의영사관 및 만교(滿僑)의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맺음말 부분에서 언급하듯이, 만주국 국민과 교민의 정체성이 어땠는지, 화교가 집중되어 있던 신의주 만교의 인구구조가 어땠는지, 만주국 민적에 등록된 화교의 비율이 어땠는지, 그리고 국경 지역에 있던 조선 화교 중 중국에서 살아왔고 중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인이 얼마였는지와 같은 의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저자 스스로 인정하듯 자료의 부족으로 만주국 영사관의 역할 및 태도에 대한 분석 역시 미흡하다. 그러나 본 저작은 만주국 영사관을 일제에 종속된 수동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독특한 의식을 지녔던 능동적 주체로 바라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楊韻平, 2007, 앞의 책, 273쪽.

- 4) 1943년에 만주국정부에서 편찬한 『만주건국십년사』에 따르면 당시 전 세계 총 80개 나라와 정권 가운데 만주국을 공식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한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일본,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스페인(프랑코정권), 독일, 헝가리, 중화민국

않았다. 그러나 통상 무역 및 교민 관리 문제에 대하여 상호 간 협의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식민지 조선에 취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선만일여(鮮滿一如)”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주국과 조선의 의사 교섭은 나날이 빈번해졌다. 만주 지역에 조선인 이주민이 상당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조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며 일본의 대(對)중국 침략 과정 속에서 조선 교민 관리의 명분을 내세워 만주에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행사할 공간과 경제적 이권 탈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총독부는 신징출장소[新京出張所]를 설립하고 이민 관련 업무를 전개하였다. 또한 양측의 통상 무역 왕래를 활성화하고 교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 경내에 만주국 영사관을 설립하는 사안도 1932년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 속에서 조선 측이 더욱 적극적이었던 사실이다. 1932년 12월 경성상업회의소는 경성에 만주국 영사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었으며⁵⁾ 이후 조선총독부는 만주국과 계속 교섭을 진행하여 경성·청진·인천·평양 및 신의주 등 다섯 곳에 각각 영사관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였다.⁶⁾ 식민지 조선이 영사관 설립에 있어 이처럼 적극적이었던 것은 대외무역 및 그와 연동된 산업 발전 측면에서 만주국의 건국이 가져올 거대한 경제적 이익에 이끌렸기 때문이다.⁷⁾ 다른 한편 만주국 역시 교민의 “지도보호”와 “일만통상경제”를 위하여 식민지 조선에 자국의 영사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왕징웨이난징정부,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태국, 덴마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바티칸시국(이상 공식적 승인), 소련, 폴란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네팔(이상 묵시적 승인)이었다. 滿洲帝國政府編, 瀧川次郎解題, 1969,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107~108쪽 참조.

- 5) 「滿洲國領事館」, 『每日申報』, 1932. 12. 14.
- 6) 「滿洲國領事館四月初設置 만주국과의 교섭도 곳이나 京城外五個初에」, 『每日申報』, 1933. 1. 15.
- 7) 「京城, 釜山, 會寧滿洲國領事館設置 總督府에서 實現을 慫慂」, 『每日申報』, 1935. 2. 28 기사 참조.

인정하였다.⁸⁾ 최초의 계획단계에는 경성, 신의주 등을 비롯하여 복수의 지역에 영사관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였지만, 1934년 8월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을 때 만주국은 일단 신의주에만 영사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⁹⁾ 복수 지역에 동시에 영사관을 설립하는 당초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한 데에는 아마도 제한된 예산이 적지 않은 작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최초의 영사관이 신의주에 세워진 것은 그 도시가 가진 국경 도시로서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평안북도는 많은 수의 화교가 모이는 교민 업무의 중진(重鎭)이었으며,¹¹⁾ 특히 그 도청 소재지인 신의주는 만주국의 안동(安東)과 겨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두 지역 왕래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초의 영사관이 경성 대신 신의주에 자리를 잡았던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었다.

1934년 10월 만주국은 신의주 상반정(常磐町) 3가에 위치한 전(前) 상업은행 지점을 빌려 영사관 관청으로 삼고,¹²⁾ 11월 1일 관련 인사 발령을 공포하였다. 그 후 동월 17일에 개관식이 열렸다.¹³⁾ 신의주 영사관은 만주국이 일본

8) 「新義州領事館定員制已公布」, 『盛京時報』, 1934. 11. 2.

9) 駐日滿洲帝國特命全權公使丁士源 → 日本外務大臣廣田弘毅(1934. 11. 9), 「在新義州滿洲國領事館關係」,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630600.

10) 「滿洲國에서 京城에 總領事館 淸津에는 名譽領事」, 『每日申報』, 1934. 10. 6.

11) 1930년대 “북선개발”의 추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화공(華工)이 조선으로 유입함으로써 한반도 남북 화교 인구 비율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황해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를 포함한 북선 지역의 화교 인구 비율은 1930년에 63.7%, 1936년에 65.5%로 나타났다. 1937년 노구교사건 이후, 남선 지역의 화상(華商)이 중일관계의 악화와 조선에서의 배화 풍조에 큰 타격을 입어 대량 귀국하게 되자 조선 전체에서 북선 지역이 차지하는 화교 인구의 비율은 한층 더 높아졌다. 1942년에 북선 지역의 화교 인구는 한반도 화교 인구 전체의 8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신의주에 도청을 두고 있는 평안북도의 화교 인구 비율은 45.3%에 달하였다. 楊韻平, 2007, 앞의 책, 113~114쪽.

12) 「滿洲國新義州領事館位置前商銀跡으로決定」, 『每日申報』, 1934. 10. 15.

13) 「我國駐新義州領事館舉行開館式重要館務僑民之登冊竝調查商況」, 『盛京時報』, 1934. 11. 15; 「寫真說明駐新義州領事館 今日舉行開館式」, 『盛京時報』, 1934. 11. 17.

제국 내에서 가장 먼저 설립한 영사관이었다.¹⁴⁾ 따라서 최초의 인사 발령은 잠정적 정원제로 채택되어 영사를 두지 않았다. 부영사 위안타오[袁濤]가 영사대리로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영사 밑에는 3명의 주사(主事)를 두어 각각 이토가 아츠시[糸賀篤], 우쥬진[吳左金], 마



(그림 1) 신의주 영사관(1935년)

쉐위안[馬學援]을 임명하였다.¹⁵⁾ 부영사 위안타오는 1895년생으로 후베이[湖北] 한커우[漢口] 출신이며 1926년 교토제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후베이 경찰관학교 교관을 거쳐 1934년 만주국 외교부 사무관이 되었다. 신의주 부영사가 되기 전에는 만주국 외교부 안동판사처[安東辦事處] 처장으로 임직할 바 있었으며,¹⁶⁾ 일본 본토 출신의 관리로 잘못 알 정도로 일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다고 한다.¹⁷⁾ 주사 3명 가운데 이토가는 일본인이고, 마쉐위안은 경력이 분명하지 않다. 우쥬진은 1901년생, 타이완 모오리현[苗栗縣] 위안리진[苑里鎮] 사람으로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32년 만주국 외교부에 임용되었으며, 1934년부터 신의주 영사관 주사가 되어 1937년까지 재직하였다.¹⁸⁾ 그 이후 영사관의 영사¹⁹⁾와 주사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영사의 경우 구종산

14) 「滿洲國の新義州領事館十一月中에 開館」, 『每日申報』, 1934. 10. 25.

15) 駐日滿洲帝國特命全權公使丁士源 → 日本外務大臣廣田弘毅(1934. 11. 9), 「在新義州滿洲國領事館關係」,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630600.

16) 高丕琨, 1988, 『偽滿人物(偽總理大臣秘書官的回憶)』, 長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 152쪽.

17) 「新義州駐袁滿洲國領事龜城地方視察」, 『每日申報』, 1937. 1. 13.

18) 李躍乾, 2011, 『日治時期臺灣留日學生與戰後臺灣政治』, 北京: 九州出版社, 246쪽.

19) 1937년 위안타오는 부영사에서 영사로 그 직위가 격상되었다. (만주국)국무원총무청인사처 외, 1937, 『滿洲國官吏錄』, 78쪽.

[穀中山](1938~1939), 위춘[玉春](1940~1941), 쉬에따창[薛大昌]이 차례로 취임하였다. 쉬에따창은 경력을 알 수 없고, 구종산은 라오닝 푸란띠엔[遼寧普蘭店] 출신이며, 위춘은 몽골족, 커슬커텡기[克什克騰旗] 사람인데 이 중 구종산과 위춘은 모두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다.²⁰⁾ 이를 통하여 볼 때 신의주 영사관의 영사나 주사는 대부분 일본 유학파였고, 만주국 외교부에 재직할 경험이 있어 모두 외교 전문인력의 소양을 일정 수준 갖추고 있었던 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¹⁾ 인력을 갖춘 후에는 영사관 터가 문제가 되었는데 본래 신의주 영사관은 1938년 10월 1일부터 조선 광산왕(鑛山王) 최창학(崔昌學)의 장남 최년수(崔年壽)의 건물을 청사로 임대하고 1940년 10월 1일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영사관이 이 건물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戰時)의 자금 곤란으로 인하여 계획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였으며 결국 영사관이 새 건물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최년수의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마침내 건물 주인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하는 난감한 사태까지 벌어졌다.²²⁾ 결국 신의주 영사관은 1942년 이후 신의주부 영정(榮町) 2-3번지로 이전되었다.²³⁾

신의주 영사관 설립 이후 조선총독부는 여타 지역에도 영사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1936년 8월에 취임한 미나미 총독은 일본의 대륙 침략 정책에 부응하여 일본·만주·조선의 산업·교통·정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인 일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만일여론(鮮滿一如論)”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다. “선만일여론”은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을 합리화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인원 왕래의 촉진, 무역관계 장벽의 완화, 철도와 항구의 건설, 압록강 수운 및 전력

20) 高丕琨, 1988, 앞의 책, 201쪽.

21) 만주국 외교부는 1937년 7월부터 국무총리대신 직할의 외무국으로 격하되었다가 1942년 4월에 다시 외교부로 회복되었다. 中見立夫, 2005, 「滿洲國の“外務省”-その組織と人事」, 江夏由樹 編, 『近代中國東北地域史研究の新視角(第1版)』, 東京: 山川出版社, 143쪽 참조.

22) 사정국 외무과, 1942, 「신의주주재만주국영사관청사 계속 차용 알선 의뢰의 건」, 국가기록원, CJA0002373.

23)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長 → 外務次官(1944. 2. 23), 「朝鮮總督官房」, 『在本邦各國公館關係雜件第一卷』,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562400.

자원의 공동개발, 조선·만주의 인사교환, 상호의 교민보호와 같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²⁴⁾ “선만일여론”의 제창 아래 조선·만주 간의 정치적·외교적 교류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의사소통 및 용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성에 영사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한층 더 절실했으며²⁵⁾ 영사관 설립에 대한 요구는 총독부측의 계획뿐만 아니라 조선무역협회의 진정을 통하여 표출되기도 하였다.²⁶⁾ 이에 1937년 3월 조선총독부 외사과장 아이카와 카츠로쿠[相川勝六]가 만주국을 방문하던 중 이민 문제와 함께 영사관의 추가 설치 문제를 만주국 측과 협상하였다. 이와 같은 협상의 결과로 일단 경성에 총영사관을 두고 차후 원산, 인천, 부산, 청진 등의 지역에 영사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²⁷⁾ 1937년 4월 20일 경성 주재 명예총영사관이 설립되고, 초대 명예총영사에 박영철(朴榮喆)이 임명되었다. 경성 명예총영사관은 교민등록사업 및 상업 사정의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신의주 영사관과 업무²⁸⁾의 성격이 달라 주로 두 가지 사항을 담당하였는데, 첫째는 만주국정부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대표로서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조선과 만주의 통상 사무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 이외에 재조 만주국 교민을 지도·보호하는 사안에도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재조 만주국인의 사증(査證), 취증(取證) 등 일절(一切)은 신의주 영사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²⁹⁾ 즉

24) “선만일여론”에 관하여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韓國史研究』 146, 245~278쪽 참조.

25) 「滿洲國領事館京城에設置?」, 『每日申報』, 1937. 1. 13; 「滿洲國鮮滿一如為하야領事京城駐劄折衝事務圓滑期待」, 『每日申報』, 1937. 2. 6.

26) 「滿洲國商務官 今春中に實現か 懸案領事館の母體」, 『大阪朝日新聞朝鮮西北版』, 1937. 2. 5.

27) 「三地に領事館 京城に總領事館 滿洲國へ設置を交渉」, 『大阪朝日新聞朝鮮西北版』, 1937. 2. 18; 「滿洲國京城에 總領事館名譽總領事任命 相川外事課長歸任談」, 『每日申報』, 1937. 3. 7; 「滿洲國領事館 設置決定 相川外事課長歸る」, 『大阪朝日新聞朝鮮西北版』, 1937. 3. 7.

28) 「我國駐新義州領事館舉行開館式 重要館務僑民之登冊竝調查商況」, 『盛京時報』, 1934. 11. 15.

29) 「滿洲名譽總領事通商事務만 取扱申報 其他事務追後取扱기로 決定」, 『每日申報』, 1937. 5. 8.

경성 명예총영사관이 맡은 업무는 외교적 상징, 의식(儀式), 그리고 조선과 만주의 교섭 통로 역할이었고, 신의주 영사관이 다루는 교민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 입경 업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영사관의 인원과 구성에도 반영되었다. 경성 영사관은 처음부터 명예총영사 한 명만 배치되었고, 그 예하에 주사 혹은 직원이 없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영사관은 별도의 청사없이 박영철의 조선 상업은행 안에 설치되었다.

박영철(1879~1939)은 전라북도의 대부호 박기순(朴基順)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일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이후 일본군에서 복무하였다. 그는 한일병합 이후 익산군수, 강원도 및 함경북도의 도지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1929년 모든 공직에서 퇴직하고 상업계에 투신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감사(監査)가 되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된 동시에 조선미곡창고, 조선철도, 조선신탁, 조선맥주 등 다수의 “일인계(日人係)” 회사의 요직을 겸임하였고, 이 밖에도 상공회의소 특별의원, 산림회, 사회사업협회, 방송협회 등 여러 사회단체의 이사 및 경성부교육회, 친일단체인 동민회(同民會) 등 단체의 부회장으로 각종 관변, 사회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요약하면 박영철은 군, 정, 상 등 여러 방면에서 두터운 사회 자원을 갖춘 사람으로 식민 권력에 의탁하여 득세한 전형적인 정상(政商)이자 친일파였다. 명예총영사의 인선은 조선총독부의 추천에 의하고 만주국정부가 최종적으로 임명한 것이었는데, 박영철의 이와 같은 “화려한” 이력은 조선과 만주의 통상 관계를 한층 더 “긴밀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여겨졌다.³⁰⁾ 실제 당시 만주국의 재외 명예총영사에 현지인을 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1940년 당시 만주국 주재 조선(경성), 일본(오사카, 모지, 니가타),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 이탈리아(나폴리)의 명예총영사는 모두 현지인으로 충원되었던 것이다.³¹⁾

30) 「滿洲國名譽總領事(初代)朴榮喆氏로 任命 鮮滿通商關係의 緊密化로 二十日附로 서發令」, 『每日申報』, 1937. 4. 22.

31) 「朴榮喆 京城駐在 滿洲 總領事 新京着, 新任人事次」, 『每日申報』, 1937. 6. 22; (만주국)국무원총무청인사처 외, 1940. 11. 1, 『滿洲國官吏錄』, 24쪽.

1939년 3월 10일 박영철이 죽자 경성 영사관은 다음날부터 일시적으로 폐관되었다. 3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 경성방직주식회사 사장 김연수가 신임 명예총영사로 임명됨에 따라 7월 25일 영사관은 다시 개관하였다.³²⁾ 이와 함께 영사관 청사도 상업은행에서 경성방직 내부로 이전하였다.³³⁾ 신임 영사인 김연수 역시 대지주 가문 출신으로 1921년 교토제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22년부터는 경성방직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기타 15개 조선인 회사 및 일본인 회사에서 요직을 맡은 바 있었다. 김연수는 1933년 1월 경기도 도평의원으로 당선되고 전시(戰時) 중추원 칙임참의(勅任參議), 임시보국단의 간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후생부장에 임명되는 등³⁴⁾ 정치적 경력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신임 영사로 임명받을 수 있었다. 1939년 6월 김연수가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었던 시기는 마침 경성방직회사의 사업이 중국 만주로 확장하여 평톈[奉天] 수자툰[蘇家屯]에 “남만방직주식회사”를 창립하였던 때였다. 이 일과 관련하여 광복 이후 친일파 재판 당시, 판사는 김연수에 대하여 영사직을 수락한 것과 남만방직주식회사의 창립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궁하였다.³⁵⁾

심판관-심상준(沈相駿), 피의자-김연수

문: 그 총영사의 임명이 前述한 南滿紡績會社 설립과 시기 如何?

답: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회사 설립보다 약 2개월 가량 전에 총영사에 임명된 것 같습니다.

32) 총독관방 의사과, 外務次官澤田廉三 → 朝鮮總督府政務總監大野綠一郎(1939. 5. 19), 「경성 주재만주국명예총영사 사건의 건」, 국가기록원, CJA0002357; 총독관방 의사과, 外務次官澤田廉三 → 朝鮮總督府政務總監大野綠一郎(1939. 6. 1), 「재경성만주국 명예영사관 폐쇄의 건」, 국가기록원, CJA0002357; 총독관방의사부, 外務次官澤田廉三 → 朝鮮總督府政務總監大野綠一郎(1939. 8. 14), 「재경성만주국명예총영사관재개의건」, 국가기록원, CJA0002357.

33) 「滿洲國名譽總領事に金季洙氏正式任命」, 『每日新報』, 1939. 6. 22; 「滿洲國總領事館廿五日開館式」, 『每日新報』, 1939. 7. 21.

34) 「선술집에서 홀로 자신을 꾸짖는 金季洙」, 『反民者罪狀記』, 친일파관련문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5)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949. 2. 21, 김연수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문: 총영사와 회사 설립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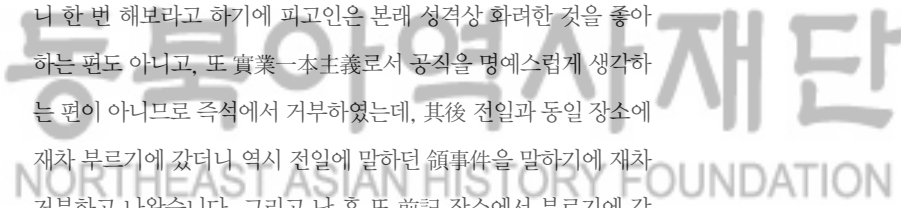
답: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는 그 전년부터 만주국 당국에 회사 설립 허가신청을 제출하여 가지고, 약 1년 후에 회사가 설립되었으므로 절대로 관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문: 임명된 경위 如何?

답: 소화 14년(1939) 5, 6월에 당시 總督府 外事局長으로 있던 松澤이라는 자가 전화로서 피고인을 喜樂이라는 요리점까지 오라고 하기에 갔더니 만주국 명예총영사를 하여볼 마음이 없느냐고 말하며, 同 領事란 것은 구라파식인데 국가 간에 우호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 大實業家가 흔히 하는 것이며, 또한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것이니 한 번 해보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본래 성격상 화려한 것을 좋아 하는 편도 아니고, 또 實業一本主義로서 공직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므로 즉석에서 거부하였는데, 其後 전일과 동일 장소에 재차 부르기에 갔더니 역시 전일에 말하던 領事事件을 말하기에 재차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또 前記 장소에서 부르기에 갔더니 3차 째는 종전과 태도를 달리하여 總督의 명령이라고 하며 위협을 하므로 피고인은 본의 아니나 부득이 승낙하였습니다.

김연수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기업가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 직을 맡은 것은 외사과 과장을 비롯한 총독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진술의 진위여부는 차치하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연수는 전임인 박영철과 매우 비슷한 경우로 둘 다 친일성향의 대 기업가로 그들이 총영사를 담당하게 된 것은 조선과 만주국 양자의 무역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김연수의 진술에 의하면 남만방적회사 설립에 관하여 1938년경 이미 만주국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허가가 떨어진 것은 명예총영사로 임명된 후 석 달이 지난 1939년 9월이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³⁶⁾ 셋째, 경성 명예총영사는 상징적인 존재에 더욱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인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연수는 재판 중 명예총영사관은 단지 명목상의 지위로 영사관 청사와 휘하 직원이 없으며, 오가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구체적 업무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³⁷⁾ 김연수의 진술은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만주국은 1941년 8월 31일에 안둥, 투먼[圖門], 잉커우[營口]에 소재한 외무국판사처(辦事處)³⁸⁾를 철폐하고 9월 1일에 경성 명예총영사관 안에 “사증판사처(查證辦事處)”를 신설하였으며 관련 사증관과 용인도 배치한 바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김연수의 답변은 경성 명예총영사관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36)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949. 2. 21, 김연수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朴啓周, 1940. 5. 1, 「金季洙씨의事業觀·人生觀·黃金觀(氏は滿洲國京城駐在總領事·京城紡織株式會社長·奉天東光中學校校主)」, 『三千里』 12(5).

37)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949. 2. 21, 김연수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8) 만주국은 신의주를 비롯한 외국 지역에 영사관을 설치하기 이전인 1933년 6월에 입경 외국인의 보호와 취척(取締)을 위하여 「여권사증규칙」을 반포하는 한편, 일종의 임시적 “변칙” 조치로서 안둥을 비롯한 여러 국경 도시에 여권사증판사처를 설치하였다. 1934년 제정 실시 이후 여권사증판사처를 외교부판사처로 승격시켰다. 「外交部對ソ關係を整調して新なる飛躍へ帝制の實施と各國の動向」, 『滿洲國現勢(康德2年版)』, 滿洲國通信社, 1935, 161쪽; 「我國駐新義州領事館舉行開館式重要館務僑民之登册竝調查商況」, 『盛京時報』, 1934, 11, 15 참조.

39) 天羽外務次官 → 北島拓務次官朝鮮總督府大野政務總監各通內務次官(北海道長官各府縣支事), 「在京城滿洲國查證事務所開設ニ關スル件」, 『在本邦各國公館關係雜件/滿洲國ノ部』, 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629600, 1941;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長 → 外務次官(1944. 2. 23), 「朝鮮總督府官房」, 『在本邦各國公館關係雜件第一卷』, 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562400; 사정국외무과, 1942, 「만주국의경성명예영사관내에서증사무소개설의건」, 국가기록원, CJA0002363.

III. 만주국 영사관의 교민 관리와 “만교(滿僑)” 신분 창출

만주국 수립 이후 만주에서 온 교민은 원래의 “화교(華僑)”에서 “만교(滿僑)”로 바뀌었다. 그러나 만주국은 1945년까지도 국적법을 제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적법에 근거하여 만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만주국 국민의 신분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난징국민정부는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재외 교포를 전부 화교로 간주하였다. 한 정권에 있어 해외 교민을 조직, 관리하고 교민으로 하여금 정권을 향한 지지와 해당 국민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 주권을 과시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은 1934년 신의주 영사관을 설립하였을 무렵부터 곧바로 현지 교민에 대한 등록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자국 국민을 중화민국 국민과 구별 짓고자 하였다. 신분을 “만교”로 바꾸는 문제는 정권 선택의 의미도 있었지만 교민의 입경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도 하였다. 1920년대부터 조선의 공업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값싼 노동력인 화공(華工)이 대량으로 조선에 몰려들게 되었다. 이는 농촌 노동력이 과잉상태였던 조선의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초래하며 1920년대 후반 배화풍조(排華風潮)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총독부 당국은 이러한 노동력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1934년 9월 화교 입경 제한에 관하여 ① “제시금(提示金)” 100원 납부, ② 명확한 직업을 가진 자라는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였다. 정책 실시 초기 당국은 만주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이유로 만주국인의 입경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조선과 만주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1934년 10월 평북경찰부는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여 만주국인과 중국인의 처리를 구별하여 안동경찰서, 안동경찰청, 현병대, 현공소(縣公所) 네 기관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자유롭게 입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⁴⁰⁾ 환언하자면 만주국인이 아닐

40) 「中國人の入國條件滿洲人證明所有者は自由 平北警察部と協定成る」, 『京城日報』,

지라도 상술한 관청에서 “만주국인”으로 등록하여 해당 증명서를 받으면 “만주국인”의 신분으로 입경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었다.⁴¹⁾ 이는 조선에 입경하고자 하는 교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총독부 당국은 화교의 국경 출입과 자금 유통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실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1938년에 실시된 “체선허가증(滯鮮許可證)”과 “외국인회태관리법(外國人匯兌管理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쟁의 발발은 난징국민정부 및 이후의 충칭국민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따라 조선 경내의 영사관은 1937년 말부터 그 소속을 바꾸기 시작하여 베이핑(北平)의 친일정권인 중화민국임시정부의 영사관이 되었다가, 1940년 후반에는 다시 왕징웨이 정권의 영사관으로 전환되었다. 중일관계의 긴장과 영사관의 빈번한 명칭 변경은 조선에 체류한 화교의 인심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조선인들이 빈번하게 중국인을 배척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화교의 처지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만주국의 교민이라는 신분을 택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였다.

1937년 노구교사건 발생 이후 경성 명예총영사관에 등록을 신청하여 “만주국인”이 된 화교의 수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등록 상황은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였는데, 하나는 만주국인의 국적 신고, 다른 하나는 국적의 변경 신고였다.⁴²⁾ 여기서 곤란한 것은 후자였다. 당시 중국 관내의 각 정권은 1929년 난징국민정부가 제정한 『국적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탈적이 어렵고, 입적이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화교인지 만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적이었으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허가 없는 탈적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34. 10. 4; 「滿洲國人は證明書交附自由入國許諾」, 『毎日申報』, 1934. 10. 6.

41) 「滿人の朝鮮內入國制限撤廢決定 見せ金制度も廢止」, 『滿洲日報』, 1934. 10. 6.

42) 「外國人の動靜」, 『治安狀況(昭和12年)』 26~43, 1937. 10. 29, 국내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적이 중화민국으로 판정된 화교는 쉽게 신분을 변경할 수 없었고, 당시 만주국 영사관 측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일례로 1934년 11월 신의주 영사관 개관식을 앞두고 앞으로 교민 등록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미 중화민국 영사관에 등록한 자가 다시 본관에 등록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국적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된다.⁴³⁾ 하지만 국적 변경 신청자가 점차 늘어난 상황 때문에 만주국 영사관은 임시변통의 방법으로 “가등록(가등기)” 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였는데, (1) 만주국에서 태어났으며 만주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자, (2) 중화민국에서 태어났고 현재 만주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자, (3) 이전에 만주국에 생활 기반이 있었다가 국적을 중화민국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만주국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자 등 세 종류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국적 변경을 탄원한 교민들은 여전히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총독부, 지방관헌 및 총영사의 협상의 결과로 총영사의 신중한 조사를 거쳐 만주국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 판정된 경우 “만주국인”으로 가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⁴⁴⁾ 신문기사에 의하면 중일전쟁 발발 후 날마다 신의주 영사관에 가등기를 신청한 화교가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방첩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영사관 측은 가등기의 신청을 느슨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전쟁 발발 뒤 넉 달 동안 신의주 영사관에 가등기를 신청한 인원은 300여 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통과한 자는 그 3분의 1에 불과하였다.⁴⁵⁾

이러한 국적 변경과 화교·만교 신분 구분 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조선 화교의 신분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조선총독부가 1935년과 1940년에 각각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에 반영되었다. 두 차례 조사는 모두 “중화민국인”과 “만주국인”으로 화교와 만교를 구분하였는데 구체적 인구수는 <표 1>과 같다.

43) 「我國駐新義州領事館舉行開館式 重要館務僑民之登冊竝調查商況」, 『盛京時報』, 1934. 11. 15.

44) 「滿洲國人となつて半島せん殘留支那人の切なる願に 特に便法講究せらる」, 『京城日報』, 1937. 9. 14.

45) 「滿洲國으로 國籍轉向者續出 平安北道內百餘名」, 『每日申報』, 1937. 11. 7.

〈표 1〉 1935년과 1940년 국세조사에서의 만교·화교 인구수⁴⁶⁾

연도	만주국인	중화민국인	만교/화교
1935	11,585	58,563	19: 100
1940	15,141	54,519	28: 100

〈표 1〉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화교에 비하여 만교의 비율은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적 변경자는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교민 사회의 유력자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유력자의 국적 변경은 기존의 중화상회(中華商會) 등 핵심적 교민 조직의 운영을 곤란하게 만들기까지 하였다.⁴⁷⁾ 양인핑[楊韻平]의 연구에 따르면 1940년에 이르러 비록 왕징웨이 친일정권이 새로 수립되었지만 만주국인으로 등록된 교민을 다시 중국 국적으로 되돌리지는 못하였다.⁴⁸⁾ 이를 미루어 볼 때, 전시하에 만주국 국적이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 국적의 상대적 우위는 전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사실상 1937년 이전 만주국 영사관은 교민들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얻고 있었다. 당시 만주국 신의주 영사관 주사였던 우쥘진의 회고에 따르면 1937년 이전 신의주에 만주국 영사관과 중화민국 영사관이 병립했을 무렵 현지 화교들은 분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비호를 받고 있는 만주국 측이 더욱 쉽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기므로, 만교가 아닌 경우에도 중화민국 영사관보다는 만주국 영사관에 더욱 의지했다고 한다.⁴⁹⁾

만주국 영사관은 교민의 등록, 국적 및 신분의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만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민 조직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46) 1935년, 1940년 국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47) 대표적인 예는 동북양행신명호(東福洋行新明號), 신흥덕(新興德), 신연리(新延利) 등을 들 수 있다. 「支那人一般의 動向」, 『治安狀況(昭和12年)』 26~43, 1937. 9. 17, 국내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8) 楊韻平, 2007, 앞의 책, 234쪽.

49) 許雲姬·曾金蘭, 1994, 「吳左金先生訪問紀錄」, 『口術歷史(五): 日據時期臺灣人赴大陸經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02쪽.

까지 파악한 사료로 볼 때 경성의 만주국민회(滿洲國民會),⁵⁰⁾ 신의주의 만교상공회(滿僑商工會)⁵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교세력의 확대와 교민 조직의 확장은 기존의 화교 교민조직에 일정한 충격을 주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가령 평양중화상회(平壤中華商會)가 1937년 12월 회장 손꾸이위(孫貴玉)의 제안을 바탕으로 만주국 국민조직인 만주국협화회(滿洲國協和會)에 병합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⁵²⁾ 또한 “만교”라는 이름을 붙인 학교가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신의주만교우급학교(新義州滿僑優級學校),⁵³⁾ 신의주만교학교(新義州滿僑學校)⁵⁴⁾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학생은 만교와 화교의 자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만교와 관련된 교민조직이나 학교는 신의주에 많이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만교 인구의 분포와 관련이 있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교는 만주국과 인접한 북선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남선 지역에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인원수가 매우 적는데, 북선 지역 중에서는 신의주가 소재하는 평안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선 전체의 상황으로 볼 때 만교와 화교의 인구는 정비례의 관계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3〉의 국세조사 결과표에서 보듯이, 부 단위로 볼 때 1935년 신의주와 평양은 각각 971명, 155명으로 불과 60명이 거주하는 경성부에 비하면 확실히 다수였다. 즉 각 부 중에서 신의주의 만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화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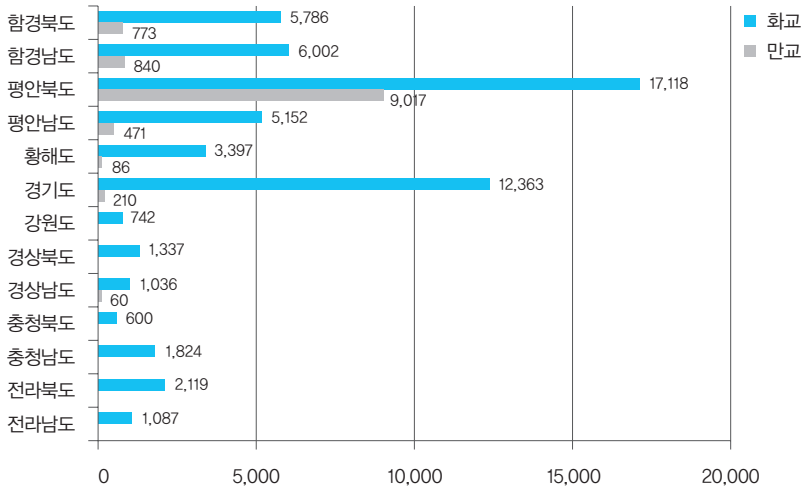
50) 「支那人一般의 動向」, 『治安狀況(昭和12年)』 26~43, 1937. 9. 17, 국내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1) 「滿僑商工會結成」, 『每日新報』, 1939.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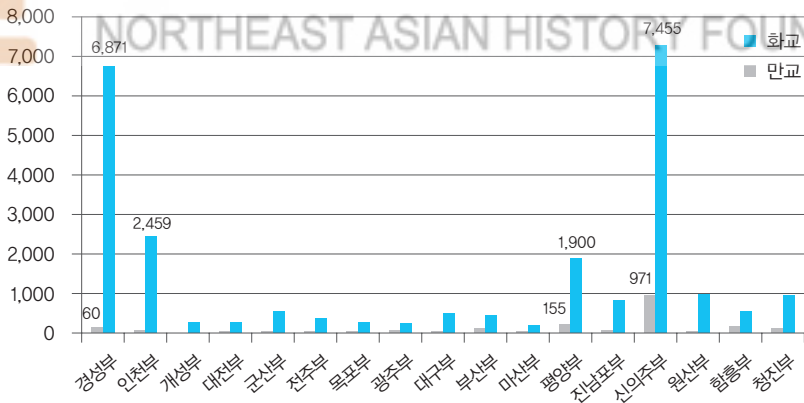
52) 「中華學校を復校し 滿支兩少年の共學で」, 『毎日新聞朝鮮版』, 1937. 1. 25.

53) 사정국 외무과, 1942, 「재신의주 만주국 영사관 신분증명표 발급의 건」, 국가기록원, CJA0002373.

54) 신의주만교학교(新義州滿僑學校)는 1938년 만주국 신의주 영사관에서 설립한 것이다. 학생은 만주 지역 혹은 이와 경제적 관계를 가진 기타 지역에서 온 교민의 자녀들로 구성되었다. 교과서는 만주국 교육청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했으며 교사는 대부분 만주국에서 초빙되어 왔다. 학생이 졸업하면 만주국에 돌아가 진학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공립학교로서 학비도 면제되었기 때문에 재학생은 인원수가 평균 200여 명에 달하였으며 학기마다 60여 명의 입학생이 들어왔으나 1945년 8월 폐교되었다. 教育大辭典編纂委員會 외, 1992, 『教育大辭典(第4卷)』, 上海教育出版社, 381쪽.



〈그림 2〉 조선 각 도 만교·화교 인구 대비(1935년 국세조사)⁵⁵⁾ (단위: 명)



〈그림 3〉 각 부 만교·화교 인구수(1935년 국세조사)⁵⁶⁾ (단위: 명)

55) 1935년 국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56) 1935년 국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많았던 경성에는 만교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통계 등 행정 수단으로 만교와 화교를 구별하였지만 식민지 당국과 조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실제 생활공간에서 이 양자를 구별 짓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는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일 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화교가 생활하는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며 화교와 만교를 구별 짓는 일이 점차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인천, 진남포, 신의주를 경유하여 귀국한 화교 인원수는 28,600여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쟁 발발 이전 조선 경내 화교 총인원수인 60,400여 명의 45%에 가까운 것이었다.⁵⁷⁾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한 달 뒤인 10월 14일에 이르러 32,570여 명으로 늘어나 조선 화교 총인원수의 54%에 육박하였다.⁵⁸⁾ 이런 상황 속에서 만주국 주 경성 명예총영사 박영철은 공개편지의 형식으로 조선 관민에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謙一郎]는 통첩으로 각 국장과 각 도지사에게 만주국인을 우대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⁹⁾ 한편 당시 경성에 있던 만교도 영사관에 찾아가 “지나인(支那人)”으로 간주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만주국인과 지나인을 구분할 조치를 취할 것을 진정하였다.⁶⁰⁾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총독부 측과 상의한 끝에 두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하나는 집집마다 만주국 국기인 오색기를 게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슴에 오색기 휘장을 착용하는 것이었다.⁶¹⁾ 이와 비슷한 조치는 영사관 소재지가 아닌 평양에서도 확인

57) 「支那人引揚げすてに四割五分」, 『大阪朝日新聞朝鮮西北版』, 1937. 9. 17.

58) 「在鮮支那人の本國引揚者 約三萬二千人」, 『大阪朝日新聞朝鮮西北版』, 1937. 10. 14.

59) 「滿洲人保護에對하야朝鮮官民에告함駐京城滿洲國名譽總領事朴榮詰」, 『每日申報』, 1937. 8. 10; 「在留滿洲國人の保護 萬全을 通牒」, 『東亞日報』, 1937. 8. 31.

60) 「在京滿洲國人 領事館에 陳情, 支那人으로 취급되면 곤란하다 하야」, 『東亞日報』, 1937. 8. 14.

61) 「支那人과의 區別을 要望 혼동되기 쉬운 것을 우려코 在城滿洲人陳情」, 『每日申報』, 1937. 8. 15; 「滿洲國人是 五色 “마크” 佩用, 京城滿洲國 人民會會員들」, 『東亞日報』, 1937. 9. 1.

된다. 1937년 8월에 평양부에 있는 만주국인 150명은 자신들이 지나인이 아니라 만주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두 만주국협회에 가입하고 각 집대문에 일만양국의 국기 표시를 담은 금속 문패를 내걸자고 결의하였다.⁶²⁾ 이러한 사실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시국이 긴장된 상황에서 만교라는 신분이 조선에 거주하고자 하는 교민들에게 호신부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과 혼란한 국제정세임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정권 및 만주국정권의 재외 영사관이 일정한 공신력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만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가등기의 형식으로 만교 신분을 획득한 교민들에게 만주국정권 및 그 영사관이 지닌 위상은 과연 어떠했을까? 사료의 한계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상술한 내용으로 볼 때, 만교 신분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 정체성보다 위기상황하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른바 만주국 국적이 생계를 영위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욱 컸다고 사료된다. 당시 조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檢事局)은 만교 가운데 “건국의 본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며 중국(중화민국) 영사관 혹은 중화상회와 관계를 유지한 자도 적지 않다”고 진단한 바 있다.⁶³⁾ 1945년 8월 해방까지 만주국이 조선 경내에 설립한 영사관은 오직 신의주와 경성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영사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는 중국 영사관 및 중화상회를 비롯한 교민조직은 여전히 기존의 교민 관리 구조를 유지하였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주국 영사관과 중국 영사관은 비록 교민의 국적과 교민조직의 소속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과 경쟁의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협력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관내에 친일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는 더욱 그랬다. 예를 들어,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경기도연맹, 국민총력경성부연맹 및 만주건국10주년경축회조선지부의

62) 「日滿國旗の門標を軒先に平壤の滿洲國人」, 『大阪朝日新聞朝鮮西北版』, 1937. 8. 22.

63) 「外國人 및 外國系會社商館의 取締狀況」, 『治安狀況(昭和13年 江原道)』, 1938. 12, 국내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공동 주최로 1942년 9월 15일에 경성부민관에서 열린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식을 앞두고 9월 초에 조선총독부 사정국(司政局) 국장 스즈카와 히사오[鈴木壽男]는 중화민국 총영사 린경위[林耕宇]와 만주국 명예총영사 김연수에게 모두 공문을 보내 각각 소속 교민들을 행사에 동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당일 행사일정에 만주국 명예총영사 김연수의 인사뿐만 아니라 중화민국 총영사의 축사 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⁶⁴⁾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양자가 모두 부일(附日) 혹은 친일정권으로 전락하였으므로 제국 일본의 뜻에 맞게 행보를 같게 해야만 하였는데 이 사실은 교민이 지닌 선택의 폭을 넓혀 양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처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자택일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IV. 맺음말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주국이 조선 경내에 영사관을 설립한 것은 일본이 조선을 연결고리로 하여 일만선일체(日滿鮮一體)를 추진함으로써 대륙침략정책을 가속화한 것에 자극 받은 산물이었다. 선행 연구는 만주국이 조선에 설립한 영사관은 주일본 만주국 대사관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만주국과 일본 사이에는 실질적 외교관계가 없었고 주일본 만주국 대사관 역시 형식적인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⁶⁵⁾ 이 논지는 조선 경내 주재 만주국 영사관이 지닌 의의를 제한하지만, 필자는 영사관 신설에 따른 교민 신분의 전환 및 교민 관리 주체의 변화 등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중일관계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교민

64) 조선총독부 사정국 외무과, 1942, 「만주 건국 10주년 경축 행사에 관한 건」, 국가 기록원, CJA0002373.

65) 中見立夫, 2005, 앞의 글, 143쪽.

들은 그들의 생존 및 이익 도모를 위하여 화교 대신 만교가 되는 것을 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만주국 영사관이 외교 기구로써 수행한 역할 및 교민들에게 지니는 의미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반드시 그들이 만주국정권에 전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맡겨 두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화교에 대비된 만교 위상의 미시적 사례와 만교로서의 정체성을 규명해주지 못한 것이 이 글의 한계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이는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京城日報』.

『大阪朝日新聞朝鮮西北版』.

『東亞日報』.

『滿洲日報』.

『每日新聞朝鮮版』.

『每日申報』.

『三千里』.

『盛京時報』.

(만주국)국무원총무청인사처 외, 1940. 11. 1, 『滿洲國官吏錄』.

1935년, 1940년 국세조사자료.

滿洲帝國政府編, 瀧川政次郎解題, 1969,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진일파관련문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在本邦各國公館關係雜件 第一卷」,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562400.

「在本邦各國公館關係雜件/滿洲國ノ部」,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629600.

「在新義州滿洲國領事館關係」,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B14090630600.

『滿洲國現勢(康德2年版)』, 滿洲國通信社, 1935.

『治安狀況(昭和13年 江原道)』, 국내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治安狀況(昭和12年)』 26~43, 국내항일운동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연수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정국 외무과, 1942, 「신의주주재 만주국 영사관 청사 계속 차용 알선 의뢰의 건」, 국가기록원, CJA0002373.

사정국외무과, 1942, 「만주국의경성명예영사관내에사증사무소개설의건」, 국가기록원, CJA0002363.

총독관방 외사과, 1939, 「경성 주재만주국명예총영사 사거의 건」, 국가기록원, CJA0002357.

총독관방 외사과, 1939, 「재경성만주국 명예영사관 폐쇄의 건」, 국가기록원, CJA0002357.

- 총독관방외사부, 1939, 「재경성만주국명예총영사관재개의진」, 국가기록원, CJA00 02357.
-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韓國史研究』 146.
- 高丕琨, 1988, 『僞滿人物(僞總理大臣秘書官的回憶)』, 長春市地方志編纂委員會.
- 教育大辭典編纂委員會 외, 1992, 『教育大辭典(第4卷)』, 上海教育出版社.
- 許雪姬·曾金蘭, 1994, 「吳左金先生訪問紀錄」, 『口術歷史(五): 日據時期臺灣人赴大陸經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楊韻平, 2007, 『汪政權과 朝鮮華僑(1940~1945) - 東亞秩序之一研究』, 臺北: 稻香出版社.
- 李躍乾, 2011, 『日治時期臺灣留日學生與戰後臺灣政治』, 北京: 九州出版社.
- 中見立夫, 2005, 「滿洲國의 “外務省” - 其의 組織과 人事」, 江夏由樹 編, 『近代中國東北地域史研究의 新視角(第1版)』, 東京: 山川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만주국의 조선 주재 영사관 설립과
교민 관리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황영원

만주국은 제국 일본의 대륙침략정책 기조에 부응하면서 조선 경내의 교민 업무 처리와 “만선일여”의 추진을 위하여 1930년대 중·후반 신의주에는 영사관을, 경성에는 명예총영사관을 설립하였다. 조선 주재 만주국 영사관의 설립 추진 과정 가운데 조선총독부 측 역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만주국 영사관은 설립 이후 조선 경내의 교민 등록, 만선간의 통상·정치 사안의 원활한 협상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교민조직과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외교기구로서 중화민국 영사관과 경쟁하기도 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화교의 생존 조건이 악화되자 만주국국민 즉 “만교”로 신분을 변경함으로써 만주국 영사관의 비호 아래 생계를 유지하려는 화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만주국정권에 대한 정치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주제어

“만선일여”, 조선, 만주국 영사관, 만교(滿僑), 교민 관리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s Consulates
in Joseon and Its Affairs Related to
Overseas Manchurian People

Huang Yongyuan

Following the Empire of Japan's aggressive policy toward China, Manchukuo established two consulates in Joseon in the late 1930s. One was the consulate in Sinuiju, and the other was the Honorary Consulate General in Gyeongseong(J. Keijō). These consulates were designated to deal with affairs of Manchukuo residents in Joseon and to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s consulates,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also played an active role. Once after Manchukuo's consulates had been established, the apparatus performed meaningful tasks such as the enrollment of Manchukuo resid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mass organizations and schools for them. In sum, the Manchukuo consulates in Joseon functioned to negotiate passage between two colonized areas, competing with the Republic of China's consulate. As the living conditions of Overseas Chinese in Joseon worsened after the Sino-Japanese War, Manchukuo's consulates helped Overseas Chinese who wanted to change their nationality to that of Manchukuo even though their behavior was based more so on the survival instinct rather than on true identity.

Keywords

unity in Joseon and Manchuria, Manchukuo consulates, overseas Manchu people, overseas Manchu people's affair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황병주 | 국민대학교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남북 간의 체제경쟁에 이르기까지 냉전은 현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냉전에 대한 연구 또한 양과 질 모두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 냉전 연구는 국제정치와 외교·군사 분야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한국사회의 내적인 형성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반공 이데올로기를 빼놓고 냉전체제 하 한국사회의 정치와 이념 지형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냉전과 반공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¹⁾

냉전은 단지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냉전에 따른 체제경쟁을 빼고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을 설명하기 곤란할 것이며 사람들의 일상과 의식

※ 투고: 2016년 2월 15일, 심사 완료: 2016년 5월 1일, 게재 확정: 2016년 5월 20일

1)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는 김동춘·기외르기 스첵 외, 2015,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가 있다.

에도 깊은 흔적을 남겨 독특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연출했다. 세계사적 냉전이 한적한 시골마을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인류학적 탐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²⁾

세계적 규모로 진행된 냉전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서구사회에서 냉전은 일종의 평화공존체제로 나타났지만 한국과 베트남 등 비서구 지역에서는 전쟁과 같은 열전이 동반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냉전의 대표적인 희생양 중의 하나이자 또 냉전을 격화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사라진 전쟁이 비서구 지역에서 간단없이 지속되었고 한국전쟁은 냉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쟁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요컨대 20세기 중반 한국의 냉전과 열전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시대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비인간화가 난무했던 냉전체제하에서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휴머니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그것은 전쟁 대신 인권과 평화가 절실했던 한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모든 전후 사회가 휴머니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휴머니즘은 초역사적으로 실재해왔던 것이 아니며 근대 이후 서구 지역에서 구성된 독특한 인간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냉전과 휴머니즘의 결합은 특수한 역사적 국면의 효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인다.

냉전은 전 세계를 적대적인 양대 진영으로 구획하고 정치·군사·경제·문화·이데올로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경쟁을 의미했다. 특히 냉전은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독특한 정세를 만들어냈다.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국면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대립구도 속에 휴머니즘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체제를 주도하게 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휴머니즘과

2) 권현익 지음·이한중 옮김, 2013,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같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대외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는 구제국주의의 세계 지배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전략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전범재판이었다. 특히 두 재판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새로운 국제법 범주가 등장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해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됨으로써 휴머니즘과 인권이 국제정치的重要한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즉 적대적인 상대방을 비인간적 존재로 재현해내는 데 있어 휴머니즘은 가장 유력한 담론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곧이어 전개된 냉전에 의해 심각하게 침식되었고 휴머니즘은 체제경쟁, 이데올로기 대립 등과 복잡하게 뒤얽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휴머니즘은 보편적 이데올로기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갈등과 경합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잡한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국의 국가성립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휴머니즘이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했다고 하겠다.

한국에 휴머니즘이 소개된 것은 개항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에서의 근대 휴머니즘 역시 르네상스 시기부터 등장했다고 보인다.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인간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르네상스 시기 사용된 humanist라는 용어는 고대의 서적 학문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인문(humanitas)을 체현하고 교양이 높은 사람을 가리켰다.³⁾ 이후 17~18세기 휴머니즘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입각한 인간 규정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전유된다. 부르주아 계급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고자 하는 정신을 휴머니즘이라고 칭했다.⁴⁾ 즉 근대 휴머니즘의 출발은 부르주아적 인간관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시민계급의 사회적 전망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겠다.

3) 務台理作, 편집부 역, 1982, 『현대의 휴머니즘』, 풀빛, 21쪽.

4) 구장률, 2001, 「휴머니즘론의 사적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8쪽.

요컨대 인간은 보편적 존재로 표상되었지만 실제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시민이었다.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간이 어떻게 시민으로 구체화되어야 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인간이라는 자격만으로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인간의 권리는 사실상 시민의 권리로 나타났다. 보편적 인권은 대부분 특수한 시민권의 형태로 보장되었다. 프랑스혁명기 외국인, 여성 등이 시민권에서 배제된 사정은 곧 보편적 인간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곤란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근대 이후 휴머니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지만 실상 그 내용은 상당히 빈약하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인간 본성을 둘러싼 논란만큼이나 휴머니즘 역시 다양한 논의가 열려있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휴머니즘은 엄밀한 논리적 체계를 갖추었다기보다는 몇 가지 개념과 이미지로 구성된 표상체계로써 실천적 기능이 이론적 기능을 지배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⁵⁾ 이는 곧 휴머니즘이 여타 이데올로기나 이념체제와 결합되어 실천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휴머니즘은 고정되어 있는 자명한 진리라기보다 끊임없는 논쟁과 갈등 속에서 매번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에 휴머니즘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과 정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휴머니즘은 그 의미가 내적인 논리와 특성에 따라 도출되는 측면보다는 조성된 정세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역할과 효과가 산출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컨대, 휴머니즘은 발전주의와 결합되어 물질세계를 변화시키는 인간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발전의 결과 초래된 기계문명과 산업사회의 폐해를 고발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 남과 북은 휴머니즘에 입각해 상대방을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비인간적 전체주의’와 노동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자본주의’로 비판하고는 했다.

5) 구장률, 2001, 앞의 글, 10쪽.

따라서 휴머니즘은 조건에 따라 지배담론이자 저항 담론이기도 했다.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휴머니즘은 지배의 수단 이 되기도 했고 저항의 무기로 기능하기도 했다. 예컨대 휴머니즘은 공산주의 의 비인간성을 공격하는 반공주의적 맥락에서 활용되기도 했는가 하면 노동현 장의 비참한 상황을 고발하는 가치이기도 했다. 요컨대 휴머니즘은 인간적인 것을 둘러싼 정치적 경합과 담론적 쟁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 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비유컨대 냉전은 곧 인간의 얼굴로 진행된 비인간적 비 극의 역사이기도 할 것이다.

냉전 시기 휴머니즘의 역사적 구성과 변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곧 현대 한국 사회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왔던 과정을 되돌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의미와 인간적인 것과 같은 추상적이고 본질론적인 가치가 어떻게 국가적 수준 에서 정치와 통치의 매개가 되었고 또 개인의 구체적 일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능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화와 비인간화가 중첩된 냉전의 역사 이해가 한층 더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II. 휴머니즘 I: 냉전하의 반공과 발전

1_ 전후 세계질서 구축과 반공주의적 휴머니즘

냉전은 한국에서 휴머니즘이 발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미소 간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미소 양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된 한국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고, 미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제시된 반인도적 범죄 규정,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유엔인권헌장의 담론적 권위가 한국사회에 드리워지 게 되었다.

승자의 물리력과 강제력으로 전후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 기존의 상례였다면

2차 대전 이후 전범재판은 그것을 계승하면서도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전범을 심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도였다. 홀로코스트 같은 2차 대전에서 자행된 대량학살이 배경이기도 했지만, 구제국주의 시대와 구별되는 정세가 조성된 것은 분명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하고 전쟁범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음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⁶⁾

물론 전범재판은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배반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도쿄재판은 뉘른베르크와 달리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매우 약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피고인에게 대부분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적용한 반면 도쿄재판은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하여 인도에 대한 죄를 소홀히 하였다. 도쿄재판에서는 인도에 대한 죄가 독립적인 기소 이유로 설정되지도 않았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친위대재판, 장관재판, 의사재판, 사법살인재판 등의 후속 재판이 실시되었고 수많은 인도에 대한 죄를 재판에 회부하여 사법청산을 진행한 반면 일본은 후속 재판이 실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전범 혐의자가 사회에 복귀하였다.⁷⁾

전범재판과 함께 전후 휴머니즘 대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유엔이었다. 미국은 유엔 창설은 물론이고 인권선언 제정 과정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1년 초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1) 언론 및 발표의 자유, (2) 신앙의 자유, (3)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4)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4대 자유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인권선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루스벨트의 4대 자유는 대서양 현장을 거쳐 전후 유엔 주도의 인권선언의 내용적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1946년 유엔 산하에 인권위원회의 준비회가 구성되었고 루스벨트 부인이기도 한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가 위원장이 되었다. 이 유엔인권

6) 송충기, 2005,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 청산」, 『역사교육』 93, 224쪽.

7) 이장희, 2009, 「도쿄 국제 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223, 234쪽.

위원회가 성안한 초안이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 선언에 대해 국제연합 한국협회장을 역임한 정일형은 “인류가 전취한 자유의 관념은 이 선언에 집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⁸⁾ 유엔은 그 후 집단학살 금지조약(제노사이드)을 채택하고 노예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전후 휴머니즘 발흥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8년 또 하나의 사건은 도쿄전범재판이 종료된 것이었다. A급 전범 25명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그중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6명만 사형판결을 받고 12월 23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다음날 A급 전범 19명 전원을 석방하고 재판 종결을 선언하였다.

결국 도쿄재판은 A급 전범 석방과 함께 천황 전범 처벌 면책, 반인도적 범죄 기소 보류, 731 세균부대 죄상 은폐, 식인 문제 불기소 등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 반인도적 범죄는 오직 한 건만 기소되는 것에 그쳤다. 특히 미국 검찰 키넨(Keenan)은 1946년 3월 22일 “지식의 보호는 인류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731 부대장 이시이 시로(石井四郎)를 석방했다. 이시이가 보물처럼 아끼던 연구업적 필름은 미국 세균화학무기 연구기지인 터틀릭연구소로 옮겨졌다.⁹⁾

이와 같이 전범재판과 유엔을 통한 미국 주도의 휴머니즘 전략은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면을 드러냈다. 약육강식의 구제국주의 시대를 청산하고자 야심차게 출발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 역시 힘에 의거한 국제정치와 국가이기주의의 요구에 의해 자유와 인권을 내세운 휴머니즘적 가치들이 도구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휴머니즘의 견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의 반인도적 전쟁범죄가 ‘인류의 지식’으로 전변되는 과정은 전후 휴머니즘의 모순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반인도적 범죄 처벌이라는 휴머니즘의 정언명령은 또 다른 휴머니즘의 요구인 ‘인류의 지식’ 앞에 무력했다. 요컨대

8) 정일형, 1952, 『유엔의 성립과 업적』, 국제연합한국협회, 453쪽.

9) 이장희, 2009, 앞의 글, 212쪽.

전후 휴머니즘은 출발부터 정치적이었다.¹⁰⁾

냉전에 의해 뒤틀리긴 했지만 전범재판과 유엔세계인권선언 등으로 휴머니즘이 국제정치의 새로운 주제로 자리잡게 된 것 또한 분명했다. 특히 한국에게 유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분단국가의 출현이 냉전의 사생이라고 한다면 유엔은 공식 대리모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은 유엔의 결의로 탄생했기에 발생론적으로 유엔과 한국은 특수관계에 놓여 있었다. 미국과 유엔을 통한 한국의 국가 형성과정은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오히려 위기 속에 냉전체제를 내장한 국가형성이 더욱 촉진되었다. 동북아시아 반공블록의 주요 구성요소로 배치된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미국과 유엔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지역이 되었다. 요컨대 정부 수립,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유엔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성립과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는 유엔 인권헌장이 휴머니즘 확산에 크게 작용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전후 냉전체제와 유엔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국제연합 한국협회 회장을 역임한 정일형의 인식이다. 그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동물”임에도 “6천년 간의 인류사”가 “대부분이 민족상쟁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과 불행의 연속선이요 전쟁과 압제정치였다”고 파악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성’에 대한 근대의 ‘과학적 성과’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인성이 선하나 악하나 하는 근본문제는 아직도 그 학설이 구구한 모양이나 현대 심리학은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의 미완성품이요 문화인으로써의 지식과 수양을 蘊蓄할 수 있는 무한대의 재질과 창조력을 소유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회학은 사회성원인 사람은

10) 휴머니즘의 가치가 형해화되는 와중에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히로히토의 인간선언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휴머니즘이 냉전의 정치공학에 의해 뒤틀리는 가운데 이루어진 히로히토의 인간선언은 휴머니즘의 정치화를 상징했다.

사회동물이요 위대한 인간성의 발휘와 발전에 의하여 평화와 자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실제성을 발견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기는 하나 장구한 인류의 투쟁사에 대한 해답은 내리지 못하였다.¹¹⁾

인용문에 따르면 근대의 과학적 성과에도 해결되지 않은 ‘인류 투쟁의 문제’를 책임질 기관이 곧 유엔이 된다. “세계정부운동”으로 표현된 유엔 성립과정은 곧 ‘무한대의 자질과 창조력’을 소유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인 “우리 인간성의 개인적인 이기적 본능”과 연결된 “국가 지배층의 이기적 침략적 경제활동과 알력으로 말미암아 불행히도 약속강식의 국제현상과 강대국의 권력정치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현실인식과 연결된다.¹²⁾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논의의 출발점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본성과 함께 이기적 본능이 동시에 병존하는 모순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유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으로 배치되어 있다.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면 평화를 갈망하는 본성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에게 유엔은 “인류의 항구평화와 집단안전 보장을 수립하려는 20세기의 지성과 문명의 금자탑”이 된다.¹³⁾ 요컨대 정일형은 유엔을 휴머니즘의 정치언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유엔인식의 귀결은 한국과의 관계다.

우리 한국은 유엔의 산물이요 유엔의 결의와 감시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되었고 유엔에 의하여 국토가 방위되고 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숙원인 통일 재건 평화의 과업도 유엔에 의존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유엔에

11) 정일형, 1952, 『유엔의 성립과 업적』, 국제연합한국협회, 1쪽.

12) 정일형, 1952, 위의 책, 2쪽.

13) 정일형, 1952, 위의 책, 3쪽.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동시에 응분의 국제적 공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유엔의 산물인 한국이 또 다른 유엔의 산물인 인권선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유엔이 한국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전쟁은 신생국인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였는데, 유엔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군대 파견을 결의함으로써 한국의 존재 의미와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었다. 특히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공산주의가 유엔에 의해 공식승인된 국가를 침략한 세력으로 규정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이는 반공주의가 ‘인류의 금자탑’인 유엔의 보편적 가치와 접합되는 순간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유엔이 담지하고 있던 휴머니즘적 가치가 공산주의와 대립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었기에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당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반공 이데올로기와 휴머니즘의 결합은 좀 더 긴 안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는 이미 대한제국기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1906년 간행된 보성중학교의 『윤리학 교과서』는 사유재산이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공산주의를 唱道하야 재산의 사유함을 공박하는者 有하며 또 부의 불평균형을 비난하는 者 有하니 此輩의 언론은 竝히 謬見妄想에 出함”이라는 것이었다.¹⁵⁾ 대한제국 시기에 공산주의 활동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힘들었기에 이러한 반공 입장은 일종의 시대착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를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논리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소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휴머니즘에 입각한 공산주의 비판이 비교적 정교하게 제시되고 또 일정한

14) 정일형, 1952, 앞의 책, 10쪽.

15) 신해영, 1907, 『윤리학 교과서』, 46~47쪽.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일제시대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30년대에 진행된 문학계의 논쟁이다. 논쟁의 발단은 카프의 위기와 백철의 전향이었다. 1930년대 후반기 일제의 전시 총동원체제가 강화되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인간(존엄)성의 강조라는 맥락에서 휴머니즘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휴머니즘 담론은 식민지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 프랑스 등 세계사적인 징후이기도 했다.

애초 백철의 휴머니즘 인식은 카프 지식인답게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 선 것이었다. 즉 “프로레타리아트만치 인간의 완전한 가치와 권리에 각성한 계급을 나는 알지 못하며 진실한 휴머니티가 프로문학에서만치 탐구되어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¹⁶⁾ 그러나 백철은 불과 한 달 뒤인 1934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에 걸쳐 『조선중앙일보』에 게재한 「인간탐구의 정열과 문예 부흥의 대망시대 - 그의 준비노력의 현대적 의의」를 통해 인간개념에 대한 일대 전환을 단행하게 된다. 그는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기에 이어서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오로지 인간정열로 이해함으로써 휴머니즘에 입각해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을 부정하고자 했다.¹⁷⁾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전향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가 해산되는 등 악화된 정세 속에서 백철의 노골적 전향이 진행된 셈이었다. 백철의 문제제기로 휴머니즘을 둘러싸고 문학계 내부에 일대 논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김오성, 박영희 등이 백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 개입했고 임화와 박치우, 안함광 등이 이에 맞섰다. 김오성은 “인간이 계급을 형식한 것이요 계급이 인간을 형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계급성보담 먼저 인간성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¹⁸⁾ 박치우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함께 휴머

16) 백철, 「인간탐구의 도정」 2, 『동아일보』, 1934. 5. 25.

17) 홍재범, 2001, 「1930년대 휴머니즘론 연구(1)」, 『한국현대문학연구』 10, 280쪽.

18) 김오성, 「네오 휴머니즘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여」, 『조광』 3권 9호, 1937년 6월 호, 4~5쪽(구장률, 2001, 앞의 글, 38쪽에서 재인용).

니즘을 소시민적 이데올로기로 간주했다.¹⁹⁾

가장 중요한 비판 역할을 한 것은 임화였는데, 그는 백철이 반유물론자로서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반면, 유물론자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한다는 간단한 지적만으로 ‘인간적’이라는 기준이 가진 자의성을 보여주었다.²⁰⁾ 임화는 자유, 평등, 인간성 옹호 같은 개념들이 환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은 당시 정세 속에서 “국민주의적 방면, 문화적으로 복고주의에의 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²¹⁾

1930년대 휴머니즘 논쟁의 핵심은 사회주의를 둘러싼 것임이 분명했다. 전시 총동원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전향 사태가 속출했고 그 와중에 문학계에서도 유물론과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셈이었다. 이 논쟁은 해방 후 김동리 등 우익 문단의 휴머니즘과 순수문학론으로 연결되어 다시 한 번 반공 이데올로기와 접합된다.

해방 이후 특히 신탁동지 파동을 거치면서 좌우대립이 전면화되었고 이는 문학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확실한 이념적 토대가 있었던 좌익과 달리 우익 진영은 이에 대응할 만한 이데올로기적 자원이 빈약한 것이 현실이었다. 민족주의는 우익의 독점물일 수 없었고 무엇보다 2차적 이데올로기라는 특성상 그 내용의 빈약함이 문제였다. 이에 일제시기 이래 휴머니즘이 좌익에 대항하는 우익의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되었다. 결국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이 우익문단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기본이 된다.

김동리 등이 주도한 해방 공간의 반공주의적 휴머니즘은 공산주의자를 민족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 핵심 논리는 민주주의는 휴머니즘에 입각해 있으나 공산주의는 명백하게 휴머니즘을 거스른다는 주장이었다.²²⁾ 해방 공간 우익 문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동리는 1946년 「순수문

19) 박치우, 「국제 작가대회의 교훈」 4, 『동아일보』, 1936. 6. 2.

20) 구장률, 2001, 앞의 글, 40쪽.

21) 임화, 「복고현상의 재흥」 1, 『동아일보』, 1937. 7. 15.

22) 장세진, 2012,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42~247쪽.

학의 진의」를 발표해 휴머니즘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미 일제시기부터 순수의 지향점으로 휴머니즘을 주장했던 김동리는 해방 공간에서 그 비판의 초점을 공산주의 비판으로 옮기고 있었다.

민족문화이란 원칙적으로 민족정신이 기본되어야 하는 것이며 민족정신이란 본질적으로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과거 반세기 동안 이족의 억압과 모멸 속에 허덕이다가 오랜 역사에서 배양된 豪邁한 민족정신이 그 해방을 초래하여 오늘날의 민족정신 신장의 역사적 실현을 보게 되었거니와 이것은 곧 데모크라시으로써 표방되는 세계사적 휴머니즘의 연속적 필연성에서 오는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정신을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으로 볼 때 휴머니즘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하는 순수문화와 민족정신이 기본되는 민족문화와의 관계란 벌써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김동리는 민족문화가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이라고 못박고 그것이 데모크라시라는 세계사적 휴머니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강조했다. 좌익세력에 대해 ‘나라를 소련에 팔아먹으려는 반민족 세력’이라고 비난하던 맥락에서 민족은 우익세력의 전유물처럼 설정되고 그 정당성이 휴머니즘과 데모크라시에서 구해지는 논법으로 읽힌다. 그런데 공산주의 유물사관은 과학주의 기계관의 결정체로서 인간성 옹호와는 상극의 이데올로기로 치부되는 것이기에 휴머니즘과 배치된다는 것이 우익 진영의 논리였다. 요컨대 휴머니즘에 근거해 마르크시즘을 부정하는 반공주의가 성립하게 된 셈이었다.

휴머니즘과 결합된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핵심 계기는 여순사건이었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은 최대의 무장 반란사건이었기에 극단적 폭력과 이데올로기 공세가 난무했다. 실질

23) 김동리, 「순수문화의 진의」, 『서울신문』, 1946. 9. 15.

적으로 내전상태와 다름없었던 여순사건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가 본격화되었다고 하겠다.²⁴⁾ 냉전체제하 내전이었던 여순사건을 통해 상대를 절멸시켜야 할 존재로 재현하는 담론전략이 나타났고 이에 절멸 대상의 비인간화가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인종주의적 선동에서 드러나듯이 공산주의는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여야 했다. 순수 시인으로 알려진 김영랑이 쓴 「절망」이란 시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죽어도 죽어도 이렇게 죽는 수도 있나이까
 산채로 살을 깎기여 죽었나이다
 산채로 눈을 뽑혀 죽었나이다
 칼로가 아니라 탄환으로 쏘아서 사지를 갈갈히 끊어 불태웠나이다.²⁵⁾

잔인한 학살을 생생하게 묘사한 문학의 언어는 곧 휴머니즘의 언어로 공산주의를 단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여순반란 재현물에서 국군은 관군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동족애, 이성의 힘, 동양 도덕의 미래(美禮)를 준수하는 존재로 서술된 반면 반란 참여자들은 야성(野性)의 존재 즉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존재로, 나아가 식인귀로 재현하기도 하였다.²⁶⁾ 심지어 극우신문인 『동광신문』 1948년 11월 2일자에는 반란 참가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반동분자라 하여 자기 손으로 쏘아 죽인 경우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²⁷⁾

공산주의자를 비인간화하고 심지어 동물적 존재로 재현하는 전략은 이후

24) 김득중은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빨갱이’가 여순사건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즉, 이승만 정권이 극단적 극우 반공체제로 형성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여순사건이며 이를 통해 빨갱이라는 인종주의적 코드가 삽입된 반공 이데올로기가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선인.

25) 김영랑, 1949, 「절망」, 전국 문화단체총연맹, 『반란과 민족의 각오』, 32쪽(임종명, 2005,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 2, 114쪽에서 재인용).

26) 임종명, 2006, 「여순·반란의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86~287, 306쪽.

27) 임종명, 2005, 앞의 글, 128쪽.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상투적인 방법이 된다. 이리, 돼지 등 동물이 공산주의(자)로 재현되는 것 또한 유사한 전략일 것이다. 요컨대 휴머니즘은 인간화와 함께 비인간화가 중첩되어 작동하였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적극적 묘사나 설명보다 부정적인 비인간적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이 휴머니즘의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했다. 선과 악, 빛과 어둠과 같은 이항대립 구도와 마찬가지로 휴머니즘 또한 비인간적·비인간적 형상을 재현해냄으로써 인간적인 것에 대한 강렬한 환기가 가능했다. 요컨대 휴머니즘은 비인간적인 것 속에서만 확인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 전쟁을 통한 인간의 위기는 공산주의에 의한 피해자 담론으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수복 직후에 출간된 『고난의 90일』이라는 책이다.²⁸⁾ 이 책은 유진오, 모운숙, 이건호, 구철회 등 4인의 인민군 점령하 서울 경험을 수기 형식으로 다룬 것인데, 인민군의 체포를 피해 생존하기 위한 과정이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다. 모운숙은 살기 위해 폐물을 팔아 떡 한 덩이를 사먹을 정도로 곤궁한 처지로 내몰렸고 심지어 산 속을 헤매다 전사한 국군 장교 시체를 보고 후일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집을 내기도 했다.

피해자 담론을 통해 휴머니즘은 반공의 가치를 절대화하고자 했는데, 한 필자는 “미군 포로들이야말로 우리의 동포이며, 저 공산군들이야말로 우리의 구적(仇敵)”이라고 규정짓고 “사상적 동포만이 진실한 동포”라고 단언했다.²⁹⁾ 여기서 사상은 인종과 민족조차 뛰어넘어 새로운 동족집단의 기준처럼 등장했다. 한국의 반공주의가 인종주의적 전략까지 동원된 사례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예컨대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언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상이 다르면 그 대상이 동족이건, 인간이건 멸종시켜야 될 비인간, 반민족적 존재로 재현되었다. 이는 직접적 피해자의 육성이라는 물리적 근거를 통해 반공의 초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피해 인간이 가학증적 주제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의 균열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28) 유진오 외, 1950,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29) 이건호, 1950, 「폭력에 대한 항의」, 『고난의 90일』, 106쪽.

이와 관련해 손양원 목사의 사례가 주목된다. 여순사건 당시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 직전의 반란 가담자를 구명하여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손목사의 행적은 비인간적 공산주의와 지극한 수준의 휴머니즘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사례로 널리 회자되었다. 손양원 목사가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처형당했다는 점은 이러한 대비를 더욱 극적인 것으로 만들었다.³⁰⁾

여기서 공산주의는 악마적 신성으로 재현된 반면 손 목사는 숭고한 인간성의 상징이 됨으로써 인간의 이중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문제는 손 목사의 사랑이 반공주의적 폭력과 대비된다는 점이다. 손 목사의 행적은 후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이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랑이 원자탄에 비유되었다. 즉 기독교적 사랑이야말로 모든 비인간적이고 신성모독적인 것들을 일거에 절멸시킬 수 있는 원자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이라는 비유일텐데, 반공주의의 빨갱이 처리 방법은 이와 대조적이었다. 생물학적 멸종의 대상인 공산주의가 오히려 입양의 형태로 사회적 생존의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반공주의적 폭력에 큰 부담일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 가치에 충실할지는 불문가지다.³¹⁾

결국 휴머니즘의 균열이 초래하는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다시 한 번 인간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비인간화의 주범이자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 단위의 삶조차 파괴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했다. 전쟁의 온갖 고통과 비인간적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산주의는 더 이상 대지 위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재현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공산주의를 외재화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30) 안용준, 1952, 『사랑의 原子彈』, 高麗出版社.

31) 여기서 원자탄은 과학기술의 가공할 위력을 현시해주는 것에서 무한한 인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변되고 있다. 전자의 위력이 인류 자체를 말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희망처럼 여겨진다. 양자가 모두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인간의 종말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사랑의 원자탄'은 공산군의 인해전술과 극단적 대비를 이룬다고 보이는데, 공산주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진정한 무기로 재현된 셈이었다.

공산 반란분자들이 38선으로 넘어들어오며 각 해안으로 잠입해서 살인, 방화, 반란 등 모든 참혹한 행동으로 전국을 공산화시켜서 남의 나라의 부속을 만들려는 이 위경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개인에 생명과 재산을 다 공헌해서라도 잃었던 독립을 끝까지 보전하여 우리의 자손만대에 유전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서 없어지자는 결심이다.³²⁾

인용문에 보이듯이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외부의 침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부정적일지라도 끌어안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내부의 한 요소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배제해야 할 외부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적이고 민족적이며 평화로운 내부와 비인간적이고 반민족적이며 야만적인 외부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공산주의의 이질성과 외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가 곧 휴머니즘이었다. 인간의 외부는 곧 짐승, 동물, 비이성, 야만 등으로 지시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가치와 의미가 반민족, 반사회적, 반평화적인 것들로 확산과 연쇄관계를 이룰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이것은 휴머니즘의 보편주의 전략이 가지는 위력이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고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휴머니즘의 보편주의는 곧 공산주의를 ‘보편적 악’으로 재현해내는 기준이 된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의 대표적 전술로 묘사된 ‘인해전술’은 공산주의의 비인간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언설이었다. 인해전술이란 용어는 국공내전 당시 나온 용어로, 한국에서는 1948년 무렵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아일보』 1948년 12월자 한 기사는 만주의 ‘반양전선’ 상황을 전하면서 장개석이 미국식으로 무장되고 무기 등 수량이 있어 중공군의 4~5배나 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과학적이고 필승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패

32) 이승만, 1952, 「애국 공채 발행에 대하여」(1949. 12. 4),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제2집, 17~18쪽.

배하는 이유가 국민당의 부패와 사기저하 그리고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들고 있다.³³⁾

이후 전쟁 발발과 함께 인해전술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운위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산군의 야만성과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전술로서의 의미와 둘째, 공산주의의 비과학성과 후진성의 필연적 결과임이 강조되는 용례가 그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희생을 무시하여 무수의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하는 인해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공산군 장교들에게 과연 자비심이 있는가에 관하여 중공군 병사들에 의문이 접고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³⁴⁾ 또한 휴전회담에 참석한 북한군의 남일을 “인해전술로서 오도된 꽃 같은 이 나라 청년남녀를 대량살육하고 또 약탈과 방화와 살인으로 백의 인민들에게 수난을 강요” 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다.³⁵⁾

더 나아가 인해전술이 적용된 상황을 “메뚜기떼처럼 밀려오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는 비인간화된 상황의 재현이 곤충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⁶⁾ 한 중군 기사는 인해전술을 펴는 중국군을 “불바다 속에 한 마리 풀버리지인양 뛰어든다”고 묘사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밀려오는 인육의 파도, 이는 확실히 17, 18세기 비문명 시대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승리의 비결로 택하여오든 오로지 특권자를 위한 전쟁의 방식이었다”고 규정했다.³⁷⁾

여기서 두 번째 용례가 드러난다. 즉 비문명으로 표현된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중공은 현대전을 수행할 만한 공업력과 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자비한 인적희생과 만용만으로는 유엔군에 대항할 도리가 없다는 보도에서도 확인된다.³⁸⁾ 한 중군기사는 ‘중공

33) 『동아일보』, 1948. 12. 24. 당시 人波작전이라는 용어도 일부 사용되었지만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것은 역시 인해전술이었다.

34) 『동아일보』, 1951. 6. 1.

35) 최홍조, 「외곽에서 본 그 이면, 개성 정전회담」, 『동아일보』, 1951. 7. 25.

36) 『동아일보』, 1951. 6. 24.

37) 김준철, 「중군수기, 철의 삼각지대 3」, 『동아일보』, 1951. 8. 21.

38) 「중공군은 항복할가(사설)」, 『동아일보』, 1951. 3. 27.

胡賊'의 전쟁방식이 "오직 전투원의 만용을 유일한 승리의 무기로 삼고 있는 후진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수십만의 인해전술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20세기 과학의 위대성을 모르는, 아니 믿지 않는 너무 무지한 인종"이라고 규정했다.³⁹⁾ 과학의 위대함을 모르는 그들의 비인간성은 포로의 모습을 통해 다른 양상으로 재현된다.

생각하는 표정도 없고 생의 보증을 애걸하는 계략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의 생명이 앞으로 어찌되는지 그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운명의 사나이가 되었는지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생의 철학에 대한 관심조차 엿볼 수 없는 가린한 침략의 앞잡이들은 마치 콧구멍을 뚫려서 끌려다니는 송아지처럼 가엽고도 불쌍하였다.⁴⁰⁾

여기서 포로들은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근대 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상정된 이성적 사유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송아지'와 같은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능력이 부재한 존재들이기에 이들이 미신과 같은 비합리적 주술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 기사에서는 포로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는 부적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미개함을 증명하고자 했다. 즉 포로들은 대부분 주부(呪符)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산군 간부들이 이 부적을 태워 그것을 먹으면 총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고 교육시켰다는 포로의 진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실제 부적을 태워 먹인 다음 총살위험을 가해 부적의 효력 없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39) 김준철, 「중군수기, 철의 삼각지대 3」, 『동아일보』, 1951. 8. 21.

40) 김준철, 「중군수기, 철의 삼각지대 3」, 『동아일보』, 1951. 8. 21.

반공주의 휴머니즘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곧 영화 「피아골」 상영 논란이었다. 1955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국방부 정훈국과 육군 본부 정훈감실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즉 문교부 검열을 통과해 상영 예정이었던 이 영화는 국방부와 내무부의 반대, 심지어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상영 불허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⁴¹⁾ 결국 ‘불온’ 장면으로 지목된 몇 군데를 수정하여 한 달 뒤인 1955년 9월 개봉되기는 했지만, 휴머니즘과 반공과의 기묘한 관계가 드러난 소동이었다.⁴²⁾

「피아골」은 검열과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히 관련되지만, 휴머니즘의 맥락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공비’들의 인간성이었다. 영화 홍보 문구에 따르면 이 영화는 “존귀한 인간성이 말살된 절망세계에서의 피와 사랑에 굶주린 인간상을 묘사한 것”이라고 했다.⁴³⁾ 한 평론가 역시 「피아골」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처해 있는 반공적 위치도 잘 알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공산주의자들의 포악성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관중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당국의 반공 문화정책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평론가는 「피아골」의 장면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성과 폭력성, 잔인함을 충분히 묘사한 영화임을 강조했다.⁴⁴⁾ 그러나 국방부와 내무부의 견해는 달랐다. 이 영화가 군대도 경찰도 없는 것처럼 그랬다는 평과 함께 “공비의 생태가 지나치게 실감적으로 그려진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육군 본부에서는 “해의 시장에서 우수한 작품일 것”이라는 평을 내놓았다.⁴⁵⁾

정점은 빨치산이 군대나 경찰에 의해 직접 제거되는 장면이 없다는 점과 함께 빨치산의 생활 모습이 “지나치게 실감” 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전자의 문제는 뚜렷하게 그 이유가 이해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통상적으로

41) 「예술의 자유와 영화 검열(사설)」, 『동아일보』, 1955. 8. 29.

42) 『경향신문』, 1955. 9. 22.

43) 신영화, 「피아골」, 『경향신문』, 1955. 4. 5.

44) 임공재, 「선전가치와 영화 예술성」, 『동아일보』, 1955. 8. 12.

45) 「물방울」, 『동아일보』, 1955. 8. 12.

영화 감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감의 부족일 것이다. 실감이 지나치다는 평은 재현의 예술로서 영화에 대한 상찬이 되어야 했지만, 「피아골」의 경우에는 상영 중지라는 정반대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곧 빨치산을 하나의 인간으로 묘사한 것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악의 화신, 비인간, 짐승 등으로 재현된 ‘빨갱이’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1950년대 반공주의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녀 주인공은 공비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이것이 결국 공비들 중에도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즉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공산주의자는 절대 악으로 재현되어야 했기에 일종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 셈이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는 신성(악마성)과 수성 두 본성으로 수렴되어야 했고 그 중간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띠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피아골」을 둘러싼 반공 이데올로기 진영 내부의 분열은 곧 반공주의 재현 전략상의 분열이기도 했지만, 결국 휴머니즘을 둘러싼 분열이기도 했다. 휴머니즘의 가치를 독점하고자 했던 반공주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공산주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자를 등장시킴으로써 더 큰 반공주의 효과를 노린 전략의 필요성이 득세했다. 「피아골」의 상영 허가는 공산주의자조차 환멸을 느낀 공산주의를 재현해내는 휴머니즘 전략의 관철 결과였다.

인해전술과 「피아골」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공산주의는 비인간적인 야만성, 비과학적이고 미개한 속성을 본질로 하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다시 말해 휴머니즘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존재들로 재현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에 반해 유엔군과 국군이 휴머니즘의 가치를 충실하게 담지하고 있는 존재로 재현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유엔군은 최신 과학기술로 무장하여 무지한 인해전술을 일거에 격퇴하는 군대라든지 포로가 된 적군을 따듯하게 보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계몽해주는 주체로 설명되곤 했다. 비록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원자탄은 과학기술의 위력을 응축하고 있는 유엔군의 대표적 상징이었다.

휴머니즘이 문명화된 과학기술의 위력과 연관된다면 그것은 곧 개발과 발전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자탄을 만든 과학적 인간의 위대함을 현실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은 곧 거대한 산업 생산력이었고 후진성과 미개의 상태를 벗어나 문명화되고 선진적인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의 현실적 표현이 곧 산업화였다. 산업화를 추동할 수 있는 인간 주체의 구성이 휴머니즘의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2_ 발전주의와 휴머니즘

냉전체제가 투사된 남북분단은 곧 체제경쟁을 의미했다. 냉전 자체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경쟁을 의미했고 열전을 치른 이후 한반도에서 그 경쟁은 곧 생산력 경쟁으로 연결되었다.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경쟁 역시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생산력 경쟁의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 과정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시간단축을 주요한 특징으로 했다. 이를 위해 주의주의적 전략이 강조되었으며 인간혁명, 인간개조를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요컨대 근대적 규율과 지식을 체화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권과 휴머니즘 역시 경제적 전망하에서 재규정되어야 했다.

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빼앗기거나 양보할 수 없는 존엄과 자유평등의 권리를 가졌으며, 이것을 존중하고 옹호함으로써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터전을 이룬다고 밝혔던 것 …… 여기서 인권의 존중도 보장도 없는 공산주의가 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인류공동의 적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얻는 것 …… 인간에 있어 생명 이상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자유를 편협된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만 욕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민족의 이익과 사회공공의 복지 향상에 부합하도록 조절하고 행사하여야 하며 그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해 갈 수 있는 사회와

생활수준을 가져와야 할 것이고, 이것은 곧 가난을 물리치는 국가의 자
주역량을 배양하는 것이요 …… 그러므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유엔
의 기본이념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이
므로 ……⁴⁶⁾

인용문에 보이듯이 박정희는 세계적 권위를 확보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반복한 다음 그것이 반공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휴머니즘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흐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 사회와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로 규율되어야 함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는 유엔의 기본이념으로까지 설명되고 있는데, 경제개발에 정권의 명운을 건 상태에서 빈곤극복이 제1차적 과제로 천명된 것은 자연스러운 담론전략으로 읽힌다. 어쨌든 휴머니즘은 여기서 반공을 넘어 사람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개발로 확장되고 있다.

반공을 위해 보편적 인간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내장된 특수한 반공적 주체가 되어야 했듯이,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간의 경제주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주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곧 과학과 이성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휴머니즘을 윤리적 차원이거나 기계문명의 피해 극복을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나타났다. 예컨대 당시 신진 철학자 중의 하나였던 박이문은 1958년 “자연에 적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인간에 적응시키는데” 입장을 강조했다.⁴⁷⁾ 그에게 휴머니즘은 인간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유럽이 세계를 주름잡게 된 것 역시 자연을 인간에 적응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기

46) 대통령비서실, 1973, 「세계인권선언 제14주년 기념식 기념사(1962. 12. 10)」,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이하 『연설문집』), 337~338쪽.

47) 박이문, 「휴머니즘」, 『경향신문』, 1958. 11. 6.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술의 근대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고자한 것으로 읽힌다. 신일철은 더 나아가 휴머니즘이 ‘제4의 신앙’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제4신앙이란 새 말이 생겼다. 이는 기독교도도 마호메트교도 아니요 맑스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된 오늘, 그것도 아닌 휴머니즘을 일러 제4신앙이라 하는 것이다. 서구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크리스치니티가 그 창조력을 상실하고 현대인의 생활을 규율치 못하고 낡은 도그마화한 20세기 후반의 세계는 확실히 기독교에 대치될 하나의 새 종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란 서구의 이념이 1세기 전부터 쇠퇴하여 오늘날의 과학시대에는 그 에호바적 인격신을 부정함에 이르러 율리와 모랄의 기초마저 상실한 현대문화의 위기는 그 속에 새신앙, 다시 말하면 신없는 종교로서의 휴머니즘을 배태케 된 것이다.⁴⁸⁾

신 대신 인간과 과학을 강조하는 이러한 흐름은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 등이 주장한 ‘진보론적 휴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진보론적 휴머니즘은 ‘인문과학에 바탕한 휴머니즘과는 달리 과학적 휴머니즘으로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⁴⁹⁾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1960년 9월에는 한국 휴머니스트회가 만들어졌다. 1952년 헉슬리 주도의 국제 휴머니스트 윤리연맹이 만들어지고 휴머니스트 선언을 채택하면서 국제운동으로 발전했는데,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동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⁵⁰⁾ 휴머니스트 선언의 요지는 민주주의, 건설적 과학 모색 등으로 과학을

48) 신일철, 「현대철학과 종교의 방향」, 『동아일보』, 1960. 10. 5.

49) 이종진(서울대 문리대 교수), 「과학에 이해를 가져라」, 『동아일보』, 1960. 11. 16.

50) 신일철, 「현대철학과 종교의 방향」, 『동아일보』, 1960. 10. 5. 휴머니스트회는 도서 발간, 대중강좌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61년에는 『휴머니즘과 현대사상』 제1권, 『현대사회와 휴머니즘』 제2권, 『20세기 휴머니즘의 미래상』 제3권 등 현대 휴머니즘 강좌 3권을 간행하고자 했다. 편집위원은 박종홍, 이상은, 최재희, 최문환, 이종진, 신일철 등 당대의 엘리트 지식인들이었다. 『동아일보』, 1961. 4. 29.

강조하는 것이 눈에 띈다. 냉전 시기 과학과 인간의 위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다름아닌 핵무기였다.

영국에서 6년 간에 걸친 공습으로 쏟아진 수는 6만 명, 독일의 V그도 1발에 대하여 평균 15명을 죽인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냥통만한 단 두 방의 우라늄 폭탄은 13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 …… E=mc²이란 아인슈타인의 물질 에너지의 꿈은 인류를 몰살시키고 문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요물, 인간자멸의 무기로써 출발해 버렸다.⁵¹⁾

원자탄의 이러한 위력은 공산주의를 절멸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몇 개의 원자탄은 한국에서 중공군을 구축했을 것이고 한국의 통일을 보장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⁵²⁾ 1958년에는 모의 원자탄 투하가 포함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등 이승만은 원자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⁵³⁾ 1954년 3월에는 비키니섬에서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고 국내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기에 바빴다. 히로시마 원폭의 500~6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졌다는 수소폭탄의 개발은 1950년대 냉전의 핵심이 핵무기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인간 최고 최후의 힘이기도 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아직까지 인류 절멸의 위기감 보다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외경 또는 숭고를 보여주는 듯했다.⁵⁴⁾ 이 인간의 능력이 공산주의를 박멸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곧 냉전의 휴머니즘일 것이다.

핵무기가 ‘인간자멸의 무서운 요물’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과학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원자탄과 수소

51) 朴同玄, 1964, 「科學에의 길과 人間에의 길: 現代科學과 휴머니즘의 危機」, 『世代』 제2권 통권10호(3월호), 75쪽.

52) 『동아일보』, 1954. 1. 28.

53) 『경향신문』, 1958. 1. 23.

54) 『동아일보』, 1954. 4. 11.

폭탄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었고 과학의 위력을 모르고 20세기는 생존할 수 없는 시공간으로 여겨졌다. “지성은 인간을 대표하고 지성이 경험한 것을 정직하게 기록한 그것을 과학”이라고 규정하고 “지성=과학, 고로 20세기 과학은 20세기 인간을 대표하며 동시에 20세기 인간의 지성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현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생기는 휴머니즘의 위기”조차 “20세기 과학을 이해 못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위기”로 치부될 뿐이었다.⁵⁵⁾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체제 또한 적극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펼쳤다. 박정희 체제는 쿠데타 초기부터 과학기술을 극력 강조했다. 1962년에는 『과학기술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고 1965년부터는 매년 『과학기술 연감』을 발간했다. 1967년에는 과학기술처가 신설되었고 1968년에는 과학의 날이 제정되었다. 1950년대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가 간간히 나타나기는 했지만 1960년대에 비교하기는 힘들었다. 요컨대 박정희 체제는 경제개발을 위해 근대 과학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주력했다.

근대적 과학기술을 체득하고 강력한 개발의지를 장착한 인간에 의해 추진된 경제개발은 곧 물질세계를 변화시키는 인간승리에 다름아니었고 이것이 인간 중심주의에 근거한 휴머니즘의 강조로 이어졌다. 이른바 ‘기적’으로 운위되는 경제개발의 성과가 곧 자연과 물질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는 인간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는 자신있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의 살림이 과학기술의 진흥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⁵⁶⁾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여러갈래로 설명가능하겠지만, 당시 국면에서는 미국발 근대화 담론의 위력이 중요했다. 근대화 담론의 전도사격이었던 로스토우(W. W. Rostow)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자기의 주위환경을 자연과 운명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지 말고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55) 朴同玄, 1964, 앞의 글, 78~79쪽.

56)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 치사(1966. 5. 19)」, 『연설문집』 2, 677쪽.

질서있는 세계라고 생각하게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⁷⁾ 1960년대 초반 로스투우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미국발 근대화 담론의 ‘휴머니즘’이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지식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박정희 체제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근대화 담론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기술적 숭고(technological sublime)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미국은 이미 19세기부터 자연의 위대함보다 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숭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과학기술이야말로 위대한 미국의 근원처럼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핵무기와 우주개발은 공포를 동반한 기술적 숭고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근거였다.⁵⁸⁾

급속한 근대화를 추동하고자 했던 박정희 체제는 기술적 숭고를 한껏 고양시키면서 대중에 대한 과학적 계몽을 시도했다. 근대화 담론에 경도된 많은 지식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했다. 과학기술이 이룩한 놀라운 변화의 주된 증거는 거대한 공장과 산업시설이었다. 박정희 체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근대화의 성과를 대중에게 보여주려 했고 산업시찰이 일상화되었다. 이를 통해 대중의 기술적 숭고가 고조되었다.

경제개발 과정은 냉전효과로 인해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세계 체제가 동서 대결과 함께 남북 구도로 재편되면서 반공과 함께 탈후진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즉 반공을 위해서라도 산업화가 중요하게 되었고 한반도는 냉전의 가장 첨예한 경쟁 무대가 되었다. 남북 대결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문제가 되었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더 높은 생산력을 확보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야만 하였던 것이다. 사실 한국의 급속한 경제개발의 성공은 냉전에 따른 미국의 지원과 일본과의 연계를 빼놓고 설명하기 힘들다. 미국은 1970년까지 74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제공했다. 미국에게 한국은 “공산침략에 항거하는 자유세계의 협조, 그리고 건장한 한 국민의 훌륭한 용기와

57) W. W. 로스투우, 이상구 역, 1960, 『반공산당선언 - 경제성장의 제단계』, 진명문화사, 12쪽.

58) David E. Nye, 1994, *American Technological Sublime*, MIT Press.

또 전선국가를 구조하려는 미국의 결의, 이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⁵⁹⁾ 당시 주한 미대사 윌리엄 포터(William J. Potter)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한미방위조약과 한국에의 미군 주둔이 마련해 준 防楯을 기동삼아 한국에는 현저한 발전이 이룩되었다. 전쟁으로 황폐하고 자원은 고갈되고, 1백 만의 전쟁 사상자와 근 1백만의 피난민을 안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향성의 이 국가가 장래에의 자신감에 넘치고 인근 국가 및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른 국가 가운데 하나로 변모되었다. (중략)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또다른 공격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자신감과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및 경제원조 형식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다.⁶⁰⁾

박정희 체제는 북한의 존재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체제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정희는 “빈곤·기아와 무지와 질병과 모든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함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남한은 이와 같은 과업을 국가권력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대중의 믿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역량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축적 보유”하고 있기에 “이것이 바로 남한과 북한과의 근본적인 차이”임을 역설했다.⁶¹⁾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개발에 투입된 노동력을 ‘산업전사’로 호명하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것이다. 지배블록의 입장에서 경제개발은 곧 체제경쟁이었고 노동력은 경제적 주체이자 동시에 냉전의 전사가 되어야 했다. 공산주의에 맞서 더 높은 생산력을 달성하는 것이 곧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자 더 나은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했다. 냉전체제하에서 빈곤은 다만

59) 「콜론보고서」, 『사상계』 1960년 1월호, 122쪽.

60) 국회도서관, 1971,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사이밍천 위원회 청문록, 106~107쪽.

61)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1961. 10. 3)」, 『연설문집』 1, 74쪽.

가난한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 속에 도의의 퇴폐와 부패가 깃들어, 포악한 공산주의의 온상이 조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⁶²⁾ 다시 말해, 경제개발은 근대적 인간의 주체적 실천이자 무엇보다 반공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이제 인권이라는 휴머니즘은 경제의 종속변수처럼 배치된다.

인권의 기초는 이성과 양식에 바탕을 둔 인격입니다만, 실제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경제건설이며, 법질서의 존중입니다. 경제건설 없이 빈곤을 면할 길은 없는 것이며, 빈곤을 추방하지 않고서는 인권은 확보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⁶³⁾

인용문에 보이듯이 박정희는 인권을 위해 이성과 양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건설을 통한 빈곤의 추방임을 분명히 했다. 1960년대부터 몰아친 냉전의 우산하에 반공과 발전의 길로 틀지워진 휴머니즘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인간 인식이 구성하고자 한 주체는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노동력이어야 했는데, “근로정신을 깨우쳐서, 누구나 다 같이 노동의 신성을 인식하고, 국토개발과 생산증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로인”이 그것이었다.⁶⁴⁾

이러한 ‘근로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요구는 비단 대통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생산성본부를 책임졌던 이은복의 인식 역시 유사했다.⁶⁵⁾ 생산성본부가 월간으로 발간한 『기업경영』은 스스로 한국 최초의 종합경영잡지라고 규정되었는데, 매호 이은복이 집필한 권두언을 묶어낸 책 제목이 곧 『인간발전』이었다. 이은복은 “경제에서 국제경쟁력이 필요하듯이 인간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이 필요하며, 경제개발에 앞서야 할 일”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적 인간의

62) 「제17회 광복절 경축사(1962. 8. 15)」, 『연설문집』 1, 277~278쪽.

63) 「제20회 세계인권선언일 치사(1968. 12. 10)」, 『연설문집』 3, 386쪽.

64) 「재일교포 장학생 환영사(1961. 8. 16)」, 『연설문집』 1, 34쪽.

65) 생산성본부는 1958년에 설립되어 미국식 경영기법과 노무관리, 테일러리즘과 합리화운동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또 경영학회 창립 등 초기 경영담당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발견을 주문했다.⁶⁶⁾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 요약된다.

인간생활, 기업경영, 국민경제 역시 일종의 헤엄 즉 실 사이 없이 경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무한전쟁이니 수년에 끝을 맺는 무력전쟁보다도 더 길고 더 참혹하고 무서운 전쟁인지도 모른다. 이 전쟁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과 소리없는 전쟁을 해야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긴다 해도 그때뿐이지 그 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적이 밀려 닥쳐오고 있어 최종 결승이란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전쟁이기도 한 것이다.⁶⁷⁾

여기서 냉전의 체제경쟁은 인간, 기업, 국민경제 전체를 휘감는 “무력전쟁보다 더 길고 더 참혹하고 무서운 전쟁”인 ‘소리 없는 경제 전쟁’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 전쟁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영겁회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즉 최종 결승이 불가능한 이 경제전쟁은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해진다.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관리 능력의 소유자는 바로 위대한, 그리고 진실한 인간”으로 평가된다.⁶⁸⁾

자기관리의 능력은 곧 돈의 문제다. 이은복은 “자본주의 이념은 인간 각자의 돈 의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돈을 위해 창의를 짜내는 데 전력을 다해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명과 인간생활의 향상을 가져오는 원동력은 바로 인간의 돈 의식과 이를 위한 창의탐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도력의 최종 평가의 기준은 지도를 받는 각자로 하여금 얼마만한 돈을 갖게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결론이 내려

66) 이은복, 1968, 『인간발견』, 한국생산성본부, 머리말.

67) 이은복, 1968, 「전략적인 처리사고(1964. 10)」, 위의 책, 153쪽.

68) 이은복, 1968, 「모든 관리에 앞선 자기관리(1962. 4)」, 위의 책, 92쪽.

진다.⁶⁹⁾ 여기서 인간은 곧 돈으로 환원가능한 존재로 재규정된다. 돈 의식과 돈의 소유 유무가 인간행위의 기준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 된다.

인간이 돈으로 환원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인격으로 환원되기도 한다. 이은복은 “기업을 하나의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장의 인격, 중역의 인격, 그리고 공원들의 인격, 이 모든 인격을 바탕으로 마련된 하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기업인격의 체취”라고 강조했다.⁷⁰⁾ 돈으로 환원된 인간규정하에서는 결국 그 돈의 주체는 기업-자본일 수밖에 없기에 인격은 사람을 넘어 기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도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의 위력에 이끌려 가는 것 같은 감”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진실한 인간관계는 경영자와 부하되는 사람이 다 같이 인간에 대한 자기발견과 상대방의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성의 재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⁷¹⁾ 그러나 그의 인식은 무엇보다 “우리 현대사회가 자본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본질을 벗어나 자본을 혹사했거나 기용(欺用)했거나 남용했거나 학대했거나 하여 자본의 노여움을 살 만한 일을 저질러 온 것”이 큰 문제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자본과 인간의 관계, 즉 자본이 대우를 받으면 인간은 변영하고, 자본을 학대하면 빈곤해지는 관계”야 말로 우리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기본원리였다.⁷²⁾ 결국 인간은 기업의 설비처럼 배치되어야 했다.

경영자는 「인간이란 (기업경영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감정 있는 시설이다」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기계와 달리) 인간은 돈의 다과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일정한 설계하에 마련된 시설과 같이 공식

69) 이은복, 1968, 「지도력에 대한 신뢰성과 돈(1967. 9)」, 앞의 책, 222쪽.

70) 이은복, 1968, 「기업의 인격과 경영(1962. 5)」, 위의 책, 94쪽.

71) 이은복, 1968, 「인간거래가 아닌 인간관계 - 인간성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의 확립(1962. 9)」, 위의 책, 102~103쪽.

72) 이은복, 1968, 「본질을 본질대로(1964. 5)」, 위의 책, 143쪽.

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현대화된 인간을 구하여야 하며 현재 있는 인간을 현대화시키는 노력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투자는 기계설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란 설비에도 투하되어야 한다 …… 현대화된 기계설비를 갖추수록 노후한 인간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현대화된 인간을 가지고 운영하여 기계설비와 인간과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⁷³⁾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영 합리성하에서 휴머니즘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인간은 기계와 달라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기에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현대화가 “인간이란 설비”를 만드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기계설비와 인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본의 투자가 인간을 이끌어갈 곳은 곧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가 중첩되는 어느 지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계와 인간의 동질화가 강화될수록 자본의 확대재생산은 용이해질 것이며 기업의 돈 역시 불어날 것이다. 이제 생산성의 진전을 위한 인간의 사물화가 초래한 현실은 휴머니즘에 새로운 도전이 된다.

III. 휴머니즘 II: 근대 문명 비판담론과 ‘인권의 정치’

1_비인간화와 근대 문명 비판담론

르네상스 시기부터 휴머니즘은 기존의 지배적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었다. 신분제와 종교적 억압에 맞서 인간적인 것을 옹호했던 휴머니즘은 자유주의와 마르크시즘과 접합되면서도 그 비판정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 휴머

73) 이은복, 1968, 「인간설비의 개선(1963. 9)」, 앞의 책, 127쪽.

니즘은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문명화의 이데올로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화가 초래한 각종의 비인간화 현상에 대한 비판담론으로 역할했다. 특히 비인간화가 보편적 악을 표상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갈등과 적대의 언어 속에 휴머니즘이 스며들게 되었다. ‘반인간적 행위와 현상들’은 파시즘과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는 물론 거대한 관료제, 자본주의, 대중사회 등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인간적 삶을 구현한다는 근대적인 것 모두가 인간의 소외를 야기시켰다는 휴머니즘의 역전이 벌어진 셈이었다.

이미 일제시기 휴머니즘 논쟁에서 보이듯이 거대 이념에 의한 인간의 왜소화가 비판되었는가 하면 냉전체제하에서 공산주의가 비인간화의 주범처럼 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휴머니즘의 비판적 기능은 반공주의로 국한될 수 없었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휴머니즘의 보편주의적 특성은 정세와 국면에 따라, 그리고 발화자의 전략과 의도에 따라 수많은 비판적 변형들을 가능케 했다. 냉전 시기 먼저 주목되는 것은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중심으로 의지를 강력히 밀고나간 근세 이후의 인간은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류멸망의 위기마저 내포한 세기적인 비극감을 맛보는 야릇한 경지에 이르렀다. 과학의 몰가치성은 비극적인 운명감마저 일으켰다.⁷⁴⁾

휴머니스트회 회원이기도 했던 당대의 엘리트 철학자 박종홍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근대 문명의 역설로 보인다. ‘인간중심의 의지’가 인류멸망을 가능케 하는 과학의 발달로 귀결되었다는 점이 ‘비극적 운명’으로까지 지칭되고 있다. 핵무기의 등장이 초래한 위기의식이 냉전의 최전선 국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근대 문명이 초래한 위기에 대한 비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미 1950년대 말에 인간을 기계화하는 테일러리즘에 대한 비판이 소설의 형태로 나타났는가 하면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욱 귀하여 인권보다 소중한 차

74) 박종홍, 「하이텍가와 현대사상의 전환」, 『동아일보』, 1961. 5. 9.

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하면서 “현대의 휴머니즘은 인간을 기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기도 했다.⁷⁵⁾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가 인간을 기계문명에 종속시켜 결국 소외시키고 만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강조되면서 기술적 숭고가 나타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계화와 물질문명이 인간적인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기계화에 대한 비판은 곧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자유주의적 인권이 절대화하고 경제상의 자유경쟁이 무제한으로 수행된 사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강한 자가 그들의 권리를 남용하고 약한 자의 권리는 실지로는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이러한 전환을 잘 보여준다.⁷⁶⁾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함께 자유주의가 새로운 시장의 지배적 원리로 관철되어 가면서 휴머니즘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무기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휴머니즘의 현대 문명비판 담론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사상계』다. 주지하듯이 『사상계』는 1950~1960년대 대표적인 지식인 잡지로 주로 반공과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상계』는 1950년대부터 휴머니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955년 「현대사상강좌」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다룬 주제가 휴머니즘이었다. 이어 1958년 6월호에서는 휴머니즘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1959년 12월호와 1967년 3월호에서 휴머니즘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특집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휴머니즘 관련 글을 게재하며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심인물이 안병욱이었다.

안병욱은 『사상계』 편집위원과 주간을 역임하면서 「현대사상강좌」를 통해 휴머니즘을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후 좌담과 특집은 물론이고 개별 원

75) 테일러리즘에 대한 비판은 김동립, 「대중관리」, 『사상계』 1959년 12월호; 「여적」, 『경향신문』, 1958. 1. 31을 참조하기 바란다.

76) 최재희(서울대 문리대 교수), 「인권선언 13주 - 자유, 권리, 평등」, 『동아일보』, 1961. 12. 10.

고도 수차례 게재하여 『사상계』의 휴머니즘 담론을 주도했다고 보인다. 안병욱의 초기 휴머니즘 인식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현대와 현대인은 모두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사랑의 빈곤, 이것이 현대의 불행이요 현대인의 비극이다.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계급과 계급, 국가와 국가,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온 지구가 피로써 피를 씻고, 힘으로써 힘에 대항하는 이 숨가쁜 상쟁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의 철학이요 사랑의 윤리다. 인도주의적 휴머니즘은 오늘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20세기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⁷⁷⁾

인용문에 보이듯이 안병욱의 현실인식은 위기의식으로 특징된다. 개인, 민족, 계급, 국가에 이어 냉전에 따른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휴머니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대를 “피로써 피를 씻고 힘으로써 힘에 대항”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전쟁의 절멸, 평화의 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의 위기의식은 단지 전쟁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 ‘이윤획득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단과 목적의 가치질서가 전도된 비인간적인 현실’을 바로 잡는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기계의 인간 지배에 따른 인간적인 비극’, 왜곡되고 불구적인 인간 형성 문제 등이 휴머니즘의 근본적인 요구라고 정리했다.⁷⁸⁾

1957년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빈곤에서의 해방, 둘째 무지에서의 해방, 셋째, 압제에서의 해방, 넷째, 특권·차별·불평등에서의 해방, 다섯째, 독단과 편견에서의 해방, 여섯째, 전쟁에서의 해방이 그것이다.⁷⁹⁾ 여기에서는 전쟁의 위협은 마지막 순서로 돌려졌고 빈곤의 문제가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 전후 한국사회의 문제가 전쟁의

77) 안병욱, 1955, 「휴머니즘(현대사상강좌 ②)」, 『사상계』 11월호(28호), 181쪽.

78) 안병욱, 1955, 위의 글, 198쪽.

79) 안병욱, 1957, 「사회기구와 휴머니즘」, 『사상계』 10월호(51호), 29~30쪽.

위협으로부터 빈곤의 문제로 방향전환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에 근거한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해방을 이념으로 하는 휴머니즘의 원리에서 볼때 시민사회의 자유 평등한 인간관계는 진보적이며 민주적인 인간관계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다. 돈과 자본력이 일체를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단언했다.⁸⁰⁾

시민사회는 부자유 불평등한 하나의 계급사회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시민사회의 자유의 구조를 생각해보자 경제적인 자유방임 자유경쟁의 결과, 있는 자는 더욱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욱 없어져서 한편에서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계급이 생기고 한편에는 자기노동을 팔아서 간신히 사는 도리밖에 생활의 길이 없는 무산대중이 생기게 되었다. 끝간 데를 모르는 사치와 향락의 자유를 누리는 소수 부유계급에 대해서 배고픈 자유와 실업의 자유밖에 없는 다수의 빈곤대중이 생기게 되어 시민사회는 갈수록 노자의 계급분열만 격화되었다.⁸¹⁾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현실인식하에서 안병옥은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게 되었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은 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도저히 평등한 관계에 설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 애초 ‘건강하고 명랑하고 자유로운 시민사회’는 결국 ‘어둡고 불합리한 계급사회’로 귀결되었고, 시민사회의 원리인 합리적 개인주의는 탐욕적 이기주의로 전변되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19세기 말 흠슨의 풍요 속의 빈곤(poverty in plenty) 개념까지 동원하면서 ‘돈이 현대의 새로운 폭군’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인간의 가치는 그가 소유하는 물질의 다과에 의해서 측정되고 부의 증가, 이윤의 추구가 생활의 목적이 되어 인생의 목적과 수단의 도착이

80) 안병옥, 1957, 앞의 글, 32쪽.

81) 안병옥, 1957, 위의 글, 33쪽.

생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이로부터 인간이 물질과 금전의 노예로 화하고 인격의 상품화가 초래되어 시민사회의 사회기구는 휴머니즘의 요구와 배치되는 방향을 걷고 있다고 결론지었다.⁸²⁾

이미 1950년대 후반에 빈곤의 문제가 당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예컨대 휴머니즘을 주제로 개최된 좌담의 참석자들도 빈곤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좌담의 사회를 본 안병욱이 “빈곤에서의 해방”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과학문명에 대한 반항” 보다도 “근대 이전의 이 상태를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웃음(소성)으로 답했다.⁸³⁾ 여기서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웃음은 한 번 더 반복되었다. 박종홍이 실존주의 논의를 일축하면서 “그것도 우선 먹고나서”라고 얘기하자 다시 한 번 웃음이 터져나온 것이다. 박종홍은 실존주의가 문제삼는 인간의 괴로움을 “정말 괴로우면 괴로운 것조차 자각하지 못한다”는 말로 정리했다.⁸⁴⁾

참석자 일동의 웃음은 실소(失笑)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실존주의와 휴머니즘 같은 서구의 철학적 논의가 후진국 현실에서 일종의 맥락을 상실한 형이상학으로 읽혀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괴로움 자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핵심이 곧 빈곤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안병욱이 강조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빈곤은 형이상학적 논의 자체를 인식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에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의 효과를 산출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안병욱의 빈곤인식은 앞에서 보았던 『기업경영』 권두언의 그것과 분명하게 대조된다. 즉 후자가 돈을 통해 자본주의 시민사회의 미덕과 가치를 강조했다면 전자는 그 악덕과 비인간성을 비판했다. 후자는 자본주의적 규율과

82) 안병욱, 1957, 앞의 글, 33~34쪽.

83) 「내일을 말하는 좌담회」, 『사상계』 1957년 6월호, 264쪽. 참석자는 박종홍, 손우성, 이종우, 최재서, 안병욱(사회자, 편집위원) 등이었다.

84) 「내일을 말하는 좌담회」, 『사상계』 1957년 6월호, 265쪽.

가치로 스스로를 재구성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선동했다면 전자는 다시 휴머니즘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즉 후자는 인간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구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면, 전자는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그 타락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길을 휴머니즘으로 제시한 셈이었다.

사실 이러한 대립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신개조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주장이 일종의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었다. 박정희 체제의 경제개발에 비판적이었던 보수 야당과 재야 지식인들의 주장 역시 대부분 부정부패 없는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었다.⁸⁵⁾ 안병욱 역시 불과 2년 뒤 “정의와 진보의 원칙”에 입각한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과학 이전, 기계 이전의 세계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고 “과학과 기술과 기계는 인생의 수단과 도구로서 절대적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⁸⁶⁾

그렇기에 최재서가 보기에 서양 사람이 기계문명에 지배되어 정신문명을 망각했다는 통설은 기각되어야 했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기계문명도 더 발달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는 열정도 우리들보다 큰” 사람들이고, 반면에 “동양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계를 숭배하고 물질을 더 숭배”하는 존재들이었다.⁸⁷⁾ 당시 강력한 통설이었던 오리엔탈리즘적 동서양 구도조차 부정해야 될 정도로 ‘동양 사람들’, 곧 한국 사람들의 기계와 물질문명 숭배는 놀라울 정도였다. 기술의 근대에 대한 열정이 해방의 근대라는 문제의식을 뒤덮고 있었다고 보인다.

1967년 3월호 『사상계』는 휴머니즘 관련 마지막 특집이 준비되었다. 안병욱, 이규호, 임명방 세 명의 필자가 동원된 특집에서 안병욱은 재차 신성과 수성

85)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갈무리.

86) 안병욱, 1959, 「휴머니즘의 계보(특집 ‘휴머니즘론’)」, 『사상계』 12월호, 96, 174쪽.

87) 「내일을 말하는 좌담회」, 『사상계』 1957년 6월호, 264~265쪽.

사이의 인간의 이중적 속성을 설명하면서 현대의 휴머니즘이 “회의의 정신과 위기의식으로 질게 채색”되었음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현대의 사회적 역사적·문명적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도처에서 전쟁과 혁명이 일어났다. 인류는 피땀으로 건설한 문명의 탑을 스스로 파괴했다. 과학과 기술과 기계는 대량 살륙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계급투쟁과 침략적 착취가 엄존한다. 국가는 인류의 현실태가 아니라 집단적 이기주의의 레비아탄이었다. 역사는 자유와 진보의 실현이 아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격동이였다. 원자력과 우주시대에 돌입했고 대중사회와 기술문명의 메커니즘이 굳어졌다.⁸⁸⁾

그가 보기에 “현대의 휴머니즘은 여러가지의 문명악·역사악·사회악·제도악·인간악의 가혹한 도전”에 직면했기에 “정의와 인도와 인류애를 강조하고 사회악·문명악과 투쟁하는 저항적·전투적 휴머니즘의 요소가 강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현대의 휴머니즘은 인문주의가 아니라 휴머니타리아니즘의 색채가 강한 인도주의일 수밖에 없으며 “인간해방을 위한 하나의 저항사상이요 저항운동”이라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결론이었다.⁸⁹⁾

근대 문명의 폐해에 대한 비판의 논조는 여전했지만 10여년 전 자본주의 시민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비하면 그 강도가 완화된 느낌이다. 특히 빈곤과 실업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막연한 사회악으로 표현되어 구체적 실감이 매우 약화되었다. 휴머니즘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지는 대신 거의 모든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의 준거가 됨으로써 일종의 ‘만병 통치약’이 된 듯하다. 그러나 안병욱과 『사상계』는 1960년대 중반 휴머니즘이 “저항사상”이자 “저항운동”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방향이 무엇이든 휴머니즘은 저항의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셈이었다.

88) 안병욱, 1967, 「휴머니즘의 아포리아」, 『사상계』 3월호, 22쪽.

89) 안병욱, 1967, 위의 글, 22쪽.

2_휴머니즘의 저항담론화

1950년대를 거치면서 휴머니즘이 저항담론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에 불과했고 실제 저항운동의 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1950년대 저항운동의 집약은 4·19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4·19혁명에서 휴머니즘이 주요한 이념 자원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의문이기 때문이다. 4·19혁명은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와 이를 정치적으로 집약한 민주주의가 주된 저항 자원으로 기능했다. 여기에 민족주의적 열정이 2차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휴머니즘이 저항담론으로 기능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권운동이다. 주지하듯이 인권운동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다고 하겠다. 1970년대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태일 분신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노동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전태일의 선언은 곧 노동자의 권리, 나아가 인간의 권리에 기반한 저항이었다고 하겠다. 이미 1950년대부터 안병욱이 즐기치게 강조한 바 있는 인간해방이 실제 저항운동으로 등장하게 된 셈이었다. 나아가 19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민주적 제권리가 제한되고 정치범이 양산되자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KNCC 인권위원회, 엠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인권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도 이때였다. 이 시기에는 노동 문제조차 인권 차원에서 이해되었는데,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모든 활동을 인권운동으로 총괄할 정도였다.

휴머니즘에 근거한 인권운동은 애초 미국의 강력한 영향하에 시작되었다. 한국의 최초의 인권단체는 1947년 5월 22일 결성된 조선인권옹호연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인권옹호연맹의 조선 지부격으로 설립되었다.⁹⁰⁾ 국제

90) 1947년 5월 22일 조선인권옹호연맹 결성식에는 대법원장, 사법부장, 검찰총장 등 고위층을 위시해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대법원에서 개최되었다. 위원장은 이흥중, 서기장은 조평재, 위원은 정구영, 이범승, 김동석이 선출되었다. 인권옹호연맹은 결성과 함께 미국 대표인 볼드윈과 만났는가 하면 국제연합과 연결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경향신문』, 1947. 5. 25; 『동아일보』, 1947. 6. 15.

인권옹호연맹은 1942년 5월 7일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의 법률고문인 로저 볼드윈(Roger Nash Baldwin)과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미국인권옹호연맹과 유럽인권옹호연맹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구로 뉴욕에 본부를 두었다. 국제인권옹호연맹은 미국이 주도했으며 대표 또한 미국인권옹호연맹 대표인 볼드윈이었다. 볼드윈은 1947년 5월 10일 한국을 방문하여 국제인권옹호연맹이 정치적 의도가 없는 인권기구임을 강조했다.⁹¹⁾ 볼드윈의 방한 직후에 조선인권옹호연맹이 결성된 것은 미국의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조직이 1953년에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으로 계승된다고 보인다.

이외에 법무부에 인권옹호과가 만들어지고 검찰청에는 인권상담소가 개설되기도 하는 등 1950~1960년대의 인권운동은 주로 관변단체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반공 이데올로기와 접합된 휴머니즘이 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권 문제 또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셈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틀어 인권의 날 행사에서 변함없이 강조된 것은 반공과 북한정권에 대한 경고였다. 인권의 옹호는 공산 독재정치를 반대하여 싸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인식이 일관되었다.⁹²⁾ 당시 국가와 인권옹호연맹 등의 활동은 인권개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1961년에는 박한상의 주도로 한국인권옹호협회가 설립되었는데, 파주 나무꾼 피살사건 등 다수의 인권활동을 전개하여 관변단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인권개념의 확산에 기여했다. 이에 대중들은 인권이라는 가치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일컫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든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 간의 문제가 되었든, 다른 이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⁹³⁾ 1970년대 인권운동의 성장은 이러한 역사적

91) 이정은, 2008, 「해방후 인권 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연구, 1945년-1970년대 초」,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54쪽.

92) 이정은, 2008, 위의 글, 139쪽.

93) 이정은, 2008, 위의 글, 185쪽.

배경을 무시하고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⁹⁴⁾

초기 인권개념의 확산과 저항담론화 과정에서 보수 야당 및 자유주의적 언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와 정비례하여 야당의 정치투쟁이 강화되었고 그 대변 역할을 하던 언론에서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게 취급되기 시작했다. 1952년 12월 11일 『동아일보』는 「인권을 존중하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의 서두는 “인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공산도배”라는 규정으로 시작했다. 이는 정권의 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자 보수 야당의 정치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사설이 근거로 삼는 인권의 권위는 유엔으로부터 구해졌다. “인류의 궁극적 이념인 자유와 평화와 권리를 이 지구상에 구현시키려는 국제연합이 특히 인권헌장만을 선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포한 날을 인권기념일로 정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권의 세계사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권을 부정하는 공산도배와 싸우고 있는 정부가 만약에 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함부로 일삼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이것이 용인될 여지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부정하는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공산도배의 권리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의 권리와 동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산도배가 아닌 국민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집권자의 정적인 경우 그들의 권리가 유린되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 우리의 불행은 물론 공산도배의 침략에 기인한 것이지만 민주주의자로 자칭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적 인권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불행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면 至幸일 것이다.

94) 1973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도시산업선교회는 한·미·일 3국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① 기업가의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②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며,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법 철폐, ④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등이었다. 이정은, 2008, 앞의 글, 208쪽.

인용문은 인권의 가치가 반공에서 반독재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엔에 의해 그 권위가 확인된 인권과 휴머니즘에 근거해 정치적 저항을 시도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전략처럼 보였을 것이다. 야당 성향의 정일형 또한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신성한 조정권”으로 부르며 유엔의 권고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⁹⁵⁾ 1950년대 중반 『동아일보』는 8년 간의 헌법정치가 “위정자와 권력 행정기관은 인권을 선언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를 마련한 헌법과 법률을 줄곧 위반해왔고 무시”해온 과정이었다고 단언했다.⁹⁶⁾ 1958년 국보법 파동 국면에서도 야당 성향의 언론들은 인권과 휴머니즘의 맥락에서 정권을 비판했다.⁹⁷⁾

1960년대에도 인권에 근거한 권력비판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동아일보』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투쟁을 통해서 전취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상호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관권으로부터 각자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만약 관권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이를 배격시정하도록 할 각오”를 주문했다.⁹⁸⁾ 1965년에는 작가 남정현의 「분지」가 필화에 휘말리게 되는데, 한 시인은 “비인간적인 미군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휴머니즘의 옹호”라는 맥락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⁹⁹⁾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휴머니즘의 가치를 통해 중화시키면서 비판과 저항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권개념이 확산되고 저항담론화하면서 식도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사가 나타나기도 했다.¹⁰⁰⁾

95) 정일형, 1952, 앞의 책, 13쪽.

96) 「제8회 인권의 날에 기한다」, 『동아일보』, 1956. 12. 10.

97) 「신보안법안의 철회로서 인권옹호를 실천하라(사설)」, 『경향신문』, 1958. 12. 7; 「인권옹호가 구두선에 그치지 말라(사설)」, 『동아일보』, 1958. 12. 9.

98) 「인권옹호 주간을 맞이하여」, 『동아일보』, 1964. 12. 8.

99) 김재원, 「정치적 현실과 문학적 현실」, 『동아일보』, 1965. 7. 15.

100) 『경향신문』은 「인권에 귀천 있을 수 없다」(1965. 10. 30)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식도 학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인권의 신장을 촉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0년대가 되면 휴머니즘이 그리 낯설지 않은 개념이자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미 1959년에 김봉구는 “서부활극 영화의 예고에도 흐뭇한 휴머니즘의 향기 높은”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여 “휴머니즘은 또 하나의 낯익은 어휘로 퍼지고 있다”고 하였다.¹⁰¹⁾ 특히 1960년대 들어서면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휴머니즘적 가치가 기본 내용으로 교육되기 시작했다. 1965년 문교부가 간행한 『고등 도덕』 3권을 보면, 1. 인간의 본성과 도덕, 2. 인권의 존중, 3. 자유의 실현, 4. 양심, 5. 인격의 수양, 6. 인생관의 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휴머니즘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장의 5절은 ‘인간의 애정과 인도주의’라는 제목을 붙여 휴머니즘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엔세계인권선언의 성립과정은 물론 선언 내용을 전제하여 집중 교육하고자 하였다.¹⁰²⁾

내용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을 모두 간직한 이중적 존재로 규정하고 도덕적 수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볼 때에는 고상하다고 하고, 정념적 존재로 볼 때에는 비열하다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간은 또한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것이다”와 같은 규정이 그것이다.¹⁰³⁾ 이는 휴머니즘론을 전개한 많은 논자들의 주장과 거의 유사한 인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주의 항목에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며, 벗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일을 짓혀 놓고서, 근대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다음 “인간애, 우애, 민족애를 인간성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근대 이래로 humanity라는 말은 실상 인간애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었고, 여기서 인도주의(humanitarianism)가 발전하였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상계』 지면에 소개된 휴머니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주의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합치하는 점이 있다”

101) 김봉구, 1959, 「인간적인 것 - 문학과 휴머니즘」, 『사상계』 12월호, 122쪽.

102) 문교부, 1965, 『고등 도덕』 3.

103) 문교부, 1965, 위의 책, 3~4쪽.

고 하여 기독교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⁰⁴⁾

요컨대 1960년대에 휴머니즘과 인권은 지식인 사회와 언론은 물론이고 공식 교육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인다. 학교 교육에서 다룬다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였기에 휴머니즘에 근거한 저항운동의 정당성도 더욱더 강화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인권운동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 의미가 이해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휴머니즘과 인권의 가치가 확장되고 저항담론의 유력한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지배체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자유와 인권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헌법과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아주 천부의 절대 신성불가침으로서, 헌법이나 법을 가지고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¹⁰⁵⁾

연설문은 인권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연설이 이루어진 것은 1975년이었는데, 유신체제 성립 이후 침체에 빠졌던 민주화운동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 시점이었다. 즉 1974년 민청학련사건과 긴급조치 제9호 선포는 그만큼 반유신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된 상황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신체제가 인권과 자유의 상대성과 실정법 준수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휴머니즘에 근거한 저항운동의 압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보인다.

휴머니즘이 저항담론으로 기능하게 된 주요한 배경 중의 하나가 곧 냉전체

104) 문교부, 1965, 앞의 책, 24~26쪽. 이는 1970년대 기독교 계통의 인권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과 관련해 일정한 시사를 준다고 보인다.

105) 「연두 기자회견(1975. 1. 14)」, 『연설문집』 5, 379쪽.

제와 반공 이데올로기였다. 극단적인 반공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관철되면서 저항담론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극히 제한되었다. 따라서 냉전체제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휴머니즘이 저항담론으로 이용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었다. 즉 반공을 견지하면서 저항운동을 정당화하는 데 보편 이데올로기화된 휴머니즘이 적절했던 것이다. 요컨대, 냉전 효과로 인해 휴머니즘이 사회적 모순을 과잉 대표하게 된 셈이었다.

IV. 맺음말

휴머니즘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에 기초한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하에서도 유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기에 휴머니즘은 보편적 이데올로기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휴머니즘은 불가피하게 인간의 상대화를 수반함으로써만 작동할 수 있다. 즉 비인간적인 것, 휴머니즘에 반하는 것들을 재현함으로써 휴머니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였기에 인간은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존재로 드러날 뿐이다. 요컨대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배반을 통해서만 현존할 수 있게 된다.

무차별적인 보편주의로서 휴머니즘이 현실에서 온전하게 구현될 수 없을 것임은 선형적으로 자명해 보인다. 휴머니즘은 현실의 균열과 모순, 적대와 갈등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보편의 세계는 오직 이데올로기적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이는 휴머니즘이 여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침식·삼투·오염된 혼종적 담론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보편의 세계는 모든 소가 까맣게 보이는 무차별의 암흑일 수 있기 때문에 인지 불가능의 영역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휴머니즘은 여타 이데올로기들과의 혼종 속에서만 인지 가능하고 현존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서 2차 이데올로기에 의해 침윤된 휴머니즘의 대표적 사례를 인종주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인종주의는 휴머니즘의 대극 이데올로기라고 할 정도로 전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머니즘이 인종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의문의 대상이다. 한국의 반공주의 또한 인종주의적 전략을 접합시켰다고 보인다.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된다’는 언설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 공산주의가 단지 개인의 사상의 문제로만 여겨졌다면 씨를 말린다고 하는 생물학적 단종의 언사는 불필요해진다. 그러나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상으로 국한되지 않았고 가족, 친인척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좌제가 작동했다. 연좌제는 제도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씨를 말린다’는 언설과 결합되어 인종주의적 비인간화와 학살의 정당화에 기여했다. 결국 보편적 인간은 존립할 수 없고 휴머니즘은 특수한 이데올로기로만 나타난다.

보편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휴머니즘은 단단하게 통합된 것이 아니라 슬한 틈으로 균열된 채 위기상태로만 현존할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휴머니즘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만 자신의 현존을 증명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보편적 인간의 위기가 인간의 보편적 위기는 아니었는데, 그것은 항상 특수한 종류의 인간의 희생을 통해 특수한 인간의 위기로만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보편적 인간의 학살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다. 모든 학살은 특수한 인간에 대해서만 저질러졌다. 학살 대상을 비인간화하는 원인과 목적, 학살의 전략과 담론, 기술과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살은 인간 일반을 향한 것일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확인가능한 것은 휴머니즘이 학살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학살을 막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휴머니즘은 비인간적인 것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학살의 정당화에 일조할 수도 있었다. 결국 문제는 많은 논자들이 강조했듯이 보편적 휴머니즘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세와 국면 속에서 구성되고 기능하는 특수한 휴머니즘이 문제가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도 냉전체제라는 특수한 정세 속에서 문제가 된 휴머니즘이다.

냉전체제하에서 한국의 휴머니즘 역시 위기와 균열의 틈을 노정했는데, 그 갈라진 틈새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는 물론이고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발전주

의와 과학주의가 흘러넘쳤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식민주의 맥락에서 휴머니즘을 분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예컨대 195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슈바이처를 다루는 문제가 있다. 슈바이처는 간디와 함께 20세기의 성자로 불리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휴머니즘과 자기희생의 행적은 수많은 한국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보인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지면에 보도되었고 주요 저서가 번역되었다.

슈바이처의 아프리카 등 식민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국주의 서구가 아니라 휴머니즘의 서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즉 서구는 물질문명과 군사적·경제적 위력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과 같은 인간적 가치에 있어서도 권위와 우월함을 보여준 셈이었다. 『사상계』 지면에 나타난 휴머니즘 인식 역시 근대 서구를 원본으로 한 것이었다. 결국 휴머니즘은 근대 서구가 구상해 놓은 인간적인 가치와 행위, 도덕적 정언명령을 반복하는 것이어야 했다.

물론 한국의 휴머니즘이 서구의 그것을 단순 반복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반공주의적 휴머니즘은 공산당의 비인간화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보인다. 빨갱이라는 독특한 반공주의적 용어는 절멸 대상으로서의 악마성을 상징했다. 거의 무제한적 폭력의 대상이 된 빨갱이는 담론적 비인간화와 물리적 폭력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절멸되어야 했다.

한편 공산당을 빨갱이와 같은 비인간적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일정한 혼란과 동요를 수반하기도 했다. 피아골 논쟁은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반공이 자명한 전략이 아니라 모순과 균열 속에서 유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반공주의는 빨갱이를 끝까지 비인간적 존재로 봉합하는 데 좌절하게 된다. 사살된 적병이거나 학살된 공산당의 신체는 결국 생물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¹⁰⁶⁾

냉전은 반공과 함께 근대화와 발전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배경을 이루기도 했다.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휴머니즘 역시 경제적 맥락에서 재조

106) 신형기, 2015,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 삼인, 182~183쪽.

명되었다. 인간은 경제 합리성으로 무장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거대한 생산력을 건설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곧 이성적 존재에서 구해졌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지능검사의 제도화였다. 196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를 시발로 각급 학교에서 지능검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인간의 능력을 지능으로 환원하고 그것을 수치화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계량적 파악이 일반화되었다.

지능으로 환원된 인간은 곧 자기관리의 주체여야 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자기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주체적 노력으로 달성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지능이 주어진 생물학적 조건이라면 근면·성실·노력과 같은 윤리적 덕목은 지능을 계발하고 다듬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는 가치들로 여겨졌다. 휴머니즘의 진면목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다듬는 인간 행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었다. 국가가 요구하는 산업전사는 곧 자기관리의 전사여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되어야 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물질문명과 기계화에 짓눌린 인간해방의 문제설정을 제기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성을 말살한다는 설명 방식은 휴머니즘의 이중적 역할을 잘 보여주었다. 문명을 만든 것도 휴머니즘이었지만 그 모순의 치유 역시 휴머니즘에서 구해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감옥을 스스로 거두어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인간은 과학적 존재로부터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야 했다.

휴머니즘이 윤리적 주체의 구성과 관련되면서 저항담론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윤리적 수준에서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 등 비인간화 현상을 비판하는 언설들은 그 자체로 저항담론으로 보기는 힘들었다.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간성을 고양시키자는 주장과 캠페인은 휴머니즘의 보수적 해석을 강화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휴머니즘의 현실 비판 효과는 저항담론으로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전태일 분신사건에서 등장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휴머니즘이 어떻게 저항담론으로 전화될 수 있었는가를 웅변해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인권의 정치’가 확립되었고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은 그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던 냉전체제 시기 한국에서 휴머니즘과 인권은 세계사적 보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의 특수성을 내세워 민주주의·자유·인권과 같은 가치들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등장하게 된 것도 결국 휴머니즘의 보편적 압력에 대한 반응이었다. 냉전과 반공이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제시된 조건하에서 저항운동의 담론적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유엔의 권위에 기댄 휴머니즘이 반공주의를 넘어 보편적 가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저항운동의 흔치 않은 담론 자원을 제공하게 된 셈이었다.

휴머니즘이 강렬한 사회는 역설적으로 지극히 비인간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인간화의 강도에 정비례해서 인간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머니즘은 일종의 비극의 이데올로기다. 휴머니즘이 불필요한 역사적 상황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초역사적 휴머니즘을 알지 못한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 또는 스스로 만들어 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과 반발, 순응과 저항을 반복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차이의 반복'으로 만드는 것일 지도 모른다. 차이의 반복만이 현실과 역사를 갱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신문

- 『경향신문』.
『동아일보』.

도서

- 공보처, 1952,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제2집.
국회도서관, 1971,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사이밍턴 위원회 청문록.
권현익 지음, 이한중 옮김, 2013,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김동춘·기외르기 스텔 외, 2015,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선인.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갈무리.
대통령비서실, 1973,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
務台理作, 편집부 역, 1982, 『현대의 휴머니즘』, 풀빛.
문교부, 1965, 『고등 도덕』 3.
신혜영, 1906, 『윤리학 교과서』 권3, 4, 보성중학교.
신형기, 2015,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 삼인.
안용준, 1952, 『사랑의 원자탄』, 고려출판사.
유진오 외, 1950, 『고난의 90일』, 수도문화사.
이은복, 1968, 『인간발견』, 한국생산성본부.
장세진, 2012,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정일형, 1952, 『유엔의 성립과 업적』, 국제연합한국협회.
W. W. 로스토우, 이상구 역, 1960, 『반공산당선언 - 경제성장의 제단계』, 진명문화사.

논문 및 잡지

- 구장률, 2001, 「휴머니즘론의 사적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 국문과 석사논문.
김동립, 1959, 「대중관리」, 『사상계』 12월호.
김봉구, 1959, 「인간적인 것 - 문학과 휴머니즘」, 『사상계』 12월호.
「내일을 말하는 좌담회」, 『사상계』 1957년 6월호.
朴同玄, 1964, 「科學에의 길과 人間에의 길: 現代科學과 휴머니즘의 危機」, 『世代』

3월호.

- 송충기, 2005,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 청산」, 『역사교육』 93.
- 안병욱, 1955, 「휴머니즘(현대사상강좌 ②)」, 『사상계』 11월호.
- 안병욱, 1957, 「사회기구와 휴머니즘」, 『사상계』 10월호.
- 안병욱, 1959, 「휴머니즘의 계보(특집 '휴머니즘론')」, 『사상계』 12월호.
- 안병욱, 1967, 「휴머니즘의 아포리아」, 『사상계』 3월호.
- 이장희, 2009, 「도쿄 국제 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 이정은, 2008, 「해방후 인권 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연구, 1945년 - 1970년대 초」,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 임종명, 2005,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 2.
- 임종명, 2006, 「여순 '반란'의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 「콜론보고서」, 『사상계』 1960년 1월호.
- 홍재범, 2001, 「1930년대 휴머니즘론 연구(1)」, 『한국현대문학연구』 10.
- 신문 기사
-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 9. 15.
- 김재원, 「정치적 현실과 문학적 현실」, 『동아일보』, 1965. 7. 15.
- 김준철, 「종군수기, 철의 삼각지대 3」, 『동아일보』, 1951. 8. 21.
- 박이문, 「휴머니즘」, 『경향신문』, 1958. 11. 6.
- 박종홍, 「하이텍가와 현대사상의 전환」, 『동아일보』, 1961. 5. 9.
- 박치우, 「국제 작가대회의 교훈」 4, 『동아일보』, 1936. 6. 2.
- 백철, 「인간탐구의 도정」 2, 『동아일보』, 1934. 5. 25.
- 신일철, 「현대철학과 종교의 방향」, 『동아일보』, 1960. 10. 5.
- 이종진, 「과학에 이해를 가져라」, 『동아일보』, 1960. 11. 16.
- 임궁재, 「선전기치와 영화 예술성」, 『동아일보』, 1955. 8. 12.
- 임화, 「복고현상의 재흥」 1, 『동아일보』, 1937. 7. 15.
- 최재희, 「인권선언 13주 - 자유, 권리, 평등」, 『동아일보』, 1961. 12. 10.
- 최홍조, 「외곽에서 본 그 이면, 개성 정전회담」, 『동아일보』, 1951. 7. 25.

영문자료

David E. Nye, 1994, *American Technological Sublime*, MIT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 초록]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황병주

20세기 중반 한국의 냉전과 열전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시대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비인간화가 난무했던 냉전체제하에서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휴머니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체제를 주도하게 된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휴머니즘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대외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해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됨으로써 휴머니즘과 인권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 휴머니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지만 실상 그 내용은 상당히 빈약하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인간 본성을 둘러싼 논란만큼이나 휴머니즘 역시 다양한 논의가 열려 있다고 보인다. 이는 곧 휴머니즘이 여타 이데올로기나 이념체제와 결합하여 실천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니즘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과 정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휴머니즘은 조건에 따른 지배담론이자 저항담론이기도 했다.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휴머니즘은 지배의 수단이 되기도 했고 저항의 무기로 기능하기도 했다.

냉전 시기 휴머니즘의 역사적 구성과 변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곧 현대 한국사회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왔던 과정을 되돌아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의미와 인간적인 것과 같은 추상적이고 본질론적인 가치가 어떻게 국가적 수준

에서 정치와 통치의 매개가 되었고 또 개인의 구체적 일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능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화와 비인간화가 중첩된 냉전의 역사 이해가 더 한층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냉전, 휴머니즘, 반공주의, 인간화, 비인간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Inflow and Diffusion of Humanism
in the Cold War Period

Hwang Byoungjoo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history of humanism of Korea in the Cold War period. The Cold War and the hot war made inhumane and terrible the situation in Korea in the mid - twentieth century. Paradoxically, Korean society began to experience humanism during the Cold War that was dramatically inhumane.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which held hegemony in the world system, intended to hold fast to its views of the world while putting forward universal values and norms such as democracy, human rights, and humanism.

Although humanism was diffused widely in modern times, it is often thought that its contents are very poor and vague. As if the nature of human being is controversial, it is seen that humanism is open to various theori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humanism produces its practical effects intermingling with other ideologies and theorie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humanism through analyzing its historical context and situation. Thus, it is not only a ruling discourse but a resistant one under these conditions. The problem is how to constitute the humane and the inhumane, and humanism is defined as the ruling discourse and vice versa, accordingly.

To analyze the history of humanism is to reflect the self - form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Universal and essentialist values such as the meaning of the human being and the humane have become the intermediation of politics and governance in a dimension of the state, and have functioned as an element to compose everyday life. The more we can realize the history of humanism, the more we are able to appreciate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verdetermined with humanization and dehumanization.

Keywords

Cold War, humanism, anti - communism, humanization, dehumaniz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이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족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노기식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장

● 편집이사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안병직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충수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운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2호(2016.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초판 1쇄 인쇄 2016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6년 6월 30일

펴낸이 김호섭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27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